

제 출 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본 보고서를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모델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2월
한국화랑협회
회장 황 달 성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모델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Ⅰ 참여 연구원

Ⅰ 책임연구원

기혜경 홍익대학교 교수

Ⅰ 책임자문

김진화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조은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Ⅰ 연구원

이윤진 성균관대학교 강사

정현경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국장

Ⅰ 보조연구원

김주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이신혜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주임

조은정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과장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010
			2. 연구목적	0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014
			2. 연구방법	015
			3. 연구 추진체계	018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1. 주요 용어 정의	020
			2. 국내·외 감정기관 정리	021
제2장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제1절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	025
			2.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세미나, 토론회	030
		제2절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1.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분야 정책·제도	033
			2. 국내 주요 기관 시가감정 현황	039
			3. 국내 시가감정 현황 관련 소결	057
		제3절 주요 국가별 미술품 감정 현황	1. 국가별 시가감정 관련 정책 및 시스템	060
			2. 국가별 시가감정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관련 소결	091
		제4절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교육 현황	1. 국내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093
			2. 국내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관련 소결	115
		제5절 국외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1. 국외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117
			2. 시가감정교육 수료 후 현장과의 연계시스템 분석	151
			3. 국외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관련 소결	156

제3장	미술품 시가감정 역량분석 및 개발	제1절 직무역량의 정의 및 기반교육	1. 직무역량의 정의 및 개념 159 2. 직무역량 기반 교육의 중요성 및 현황 161
		제2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분석	1. NCS의 개념 및 현황 163 2. NCS 기반 직무역량 검토 168 3. 시가감정 직무역량 선행연구 180
		제3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 과정	1.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 절차 182 2.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 개요 184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186 4. 전문가 자문 개요 192
		제4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도출	1.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모형 도출 193 2. 시가감정 전문인력 주요 역량 도출 224 3. 시가감정 전문인력 주요 역량 상대적 중요도 도출 228
제4장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모델 설계	제1절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1. 시가감정의 중요성 대두와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231 2. 교육과정의 개발방향 232 3. 교육과정의 체계 232 4. 역량기반 교육과정 상세 239
		제2절 교육과정의 실행방안	1. 교육과정의 운영 243 2. 페르소나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245 3. 교육과정 핵심 성공 요인으로서의 강사진 운영 방안 250
		제3절 교육과정의 전환 및 협력적 연계 방안	1.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교육과정의 전환 253 2. 시가감정사 양성 교육과정의 기대효과 및 의의 253

제5장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제1절 시가감정 인력양성 교육 방향 및 중장기 계획	1.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의 비전 및 목표	257	
			2. 추진전략	258	
			3. 단계별 목표 및 전략과제	261	
		제2절 기대효과 및 정책적 제언	1. 기대효과	267	
			2. 정책적 제언	267	
부록		부록1.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자문의견 및 시사점		271	
		부록2. 델파이 조사(1차) 설문지		291	
		부록3. 델파이 조사(2차) 설문지		303	
		부록4. 교육과정별 교과목 중요도 확인 설문지		310	
참고문헌					312

표목차

제 1 장. 연구개요

- 【표 1-1】 2018~2022 년 작품판매금액 및 판매 작품 수
【표 1-2】 주요 연구 방법

제 2 장.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 【표 2-1】 국가별 미술 및 감정 정책제도 연구내용 정리
【표 2-2】 미술품 감정 관련 선행연구 정리
【표 2-3】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표 2-4】 미술진흥법 법률 조항 일부
【표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표 2-6】 미술품 시가감정의 목적에 따른 수요
【표 2-7】 (사)한국화랑협회의 시가감정 프로세스
【표 2-8】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시가감정 프로세스
【표 2-9】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감정 순서
【표 2-10】 서울옥션 시가감정 프로세스
【표 2-11】 케이옥션 경매 출품을 위한 감정 진행 과정
【표 2-12】 케이옥션 자체 감정 및 외부 감정 과정
【표 2-13】 국내 미술품 감정업 관련 기관 및 단체
【표 2-14】 미술품 시가감정의 이원화 주체간 비교
【표 2-15】 미국 국제청과 감정평가재단(TAF)의 미술품 시가감정 서비스
【표 2-16】 2024 년판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의 전체 구성과 내용
【표 2-17】 미국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의 핵심 규칙
【표 2-18】 미국 감정평가재단(TAF)에서 규정한 개인 자산 감정사 자격요건
【표 2-19】 미국 주요 미술품 시가감정 기관과 특징
【표 2-20】 프랑스 경매사와 감정사
【표 2-21】 프랑스 사법경매인사 주요 업무
【표 2-22】 프랑스 주요 사법경매사 기관 및 단체
【표 2-23】 영국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 감정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표 2-24】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 미술품·골동품 가치평가사의 경로별 역량 요구사항
【표 2-25】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 미술품·골동품 가치평가사의 역할 가이드
【표 2-26】 영국 고미술딜러협회(BADA) 감정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표 2-27】 영국 미술·고미술딜러협회(LAPADA) 감정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표 2-28】 영국 미술경매사·가치평가사협회(SOFAA) 감정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표 2-29】 일본 주요 감정기관
【표 2-30】 대만화랑협회 미술품 진위 및 시가감정 기준
【표 2-31】 대만화랑협회 미술품 진위 및 시가감정 기준: 시가감정
【표 2-32】 미술품 진위 및 시가감정 기준: 진위감정
【표 2-33】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가감정 인력양성 교육 시스템
【표 2-34】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감정 아카데미 주요 내용
【표 2-35】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기관 협력 감정 프로그램
【표 2-36】 한국화랑협회 주요 시가감정 아카데미
【표 2-37】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
【표 2-38】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 미술품 조사분석사 5급
【표 2-39】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 미술품 조사분석사 4급
【표 2-40】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운영 교육 프로그램
【표 2-41】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운영 교육프로그램

- 【표 2-42】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운영 교육프로그램 109
010 【표 2-43】 국내 박물관·미술관 운영 감정 교육 프로그램 110
017 【표 2-44】 국민대 아트로 과정 감정 관련 강의 111
【표 2-45】 국민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자원 시가감정 프로그램 111
【표 2-46】 명지대 예술품감정학과 프로그램(2012 년도 기준) 112
【표 2-47】 성신여대 2012 년 수업 과목 113
027 【표 2-48】 2024-2025 년도 미국감정가협회(AAA) CASP 교육프로그램 개요 119
028 【표 2-49】 미국감정가협회(AAA) CASP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상세 내용 120
030 【표 2-50】 미국감정가협회(AAA) 감정 과정 등록 자격 122
036 【표 2-51】 미국감정가협회(AAA) 심화수업 커리큘럼 123
038 【표 2-52】 미국감정사연합(ASA) 동산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 중 미술품 관련 항목 123
040 【표 2-53】 미국감정사연합(ASA)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 심화교육 과목 124
041 【표 2-54】 미국 미술품 감정 교육관련 주요 협회의 프로그램 125
043 【표 2-55】 미국 주요 대학의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프로그램 내용 126
044 【표 2-56】 공공기관 감정인력 양성 교육과정 127
046 【표 2-57】 프랑스 전국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협회 연수원 (CNES) 심화수업 과목 129
048 【표 2-58】 프랑스 루브르학교 (L'École du Louvre) 아트 마켓 Marché de L'Art 석사과정 커리큘럼 131
048 【표 2-59】 프랑스 미술품 감정 관련 세미나 「MDA03 가치 평가와 기준」 132
050 【표 2-60】 프랑스 파리 1 대학 석사과정 Master 2 professionnel Marché de l'art 커리큘럼 133
059 【표 2-61】 프랑스 파리 2 대학 팜테옹-아사스 대학교 법학 석사과정 2년차 예술시장 및 문화재 법 전공 커리큘럼 135
061 【표 2-62】 프랑스 예술고등교육학교(IESA) 드루오 포메이션(Drouot Formation) 커리큘럼 137
064 【표 2-63】 프랑스 예술고등교육학교(IESA) 아트 마켓 컨설턴트 전문 과정 커리큘럼 138
066 【표 2-64】 영국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의 교육 프로그램 139
067 【표 2-65】 영국의 기관 유형별 감정인력 양성 교육 현황 140
068 【표 2-66】 영국 킹스톤대학교 미술경영 과정 세부내용 142
070 【표 2-67】 소더비 인스티튜트 런던 석사 과정 학기별 운영체계 예시 143
072 【표 2-68】 소더비 인스티튜트 런던 석사 과정 선택과목 소개 (감정 관련) 144
073 【표 2-69】 소더비 인스티튜트 뉴욕 석사 과정 학기별 운영체계 예시 144
077 【표 2-70】 소더비 인스티튜트 뉴욕 석사 과정 감정 관련 과목 소개 145
078 【표 2-71】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감정 관련 과목 소개 146
079 【표 2-72】 대만 미술품 감정 전문 국제 인력 과정 소개 149
080 【표 2-73】 국가별 감정 현황 비교 151
081 【표 2-74】 국내 민간단체의 교육과 현장연계 시스템 152
081 【표 2-75】 미국 시가감정 기관별 현장연계 시스템 153
083 【표 2-76】 프랑스의 교육과 현장 연계시스템 사례 154

제 3 장.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분석 및 개발

- 093 【표 3-1】 연구자별 역량의 정의 160
094 【표 3-2】 NCS 구성항목 및 내용 164
095 【표 3-3】 NCS 직무수준 8 단계 165
099 【표 3-4】 현행 NCS 상의 학예 직무 분류 체계(부분) 및 능력단위 169
102 【표 3-5】 현행 NCS 상의 학예 직무 분류 체계(부분) 및 능력단위 171
106 【표 3-6】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에 대한 NCS 정의 172
106 【표 3-7】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 의 능력단위 요소 172
107 【표 3-8】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 능력단위요소별(부분) 수행준거 및 구성요소 172
109 【표 3-9】 현행 NCS 상 부동산 감정평가 능력단위 정의, 수준 및 요소 178

【표 3-10】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	181
【표 3-11】 인터뷰 대상 목록	185
【표 3-12】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	186
【표 3-13】 1 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188
【표 3-1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측값 제외)	189
【표 3-15】 2 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190
【표 3-16】 AHP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예시	191
【표 3-1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측값 제외)	192
【표 3-18】 심층인터뷰 직무역량의 표현방식에 대한 전처리 결과	194
【표 3-19】 심층인터뷰를 통한 직무역량 추출	194
【표 3-20】 미국감정가협회(AAA)의 감정평가 과정	199
【표 3-21】 표준감정실무표준(USPAP)의 감정평가 과정	199
【표 3-22】 미술품 시가감정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 초안	200
【표 3-23】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모형 초안	201
【표 3-24】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 정의의 타당성(1 차 안)	206
【표 3-25】 직무 능력단위 단계에 대한 타당성(1 차 안)	207
【표 3-26】 직무 능력단위 단계에 대한 수정안	208
【표 3-27】 직무 능력단위 단계에 대한 타당성(2 차 안)	208
【표 3-28】 직무 능력단위 정의에 대한 타당성(1 차 안)	209
【표 3-29】 하위능력단위 요소의 타당성(1 차 안)	210
【표 3-30】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하위 능력단위 요소에 대한 수정안	211
【표 3-31】 하위능력단위 요소의 타당성(2 차 안)	211
【표 3-32】 능력수준의 수행준거(지식, 기술, 태도) 타당성(1 차안)	212
【표 3-33】 미술품 시가감정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에 대한 찬반 결과값	215
【표 3-34】 수강생 자격 요건 결과값	217
【표 3-35】 미술품 시가감정의 직무 및 능력단위의 정의	217
【표 3-36】 미술품 시가감정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 최종안	218
【표 3-37】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역량 최종안	219
【표 3-38】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주요 역량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225
【표 3-39】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주요 역량 및 세부 역량	227
【표 3-40】 AHP 신뢰도 분석 결과	228
【표 3-41】 주요 역량별 중요도 분석 결과	228

제 4 장.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모델 설계

【표 4-1】 교육단계별 최소 교육시수	233
【표 4-2】 교육단계 및 단계별 엔트리 단계 설정	235
【표 4-3】 주요역량의 교육과정에서 상대적 중요도	235
【표 4-4】 인력양성을 위한 교과목군과 교과목 예시	236
【표 4-5】 4 단계 교육 단계별 교과목의 중요도(4 점 이상 음영)	237
【표 4-6】 리커트척도 반영 단계별 교과목명 예시	238
【표 4-7】 역량별 양성과정 커리큘럼 체계	239
【표 4-8】 페르소나 프로파일 설정	247
【표 4-9】 페르소나별 집중교육 교과목군 예시	248
【표 4-10】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한 중급과정 예시	249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019
제2장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그림 2-1】	미국 감정평가재단 위원회 구조	063
【그림 2-2】	미국감정가협회(AAA) 시스템 및 교육내용	119
제3장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분석 및 개발	
【그림 3-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도	163
【그림 3-2】	NCS 능력단위 개념도	165
【그림 3-3】	NCS 학예직무 분류 체계도	171
【그림 3-4】	NCS 부동산 감정평가 직무 분류 체계도	177
【그림 3-5】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 절차	184
【그림 3-6】	능력단위 도출 순서	198
【그림 3-7】	주요역량 도출 방법의 예시	224
【그림 3-8】	미술품 시가감정 주요 역량별 교육과정의 중요도	229
제5장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그림 5-1】	중장기 발전방안 체계도	269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5
3. 연구 추진체계	18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및 감정기관 정리	20
1. 주요 용어 정의	20
2. 국내·외 감정기관 정리	2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미술품 시가감정 수요 증가에 따른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필요성 대두

- 미술시장 규모의 확대 및 미술품의 자산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미술시장의 거래 규모는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컬렉터의 숫자 및 다양성도 확장되는 추세임.
- 특히, 2022년도의 경우 작품 판매금액은 전년도 대비 17.7% 증가하였으나 판매 작품 수는 오히려 0.04% 감소함. 이는 과거에 비해 높은 가격의 작품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미술품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평가할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함.
- 과세, 담보 설정, 보험, 상속, 재산분할, 청산 등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가감정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며 다양해지고 있음.
- 2023년부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에 의거하여 미술품 물납제가 시행됨에 따라 미술품의 감정가액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미술품 시가감정사'(Art appraiser)를 미래에 유망한 신직업으로 선정 발표(관계부처합동, 2021)함.

【표1-1】 2018~2022년 작품판매금액 및 판매 작품 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작품판매금액 (백만원)	419,824	381,237	327,962	841,653	990,394
판매 작품 수 (점)	41,808	42,074	37,324	103,776	103,730

※ 출처: 2023 미술시장조사. p.43 재구성.

○ 「미술진흥법」 발효에 따른 미술산업의 새로운 전환기

- 「미술진흥법」 발효(2024. 07. 26)로 미술품 감정업을 미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산업에서 감정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미술진흥법의 규제 조항이 실효를 발휘하는 2026년까지 미술품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의 제도적 체계 마련 및 미술품 시가감정사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학문적 이해와 법적 지식,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유한 미술품 시가감정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미술품 시가감정의 문제점

- 현행 미술품 시가감정의 이원화 체계 :
 (1) 수요자의 필요에 의거, 미술계에서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시가감정
 (2) 자격증을 소지한 감정평가사가 진행하는 행정적, 법제적 측면의 시가감정

○ 현행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의 문제점

-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은 그동안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민간단체, 대학 등에서 간헐적으로 단기 감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옴.
- 이론과 실체가 결합된 중장기적 교육이 필요함에도 회계연도 단위의 단년도 사업으로 교육 개설 및 운영이 진행됨으로써 중장기 플랜을 통한 체계적 교육기회 제공이 어려움.
- 교육 수료 이후 현장과의 연계성 모색의 어려움으로 실무경험 축적이 곤란함.

2. 연구목적

○ 국내외 시가감정 현황 및 시가감정 인력 양성체계 연구

- 미술품에 대한 자산가치 인정 추세 및 미술품 물납제 실시로 전문적인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
- 전문적인 시가감정 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로서 국내외 감정 및 시가감정의 실태와 교육체계에 대한 현황 파악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직무역량 분석을 통한 실질적 교육과정 개발

- 국내외 시가감정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에 따른 단계별 직무모형 및 역량 도출
- 국내외 사례조사, 미술품 시가감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직무모형 및 역량(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인터뷰와 델파이 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
- 실제 현장에서 시가감정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와 사례를 기반으로 직무역량을 도출함으로써 이론적·관념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구체적인 교육과정을 개발

- 국가표준직무역량분석(NCS)에 근거한 역량 분석 및 개발로 추후 제도적 활용 가능성을 확보

○ 시가감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제언

- 분석된 직무역량 및 능력단위에 따라 필요한 교육체계 및 커리큘럼 설계
-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의 미술품 시가감정사를 육성하는 직업교육이기에 학교 교육과의 상충 지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 교육 이수 후, 현장과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하도록 실무·현장 교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단계별 설계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제공
- 해당 과정을 통해 양성된 감정 전문인력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 주기적인 재교육 과정을 통해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 및 제시

○ 상향식(Bottom-up)수립 설계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체감형 정책 제언

- 국내 미술 생태계의 상황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미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시가감정 인력양성 교육 실행계획과 추진 과정을 제안함으로써 연구의 실효성 제고 및 시사점 도출
- 시가감정은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이므로, 교육 이후 실질적인 현장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인력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언
- 감정업이 실질적인 미술 분야의 직업군이 되고, 미술 서비스업으로 산업화되기 위해 선결하여야 할 행정적,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제언
- 지속 가능한 시가감정 인력양성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비전, 목표, 추진과제를 제시
- 제반 인프라가 미비한 미술계 현상화를 감안하여 단계별 중장기적 로드맵과 그에 따른 시행 계획 수립 및 방향성 설정을 통해 실제적인 중장기 감정 인력 교육모델을 제공

○ 국내 시가감정 시스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

- 시가감정 인력 양성의 필요조건은 시가감정 인력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직접적임. 이에 시가감정분야가 미술 서비스업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언
- 감정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확대를 위한 필요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선결요건을 제시

- 미술진흥정책 및 감정 인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함으로써 향후 감정 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국내외 미술품 감정 및 시가감정 현황 분석

- 국내외 주요 기관의 시가감정 현황 및 관련 자료조사
-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을 구성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수행하며 관련 연구 및 연구 문헌 등을 검토
- 국내 시가감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 국내외 감정 관련자의 의견 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분석 및 개발

- 미술품 시가감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설정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직무역량 분석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미술품 시가감정사 역량 개발 및 중요도 확인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거한 역량 분석 및 도출

- 미술품 시가감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설정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체계를 참고하여 유사 사례조사 및 정리
- 국내 현황을 감안한 직무능력 및 역량을 도출하여 한국형 표준감정실무기준의 기초가 되는 가이드라인 제시
 - 국내와 국외 미술계 차이에 따른 국내 전문가의 직무능력 분석 및 파악
 - 국내 조사를 통해 정리된 능력 및 역량과 국외 각국 조사 분석을 통한 능력 및 역량 비교 분석
 - 국내 시가감정 현황 및 문제점 진단,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과 이에 기반한 델파이 조사법을 통해 종합 정리하여 최종적인 직무모형 및 역량을 제시

○ 시가감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국외 시가감정 인력양성 기관 및 시스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 시가감정 교육 현황과 비교
- 시가감정 역량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을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

- 앞서 도출된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역량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교육목표 및 단계별 교육체계, 세부 교과과정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들에 대한 시가감정사로의 직무교육으로, 교육생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따른 페르소나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역량단위를 모듈화하여 프로그램 설계
- 교육공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

○ 기타제언

- 현재 교육기관 및 기존 수강자의 특징 등을 감안한 감정교육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 미술품 시가감정 체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조언

2. 연구방법

○ 문헌 분석(Literature review)

- 국내외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시가감정 기관의 현황분석보고서, 관련 정책사업 설명자료 및 연구보고서,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 통계자료 및 문헌 자료 등에 대한 분석 수행

○ 사례 연구(Case study)

- 국내 주요 감정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사례분석
- 국외 주요 감정기관별 교육 시스템 사례조사 및 탐색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시가감정 인력양성 과정 사례분석

○ 전문가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및 자문회의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역량을 도출하고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시가감정 관련 현장 및 학계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 자문회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모델을 모색

- 인터뷰 방식은 기본적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대면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뷰 참여자의 요청 및 상황에 따라 서면 인터뷰 병행
- 인터뷰의 모든 내용은 연구진에 의해 면밀히 검토·분석
- 도출된 교육모델은 교육공학자의 자문을 통해 검토 및 연구의 질 담보
- 인터뷰 회차별 구성
 - ① 1차 인터뷰
 - 목적: 수요기관 대상 설문조사 등 국내 감정현황 파악 및 수요자 니즈 파악
 - 대상: 국내 시가감정 수요기관 4곳(국공립기관, 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 내용: 미술품 감정의 공급, 매개, 수요의 관점에서 각 분류별 주요 쟁점과 과제 도출
 - ② 2차 인터뷰
 - 목적: 구체적인 직무역량 연구, 국내 감정현황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 대상: 국내외 미술품 감정 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군 (20인)
 - 내용: 커리어패스 및 관련 경력
 -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의 관계 및 시가감정의 필요성
 - 현행 감정시스템의 문제점
 - 직무경험 기반 직무역량 요소 탐색
 - 직무역량 교육과정
 - 교육과 현장 및 실무연계 방안

○ 전문가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 및 계층화 분석(AHP)

- 앞서 진행한 문헌 연구 분석 결과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자문 결과를 토대로,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모델 수립을 위한 직무모형 및 주요 역량 도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회 실시함.
- 1차 델파이 조사는 감정위원, 경매회사 실무 전문가, 감정평가사, 연구자 등의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NCS를 기반으로 작성한 시가감정 직무역량안의 정의 및 내용의 타당성을 조사함.
-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5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직무역량 수정안에 대해 최종 검증하고, 미술품 시가감정의 주요 및 세부역량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역량별 중요도와 우선순위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
-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AHP)을 통해 역량별 중요도를 확인함.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설문조사 분석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계 및 역량 모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차 델파이 조사완료 후 FGI 방식으로 토론 진행.
- 전문가 FGI는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의 경력자 및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과정의 구조, 역량별 중요도, 교육시수 및 교육 단계,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실효성 등을 심층 분석함.
-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을 아우르기 위해, 전문가 FGI 이후 추가적으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기반한 설문조사로 교육 단계에 주요 역량과 교과목의 중요도를 확인함. 이를 통해 교육과정 설계 단계에서 각 교과목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단계별 교과목 편성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함.

【표1-2】 주요 연구 방법

인터뷰 차수	대상	목적	기간	방법
심층 인터뷰 (1차)	감정수요기관4곳 감정전문가2인	국내 감정현황 파악 및 수요자 니즈 확인	9월 15일 ~ 10월 20일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심층 인터뷰 (2차)	국내외 감정 및 관련전문가 20인	직무역량연구 및 국내 감정현황 파악 및 개선방향 도출	8월 12일 ~ 10월 11일	서면 및 대면 인터뷰
델파이 조사(1차)	국내외 감정 및 관련전문가 20인	직무역량심층연구 및 교육모델관련 연구	10월 18일 ~ 10월 30일	서면 조사(설문지)
델파이 조사(2차)	국내외 감정 및 관련전문가 5인	직무역량 체계와 능력단위의 적합성 및 중요도 연구	11월 11일 ~ 11월 14일	서면 조사(설문지)
전문가 FGI	국내외 감정 및 관련전문가 4인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 시수 연구	11월 15일	대면 논의

○ 페르소나 기법(Persona Tech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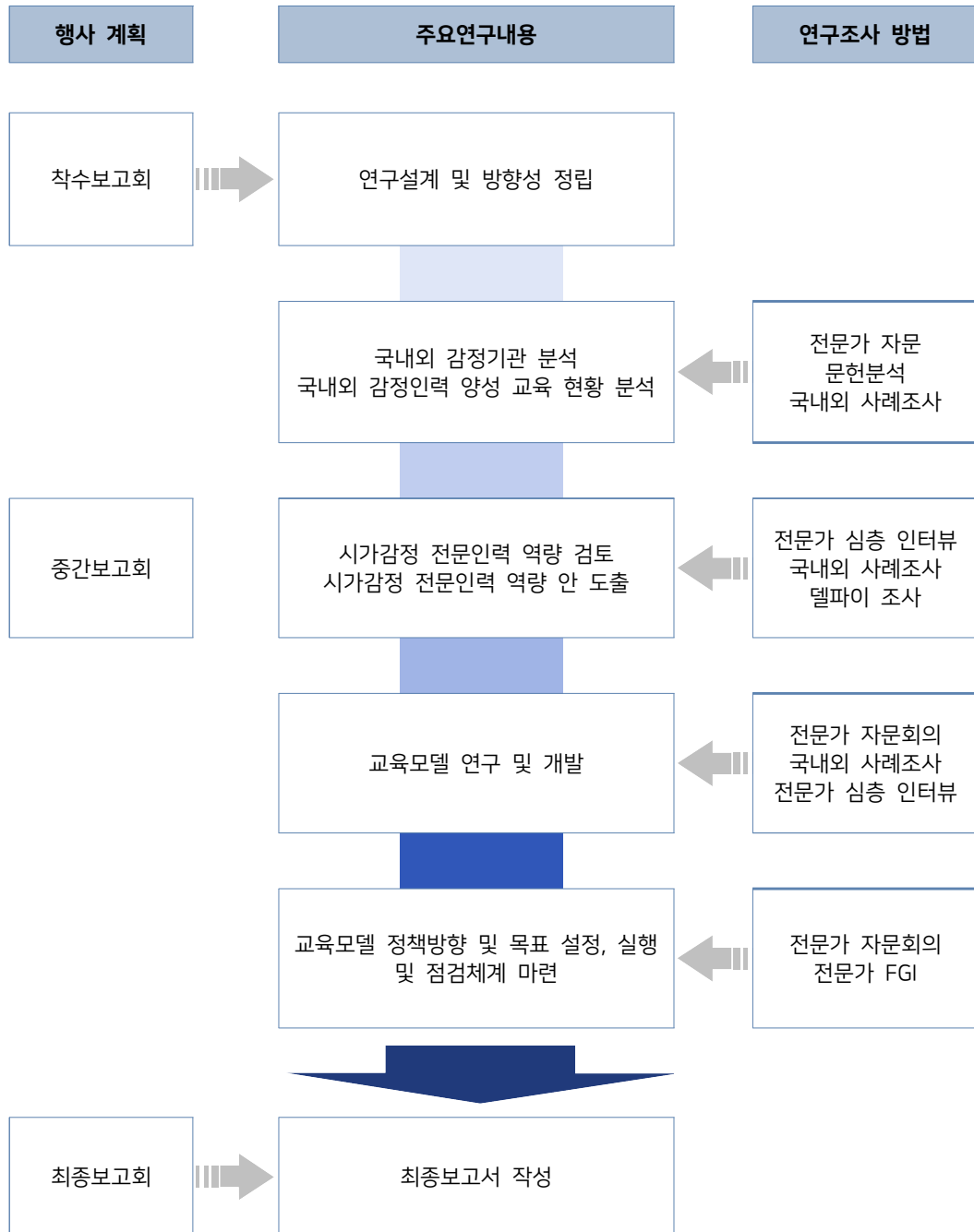
- 페르소나 기법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상적인 사용자나 고객을 가상의 인물로 설정하여, 그들의 목표, 동기, 행동양식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임. 이는 주로 마케팅, 경험 디자인 분야에서 사용되며, 최근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 페르소나 기법을 적용하여, 기존 교육

생들의 직업, 경력, 수강 동기 등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4가지 페르소나를 도출하였고, 각 페르소나가 필요한 역량을 구분하여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여 교육생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였음.

3. 연구 추진체계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양성 배경, 목적, 전문인 양성 목표 및 양성 수준 등의 지향점 도출
- 국내외 시가감정기관 분석 및 교육현황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역량안 도출
 - 현황조사 및 직무분석, 역량 정의에 기반한 분석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로드맵 구축
 - 현황조사 및 직무분석, 역량 정의에 기반한 참여 연구진의 분석, 연구 및 내외부 자문단 회의를 통한 교육모델 연구
 - 직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과과정 제시
- 교육모델 실행 및 점검체계 마련
 -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토론회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및 수정
- 연구수행절차는 다음의 【그림 1-1】 참고

【그림1-1】 연구수행절차



제3절 주요 용어 정의 및 감정기관 정리



1. 주요 용어 정의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진위감정 Authentication

- 미술 분야에서 진위감정은 작품의 진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용어로, 진위 판별에 중요한 요소는 작가의 시대적 양식, 형식 테크닉, 작품의 이력 등임.
- 진위감정(authentication)은 ①미술품과 작가(제작자)에 대한 전문적인 감식안(connoisseurship), ②전작도록(catalogue raisonne)을 포함한 전시 이력, 보수 및 복원 내력 소장 이력, 거래 내역, 시장 데이터 등의 조사 · 연구 · 분석, ③미술품의 제작 연대와 내용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materials analysis)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미술품의 진위여부와 작가(제작자)를 판별하는 것(김보름, 2024)

□ 시가감정 Appraisal

- 시가감정은 미국 감정평가재단(TAF)에 의하면, 대상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행위 또는 과정
- 국내에서는 시가감정(appraisal) 용어와 관련하여 시가감정, 감정평가, 가치평가, 가치감정 등을 혼용하고 있음. 가치란 미국 감정평가재단(TAF)에서 시장가치, 투자가치, 청산가치 등 경제적 측면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에 해당 자산이 가지는 사용자들 간의 화폐적인 거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시가감정이라 규정함.
- 시가감정은 미국에서는 Appraisal, 영국은 Valuation, 프랑스에서는 Estimations, 대만에서는 Appraisal, 일본에서는 査定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 과학적 분석 Materials analysis

- 과학적 분석(materials analysis)은 한때 과학적 감정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점차 감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정리, 이해되고 있음.
- 전문가의 안목감정 과정에서 의심이 되거나 증명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재료나 보존, 복원 상태 등 미술품의 물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김보름, 2024).
- 과학적 분석은 조사수행자(operator)의 숙련도를 바탕으로 하여 미술품 및 작가(제작

자)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는 전문가 의견이 결합되는 것으로서, 미술품 감정 과정에 활용되거나 위변조확인을 위한 조사·분석의 영역으로 간주함(김보름, 2024).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2015년부 공공기관 채용에 활용되는 직무능력표준으로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단위 중심의 지식, 기술, 태도,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표준화로 색인화한 것으로 직무능력별로 훈련시켜 해당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NCS 기반 중심의 현장형 인재양성개발로 유인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itons Framework, NQF)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를 일컬으며, 공정한 직무중심의 능력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내에서는 2019년 교육부 고시를 통해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를 도입함.

2. 국내·외 감정기관 정리

- 본 연구에서 언급된 국내·외 감정기관 및 관련 교육기관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함.

① 한국

-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 (사)고미술협회 한국고미술품 감정위원회
-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 (주)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해산)
- (주)서울옥션
- (주)케이옥션

② 미국

-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ASA) 미국감정사연합 (ASA)

- | | |
|---|----------------|
| • 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A) | 미국감정가협회 (AAA) |
| • International Society of Appraisers (ISA) | 국제감정사협회 (ISA) |
| • Private Art Dealers Association (PADA) | 개인딜러협회 (PADA) |
| • Appraisal Institute (AI) | 미국가치평가사협회 (AI) |
| • Appraisal Foundation (TAF) | 미국감정평가재단 (TAF) |
|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 국세청 (IRS) |
| • Appraisal Practices Board (APB) | 감정실행위원회 (APB) |
| • Appraiser Qualifications Board (AQB) | 감정사자격위원회 (AQB) |
| • Appraisal Standards Board (ASB) | 감정표준화위원회 (ASB) |
| • New York University | 뉴욕대학교 (NYU) |

③ 영국

- | | |
|--|-------------------------|
| •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 (RICS) |
| • Society of Fine Art Auctioneers and Valuers (SOFAA) | 미술경매사 · 가치평가사협회 (SOFAA) |
| • British Antique Dealers' Association (BADA) | 영국고미술딜러협회 (BADA) |
| • The Association of Art & Antiques Dealers (LAPADA) | 미술 · 고미술딜러협회 (LAPADA) |
| • International Art and Antiques Trade Association (CINOA) | 국제미술 · 고미술무역협회 (CINOA) |
| • Sotheby's Institute of Art | 소더비 인스티튜트 |
| • Christie's Education |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
| • Kingston University | 킹스턴대학교 |

④ 프랑스

- | | |
|--|----------------------------|
| • Le Conseil des maisons de vente (CMV) | 경매회사협의회 (CMV) |
| • Chambre nationale des commissaires (CNCPJ) | 전국사법경매사협의회 (CNCPJ) |
| • Syndicat Français des Experts Professionnels en Œuvres d'Art et Objets | 프랑스미술품 · 수집품전문감정가조합 (SFEP) |

de Collection (SFEP)	
• La Chambre Nationale des Experts Spécialisés en objets d'arts et de collection (CNES)	전국미술품 · 수집품 전문감정가협의회 (CNES)
• La Compagnie Nationale des Experts (CNE)	전국감정가협회 (CNE)
• La Fédération Nationale d'Experts Professionnels Spécialisés en Art (FNEPSA)	전국미술전문감정가연맹 (FNEPSA)
• Union Française des Experts en objets d'art (UFE)	프랑스예술품감정가연합 (UFE)
• La Confédération Européenne des Experts d'art (CEDEA)	유럽미술품 감정가연합 (CEDEA)

⑤ 대만

• 台灣藝術畫廊協會 (TAGA)	대만화랑협회 (TAGA)
• 台北藝術產經研究室 (TAERC)	타이베이예술경제연구센터 (TAERC)
• 國際鑑定師協會 (ISA)	국제감정사협회 (ISA)
• 臺灣藝術品真品鑑定委員會	대만 미술품진품감정위원회

⑥ 일본

• 東京美術俱樂部	동경미술구락부
• 日本洋画商協同組合	일본양화상협동조합
• 大阪美術俱樂部	오사카미술구락부
• 京都美術俱樂部	교토미술구락부
• 株式会社美研鑑定	미연감정
• 日本アート評価保存協会	일본아트평가보존협회
• 一般財団法人 東美鑑定評価機構	도미감정평가기구
• 日本古董學院	일본골동학원
• 頌古会	송고회

제2장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제1절 선행연구 분석.....	25
1. 선행연구.....	25
2.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세미나, 토론회.....	30
제2절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33
1.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분야 정책·제도.....	33
2. 국내 주요 기관 시가감정 현황.....	39
3. 국내 시가감정 현황 관련 소결.....	57
제3절 주요 국가별 미술품 감정 현황.....	60
1. 국가별 시가감정 관련 정책 및 시스템.....	60
2. 국가별 시가감정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관련 소결.....	91
제4절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교육 현황.....	93
1. 국내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93
2. 국내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관련 소결.....	115
제5절 국외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116
1. 국외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116
2. 시가감정교육 이수 후, 현장과의 연계시스템 분석.....	151
3. 국외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관련 소결.....	156

제1절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

(1) 미술품 감정 관련 선행연구

- 미술품 감정 진흥방안에 대해 최병식(2006)에 의해 선구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미술품 감정 현황에 관한 확인이 이루어짐.
- 미술 분야 감정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200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법제연구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됨.
- 「국내외 미술품 감정 관련 법제 연구 및 미술품 감정 인력의 윤리규정」(이재경, 2015)
 - 국내외 미술품 감정 관련 법제 연구 및 미술품 감정 인력의 윤리규정에 관한 세부 연구는 2015년 이재경에 의해 이루어짐. 해당 연구는 미국, 영국 및 프랑스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국내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됨. 미술품 감정 법제를 통하여 미술품에 대한 효율적인 감정 시스템을 제시하여 미술시장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함. 각국의 다양한 입법례 및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미술시장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법제, 정책을 도출(이재경, 2015).
- 「미술품 감정보고서 현황 분석 및 양식개발 연구 보고서」(김이순, 2016)
 - 이후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 사례를 참조하여,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면서 동시에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미술품 감정보고서 양식'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진행됨.
 - 해외에서 미술품 감정은 시가감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미국에서 진행하는 미술품 감정은 보험, 손해배상청구, 세금 책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미술품의 시장 맥락에서 금전적 가치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김이순, 2016:1).
 - 국내에서 유통되는 미술품은 작가 보증서나 화랑 보증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서구에서 작품 진위 판별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작품의 소장 이력(provenance)을 국내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위감정서가 요구되고 있음(김이순, 2016).

- 해당 연구로 개발된 감정 소견서는 「미술진흥법」 제15조 6항의 4에 의거하여 관련 양식의 체계가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규정되기 전까지 활용 가능함.

○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종합적인 미술품 감정 기반 구축을 통한 한국 미술진흥을 위해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을 운영함. 상세 프로그램으로는 (1)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2건, (2) 해외 감정관련 프로그램(컨퍼런스, 워크숍, 단기연수) 참가지원 3건, (3) 미국감정가협회(AAA) 협력 프로그램(11명)을 지원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근현대 동양화 작품 감정교육 프로그램,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양성 전문과정을 진행함.
- 미국감정가협회(AAA)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감정기관과 공동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가진 차세대 미술품 감정 인력을 육성하고, 해외 감정 교육과정과 방법을 학습하여 국내 감정교육 프로그램에 적용 및 공유하고자 진행됨.

○ 「미술 관련 행정에서 미술품 평가제도 정책 연구」 (이동기, 2019)

- 시장거래에서의 미술품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이 아닌 미술 관련 행정영역에서 기본적인 행정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작동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함.
- 시장의 거래에서의 미술품 감정과 행정작용으로 나타나는 미술품 평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거나 서로 상호작용되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 영역에서 논리적 합일이 발생해야 하거나 모순 없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
- 상속세 미술품 물납 도입, 국가 소유 미술품의 구입과 관리, 그리고 매각 및 폐기 등 처분의 문제, 미술품 기부나 기증에서의 평가, 미술품 담보대출과 그에 대한 보증, 전시 등 보험료의 합리적 설정 문제, 미술품 국가보상 문제 등 시각예술 관련 행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술품의 평가 및 감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를 담당할 기구 등에 관해 제언함.
- 미술품 감정을 국가의 행정부서 등이 맡아서 수행하는 점에 대한 검토를 포함함.

○ 「국가별 미술 및 감정 정책제도 연구: 가치평가 전문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양지연, 2020)

- 감정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미술품 감정 현황과 주요 실태 및 해외 감정평가 재

단에 대한 사례연구, 감정에 있어 진본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제안, 관련 유통 체계마련의 필요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양지연, 2020).

【표2-1】 국가별 미술 및 감정 정책제도 연구내용 정리

1. 국가별 미술 분야 정책 및 계도적 시스템 조사
<p>공공: 행정 체계 및 조작 주요 정책 및 사업, 법적 근거, 예산 등 미술 및 감정분야 정책 제도조사</p> <p>민간: 주요 감정 관련 협회 및 단체 현황조사</p>
2. 국가별 미술품 진위감정 및 가치평가 관련 주요 기관·협회(정부, 민간) 현황조사
<p>미술품 감정기관/기구(정부, 민간) 현황조사</p> <p>미술품 감정기관 관련 정책·제도, 정부지원 현황 및 쟁점 조사</p> <p>해외 주요 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한 현지조사</p>
3. 국가별 미술품 감정 및 가치평가의 현황 및 전문가 양성 과정, 자격제도 조사
<p>국가별 가치평가 및 진위감정을 위한 국가별 법제 및 정책(과세 등), 주요 조직(행정 체계, 기능, 주요업무 등) 조사</p> <p>각 감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 과정 및 자격제도 조사</p>
4. 정책 및 제도 비교 분석
<p>각국 정책 및 제도 비교 및 분석, 쟁점 파악, 주요 사항에 대한 국가별 비교</p> <p>해외 정책과 제도 운영 우수 사례를 통해 국내 활용방안 고찰,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연구</p>

※ 출처: 양지연(2020), 재정리.

○ 「문화산업에서 미술품 감정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 연구」(김보름, 2022)

- 한국미술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술시장에서는 시장 시스템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미술품 가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 미술시장의 양적 성장으로 인해 이원화되어 진행된 미술시장의 감정 시스템과 기존에 자격증 제도를 근거로 성립되어 온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제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협력 체계 혹은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부처 및 실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미술품 가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 미술산업에서 미술품 감정시장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핵심 요소에 대해 논의함.

【표2-2】 미술품 감정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명	비고
최병식(2006)	한국 미술품 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	국내와 주요 국가별 감정 현황조사 (진위감정 중심)
양현미 외(2011)	가칭) 박물관 기증유물 감정평가센터 설립방안 연구	국립기관으로 감정평가원을 설립하기 위한 선행연구
김윤섭 외(2013)	투명한 미술유통체계 구축 지원방안	미술 생태계 개선을 위한 방안제시, 감정 관련하여 미술품 가격지수 검토, 전문인력양성 필요성 제안
문화체육관광부(2014)	미술 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	미술 생태계 전반을 다루며, 시가감정 관련하여 미술품 가격지수를 다룸
이재경(2015)	국내외 미술품 감정 관련 법제 연구 및 미술품감정 인력의 윤리 규정	감정평가사의 윤리규정 등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7)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시가감정을 다룸 (이중 인력 양성관련 명기)
김이순(2016)	미술품 감정보고서 현황 분석 및 양식개발 연구 보고서	감정보고서 양식을 논한 것임
이동기(2019)	미술 관련 행정에서 미술품 평가제도 정책 연구	행정적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측면
임성윤·변승혁(2020)	해외 미술품 유통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살펴본 국내 미술품 진본성 확보방안	진위감정
양지연(2020)	국가별 미술 및 감정 정책제도 연구: 가치평가 전문분야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국가별 감정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해외 감정업 특성상 시가감정 관련 제도·정책을 주로 논함
김보름(2021)	미술품 시가감정을 위한 수요개발과 전문가 양성방안	시가감정 수요개발 및 인력양성
김보름(2022)	문화산업에서 미술품 감정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	시가감정이 산업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기본 문제를 논하여,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
양지연·손차혜(2023)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art appraiser)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시가감정 인력양성

※ 음영 부분은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연구임.

(2)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양성 선행연구

- 현재 미술품 시가감정 및 시가감정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시도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가감정 인력양성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
- 시가감정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초기적이기는 하지만 직무역량 및 교육체계, 교과과정 구성 등을 거론한 연구는 「미술품 시가감정을 위한 수요개발과 전문가 양성방안」 (김보름, 2021), 「문화산업에서 미술품 감정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 (김보름, 2022),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 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양지연·손차혜, 2023)가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을 위한 수요 개발과 전문가 양성방안」 (김보름, 2021), 「문화산업에서 미술품 감정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 (김보름, 2022)
 - 미국의 감정제도를 참고로 정부에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품 감정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을 제안함.
 - 초기에는 정부지원 하에 민간협회들과의 협업으로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대학과의 협업체계를 마련, 교육 과정 설계의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기관과 현장 실무의 전문성이 있는 감정업 기관이나 경매회사 등이 연계하여 이론과 실무가 통합된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 교과목으로 시가감정 입문, 시가감정의 법과 윤리, 시가감정 조사방법론, 시가감정 사례연구, K-USPAP 및 실무워크숍 등을 제안하여 한국형 USPAP 제도 마련을 제안함.
-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Art appraiser) 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양지연·손차혜, 2023)
 - 미술품 감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시장 형성과 미술품 기반 금융 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의제로 2006년부터 논의됨.
 - 미술품의 진위와 가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미술시장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기에 공신력 있는 미술품 감정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과 더불어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인력양성의 기초가 되는 직명, 직무 및 역량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주제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상황임(양지연·손차혜, 2023: 65).

- 미술품 시가감정 및 시가감정 인력양성이 초기 단계에 있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사례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부합한 시가감정 인력양성의 방향성을 탐색한 의의가 있음. 향후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과 인력양성을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로 확인됨.

2.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세미나, 토론회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조에 따라 2006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관련 민간협회(한국미술품감정협회, 한국미술품시가감정위원회)와의 연계 및 자체기획으로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본격적으로 개최했었으며, 관련 민간협회(한국미술품감정협회, 한국미술품시가감정위원회)에서도 자체적 필요에 의해 진행됨.
- 초기에는 미술품 진위감정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시가감정에 관해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미술품 물납제 도입 이슈를 시발점으로 (사)한국화랑협회를 비롯한 민간협회 중심으로 미술품 시가감정 및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이 두드러짐.

【표2-3】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06 한국미술품 감정의 실태와 미술품 감정 진흥방안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 ▷ 후원: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내용: 미술품 시가감정의 현황을 짚고 그 중요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 ▷ 관련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범모(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경원대 교수), 국내 미술품 감정 현황과 개선 방안 - 최병식(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경희대 교수), 해외 미술품 감정현황과 국내 미술품감정 제도의 개선 - 김영석(한국미술품시가감정위원회 위원장, MANIF대표), 미술시장에서 시가감정의 중요성과 새로운 대안 등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시가감정 세미나 (2010~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화랑협회, (주)서울옥션 ▷ 세부차수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한국미술품시가감정의 현황과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우홍(동산방화랑 대표), 한국미술시장의 형성과 가격감정 - Jiaping Mei(Cheung Ko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RT VALUATION AND APPRAISAL - 남준우(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술품의 가격 결정요인 및 투자 수익률 분석 • 2차 한국미술시장 가격체계구축 및 가격지수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민주(리드앤리더 대표이사), 한국미술품 가격지수 도입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인태(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미술품 가격 시스템 및 지수 - 정윤태(하나은행 차장), 미술품가격지수 활용방안 · 3차 한국미술시장 가격지수 및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민주(리드앤리더 대표이사), 최근 미술시장 트렌드를 통해 보는 KAMP지수의 시사점 - 전인태(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미술시장 가격체계 구축 및 가격지수 개발 - 박지영(이앤아트), 아트인덱스의 활용방안
Kiaf 2016 시가감정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주관: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주관으로 KIAF행사 중 세미나로 진행 ▷ 내용: 미술시장의 최근 동향과 한국미술시장가격지수 KAMP 50 Index (Korea Art Market Price 50 Index)를 통해 미술시장의 추이와 작가별 현황을 소개 ▷ 관련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인태(가톨릭대학교 교수), KAMP 50 Index와 미술시장의 동향
2018 국제 컨퍼런스 <미술품 감정-전문성과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내용: 해외 미술품 감정기관(미국감정가협회(AAA), 네덜란드 Authentication in Art, AiA)과 협력 프로그램. 미술품 시가감정, 진위감정과 테크니컬 아트 히스토리, 예술법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로 본 연구에서는 시가감정 관련 부분을 발췌 ▷ 특징: 컨퍼런스 1회, 심화 워크숍 3회 ▷ 관련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린다 셀빈(Linda Selvin. 미국감정가협회(AAA) 이사): 시가감정을 위한 전문성과 윤리적 이슈 Expertise and Ethical Issues for Appraisers - 수잔 브룬디지(Susan Brundage. 브룬디지 아트 어드바이저 대표, (전)레오 카스텔리 갤러리 대표): 시가감정에서 가치비교(비교대상)의 중요성 - 김윤섭(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전문위원): 시가감정 방법의 한국 사례
2020 국제컨퍼런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3부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성과 지속성>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프로그램: 3부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성과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최경현(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 발제: 양지연(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 학과 교수): 국가별 미술 및 감정 정책 및 제도 연구, 권은용(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장):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인력양성 지원 현황(2015-2020) - 토론: 윤용철(한국화랑협회 감정운영위원장, 윤갤러리 대표), 김윤섭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
2021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가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사)한국화랑협회 ▷ 내용: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 논의와 향후 방향성 모색 ▷ 토론회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최병식(경희대 미술대학 객원교수) - 발제: 국내외 미술품 가치평가의 현황: 양지연(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 - 참가 패널: 김보름(세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 교수), 김인아(케이옥션 이사), 김준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이광수((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윤용철(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윤갤러리 대표), 최윤석(서울옥션 전무), 캐슬린 김(법무법인 리우, 뉴욕주 변호사)
2021 미술품 시가감정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 (사)한국화랑협회 ▷ 내용: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향성의 논의를 위해 학계, 현장, 전문가 등을 초청. 제도 도입방안 및 감정기구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 진행 ▷ 관련 발제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린다 셀빈(미국감정가협회(AAA) 상임이사): 미국 감정이 제도 - 김보름(세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주임교수): 미술품 시가감정을 위한 수요 개발과 전문가 양성방안 - 남준우(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술품 가격결정 요인과 가격지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정무(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교수, 한국미술경영학회 회장), 신아란(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술품 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미술품 가격평가 방식 - 황규성(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한국문화산업연구소 대표): 양식분석을 통한 작품가격 산정 방안
--	---

1) 2020 KAMA 컨퍼런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플랫폼과 데이터- 3부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성과 지속성>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2879

제2절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1.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분야 정책·제도

(1)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 정책·제도의 현황

1) 미술품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 정책·제도의 흐름

- 국내 미술품 감정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감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임. 2005년에는 박찬숙 의원이 문화예술진흥법의 조항 신설을 통한 (재)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2006년에는 김재윤, 이광철 의원이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기부문화 정책 제언」에서 민간감정기구, 국립미술품감정기구, 국립감정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문체부는 2008년부터 정부운영감정평가기관인 (재)한국미술감정평가원의 설립을 제안함(양현미, 2011).
- 이우환, 천경자 등 국내 유명작가의 잇따른 위작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2016년경부터 정부에서는 위작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미술품유통법)의 제정과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을 설립하는 안을 발표함(이경택, 2023: 79). 공공기관인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에서 미술품 위작 관련 수사 및 사법 절차와 과세 징수 절차 등에 있어, 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러한 공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효되지 않음.
- 2017년에는 2016년의 후속 조치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발의함. 감정업자의 등록제도 도입과 더불어 감정업자에게는 공정한 감정, 허위 감정서를 발급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수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작품에 대한 감정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등을 의무로 부과하였으며²⁾,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

2) ③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안 제21조~제26조)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공정한 감정,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표준감정서 사용, ▲특수한 이해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④ 위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안 제28조~제39조)

위작 미술품은 수거의 대상이 되며, 위작 관련 처벌이 명문화된다. 그동안 미술품의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법안에 따라 '위작죄'로 처벌된다. 위작죄는 단순히 개인 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처벌이라

는 내용임. 그러나 제재보다는 육성이 필요한 4,000억대를 맴도는 국내미술시장에 대한 우려, 현장유통업자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함.

○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2018-2022」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사를 미술 관련 신직업군으로 언급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품 시장 육성을 위해 ①감정업의 제도화, ②감정기반구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함. 감정기반구축을 위해서 감정교육지원, 자격제도 도입, 표준감정서 보급과 관련한 안 제시. 2018년도 하반기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감정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감정업자의 의무를 허위감정서 발급금지, 표준감정서사용, 특수한 이해관계 미술품 감정금지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실효되지 못함.

○ 2019년에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법안이 2월 김영주 의원과 10월 신동근 의원에 의해 발의됨. 감정업관련 주요 골자는 미술품감정업 등록제를 도입하며, 미술품감정연구센터 지정, 허위감정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는 골조임³⁾. 그러나 지나친 시장개입과 과도한 정부개입이라는 미술현장의 반발이 커 제정되지 못함.

○ 2021년에는 도종환 의원이 「미술진흥법」의 제정을 대표 발의. 「유통법」에서 시행하려던 등록제 도입을 신고제로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하고 그 안에 감정센터를 두어 공공영역에서의 미술품 감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공공영역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감정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추급권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맞물리면서, 국회 회기가 종료되어 법안은 자동 폐기됨.

는 측면을 넘어,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위해를 처벌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계약서나 미술품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3) 김영주. (2019).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마.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 미술품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하도록 하고, 감정의뢰인에게 감정서를 발급하며 허위감정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

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품 감정의 지원 및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또는 감정 전문기관을 미술품 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미술품 감정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미술품에 대하여 진위감정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감정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나 제 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함(안 제25조).

2) 미술품 시가감정을 둘러싼 국내 법체계 현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미술품 시가감정사와 직무 유사성을 띄는 감정평가사 관련 현행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으로 칭함)임. 이 법의 제2조(정의)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제2조(정의) 제1항에 의거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함.
- 미술품 또한 동산에 속하므로 「감정평가법」에 의거하여 미술품의 감정평가를 행하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서 마련한 체계로 토지 및 건물의 과세평가 등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김보름, 2022), 고도의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에는 한계가 있음.

○ 미술품 물납제(2023년 1월 시행)

- 2020년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과 2021년 이건희 컬렉션을 필두로 미술품 물납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
-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등에 따라 미술품의 물납제가 2023년 1월 시행됨.
- 도입목적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요 문화재 및 미술품의 해외반출 방지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세금납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미술품 가치의 정확한 평가 산출이 미술품 물납제 시행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임(이경택, 2023:79).
- 미술품 물납제의 시행과 함께 미술품 감정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주요 현안이 됨. 정부에서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품 평가체계구축>을 주요 화두로 삼고(이동기, 2019)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미술진흥원」(가칭)을 설립하여 내부에 미술품 감정센터를 두어 공신력 있는 감정의 시행, 미술품 감정의 가이드라인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공공영역에서의 미술품 감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박정환, 2021), 공공영역에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직접 감정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국립미술진흥원」(가칭) 설립논의는 폐기됨.
- 2024년 10월 처음으로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쟁판즈(Zeng Fanzhi)의 <초상화(Portrait)>(2007) 2점을 비롯하여 전광영의 <접합(Aggregation)08-제이유(JU)072블루(Blue)>(2008), 이만익의 <일출도>(1991) 4점의 미술품에 대한 물납이 허가되어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소장(황희경, 2024).

- 미술품물납제를 통한 국립미술관들의 소장품 강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미술진흥법」⁴⁾ (2024년 시행)

- 2021년 폐기된 「미술진흥법」이 2023년 3월 재상정되었고 6월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7월 공포를 거쳐, 24년 7월부터 「미술진흥법」이 시행됨.
- 「국립미술진흥원」과 감정센터의 설립 등 공공영역에서의 미술품 감정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었으며, 미술품 감정업을 미술 서비스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신고제와 표준감정서의 도입, 허위 감정서 발급 불가, 특수한 이해관계 미술품 감정 금지 등은 기존과 동일. 「미술진흥법」【표2-4】(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중 미술품 감정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표 참조.
- 그러나 미술진흥법에서는 제2조(정의)에서 미술품 감정업을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으로 명시함으로써 시가감정이 「미술진흥법」상 미술품 감정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견의 여지를 남김.

【표2-4】 미술진흥법 법률 조항 일부

장	조항	세부사항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5. "미술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하중략) 10.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학·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3.06.30.). 「미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미술진흥법」 제정안의 핵심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이다. 아울러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었다.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창작·유통 및 향유 등	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p>⑥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할 것 2. 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3. 자신이 소유·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관리 또는 유통시키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감정을 하지 아니할 것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5.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6.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아니할 것
	제16조(소비자보호)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술품 유통, 감정 및 미술전시 등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③ 작가, 작품명, 구매일자, 구매처 및 보증내용 등 제2항의 진품증명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8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p>①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 서비스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미술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231조, 제239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임원 또는 감사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p>⑤ 제1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⑦ 미술 서비스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증을 영업장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	--	---

※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중 미술품 감정과 관련한 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개정 내용
- 물납제 실시로 시가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가 절실히 지면서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규정 제정.

【표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p>①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p> <p>②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Max(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p>	<p>①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p> <p>②특수관계인 간의 양도·양수 법적규제 강화 - 감정평가액이 국세청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으로 진행</p>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년 개정] 제52조제2항 개정 내용

3) 미술품 시가감정을 둘러싼 법체계의 쟁점 사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미술진흥법」

- 「미술진흥법」에서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가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이도 미술품 시가감정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과 해석상 충돌 발생 여지가 있음.
- 「감정평가법」은 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제정되어, 2016. 9. 1. 시행되었고 12차에 걸쳐 개정되었음. 현행 「감정평가법」은 2023. 5. 9. 법률 제1940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3. 8. 10.부터 시행 중임. 「미술진흥법」은 2023. 7. 25. 법률 제19568호로 제정되어 2024. 7. 26.부터 시행 중으로 「미술진흥법」이 「감정평가법」에 대하여 신법에 해당하여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미술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미술,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미술진흥법」이 「감정평가법」에 대하여 신법 또는 특별법으로서 우선으로 적용되어 미

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미술진흥법」이 미술품 감정의 두 영역인 미술품 진위감정과 미술품 시가감정을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진위감정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미술진흥법」에 의거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시가감정에 대한 부분은 해석의 여지를 남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감정평가사 자격증 없는 자의 감정평가 행위를 유사감정 행위로 규정하며 법정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이로 인해 미술계의 시가감정의 결과물은 시가 감정서가 아닌 보고서로 작성되어 감정평가사에 의해 재활용되는 사례 발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미술 생태계의 선순환적 활성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미술품 시가 감정과 관련한 조항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정 필요.

2. 국내 주요 기관 시가감정 현황

(1)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의 전개

○ 국내 미술품 감정의 시작

- 미국을 비롯 서구 미술시장에서는 전문화된 절차에 따른 시가감정이 발전해 옴. 미술품의 시가감정은 미술시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점과 매개체 역할을 하는 미술시장 발전의 필수적인 기반임(김보름, 2022).
- 국내 시가감정의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오래지 않음. 근현대미술작품의 진위감정이 시작된 것이 1982년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가감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임. 논의 초반에는 주로 작품 구매 및 판매 등 시장 유통에서의 필요로 논의되었음.

○ 2020년 이후 물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 증대

- 2020년 간송미술관의 보물이 경매에 출품되고 2021년도 이건희 컬렉션으로 인해 촉발된 관심은 '미술품 물납제'와 더불어 '자산가치로서의 미술품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짐. 이에 자산가치평가를 위한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조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이 허용).

○ 미술품 시가감정의 수요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진입

- 보험, 과세, 재산분할, 담보 설정, 청산 등 다양한 시가감정 수요가 형성된 미국과는 달리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미술품 시가감정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단계임(김보름, 2022).
- 국내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의 목적은 판매 외에 세금이나 자산평가 등 다변화된 금융적·법적 목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미술품 시가감정의 필요성과 수요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양지연, 2023).

【표2-6】 미술품 시가감정의 목적에 따른 수요

시장에서 유통을 위한 필요	- 2차 시장에서의 작품 구매 및 판매
자산가치의 평가	- 납세 또는 과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양도세 등) - 훼손 및 유실에 따른 감가상각, 보험가입, 담보대출, 기부/기증
기타 법률적 필요	- 소송 등에서의 손해배상금액 산정, 재산의 처분(4D ⁵⁾), 공평분배 (상속, 증여, 이혼소송 등에 있어서의 재산분배)

(2) 주요 미술품 시가감정 기관·단체

1) 민간협회 및 단체

- 국내 주요 근현대 미술품 감정기관·단체로는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1982년 설립)를 비롯하여, (사)한국미술품시가감정협회(2008년 설립),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2019년 설립)가 있으며, 고미술을 대상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사)고미술협회 한국고미술품 감정위원회(1985년 설립)가 있음.

①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 기관 개요

- 1976년 설립된 (사)한국화랑협회 산하에 1982년 설립됨. 진위, 시가감정을 동시에 진행해 오고 있음. 1982년에는 「미술품 감정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미술품 감정위원

5) 죽음(death), 재난(disaster), 부채(debt), 이혼(divorce)

회를 발족시켜, 진위감정과 시가감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주)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과 업무제휴를 통해 감정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부터 독자적인 감정을 재개함.

○ 미술품 감정 현황

- 매주 수요일 동양화, 금요일 서양화로 나누어 장르별 진위감정을 진행하며, 시가감정과 특별 감정을 진행 중임.
- 감정위원은 내외부, 특별감정위원까지 약 30여 명이 위촉되어 있음. 외부는 미술평론가, 미술사가, 작가, 미술관 관계자, 표구전문가 등으로 해당 미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진위감정과 시가감정 모두 집단 감정체제로 진행함.
- 2023년 기준 연간 진위감정 작품수는 약 800점이며, 시가감정 작품수는 약 400점으로 추산됨.

○ 미술품 시가감정 진행 과정

- 시가감정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표2-7】 (사)한국화랑협회의 시가감정 프로세스

no	절차	내용
1	시가평가 의뢰 및 계약	- 의뢰서(신청내용-작품 수량, 평가목적, 소유권자 등) 접수 - 일정 및 견적확정
2	업무범위 확정	- 감정평가 계획 수립 - 업무 범위 설정 및 확정
3	의뢰작 실사 및 조사	- 실물 확인 - 대상 작품 컨디션 확인 - 의뢰작 자료 (인보이스, 소장이력 등)수집
4	평가 자료 분석	- 미술시장 동향 조사 - 가격정보 확보 및 분석
5	시가평가 회의	- 평가 목적에 따른 접근법 확정 - 평가액도출
6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액 산출 근거 및 결정의견 작성 -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7	평가보고서 발송	- 평가보고서 발송

※ 출처: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제공.

② (사)고미술협회 한국고미술품 감정위원회

○ 기관 개요

- 1971년 문화공보부인가 한국고미술상협회, 1977년 (사)한국고미술상중회에서 1985년 현재의 (사)한국고미술협회로 설립됨.
- (사)한국고미술협회는 우리나라에서 미술품 감정 및 평가 체계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국내 첫 번째 단체임.

○ 미술품 감정 현황

- 감정 품목은 고서화, 도자기, 철물, 석공예, 목공예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감정의 목적은 매매, 소송, 보험, 처분, 상속, 조세 등임. 감정의 종류는 진가(眞假)감정, 시가감정, 특별감정으로 나뉨. 다양한 고미술 작품에 대한 진가 감정을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시 시가감정도 진행함. 국공립 박물관, 법원, 검·경찰,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기업 등의 소장유물에 대해 감정 업무를 진행함.
- 2024년도 9월 기준, 도자기 14명, 서화 10명, 민속 7명, 철물/불상 6명, 근대사 3명의 학계와 고미술품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정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음.⁶⁾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 모두 집단 감정체제로 진행.

○ 미술품 시가감정 진행 과정

- 고미술협회의 '시가감정 프로세스'에 따르면, 현장의 오랜 경력과 감정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자료를 조사하여 시가감정을 진행. 전시, 경매, 아트페어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바탕으로 미술품의 특이점, 미술사적 가치, 시장의 동향, 미술품의 완성도, 보존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 소송, 보험, 처분, 상속, 조세 등 의뢰목적에 따른 시가평가 실시.

③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 기관 개요

- 2008년 문체부 인가를 받은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 사단법인으로 진위감정도 진행하고 있음.
- 경매, 아트페어, 전시 등 다양한 채널로 유통되는 미술품의 가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체계적인 가격산출 및 관리시스템 마련함.

6) (사)고미술협회 사무국장. (2024년 9월 27일) 인터뷰.

- 2003년 미술 경제 월간지 『아트프라이스』를 창간하였으며, 2012년부터 국내 미술시장의 시장 동향을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경매시장 결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미술작품의 객관적인 가격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작품 가격지수 KAPAA Index⁷⁾ 모형을 2012년에 발표함. 2014년에는 같은 작가라도 시장에서 선호하는 작품 주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적용해 세부 주제별 호당 가격을 산정한 KYS 미술품가격지수를 개발하는 등 가격지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2020년에는 작품가격산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국내 미술품의 통상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과 모형'을 발표함.

○ 미술품 시가감정 진행 과정

- 미술품 시가감정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음.

【표2-8】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시가감정 프로세스

단계	절차	내용
1	감정 의뢰	- 감정신청 접수
		- 의뢰작품 감정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견적 및 일정)
2	감정 계획	- 대상 작품 장르별 감정위원 위촉
		- 현장 감정 계획
		- 의뢰작품 사전 조사
3	작품 실사 및 감정	- 작품 컨디션 확인
		- 실물 감정
		- 작품 소장 경위 등 확인
4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 작가 약력
		- 가격정보 조사
5	시가감정	- 1차 미술시장(화랑, 아트페어)에서만 거래된 작품은 'KYS작가의 작품가격 모형' 적용 후 작품성, 선호도 평가
		- 2차 미술시장(경매)에서 거래된 작품은 'KYS가격지수' 적용 후 작품성, 시장성(환금성) 평가
6	감정서 발행 및 소견서 작성	- 시가감정 산출 근거 및 결정에 관한 감정소견서 작성
		- 감정보고서 발행

※ 출처: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감정위원회 제공

7) 연구에는 김태항 명지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와 김영석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김영선 명지대 디자인학과 교수, 신형덕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정경학부 교수 등이 참여하였으며, 미술품 추정가격은 시장정보(작가, 작품, 거래정보)와 예술적 가치를 합산하여 산출함. 시장정보 70%, 예술적 가치 30%의 비율을 적용함(김혜인, 2014: 198).

④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 기관 개요

- 2019년 설립, 예술품 전반에 걸쳐 진위감정, 시가감정, 상태감정을 진행함.
- 법인 산하 교육원 '카이(KAAI)미술품감정평가학원'을 설립하여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제휴를 통해 '미술품 조사분석사' 교육 프로그램을 1급부터 5급으로 나누어 설계, 운영하고 있음. 1급까지 수료한 이후에는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준감정사자격이 주어짐(장재선, 2022).
- 정기적으로 「국내외 미술시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아트마켓 트렌드 2024』를 발간함.

○ 미술품 감정 현황

- 약 30여 명의 감정위원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고 있음.
- 컨설팅, 진위감정 및 자산재평가, 상속, 증여, 기증, 물납, 보험 등을 위한 시가감정을 진행하고 있음. 시가감정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사업확장 중으로 자산평가, 세금, 상속, 증여, 기증, 물납, 소송, 매매, 청산, 보험, 손해배상, 경매, 재무계획, 컬렉션, 투자, 미술품 공동소유, NFT 거래 검증 등을 위해 시가감정을 진행함.

○ 미술품 시가감정 진행 과정

【표2-9】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감정 순서

단계	절차	내용
1	문의 > 견적 > 의뢰신청/접수 > 계약	구비서류 제출, 의뢰인, 의뢰미술품, 평가목적, 평가조건, 수수료 등
2	평가 계획 수립	현장 계획, 조사 범위 연구
3	미술품 실사 및 감정	의뢰미술품의 확인 및 조사, 실물감정, 상태감정
4	자료 분석 연구	확인자료, 관련자료 기반 분석
5	감정	내부 감정, 평가내용의 결정
6	감정서 작성	자료 검토, 가격요인 분석,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7	감정서 제출	오기 및 오산 검수, 평가과정 및 감정서 검토
8	사후관리	후속 절차 및 관리 자문, 연간 재평가 실시

※ 출처: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홈페이지

⑤ (주)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해산)

- 2019년 3월 해산된 단체이나 국내 미술품 감정의 역사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한 단체로 명시함.
- (사)한국화랑협회의 감정위원회에서 활동하던 김영석(당시 아미화랑 대표. 현(사)시가감정협회 이사장)과 송향선 가람화랑 대표가 데이터 축적 관련된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해 독립하여 2002년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설립하였고, 2003년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를 설립. 2012년 영리사업 운영을 위해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를 (주)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 2019년 해산 후 주요 감정위원들은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에 합류하였고 일부는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로 합류함.

2) 경매회사

- 주요 경매회사는 자체적으로 감정 관련 부서를 운영하며, 위탁 매매품에 대한 감정 평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2023 미술시장조사」(예술경영센터)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도 기준 국내에 12개의 경매회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양대 경매회사의 낙찰 총액이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됨.⁸⁾ 본 연구에서는 양대 경매회사의 감정평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① (주)서울옥션

○ 기관개요

- 1998년 영업을 시작한 (주)서울옥션은 경매약관 제6조 추정가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경매를 위해 미술품의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인쇄물, 경매도록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하며, 추정가의 결정은 서울옥션의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에 의함.

8) 2022년도 경매회사 총 매출액은 약 916억이며, 평균 약 76억원으로 조사됨. 온라인 경매를 제외한 경매회사의 매출액이 전체 경매회사의 89.4%, 연매출 100억원 이상 경매회사 2곳의 매출액이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 (주)서울옥션은 1998년 감정 및 평가를 위해 감정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 위촉 규정, 담당 업무 규정 등을 회사 내규에 명시함.
- 기존에는 위탁판매를 위한 진위, 시가감정만을 진행해왔으나, 2024년부터는 위탁판매를 위한 감정 뿐 아니라, 자산평가, 상속·증여, 기증, 보험, 손해보상, 소송 등의 목적으로 시가감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 홈페이지에서 감정의뢰서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의뢰서상 국내 근현대, 고미술 및 해외 작품들의 시가감정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옥션의 시가감정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총괄 1인, 국내 근현대사 및 국내 고미술, 해외 미술 심사위원 3인, 그 외 실무 운영 1인으로 운영되며, 기타 법률 및 회계자문 인력은 추가 예정임.

○ 자체 미술품 시가감정 약관의 마련 및 명시

- (주)서울옥션은 「시가감정 약관」을 마련하여 감정의뢰서 하단에 명시함.
 - 제2조(업무의 범위) '미술품이 진품임을 전제로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 :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을 분리
 - 제3조(감정평가 결과의 의미)에서 '의뢰인은 감정평가 결과가 미술품의 시장가치에 대하여 회사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님에 대하여 동의한다.'고 명시.
 - 제6조(의뢰인의 의무)에서는 '의뢰인이 감정의뢰서에 기재한 내용, 제공하는 정보 및 서류는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
 - 제8조 (회사의 면책)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 및 서류는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이것이 위반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감정평가의 내용이 담합 등 고의로 조작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뢰인 및 제 3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책임규정을 제한.

○ 미술품 시가감정 진행 과정

- 시가감정프로세스는 ① 접수서류 검토 후 진행여부 안내, ② 작품 실물조사, ③ 자료분석 및 평가, ④ 결과보고서 작성, ⑤ 감정완료 안내로 진행함.

【표2-10】 서울옥션 시가감정 프로세스

단계	절차	내용
STEP 1	감정의뢰 접수	- 접수방식: 이메일, 홈페이지 (1:1 문의) - 접수서류:

		1. 감정의뢰서 2. 작품리스트 3. 작품이미지 4. 참고자료
STEP 2	접수서류 검토 후 진행여부 안내	- 접수서류 검토: 시가감정위원회 실무진 견적서와 함께 시가감정 진행여부 확인
STEP 3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 계약금: 견적가의 50% (영업일 기준 5일 내 입금 필수)
STEP 4	작품 실물조사	- 출장 혹은 입고 확인 (경비 모두 고객 부담) - 실물조사, 사진촬영, 실측, 컨디션 체크, 시가감정 진행
STEP 5	자료분석 및 평가	- 자료분석: 유사작품 거래 레코드 확인, 1차 시장 거래가격 확인, 미술사적 가치 확인
STEP 6	결과보고서 작성	
STEP 7	감정완료 안내	- 감정완료 문자 및 메일 통지 - 잔금결제 요청 (영업일 기준 5일 내 입금 필수) - 최종보고서 전달 (잔금 입금 확인 후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전달)

※ 출처: ㈜서울옥션 홈페이지

② (주)케이옥션

○ 기관개요 및 시가감정 현황

- 2005년 설립된 ㈜케이옥션은 작품의 위탁판매를 위한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을 진행하며, 이외에 시가감정 가치평가의 목적은 경매 추정가 확인, 프라이빗 세일(기업 컬렉션 관리 등), 자산평가, 보험 및 담보 평가임.
- 케이옥션은 작품 심의 및 감정이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 출품을 결정함. 실물 감정을 완료한 작품에 한해 위탁자와 담당자 간의 출품 희망 가격(내정가)을 결정하며, 출품 희망 가격(내정가)은 작품의 주제, 크기, 재료, 색감, 진위 여부, 상태, 소장 이력(provenance), 과거의 매매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됨.

- 경매 출품을 위한 감정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작에 따라 기관의 자체감정과 외부감정을 병행함.

【표2-11】 케이옥션 경매 출품을 위한 감정 진행 과정

감정	진행단계
경매 출품을 위한 위탁감정에서의 감정	1. 작품문의 및 위탁상담
	2. 감정평가진행
	3. 작품출고
	4. 출품 및 전시
	5. 대금정산

※ 출처: ㈜케이옥션 홈페이지

【표2-12】 케이옥션 자체감정 및 외부감정 과정

자체감정	외부감정
1. 작품 실측	1. 미술계 전문 조직/기관 의뢰 - (사)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에 의뢰
2. 리서치 - 출처, 보증서, 출품 이력, 뒷면 Tag, 제작년도 중심으로 작가와 작품 갤러리 확인, 전시기록, 도록 등	
3.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복수감정 추가	2. 위탁자 결정

※ 출처: 김보름(2021: 88) 재정리

3) 감정평가법인 및 관련 협회

○ 관련 법상 감정평가업과 감정평가사의 정의 및 유사감정행위의 법적 제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항에서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1항에서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함.
- 동법 제2조제3항에서는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국내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현황

- 감정평가사 자격 소지자는 약 4,800명으로(2024년도 10월 기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법인 혹은 사무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법인에 소속되어 있음. 국내 주요감정법인은 13개 정도임.⁹⁾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개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¹⁰⁾에 따라 1989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법정 단체임.
- 감정평가이론에 대한 조사·연구,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및 정책추진, 회원의 감정평가업무 지원 및 지도관리, 조정 및 중재, 회원 및 일반인 등에 대한 직무 및 전문과정 연수교육과 관계기관 위탁 교육, 감정평가정보 및 전산망의 운영, 감정평가 관련 통계 지수 등의 개발·공급 등을 수행함.

○ 감정평가사들의 미술품 시가감정 수행 및 미술계와의 관계

- 현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산 분야의 감정까지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업계에서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능력에 기초하여 미술품 시가감정도 가능하다고 주장. 이는 미술사와 작가론 등 미술사 지식과 현장경험에 기반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미술계의 주장과 상충하는 상황임.
- 주요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상속 및 기업자산평가 등과 관련하여 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의뢰받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미술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 이 경우, 자체적으로 시장가치를 조사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미술 분야를 비롯하여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감정조서, 미술품감정증서, 감정의견서 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최종적인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나뉨.

○ 주요 감정평가사법인의 미술품 감정평가 현황

- **(주)통일감정평가법인**의 경우 미술품 감정평가를 업무영역으로 소개하고 있음. 대상은 회화, 조소, 판화, 사진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매매목적, 재평가, 소송 등 미술 평가의 목적도 함께 설명하고 있음. 통일감정평가법인은 '가치감정만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의 진위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진위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명시함.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은 미술품 시가감정을 진행 중으로 2024년도 초에 조각투자 플랫폼과 업무제휴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법적으로 동산에 속하는 미술품의 내부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 발표함(서정화, 2024.2.19.).
- **(주)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도 미술품 관련 시가감정을 진행함. 그 외 다수의 평가법인에서도 미술품 시가감정을 진행 중으로, 점차 미술품 시가감정의 행정적 분야의 수요 증가에 따라

9) 국내 13개 주요 감정법인은 가람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임.

10) 舊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 舊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

빈도수가 증가하는 상황임.

4) 기타·공공기관

① 국공립미술관·박물관

○ 작품 구입 및 기증과 관련하여 미술품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을 수행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의 제1장, 제8조 (재산의기부 등)에 따르면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감정평가를 신청한 기증품에 한하여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함.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제2장 제2절 제13조(작품가치평가위원회), 제13조의 2(작품가격자문위원회), 제14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따라 구입(경매구입 포함)과 기증, 관리전환과 같은 '작품수집'만을 위한 시가감정을 진행하고 있음.

○ 미술품 감정평가 과정에는 1차적으로 상근하는 학예사가 참여하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정을 진행함(김보름, 2021).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는 매년 대규모로 작품을 매입하고 있으며, 과정은 ① 작품 후보 선정(추천위원회)→②평가(심의위원회)→③최종 구입작품 선정으로 진행되며, 평가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 의한 작품의 소장가치 및 가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 외부 전문가 명단은 매년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음.

【표2-13】 국내 미술품 감정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구분	기관명
주요 미술품 감정기관 (민간 기관)	(사)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사)한국고미술협회
주요 경매회사	(주)서울옥션 (주)케이옥션
국토교통부 관할 감정평가 법인·개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공공기관의 감정	국공립 박물관 · 미술관

(3) 미술품 시가감정의 수요자 분석

1) 시가감정 수요자 인터뷰

○ 본 연구는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 개발의 사전단계로 현재 미술품 시가감정 산업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미술품 감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참여자는 기관으로 한정함.

○ 수요자 인터뷰 결과 요약

- 각 기관 및 기업의 니즈에 따른 시가감정의 필요성 증가로 시가감정 인력이나 전문기관을 찾고자 하나, 공신력있고 신뢰할 만한 시가감정 인력 및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 이는 실제 시가감정 인력, 기구, 체계 부족에서 초래된 현상으로 감정결과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술품에 대한 수요 및 미술시장의 확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뢰할 만한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양성, 공인기관 혹은 전문기관 등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 인터뷰 개요

- 인터뷰 방식: 서면인터뷰
- 인터뷰 기간: 9월 15일~10월 20일
- 인터뷰 대상: 미술품 시가감정 진행 이력이 있는 수요자 기관·기업 4곳
푸른저축은행, 대림문화재단, 한국과학기술원(KIST), 국회도서관

○ 인터뷰 내용 상세

- 수요자 A: 미술품담보대출을 위해 시가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기관은 주변의 추천을 통해 선정함. “미술품감정 관련 공인된 기관이나 권위가 있는 기관이 없어 감정의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진위 및 가격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 행해지고 있어 유통 및 금융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함. “개선방향으로는 미술품 감정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이나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었으며 미술품 감정가의 “전문성”을 강조함.
- 수요자 B: “기관의 기증을 위해 기증작의 시가감정을 진행”하며 위 수요자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추천으로 감정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 국내작가

에 편향된 감정"상황을 우려하고 있으며 "미술품감정사의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수준의 현장경험과 이론이 뒷받침되는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미술품감정사는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회신함.

- 수요자 C: "작품대여 사업을 위한 시가감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기관의 선정은 추천을 통해 선정함. "신뢰성과 투명성이 중요한 분야이나, 감정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 수요자 입장에서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우려된다"고 현 상황을 토로함. "개선을 위해서는 감정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감정가의 핵심역량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연구업적"이라고 대답함.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커리큘럼과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교나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대답함.
- 수요자 D: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 6조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미술품 시가감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치로 「도서관 소장 미술품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을 갱신하고 있으며 연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적인 전문 감정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과 전담 기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단순한 작품 보관을 넘어 꾸준한 작품의 관리와 점검, 가치평가(시가감정)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면 좋겠다"며 시가감정의 인식확산을 강조함. 또한 "심층적인 전문 감정가 양성 프로그램과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함.

2) 시가감정 수요기관 분석

- 미술품 시가감정의 수요자에는 다양한 사기업과 개인이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술품 자산가치의 증가와 미술품 물납제 도입으로 그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국세청, 법원, 은행권, 예금보험공사, 보험회사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① 국세청

-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에 의거하여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규정.
 -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의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유산 등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함.
 - 미술품이 물납 처리된 첫 사례의 경우, 관한세무서는 문체부에 물납신청내역을 통보하고, 문체부가 '물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함. '물납심의위원회'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등

내부 인력과 현대미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심의를 거쳐 신청된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적정 의견 및 가액을 제시하였고, 이를 세무당국이 허가함(유승목, 2024).

○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 되는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해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하며, 동 규정에 의거 마련된 「서화, 골동품 등 감정평가 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대상이 되는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함.

- 납세자는 1차적으로 2개의 감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2개 가격의 평균가로 과세액을 결정함.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평균가가 1,000만 원 이상으로 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함.
-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구성 및 운영)에 따라 감정평가심의회위원회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위원, 기타 서화 골동품 방면의 전문시식과 학식을 겸비한 전문가'들 중 3인 이상을 위촉하여 구성함.
- 과세관청으로 의뢰받아 과세목적에 위한 서화·골동품에 대한 시가감정만을 시행함.
- 국세청에서 실제로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감정평가를 시행한 사례는 2009-21년까지 총 3회(김보름, 2021)로 빈번한 편은 아님.

② 법원

○ 법원에서는 소송과 관련하여 미술품 감정(진위감정, 시가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시가감정에 국한되어 살펴보면 재산분할, 보상금, 부당이득액 산정, 금전적 손해 배상 등의 다양한 분쟁에서 감정이 필요함. 관련하여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대한 예규를 만들어 시행 중임.

- 감정인은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법원행정처에서 「감정인명단」 등 재 희망자를 모집하고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받으며, 법원행정처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명단」에 등재함.
- 『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의해 선정되어야 함. 『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은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명단」에서 무작위적으로 추출 · 선정함.
-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제2조(적용범위)에서 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①

토지, 건물, 동산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시가 또는 임료 등에 대한 감정, ②측량감정·문서 등의 감정, ④신체 감정, ⑤공사비 등의 감정으로 나누고 있으나 미술품과 관련한 항목은 없으며, 단지 미술품과 유사한 항목은 <문서 등의 감정>이라 볼 수 있음.

- ‘문서 등의 감정인’의 경우는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 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임.
- 한편, 법원행정처는 감정인의 종류를 ‘신체/진료기록 감정인, 공사비 등의 감정인, 측량 감정인, 문서 등의 감정인, 시가 등의 감정인, 경매 감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문서등의 감정인’의 경우는 등재신청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반면, ‘시가 등의 감정인’은 년 1회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등재하고 있음.

○ 법원행정처 특수감정인 선정·운영 제도

- 법원은 부동산을 주로 다루는 감정평가사가 ‘보석, 수목, 산양삼, 고미술, 기술, 지식재산권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특수분야 전문가를 특수감정인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 감정을 진행함. 이를 위해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2008-1)」 제47조에 의거, 법원 및 지원에서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작성함.

○ 법원의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전문성 인정 필요

- 앞서 살펴본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에 미술품 감정에 대한 규정이 나뉘어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고미술품과는 달리 미술품은 특수감정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술품의 감정은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특수감정 영역으로의 구분이 필요함.

③ 금융권 및 은행권

- 은행의 경우 전통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시행해옴. 2010년을 전후하여 동산 담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미술품 담보대출을 시행했으나 중단한 경우도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은행도 있음.

○ 미술품담보대출은 미술품을 투자 자산으로 인식한 결과임

- 미술품의 자산가치 인정으로 시장확대 측면, 작가 입장에서는 복지 및 간접일자리 제공의 효과 기대, 감정업계 측면에서는 감정기반 구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에서는 미술관련 금융 PB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 되어옴. 금융기관이 고소득층에게 서비스의 일환으로 미술품 담보대출을 진행해왔으나¹¹⁾, 작가에 대한 담보대출도 진행해야 하므로 현 진행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함. 시중은행들이 가진 보수성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낮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담보물의 시가 평가를 담당하는 미술품 감정전문기관, 공적 기관인 담보대출 보증기관, 금융기관 3개의 협업체제로 미술품담보대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함(홍기훈, 2019a).

○ 국내 미술품 담보대출 관련 예시

- 하나은행
 - 1995년 국내최초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PB서비스 도입.
 - 2020년 시작된 금융과 예술을 연계한 아레테큐브(Arete Cube) 서비스를 시작하여 개인신용연계 미술품담보대출을 제공, 2022년 서울옥션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외 미술품 구입, 자문, 감정,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2024년 10월 현재 아레테큐브(Arete Cube) 서비스에서 미술품담보대출 서비스는 중단되었으며, 그 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음.
- 푸른저축은행
 - 2023년부터 미술애호가인 오너의 의지에 기반하여 미술품 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 1~2회, 총 200억 정도의 규모로 진행.
 - 감정가의 40%까지 대출 가능하며, 작품에 따라 부동산과 같이 담보를 삼기도 함.
 - 미술품담보대출에 대한 문의는 많으나 신청작의 절반 이상이 진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출 성사율은 20%로 낮은 편임.
 - 추천받은 외부 감정전문기관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2%의 수수료로 작품 감정료, 보험료, 보관료 지불.
- 삼화저축은행
 - 2009년 5월 13일, 삼화저축은행이 국내 최초로 미술품 담보대출 상품인 '아트론(Art Loan)'을 출시(매일경제, 2009).
 - 국내 근현대 미술품을 대상으로 감정가액의 40%, 최고 1억 원까지 대출.
 - 대출 금리는 연 17%로, 기본 대출 기간은 6개월.
 - 삼화저축은행은 2011년 파산함.

11) 씨티은행, Bank of America 그리고 Emigrant Bank Fine Art Finance 등과 같은 은행들은 미술품 담보대출 서비스를 우수고객들에게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된 미술품은 고객이 보관할 수 있게 조치함. 씨티은행의 경우, 1979년에 만들어진 씨티미술자문서비스(Citi ArtAdvisory Service)로, 미술품기반 담보대출을 최초로 제공한 은행임(홍기훈, 2019b: 103).

- 열매컴퍼니
 - 열매컴퍼니는 다양한 미술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종합 금융회사를 추구하며, 2018년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론칭하여 국내 최초로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를 시작함.
 - 2023년 12월 국내 조각투자업체들 중 선두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투자계약증권 승인을 받으면서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Pumpkin)'을 미술품 조각투자의 형태로 상품화시킴.
 - 2023년부터 미술품 담보대출도 시작하여 관련 금융을 확장함. 신사업인 미술품 담보대출 잔액은 80억 원이며 예상보다 빠르게 수요가 늘며 관련 금융시장의 잠재력이 확인되고 있음(이경자, 2023).

④ 예금보험공사

- 금융회사 소유의 미술품을 예금보험공사가 매각하여, 회수금액을 예금자에게 배당하여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지만, 미술품 감정 수요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김보름, 2021).

- 사례 1.
 -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저축은행 보유 미술품 236점을 2015년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옥션 미술품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함(세계일보, 2015).
 - 토마토, 프라임, 한국, 진흥저축은행 등이 미술품 담보 대출을 취급하며 담보로 잡았던 작품들이 이에 포함되며, 매각대상 미술품 236점의 최저 경매 예상 총액은 8억 원으로 추정된 바 있음.
- 사례 2.
 - 2023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미술품을 뮤지엄 웨이브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12월 30일부터 1월 9일까지 케이옥션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함. 당시 전시 작품에는 제프 쿤스, 조안나 바스콘셀로스 등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이 포함됨.
 - 2011~2012년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이 대거 발견되어, 위 사례와 같이 경매회사에 위탁·매각을 진행함. 2023년 말까지 8천16점을 매각, 240억 원을 회수하여 부실저축은행 피해 예금자에게 배당하였음(SBS Biz, 2023).

⑤ 보험회사

-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할 경우 부보액(보험가입액) 설정 및 미술품이

손상 또는 유실·분실될 경우 보상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금을 산출할 목적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을 진행함.

- 미술품에 대한 보험은 박물관·문화재 종합보험, 예술품보험, 미술품 보험 등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보장하는 내용은 크게 상이하지 않음. 국내에서의 미술품에 대한 보험 가입은 개별 작품별로 보험 가입보다는 미술관 소장품 전체, 혹은 해당 전시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김보름, 2021).
- 미술품 보험가입의 경우, 미술작품 보험가입시 시가감정서의 제출이 요건이었던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가입자가 제출하는 작품가액으로 부보액을 설정.
- 단, 대학생이나 신진작가의 작품에 한해서는 가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고 처리시 보상액 조정이 이루어짐.
-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회사에서의 미술품 시가감정 국내 수요는 크지 않음.

3. 국내 시가감정 현황 관련 소결

- 국내 미술품 감정시장은 민간단체 위주의 집단 감정 체제로 구축되어 있음.
 - 국내는 (사)한국고미술협회의 고미술품을 중심으로 한 미술품감정의 시작으로부터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지금은 해산하였으나 (사)한국미술품감평원 등 **민간을 중심으로** 성장해 있음.
 - 감정위원들의 집단 감정감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로 구축되어 있음.
- 국내 미술품 감정시장은 미술품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이 혼재되어 작동함.
 - 진위감정에 비해 시가감정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 뒤늦게 시작됨.
 - 미국, 영국 등의 서구와는 달리 미술작품의 진위에 대한 소장 이력(provenance)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레조네, 작가 자료 아카이브 등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국내 여건으로 인해 현재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이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술품에 대한 지식과 안목이 중요함.

○ 법적·제도적으로 이원화된 미술품 시가감정 시장의 시정이 필요함.

- 미술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미술계 내 미술품에 대한 시가감정 체계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사법」)에 의거하여 미술품 시가감정이 이원화 된 상황임.
- 「미술진흥법」이 발효된 2024년까지 미술품 시가감정과 관련하여서는 「감정평가사법」이 유일하게 '토지 등'을 구성하는 동산 안에 미술품을 포함함으로써, 시가감정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한편, 「감정평가사법」의 이러한 규정은 미술계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현장 경험으로 자격증 없이 진행하는 시가감정행위를 유사 감정행위로 분류해 분쟁의 소지를 내포.
- 2024년 7월 시행된 「미술진흥법」에서 처음으로 '미술품 감정' 과 '미술품 감정업'을 정의함. 그러나 명확히 규정된 '진위감정'과는 달리 '시가감정'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로 명기되어 있음. 이는 「감정평가사법」과 갈등 초래 가능성이 있는 '시가감정'이 「미술진흥법」의 테두리에 있는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가능성을 남기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함.

○ 표준화된 시가감정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미술계의 시가감정은 2차 시장 거래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미술품의 자산가치평가를 위해 국세청, 법원, 금융사 등에서 시가감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국세청, 법원, 금융사 등이 자신들의 업무과정에서 미술계의 시가감정평가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가감정 체계 구축을 통해 시가감정 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제공되는 서비스의 업무 처리과정, 업무의 범위, 결과물의 수준, 미술품 시가감정사에 대한 윤리준수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술품 시가감정사에 대한 자격 및 책임에 관한 규정 필요.
- 국가 차원에서 규정 등을 통해 강제할 사항은 아니나 미술품 시가감정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전담 기구(미국의 USPAP와 같은 업무과정 및 직업윤리 규정 관리 감독) 및 이에 대한 인증을 통해 국세청, 법원, 금융사 등이 미술계의 시가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함.

○ 법적·제도적 이원화된 시스템 정비를 통해 법원, 국세청, 금융기관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시가감정 체계 마련 및 수요기관의 개발이 필요함.

- 법적·제도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미술품 시가감정이 미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 정부에서는 미술품 시가감정의 수요처 개발 및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실질적으로 미술품 감정업이 미술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유한 금융, 국세청, 법원 등의 업무에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활용률 증대를 도모해야 함.

【표2-14】 미술품 시가감정의 이원화 주체간 비교

	미술계 내 시가감정	감정평가사의 시가감정
감정 프로세스	미술 전문가에 의한 다수의 종합적 판단	감정평가사 3방식 6평가법에 의거한 개인 판단
제도적자격 책임여부	공인된 자격증 없음 의견일 뿐 법적 책임 없음.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귀책사유 있을 경우 책임 (보험가입)
감정의 근거	다년간의 노하우에 의한 안목이 전제된 감정	「감정평가사법」에 의거한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스
법적 근거	관련 법규 미비. 「미술진흥법」이 시가감정을 규정하는지에 대해 법률가들의 의견 분분	「감정평가사법」에 의거하여 진행
한계점	체계적 프로세스 및 그에 준하는 감정평가사 개발 필요	미술관련 비전문가로 미술품에 대한 안목없이 이루어지는 평가

제3절 주요 국가별 미술품 감정 현황



1. 국가별 시가감정 관련 정책 및 제도

- 주요 국가의 미술품 감정 제도 및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국내 미술품 감정 시스템 확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미술품 감정 분야에 있어 오랜 역사와 확고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진위감정에 있어서는 전통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시가감정 분야에 있어서는 성장이 필요한 일본, 미술품 감정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않으나 최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만을 포함한 다섯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1) 미국의 미술품 감정평가 시스템

1) 감정 제도 및 현황

- 미국은 미술품 감정 및 평가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인된 자격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문화예술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며 미술품 수집품 등 동산의 감정이 발달함.
 - 미술품 등 동산에 대한 재화적 가치평가가 발달하였으며, 다양한 공적·사적 목적을 위해 미술품과 골동품의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 감정사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미국의 미술품 감정 기구와 체제는 비영리 민간재단인 감정평가재단(TAF)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TAF는 감정평가를 위한 기준인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niform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을 관리하고 갱신함.
- 즉, 감정평가재단(TAF)은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을 관리하고, 민간단체는 이를 준수하여 미술품 감정사를 인증 및 교육하며,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기준과 민간단체의 인증을 신뢰하며 세금 등을 위한 미술품 감정평가에서 USPAP의 준수를 요구함.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해 미술품 감정사의 전문

성과 신뢰성을 보장함.

- 국세청(IRS)은 미술품 시가감정 서비스(Art Appraisal Services)를 운영하며 세금 발생과 관련하여 적정 시장가격을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감정평가재단(TAF)은 1987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 가치평가 분야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부동산, 동산, 비즈니스 가치평가의 기준과 자격인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을 마련하고 2년마다 갱신함.

【표2-15】 미국 국세청과 감정평가재단(TAF)의 미술품 시가감정 서비스

항목	내용
국세청(I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감정서비스 부서는 국세청의 항소부서 내에서 운영됨. - 내부 감정가 6명과 필요 시 외부 가치평가사 고용. - 1968년 설립된 미술품자문패널(The Art Advisory Panel)이 세금 발생과 관련하여 적정 시장가격 제안 서비스 제공. - 패널은 미술관 큐레이터, 관장, 경매회사 관계자, 학자, 딜러 등으로 구성, 2019년 기준 약 20명의 패널리스트가 활동.
감정평가재단(TA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미국과 캐나다의 9개 가치평가 기관들이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기반으로 1987년 설립. - 1989년 '금융기관의 개혁복구 및 시행법' 제정, 감정평가재단(TAF)을 표준과 조건 설정 기관으로 허가. - 부동산, 동산, 비즈니스 영역을 아우르며, 최근 미술품 가치 상승에 따라 동산/미술품 감정의 역할 강화.

※ 출처: 양지연(2020: 194) 재정리

○ **미국에서의 시가감정사(Appraiser)와 진위감정가(Authenticator)는 별도의 전문영역의 전문가로 나뉘며, 각각의 담당 업무와 책임과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음.**

- 미술품 진위감정의 경우, 프랑스와 달리 진위판단을 위한 협회는 없지만, 비영리 연구기관인 뉴욕의 국제미술연구재단(IFAR)에서 진위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진위감정은 주로 미술사가,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가의 진품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출처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성을 높이고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의 경우, 전문 시가감정사들이 진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미술품 및 수집품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은 관련 민간협회에 소속된 회원 또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 민간 감정협회 회원 외에도 경매회사 직원이나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는 법적 효력을 가짐. 협회 소속 감정가들은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을 근거로 가치평가를 수행하며, 진위감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자문을 통해 확인함.
 - 북미지역의 감정평가사는 업무 수락에서부터 조사작업의 진행, 평가결과의 보고, 사후 업무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행하면서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을 준수해야 함. 또한, 미술품 시가감정사들 역시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에 입각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사는 특정 전문분야를 가져야 하며, 민간단체 중 가장 오래된 단체인 미국감정가협회(AAA)는 미술품 및 장식예술품 중심의 감정가들로 구성되어 약 100여 개의 전문분야를 갖춤.
- 미술품의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의 분리가 모호한 국내 환경과는 차이를 보임. 실제로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교육과정에서는 규정 숙지 및 실천은 바람직한 시가감정 결과 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위감정 실무와는 상이함.

2) 미국 주요 미술품 감정 기구와 체계

① 감정평가재단 The Appraisal Foundation, TAF

- 감정평가재단(TAF)는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다양한 감정가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의 감정사 자격 인증제도와 교육제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함.

○ 설립 배경 및 목적

- 감정평가재단(TAF)는 1987년에 미국 내 동산 및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감정평가의 표준과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됨.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심각한 금융위기 당시 특히 부동산 담보 평가와 관련된 과다 평가 및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음. 이러한 배경은 감정평가재단(TAF)의 설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금융기관 및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둠.
- 감정평가재단(TAF)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모든 직업군에서 통일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미국 의회로부터 이를 제정·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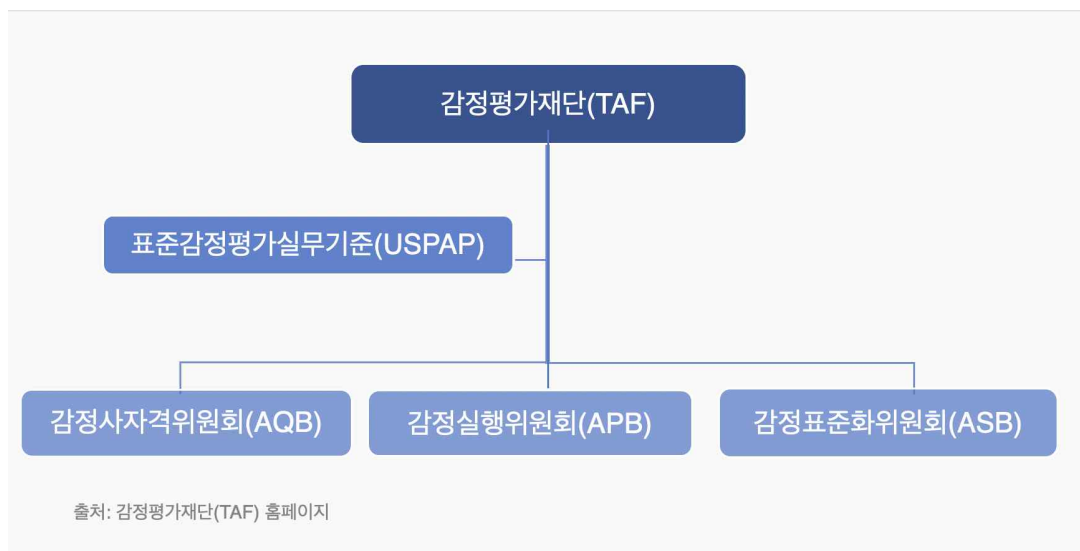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의 관리 및 갱신의 역할 수행

- 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준수해야 할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을 2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기준을 제공함.

○ 감정평가재단(TAF)는 세 가지 주요 하위 위원회로 구성

- 감정사자격위원회(Appraiser Qualifications Board, AQB): 감정가의 최소 자질 및 자격 기준 관리
- 감정실행위원회(Appraisal Practices Board, APB): 감정 실무 관련 기준 및 관행을 개발하고 보급
- 감정표준화위원회(Appraisal Standards Board, ASB): 전문 감정표준규약 집행 및 관련 규정 마련

【그림 2-1】 미국 감정평가재단 위원회 구조



②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은 감정평가사들이 준수해야 할 실무기준을 제공하여 미술품 시가감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보장함.

○ 배경 및 목적

- 1989년 감정평가재단(TAF) 산하의 감정표준화위원회(ASB)에 의해 처음으로 성문화됨.
- 1980년대의 금융위기는 부동산 감정평가 분야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으며,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한 자산이 과대평가되거나 거품이 형성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요구됨. 이에, 표준화된 감정평가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USPAP이 제정되었으며, 감정평가사가 지켜야 할 절차와 윤리적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USPAP의 목적은 감정평가 실무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규정하여 감정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감정평가 간의 질적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의 구성요소

- USPAP은 평가방법, 기준, 자료 수집방법, 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 USPAP은 서문, 용어정의, 윤리규정, 기록유지 규정, 평가역량 규정, 업무범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7장과 제8장이 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룸.
- USPAP의 구성요소 중 서문, 용어정의, 관할권 예외규정 등은 모든 감정평가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강령임.
- USPAP의 구성요소 중 평가 기준 및 기준세칙의 10개 항목은 각 전공 분야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됨.
- 평가 기준 및 세칙 중, 기준 1-2 항목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해당하며, 기준 3-4는 감정평가 검토, 기준 5-6은 대량 감정평가, 기준 7-8은 동산 감정평가, 기준 9-10은 사업 감정평가에 해당함. 각 기준과 세칙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뒤에는 평가 기준 해설, 자문의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함.

【표2-16】 2024년본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의 전체 구성과 내용

제목	내용
감정평가 표준실무기준 -간행사, 목차	USPAP -Foreword, Table of Contents
서문	Preamble
용어정의	Definition

윤리규정	Ethics Rule
기록유지 규정	Record Keeping Rule
평가역량 규정	Competency Rule
업무범위 규정	Scope of Work Rule
관할권예외 규정	Jurisdictional Exception Rule
평가기준 및 기준세칙 기준1-2 부동산 감정평가 수행/보고 기준3-4 감정평가검토 수행/보고 기준5-6 대량 감정평가 수행/보고 기준7-8 동산 감정평가 수행/보고 기준9-10 사업 감정평가 수행/보고	Standards and Standard Rules Standard 1-2 Real Property Appraisal Development/Reporting Standard 3-4 Appraisal Review Development/Reporting Standard 5-6 Mass Appraisal Development/Reporting Standard 7-8 Personal Property Appraisal Development/Reporting Standard 9-10 Business Appraisal Development/Reporting
(평가기준 해설)	(Statements on Appraisal Standards)
자문의견	Advisory Opinions
질문과 답변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출처: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2024년본 참조

○ 미술품 감정평가는 기준 7-8의 동산 감정평가 관련 기준에서 제시

- 미술품 감정평가와 가장 밀접한 규정은 기준 7과 8이며, 이는 동산 감정평가와 관련된 핵심 항목임. 기준 7은 동산 감정평가의 업무수행 기준과 감정평가사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 8은 감정평가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감정평가사는 USPAP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미술품의 공정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음.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의 격년 갱신 의무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은 2년마다 갱신되므로, 미술품 시가감정사를 포함한 전체 감정평가사들은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함.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의 효력 및 활용

- USPAP은 감정평가사를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로서 신의성실 의무(Due Diligence)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함.
- 평가 대상 자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방정부, 주 정부, 공공기관은 감정평가서가 반드시 USPAP을 준수하여 작성되고 제출되기를 요구함. 특히 국세청(IRS)에 제출되는 감정평가서는 USPAP준수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서약서를 첨부해야 함.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의 핵심 규칙

- USPAP은 직업 윤리 규정(Ethics Rule), 기록유지 규정(Record Keeping Rule), 능력 규정(Competency Rule), 업무범위 규정(Scope of Work Rule), 관할권 예외 규정(Jurisdictional Exception Rule)으로 나뉘어 있음.

【표2-17】 미국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의 핵심 규정

규칙	내용
직업윤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사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 수행. - 합의된 평가액에 맞춰 감정평가서 작성 금지. - 평가보고서의 불법적 사용 및 오해 유발 금지. - 서명은 전문가 책임 준수 서약. -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위해 성실한 평가 수행 강조.
기록유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과정의 기록 필요. - 기록은 문서 외에 회의 내용 및 대화 포함. - 모든 기록은 5년 보관, 소송 관련 기록은 판결일로부터 2년 보관. - 기록 유지 위반은 직업 윤리 규칙 위반으로 간주.
능력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사는 필요한 능력 보유해야 함. - 능력 부족 시 업무를 맡지 말아야 함. - 업무 수락 후 능력 부족 발견 시 고객에게 알림. -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안을 위해 모든 수단 활용 강조.
업무 범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확인, 업무 범위 결정, 보고서 포함 세 단계 설정. - 평가보고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준수 필수 규칙.
관할권 예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이 법령이나 공공 규칙과 충돌 시 효력 정지. - 감정평가사는 법령 조사 후 충돌 여부 확인 및 보고서에 명시.

※ 출처: 미국감정가협회(AAA) 홈페이지

3) 미국 미술품 시가감정사 자격요건 및 인증 과정

○ 미국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자격요건은 법률 등으로 규율하기보다는 민간협회의 자율 규제에 의거

- 민간협회에서 회원의 교육 및 재교육, 윤리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함.

○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교육 이수

- 감정평가재단(TAF)와 각 협회의 규정에 따라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과정 통과

- 모든 감정사는 USPAP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정기적인 재교육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 미술품 시가감정사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최신 동향과 기술을 습득해야 함. 이는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임.

○ 미국 감정평가재단(TAF)에서 규정한 개인 자산 감정사 자격요건

- 감정평가재단(TAF)은 감정평가사 자격의 기준과 윤리적 규정을 설정하며, 개인 자산 감정사의 자격 요건을 정의함. TAF는 직접 교육을 제공하지 않지만, USPAP(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과 같은 업계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인증 교육기관들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제공함. 개인 자산 감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교육 이상, 120시간의 교육이수, 최소 700시간의 평가 경험과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됨. 또한, USPAP관련 교육과 시장 관련 자산 감정 경험도 필수적임.

【표2-18】 미국 감정평가재단(TAF)에서 규정한 개인 자산 감정사 자격요건

항목	요건	세부사항
기본 자격 요건	학력 요건	- 대학교육 이상: 30학점 이상 이수 - 준학사 이상 학위 (전공 불문)
	교육 이수	- 120시간의 특정 주제를 포함한 교육 이수

지속 교육 요건	주기	- 5년마다
	총 이수 시간	- 최소 70시간
	-평가이론 관련 교육과정	- 최소 20시간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과정	- 개인 자산 USPAP 15시간 과정 또는 - 2년마다 개인 자산 USPAP 7시간 갱신 과정 필수
경험 및 경력 요건	일반 경험	- 최소 700시간의 일반 평가 경험
	특정 경험	- 시장 관련 개인 자산 감정 경험: 1800 시간 (1년 풀타임, 공휴일 포함) - 시장 관련 개인 자산 비평가 경험: 4500시간 (2.5년 풀타임, 공휴일 포함)
	혼합 경험	- 감정 경험과 비평가 경험을 1:2.5 비율로 조합하여 인정

※ 출처: Personal Property Appraiser Minimum Qualification Criteria,(2018,01)

4) 미국 감정 관련 민간협회 및 기관

○ 그 외 미국의 미술품 감정 관련 민간협회 및 기관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2-19】 미국 주요 미술품 시가감정 기관과 특징

기관명	주요 서비스	특징
미국감정사연합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ASA)	미술품, 귀중품, 부동산, 사업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감정	1936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감정사 자격 인증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자산 감정을 수행
미국감정가협회 (Appraisers Association of America, AAA)	미술품, 장식품, 보석 등 감정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감정사 협회로, 신뢰성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 서비스 제공. 현대 및 고전 미술품 감정에서 권위가 있음.
국제감정사협회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Appraisers, ISA)	개인 자산 및 미술품 감정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감정사들이 모여 결성된 협회로, 공정한 감정 기준을 유지하며 감정사 교육과 자격 인증을 제공

개인딜러협회 (Private Art Dealer Association, PADA)	개인 자산 및 미술품 감정	전문적인 미술품 딜러들의 협회로, 특히 고가 미술품 거래 및 감정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 소장품을 다루는 전문 딜러 네트워크를 형성
미국가치평가사협회 (Appraisal Institute, AI)	미술품, 부동산 및 기타 자산 평가	다양한 자산에 대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

※ 출처: 양지연(2020: 206-208)을 토대로 업데이트

(2)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평가 시스템

1) 프랑스 미술품 감정 제도 및 현황

- 프랑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화에 개입과 지원하는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을 진행해 옴. 국가 주도 경매제도의 오랜 전통을 갖는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은 경매사와 감정사가 진행함.
- 프랑스는 경매사가 경매와 관련된 모든 진위 및 시가감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매사의 역할은 프랑스 미술시장에서 중추적이며, 감정사의 위치와 임무를 규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최공호·고우리, 2013: 79).
 - 국가공인 자격시험 통과 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연수해야만 경매사(Commissaire-Priseur)가 될 수 있어, 프랑스의 경매사는 모두 공인경매사라 할 수 있음. 공인경매사 중 법원 명령에 따라 규정된 공개경매를 수행할 수 있는 경매사는 '사법경매사'(Commissaire-Priseur Judiciaire)임.
- 감정사의 경우,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사 자격제도는 없으며 감정사라는 직업도 법적 체제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감정사가 법적 체제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감정사들의 독립적인 지위 환경 조성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정부의 판단임.
 - 경매사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 추가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독립감정사들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감정이 독립감정사들에 의해 진행됨(최공호·고우리, 2013).

○ 프랑스 감정수요의 80%는 경매회사를 포함한 판매자이며, 10%가 보험회사, 10%가 유산 및 공증 목적임(양지연, 2022).

○ 대표적인 민간협회 및 조합으로는 프랑스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조합(SFEP), 전국감정가협회(CNE), 전국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협의회(CNES)등이 있음.

【표2-20】 프랑스 경매사와 감정사

경매사	감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경매사 Commissaire-Priseur habilité · 사법경매사 Commissaire-Priseur Judiciai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감정사 Experts agréé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감정사 Experts Judiciaires -심의회인증감정사 -조합 및 협회 가입 감정사 · 미인증감정사 Experts non agréés · 스페셜리스트 Spécialiste¹²⁾

※ 출처: 양지연. 「국가별 미술 및 감정분야 정책, 제도 연구」. p.108 도표 재정리.

2) 프랑스 미술품 감정사 제도 및 인증체계

○ 전문 감정사의 법적 지위 및 자격요건

- 전문 감정사(Experts professionnels) 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지위는 없으며, 대부분 감정사는 대학과 루브르 학교 같은 예술학교에서 고고학, 미술사, 조형예술, 장식미술, 응용미술 등과 관련된 학위를 이수하고 전문분야에서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은 후 전문 감정사가 됨.

○ 미술품 감정평가에서 사법부나 행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한 인증감정사(Experts agréés) 제도를 통해 권위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을 위해 국가가 개입·관할.

○ 공공기관에 의한 감정사 인증제를 통해 인증감정사(Experts agréés)와 미인증감

12) 자율판매운영자(OVV)에 속한 감정가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자율판매운영자의 책임하에 있음. 프랑스내에는 경매회사협의회(CMV)에 등록 신고 후 운영중인 약 410개의 자율판매운영자가 있으며 이중 350여 개가 예술품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정사(Experts non agréés)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증감정사는 사법감정사(법원지명감정사), 프랑스의 경매심의위원회가 인증하는 심의회인증감정사, 조합 및 협회 가입 감정사로 구분

- 공공기관에 의한 감정사 인증제도는 공공기관에서 감정관련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 견해를 제시하는 감정사들을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된 감정사들은 대외적인 권위를 인정받음(이경택, 2023).
- 경매회사협의회(CMV)에서 발간한 감정소사전(Petit dictionnaire de l'expertise)에서 “인증 감정사는 작품의 제작연도, 본질, 상태, 변형 및 복원 가능성을 포함한 작품의 가치(시가)를 평가하여 소속된 협회(기관)의 명의로 감정서를 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의함(양지연, 2020: 108).

① 사법감정사 Experts Judiciaires

- 프랑스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등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감정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법원에 등록된 감정사로 직업이 아니라 직함에 해당.
- 법원에 의해 임명, 감정 관련 법정 소송 발생 시 기술적 전문 견해를 제시함(견해는 자문 사항이며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음). 사법제도의 비정기적 협력자로서 조정 및 중재 임무를 위임받을 수 있음.
- 사법미술감정가협회(Compagnie des Experts Judiciaires d'Art, CEJOA)에서 협회원의 만장일치로 관련 분야의 학력과 경력, 실무증명, 법적·도덕적 무결을 검증하여 위촉가능함.
- 특정 분야(의학, 공학, 회계, 법률 등)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수, 5년 이상의 실무 경험 필요, 프랑스 법원에 등록(필요한 서류 제출 후 심사 통과), 법적 절차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70세 미만으로 제한.
- 정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음 3년은 수습 시간, 경험과 직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평가, 이후 5년마다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함¹³⁾.

② 심의회인가감정사 Experts agréés par le Conseil

- 프랑스의 경매심의위원회는 감정사 인가, 그리고 인가받은 감정회사와 감정인의 법률 위반 시 인가 취소 권한을 보유하며, 심의회 인가를 받으면 동산경매에서의 감정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동산임의경매심의회 인증감정사 자격을 획득함.

13) <https://cejoa-caparis.org/expertdejustice/>

- 특정 분야(회계, 법률, 공학 등)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감정사는 유럽회원국에서는 임의 감정평가 가능함.
- 소수 사법감정사들의 과도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으로 심의회인가 감정사 제도를 마련함.
- 감정사들의 객관화된 자격요건이나 법적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인가제를 통해 동산경매물건의 감정자격을 부여하는 대신 관련 법규 준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③ 사법경매사 Commissaire-Priseur Judiciaire

- 프랑스는 공인된 경매사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공인된 사법경매사가 경매관련 위탁물품에 대한 진위·시가감정을 행하고 있으며, 경매 관련 감정이 전체 감정 수요의 80%를 차지. 이에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매사 제도에 관해 고찰함.

○ 사법경매사의 정의 및 활동 범위

- 사법경매사는 법에서 지정한 경매를 수행하며, 공인경매사(Commissaire-Priseur habilité) 중 사법경매사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해당.
- 법률 관련 공공서비스 제공의 영역으로, 법으로 지정된 감정, 사법경매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
- 사법경매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2-21】 프랑스 사법경매사의 주요 업무

영역	주요 업무
진위감정 및 시가감정 (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매사는 공증인과 함께 재산목록 및 상속품에 대한 시가감정을 진행 • 감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자가 대리인을 통해 사법경매사에게 재산목록 및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요청 - 사법경매사는 국가담보기관에 저장물을 맡길 수 있음. - 집행원은 압류 시 사법경매사에게 압류절차 재산목록을 요청 - 민사법정에서 사법경매사에게 이혼 관련 재산분할을 요청 - 상법재판소에서는 사법경매사에게 파산재산 목록 및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요청
공공경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매의 대상: 압류품, 국가담보기관 저장물, 주인없는 물품, 몰수청 압류 및 몰수품 관리 기관의 압류품, 파산품 • 의뢰인에 대한 경매대상: 상속품, 보호관리 대상의 물품, 파산품

※ 출처: 양지연, 「국가별 미술 및 감정분야 정책, 제도 연구」, p.99 도표 재정리.

○ 사법경매사의 자격요건 (양지연, 2020:98)

- 법학이나 미술사 관련 분야의 학위(학사)를 취득한 자는 사법경매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시험은 필기(사법, 미술사)와 구두(영어, 경영, 회계)시험으로 이루어짐.
- 시험 통과 후에는 2년간 유급 인턴십(이론과 실무를 학습)을 진행해야 하며, 완료 시 경매회사협의회(CMV)에서 연수수료증(Le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e Commissaire-Preneur)을 발급받을 수 있음. 수수료증을 받으면 자물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 및 최종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됨.
- 특정 자격요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사법경매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최소 7년간의 자물판매운영자(OVV)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자.
- 최종자격시험(30분 동안 구두 진행, 총 3개의 영역(법률/규제/경매실무) 통과시 사법경매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법경매사 제도의 최근 변화

- 2022년 7월부터 사법경매사(Commissaire-Preneur Judiciaire)와 집행관(Huissier de Justice)이라는 직업이 통합되어 법무위원/법무관(Commissaire de Justice)으로 변경되어, 법무부 장관이 위임한 공익 임무를 수행하게 됨.
- 2023년 국립법무위원 양성연구소에서 법무위원의 초기 교육을 받은 첫 연수생들을 배출하였으며, 2026년 7월 법무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존 사법경매사는 업무수행이 불가함.¹⁴⁾

【표2-22】 프랑스 주요 경매사 관련 기구의 인력 구분 및 특성

구분	감정인력 구분	특 성
전국사법경매사협의회 (Chambre Nationale des Commissaires-Preneurs Judiciaires de France, CNCP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매사 - 법무부 지정 경매원 신분 - 법원 명령에 의해 규정된 공개경매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5년에 사법경매사 423명이 소속된 전국사법경매사협의회로 발족한 공공기구. - 회원들은 「민사소송법」의 엄격한 법령 및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 프랑스 경매회사협회 홈페이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매년 20시간의 연수와 학회, 컨퍼런스를 통해 사법경매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기술적, 미적 관점에 대한 검증 필요.
경매회사 협의회 (Le Conseil des maisons de vente, CM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경매사 - 자물판매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월 28일 법률 제2022-267호에 의해 설립된 공개경매에 대해 규제기관으로, 예술시장 규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2023년 2월 20일 법령에 따라 설립됨.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자물공개경매위원회 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 (CVV)의 후속 기관임. - 공공경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촉진하며, 필요한 법률과 규정의 개정을 제안함.

14) République Française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경매사(Commissaire-Priseur habilité)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연수과정을 제공,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포함함. - 경매사들의 윤리규정을 개발하며, 공인경매사가 자유판매운영자(OVV)와 분쟁 발생시 해결책을 제시함. 한편, 공인경매사가 자유판매운영자(OVV)가 법적, 규제적, 직업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징계를 담당.
--	--	--

3) 프랑스 감정 관련 민간협회 및 기관

① 프랑스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조합 Syndicat Français des Experts Professionnels en Œuvres d'Art et Objets de Collection, SFEF

- 1945년에 설립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품 감정기관으로, 46개 전문분야에 걸쳐 142명의 회원 감정가가 소속되어 있음(2024년 9월 기준). 대다수 회원이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항소법원이나 세관 그리고 재산 관리국에 등록되어 있음. 회원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회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함.
- 증가하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감정의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엄격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프랑스 및 해외 컬렉터, 아마추어, 상속인, 법원 또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감정 및 공개경매, 판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개경매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함.
- 감정 분야는 회화, 판화, 조각, 사진을 포함한 예술품 및 골동품, 그 외 자동차, 가구, 시계, 와인, 카펫, 박제, 악기, 보석, 우표 등 다양함.

② 전국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협의회 La Chambre Nationale des Experts Spécialisés en objets d'arts et de collection, CNES

- 1967년에 설립된 문화유산 감정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의 협의체로, 현재 310여 명의 감정가가 활동 중임(2024.09기준).
- 학생(문화생/배우는 사람 개념)감정가(Élève, Expert)-전문감정가, 명예회원, 연계회원, 해외 3개국에 있는 협력감정가로 구성.
- CNES는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입회 시험을 통해 검증된 전문가(감정가)를 선발함. 시험에 합격하면 학생감정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며, 이 자격을 얻은 후 7년 이내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적합성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통과되면 CNES의 공식 감정가(Expert) 지위를 얻게 됨. 자격을 취득하면 프랑스 내 모든 지역에서 감정가로 활동이 가능¹⁵⁾. 자체적 연

수프로그래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감정연구교육 실시하고 있음.

- 고미술, 원시예술, 도자기, 18세기 가구, 현대미술, 직물, 시계, 보석 등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품 감정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서면 감정서를 발급함.
- 보험사 요청에 의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경매장, 박물관, 미술관, 법원, 세관, 엔틱 박람회 등과 협업을 진행함.
- 소속 회원들은 민사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이 필수임.

③ 전국감정가협회 La Compagnie Nationale des Experts, CNE

-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90명 이상의 감정가들이 소속되어 있음. 그중, 주로 골동품, 그림, 서적, 희귀품, 예술품 등을 전문으로 감정하는 17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음(2024년 9월 기준).
-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회원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부과하며 민사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함.
- 회원자격요건: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최대 전문분야 2개까지 가능), 동료들의 능력 인정, 합법적 공민권 및 참정권,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④ 전국미술전문감정가연맹 La Fédération Nationale d'Experts Professionnels Spécialisés en Art, FNEPSA

- 1987년에 설립된 프랑스에서 가장 큰 미술감정가협회 중 하나로 65명 이상의 전문 회원과 전문 연수생 소속되어 독립감정가로 활동하고 있음. 50개 이상의 전문 감정 분야 보유하고 있음.
- 회원은 5년 이상의 현장경력과 2~3개 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전문분야 논문이 통과되어야 함. 전문적 지식과 경험, 기술 그리고 명성을 보유해야 함.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철저한 기밀 유지가 요구됨.

⑤ 프랑스예술품감정가연합 Union Française des Experts en objets d'art, UFE

- 1974년에 설립되었고, 500명 이상의 감정가가 소속되어 있음.
- 문화 및 예술계 인사, 개인, 경매회사 및 갤러리 등에 감정 제공. 자산 감정, 식별,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분야는 고대미술, 현대미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장르, 악기, 시계,

15) 프랑스CNE 홈페이지 <https://www.experts-cnes.fr/fr/article/la-cnes/7>

무기, 도기, 보석 등을 아우름.

⑥ 유럽미술감정가연합 La Confédération Européenne des Experts d'art, CEDEA

- CNES와 SFEP가 1988년에 공동 설립하였으며, 636명의 감정가가 소속되어 있음. (현재 CEA(2010), CBEOA(1993), FNEPSA(2011), UFE(2022)도 연맹에 합류.)
- 개인, 예술단체, 사법기관 및 세관에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감정분야는 고대예술, 회화, 판화, 조각을 포함한 악기, 시계, 무기, 카펫, 세라믹 등임.

(3) 영국의 미술품 감정평가 시스템

1) 영국 감정 제도 및 현황

- 영국은 198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문화예술의 독자적인 자율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유지.
- 감정사는 진위감정사(Experts)과 시가감정사(Valuers)¹⁶⁾으로 나뉘며 진위감정은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라 미술사학자,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가감정의 경우에도 감정가협회, 갤러리스트, 딜러, 경매회사 등이 독립적·자율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함(양지연, 2020:161).

2) 영국 미술품 시가감정사 제도 개요

- 영국은 미술품 감정 및 평가 인력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인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미술품 감정업 및 감정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개입이 없음.
-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감정 인력의 자질 및 요건은 없으나, 감정인력 관련 협회 가입을 통하여 전문가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있음.

16) 영국은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을 "시가감정사"보다 "가치평가사(valuers)"라는 용어 사용이 일반적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시가감정사와 동일한 의미이나, 영국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영국의 경우는 "가치평가사(valuers)"로 명기함.

-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협회의 가입을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및 회원 추천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됨.

3) 영국 주요 민간협회 및 기관별 시가감정사의 자격요건

①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 기관 개요

- 1868년에 런던의 측량사들이 설립한 국제적인 민간협회로, 1930년부터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 현재 약 130,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미술품과 골동품을 포함한 동산 및 부동산의 가치평가, 인증, 관리,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경매사, 보험업계 종사자, 독립 가치평가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사 회원 구분 및 자격요건

【표2-23】 영국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 감정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회원 구분	자격요건
준회원 (AssocR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부문 경로 선택 가능 - 관련 경력 1년 및 관련 학사 학위 - 관련 경력 2년 및 관련 고등, 고급, 기초 경력 - 관련 경력 4년 (자격요건 없음)
공인회원 (MR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 부문 경로가 있으며, 미술품 가치평가사는 평가(Valuation) 경로에 포함 - 5년의 관련 경력과 RICS 공인 학위 - 연공서열, 전문분야, 학계에서 10년의 관련 경력 - 미술품 및 골동품 가치평가사: 공인회원만 가능 - 공인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핵심역량과 선택역량에 대한 평가를 받은 뒤 회원으로 승인
동료회원 (FRICS)	해당사항 없음

※ 출처: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 홈페이지

-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는 분야별로 가치평가사의 경로(pathway)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분야마다 필요한 역량(지식, 기술, 경험)을 세 가지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역량의 세 가지 수준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1단계: 지식 및 이해
- 2단계: 지식의 적용
- 3단계: 합리적 조언, 깊은 기술적 지식의 통합 및 실행

○ 역량의 범주는 필수역량, 핵심역량, 선택역량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이 구분됨

- 필수역량: 모든 경로의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개인적, 대인 관계적, 전문적 실무 및 비즈니스 기술
- 핵심역량: 가치평가 분야별 주요 기술
- 선택역량: 각 가치평가 분야와 관련된 역량 목록에서 경로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기술

○ 미술품·골동품 가치평가사는 공인회원으로만 자격이 구분되며, 경매회사, 감정 자문회사, 보험/손실 조정, 정부 자문, 박물관·미술관에서 일할 수 있고, 위조, 사본이나 복제물을 포함한 작품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으며 탐구적인 사고방식과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전문가를 위한 도서관 및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이용 능력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음.

【표2-24】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 미술품·골동품 가치평가사의 경로별 역량 요구사항

필수역량	핵심역량	선택역량
<p>레벨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 행동 규범 및 전문성 <p>레벨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관리 •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 • 건강 및 안전 <p>레벨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원칙 및 절차 • 사업계획 • 갈등 회피, 관리 및 분쟁 해결 절차 • 데이터 관리 • 다양성, 포용성 및 팀워크 • 포용적 환경 • 지속 가능성 	<p>레벨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식별 • 리서치 방법론 및 기법 <p>레벨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평가 (또는 레벨3*) <p>레벨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 	<p>레벨3 과목 3개 또는 레벨2 과목 1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 원칙 및 절차 또는 사업계획 •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은 레벨3으로 이수해야 함) • 경매 • 자본세¹⁷⁾ • 보존 및 복원 • 보험 • 매매 <p>추가로 전체 기술 역량 목록에서 선택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레벨2 1과목 선택 필수</p> <p>*가치평가를 레벨3에서 선택한 경우 선택 요건: 레벨3 과목 2개, 레벨2과목 1개, 전체 기술 역량 목록에서 레벨 2과목 2개</p>

※ 출처: RICS Requirements and Competencies guide 34쪽 재정리.

17) 자본세(Capital taxation)는 영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을 소유하거나 자본이득을 실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모두 포함됨.

【표2-25】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 미술품·골동품 가치평가사의 역량 가이드

역량 종류	1단계	2단계	3단계
경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의 기본 원칙과 법적인 무에 대한 지식과 이해 - (경매 준비, 경매 전, 경매 중의 절차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 판매를 위한 준비 및 경매 전이나 경매 중의 절차에 대한 지식을 실제로 적용했다는 증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 과정에 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증거 제공 (실제 경매 판매 경험 포함)
자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세와 관련된 부동산, 장비 및 기타 자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지식을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세 목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평가 및 협상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세와 관련된 특정 사례 및 기타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조직 내 고위 관리, 클라이언트, 법원/재판소 구성원 포함)에게 합리적인 조언을 제공한 증거를 제시
보존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및 복원에 적용되는 원칙,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또는 복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검사 또는 객체 식별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자산의 보존, 복원 또는 보존 및 복원 과정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조언을 제공한 증거를 제시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실습 분야와 관련된 보험의 원칙 및 관행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실습 분야와 관련된 보험 사항에 대해 지식을 적용하거나 관련 업무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 및 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증명
작품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식별 체크리스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명하고, 관찰해야 할 특성을 포함하여 작품 식별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식별에 대한 지식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어떻게 판매되거나 유사한 이익이 어떻게 취득되는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이익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명 - 이러한 이익의 시장 경제 및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형의 자산 구매 또는 판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관련 의사 결정 과정, 마케팅, 보고 및 거래 완료에 대한 실무경험을 증명 - 다른 형태의 자산 거래와 선택한 구매 또는 판매 경로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지식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형의 자산 구매 또는 판매 거래에 대해 고객에게 합리적인 조언과 보고서를 제공 - 적절한 지원을 통해 복잡한 사례를 시작부터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 고객에게 전체 거래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판매 또는 처분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적절하게 조언
리서치 방법론 및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 데이터 및 기타 출처, 데이터 처리 및 조작 기술에 대한 익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및 기타 자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분석 및 해석을 증명 - 적절한 연구 방법론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게 방법론을 선택하는 능력을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분석 및 해석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 -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게 분석을 적용하는 능력 제시

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가 수행되는 목적, 관련 평가방법 및 기술, 적절한 기준 및 지침, 그리고 실습 분야에서 평가 작업에 대한 관련 법적 또는 의무적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의 평가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능력을 증명하고, 클라이언트 보고서의 준비 및 발표에 상세히 관여 - 자신의 실습 분야(미술품 평가)에 적합한 평가방법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 - 관련 평가 기준과 지침이 자신의 미술품 평가 경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감독하에 공식 평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합리적인 조언을 제공 - 다양한 자산 유형, 평가 목적 및 평가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조언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 - 적절한 평가 기준과 지침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증명하고,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조언할 때 적용방식을 제시
------	--	---	--

※ 출처: RICS Requirements and Competencies guide 54쪽-79쪽 재정리.

② 영국 고미술딜러협회 British Antique Dealers' Association, BADA

○ 기관 개요

- 영국 고미술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로 1918년에 설립되었으며 고미술의 거래 및 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 이 협회는 고미술의 품질과 가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함.

【표2-26】 영국 고미술딜러협회(BADA) 감정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회원 구분	자격요건
준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회원에게 3년 이상 고용된 자 - 21세 이상, 최소 회원 2명 이상의 추천 (1명은 고용주) - 매년 12월 첫 번째 이사회에서 승인 결정
정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또는 골동품 거래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딜러로 신청을 통하여 선정 - 회원지원서 요건: ① 골동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 ② 3년 이상 골동품 딜러 활동 증명 ③ 진실된 딜러라는 증명 ④ 거래 골동품을 설명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증명 - 이사회 구성원 2명 이상 찬성(거부시 1년간 신청 불가) - 회원 2명 추천을 받아 회원지원서 제출: 위원회에서 이유 제시하지 않고 거부 가능, 12개월이 지나야 회원지원서 제출할 수 있음 - 회원 선정 이후 매년 위원회의 확인 과정을 통해 회원 자격 갱신 - 회원자격 유지 요건: ① 예술작품의 국제거래 통제를 위한 실무규범 준수 ② 경매법에 의거해 불법이 된 '녹아웃'(knock out) 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한다는 서명서를 협회 제출

※ 출처: 영국 고미술딜러협회(BADA) 홈페이지 참조

③ 미술·고미술딜러협회 The Association of Art & Antiques Dealers, LAPADA

○ 기관 개요

- 영국의 주요 미술 및 고미술 딜러협회로 1974년에 설립되었음. 영국 내에서 미술품과 고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미술시장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2-27】 영국 미술·고미술딜러협회(LAPADA) 감정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회원 구분	자격요건
정회원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험 - 부가가치세/국가판매세 등록자 - 심사위원 2인(1인 이상이 이사회的重要한 멤버로 구성)의 승인 필요
견습회원 (Apprentice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견습 기간 (정회원 멘토링 필요)
명예공인전문가 (Honorary Accredited Expe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심사를 통해 결정
승인된 서비스 제공업체 (Approved Service Provi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및 고미술 거래 관련 업체

※ 영국 고미술딜러협회(BADA) 홈페이지 참조

④ 미술경매사·가치평가사협회 Society of Fine Art Auctioneers & Valuers, SOFAA

○ 기관 개요

- 영국의 미술품 경매사 및 가치평가사들로 구성된 협회로, 미술품 경매 및 평가 업무를 전문으로 함. 경매와 관련된 법적·윤리적·기술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함.

【표2-28】 영국 미술경매사·가치평가사협회(SOFAA) 감정인력 구분 및 자격요건

회원 구분	자격요건
정회원 (Full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승인을 통한 회원자격 획득 - 3년 이상의 실무경력 필요 - 가입비 GBP 150, 연회비 GBP 500
준회원 (Associ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FAV(Associate of the Society of Fine Art Auctioneers and Valuers) 명칭 사용 가능
동료준회원 (Direct Associ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5년 이상의 실무경력 필요
명예회원 (Honorary Mem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입

※ 출처: 양지연(2020: 168-9) 재정리.

⑤ 국제미술·고미술무역협회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Art and Antique Dealers' Associations, CINOA¹⁸⁾

○ 기관개요

- 전 세계 미술 및 고미술 딜러들의 주요 국제 협회로, 1935년에 설립되어 국제적인 미술 및 고미술 거래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각국의 미술 및 고미술 딜러 협회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CINOA는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과 고미술품 거래에 대한 공통의 윤리적, 법적 기준을 제정하고, 협회 회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교육을 제공함.

- 이 외 소더비(Sotheby's), 크리스티(Christie's), 본햄스(Bonhams) 등 주요경매회사가 내부에 시가감정 서비스 부서를 두고, 위탁판매, 기업컬렉션, 보험가입, 세금 등을 위한 미술품 시가감정 서비스를 제공함.

(4) 일본의 미술품 감정평가 시스템

1) 감정 제도 및 현황

- 2005년도 감손회계제도(減損會計制) 도입으로, 일본 기업 소유의 미술품에 대해 고정자산으로 시가감정을 받도록 의무화되면서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2015년 세제개정에서 소득세 상속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재산 및 채무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는 것이 제도화되면서 시가감정에 대한 중요도가 커짐. 이에 따라 시가감정을 주로 행하는 협회, 단체 및 개인 미술상들이 생겨남.
- 일본은 주로 골동품 등 고미술품과 관련된 감정 제도가 발달하였으며, 시가감정 관련 기관은 많지 않고 진위감정 위주의 기관들이 주를 이룸. 일본의 감정시스템은 민간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상(畫商)이 중심이 된 여러 민간단체에서 감정을 진행하며 안목감정이 주를 이룸. 주된 기관 및 단체 외에는 작가의 유족과 연구자들 등 개별감정위원들이 진행하고 있음.

18)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으나, 양지연(2020)의 정리를 따라 국제적 민간기구로서 영국 사례와 함께 나열함.

2) 감정인력의 자격, 지침 및 요건

○ 일본 내 『미술품감정사』로 공인된 미술품 감정사 자격제도는 없음.

- 단, 공익재단법인인 송고회(頌古会)에서 <미술품 감정사>의 자격검정제도 (미술감정사(등록 5615519호), 미술품감정사(등록5615518호)의 등록상표 보유)를 2020년 7월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나 민간자격증으로 일본내 신뢰도나 파급력은 부족한 현황임.

3) 감정 관련 민간협회 및 기관

○ 일본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구인 동경미술구락부(東京美術倶楽部)의 감정위원회, 일본양화상협동조합 감정등록위원회(日本洋画商協同組合鑑定委員會), 오사카미술구락부(大阪美術倶楽部), 교토미술구락부(京都美術倶楽部)의 감정위원회 외 신화옥션 등 몇몇 경매회사가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 역사를 지닌 주요 단체들은 진위 감정을 위주로 진행해옴. 동경미술구락부는 '50년 가깝게 진위감정을 위주로 진행해왔으나, 최근 들어 수요에 맞추어 시가감정을 막 시작한 단계임'.¹⁹⁾

○ 경매에 앞서 상기 협회, 조합 회원만이 참가할 수 있는 비공개 교환회를 통해 회원간 작품을 거래하거나, 가격을 조정한 후 다시 작품을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팔거나 경매를 통해 즉매하는 이중적 구조로 진행됨. 따라서 회원들은 서로 매매 가격을 예측하고, 조정한 후 일반 고객에게 거래하는 폐쇄적인 거래로 이루어짐.

【표2-29】 일본 주요 감정기관

주요 감정 기관	상세 내용
동경미술구락부 감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미술구락부는 1907년 4월 설립 이래 일본 미술품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미술품감정 및 전시회 개최 등을 진행하는 약 500여 명의 화상들의 단체임. 이 협회의 감정위원회는 1977년 발족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품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감정대상은 일본인이 그린 일본화로 한정(1800년대 이후)하며 전문가들의 양식감정과 과학감정을 동시에 수행, 일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 - 경찰이 발행하는 골동품 허가증을 가진 회원(미술상)만이 모여 개최하는 폐쇄적인 딜러즈 옥션(교환회)이, 서화골동, 근대 일본화, 서양화, 도기 등 장르별로 진행되며, 대부분 사전정보 없이 출품되는 작품의 진위, 가치를 판단하는 안목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 거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진품보증제도 있음.

19) 동경미술구락부 감정 담당 과장 黒田 康男 확인 내용. (2024년 9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여 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진위감정을 위주로 감정을 진행해왔으나, 최근 들어 미술품 매각, 자산등록, 보험을 위한 미술품의 시가감정도 진행하기 시작했음. - 평가료는 1점에 5만엔(세금 별도), 2점부터는 각 1만엔(세금별도), 원칙적으로는 1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수백점 이상의 경우 감정료 협의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음.
일본양화상협동조합 감정등록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7년 25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하여 2024년 현재 일본 전국 35개 화랑이 가입된 단체로, 미술품 감정을 비롯하여 미술품 교환회 및 경매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감정등록작가 71인을 홈페이지에 명시해 두었으며, 감정서가 아닌 등록증서를 발급함. 진위감정만을 진행. - 작가마다 개별 감정등록 전문위원을 정함. 유족, 그 작가를 주로 다룬 화상, 작가에 따라서는 평론가, 연구자도 포함
오사카미술구락부, 교토미술구락부 감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0년 발족한 오사카미술구락부, 1908년에 설립된 교토미술구락부는 미술시장의 발전과 화상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족하였으며, 동경미술구락부와 더불어 일본에서 미술품 감정(진위)으로 가장 신뢰받는 단체임.

4) 주요 시가감정 단체

- 2000년대 초반부터 미술품 시가감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 2004년에는 (주)미연감정이, 2013년에는 (재)일본아트평가보존협회가 설립되었고, 2018년에는 (재)도미감정평가기구가 발족함.

① (주)미연감정 株式会社 美研鑑定

- 현대미술 뿐 아니라, 서화, 병풍 도자기, 공예, 보석, 악기, 엔틱 가구, 와인,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 손해보험계약 시 미술품, 공예품, 보석, 장식품 등의 시가감정
 - 2) 손해보험사고시 미술품, 공예품, 보석, 장식품 등의 시가감정
 - 3) 자산 상속시의 미술품, 공예품, 보석, 장식품 등의 시가감정
 - 4) 감손회계자산계상시의 미술품, 공예품, 보석품, 장식품 등의 시가감정
 - 5) 미술품 자산 대장(의장 등록)의 작성
 - 6) 상기에 관한 연수회의 기획 개최, 강사 파견 등
 - 7) 상기에 관한 감정평가인의 육성
 - 8) 상기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 주요 사업처로는 국세청, 세무서, 국내외 손해보험사, 법원, 회계사무소, 갤러리, 미술관 등임.

② (재)일본아트평가보존협회 日本アート評価保存協会

- 미술품의 공정한 가치를 제시하고 미술품의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 2013년 설립됨. 주된 사업내용은 미술품의 시가 감정, 젊은 기업 컬렉터 육성, 일본 공예미술의 해외 홍보 등임.
-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장르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진위감정은 진행하지 않고 시가감정만 진행하며, 발급된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임.
- 약 20인의 미술사가, 교수, 미술관 관장, 서적사가(史家), 갤러리 대표 등의 전문가집단을 감정위원으로 홈페이지에 명시함.
-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시가감정과 더불어, 작품의 질을 평가하여 양품으로 인정된 것을 등록하는 '등록제도'도 시행하고 있음. 양품으로 인정된 작품은 등록증을 발행하고 있음.

③ (재)도미감정평가기구 一般財団法人 東美鑑定評価機構, TOCFA

- 4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주식회사 동경미술구락부 감정위원회를 인계해 미술품 감정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 활동, 문화예술 관련 세제 연구·정책 제언 등을 행함. 미술품 위작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미술품의 가격의 적정한 평가를 통해 미술품유통의 건전화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발족함.
- 사업내용은 (1)미술품의 진위감정, (2)시가감정, (3)미술품의 감정, 평가, 거래, 활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제공, 홍보선전, (4)미술품의 감정, 평가, 거래, 활용 등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 발행, (5)관계 기관과의 친목 교류, 제휴, 공동연구, (6)당 법인의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7)문화예술 관련 세제에 대한 조사·연구·정책 제언 등임.
- 매달 일본화, 공예, 서양화를 일자를 정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감정 대상 작가는 Shuho Ikegami를 포함한 일본화 작가 52인, 서양화 80인, 공예 26인으로 약 150여 명으로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음.
- 작품감정료 수수 등의 실무는 동경미술구락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감정 증서는 진작으로 판정된 작품에 대해서만 발행함.
- 미술품 진위감정만을 진행해오다 수요에 따라 시가감정도 진행하기 시작한 단계임.

(5) 대만의 미술품 감정평가 시스템

1) 감정 제도 및 현황

- 대만은 경제부(經濟部)와 감정평가재단(TAF)이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국의 감정평가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였으나 민간기관보다는 정부의 주도하에 미술품 감정평가 기준 마련 및 제도를 시행함.
- 미국의 미국감정사연합(ASA)나 국제감정평가사협회(ISA) 등 감정 관련 협회와 소속 미술품 시가감정사들의 감정 행위가 산업계와 법적 당국에 의해 인정받고 있음.
- 2016년 이후, 대만 미술감정평가연구소(TAERC)가 진위감정, 시가감정, 과학적 검증이라는 세 분야로 나누어 미술품 감정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와 미술생태계 개선의 명목으로 공적 권한을 행사하고 미술품의 감정 및 평가에 관여하는 민간 부문을 규제하는 기조를 보임.

2) 감정인력의 자격, 지침 및 요건

- 2010년 대만화랑협회 내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台北藝術經濟研究中心, TAERC)를 설립하였으며 2016년부터 문화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하에 감정평가 서비스를 본격화함. 대만 문화부 위탁하에 2023년 <대만화랑협회 미술품 진위 및 시가감정 기준>을 공포하였고, 「미술품 감정 및 평가 전문 국제 인재 양성 계획」에 따라 '미술품 평가 전문 국제 인재 과정'을 개설 및 시행하고 있음.

【표2-30】 대만화랑협회 미술품 진위 및 시가감정 기준

조문		설명
제1조	대만 화랑 협회(이하 "협회"라고 함)는 미술품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방법(이하 "시험 방법"이라고 함)의 원칙을 규정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제정한다.	목적
제2조	협회는 미술품 감정 및 평가절차에서 정의된 미술품에 대한 시험 방법을 제정한다.	적용범위

제3조	본 기준에서 언급하는 미술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회화(Painting), 사진(Photograph), 드로잉(Drawing), 판화 및 종이에 작업한 작품(Prints and works on paper), 조각(Sculpture), 서예(Calligraphy), 중국 수묵화(Chinese Ink Paintings), 설치미술(Installation) 등	용어정의
제4조	시험 방법의 제정은 선정, 초안 작성, 검토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고가 필요한 미술품 시험 방법은 승인을 받기 전에 "미술품 시험 방법 자문 위원회(Artwork Testing Method Advisory Council)"와 협의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154조 및 제157조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시험방법의 제정
제5조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시험 방법 (2) 국내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시험 방법	시험 방법의 선정
제6조	시험 방법의 제정은 협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이나 인력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시험 방법의 제정
제7조	시험 방법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철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리된다. 미술품 시험 방법은 협회의 "미술품 과학적 시험방법 검토 소위원회(Artwork Scientific Testing Method Review Working Group)"에서 검토한다. 공고가 필요한 경우, "미술품 시험 방법 자문 위원회(Artwork Testing Method Advisory Council)"에 추가로 제출하여 자문을 받는다.	시험 방법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철회
제8조	시험 방법의 내용에는 필요시 중국어 및 영어 제목, 적용 범위, 시험 방법의 간단한 설명, 기기, 시약, 도구 및 재료, 시약의 준비, 표준 용액의 준비, 시험 용액의 준비, 보정 곡선의 작성, 식별 시험 및 내용 결정, 측정 조건, 주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각 시험 방법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시험 방법의 내용
제9조	어떤 개인, 기관 또는 조직도 협회에 시험 방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실제 필요, 긴급 상황 또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는 다음 방법으로 추천 시험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1) 다음 국내 및 국제 문헌을 참조 A. 다양한 국가의 공식 시험 방법 B. 중화민국의 국가 기준 C. 협회에서 수행한 연구 보고서 D. 국제기구의 시험 방법 (예: 미국 공인분석화학회(AOAC INTERNATIONAL), 국제 표준화 기구(ISO), 유럽연합 등) E.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험 방법 (2) 협회가 개발하고 검증한 시험 방법 또는 검증 자료가 있는 개인, 기관, 조직이 제출한 시험 방법.	
제11조	필요할 경우, 앞서 언급한 추천 시험 방법은 협회의 미술품 과학적 시험방법 검토 소위원회(Artwork Scientific Testing Method Review Working Group)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또는, 전문가 및 학자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할 수 있다. 승인 후, 해당 방법은 협회의 웹사이트나 기타 방법을 통해 공개한다.	

제12조	협회가 공개한 추천 시험 방법은 모든 분야에서 시험 요구에 따라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검증 또는 유효성 검사를 거쳐 사용될 수 있다.	
제13조	본 기준은 2023년 1월 9일에 발표되었으며,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발표 및 시행 일자

※ 출처: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 홈페이지

【표2-31】 대만화랑협회 미술품 진위 및 시가감정 기준: 시가감정

조문		설명
제1조	대만 화랑협회(이하 "협회"라고 함)는 미술품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한 절차와 순서를 규정하기 위해 본 기준을 제정한다.	목적
제2조	감정가가 미술품 감정을 수행할 때는 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범위
제3조	감정가가 미술품 감정을 수행할 때는 먼저 감정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목적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가치 기준, 가치의 전제, 감정 방법 및 입력값을 채택해야 한다. 미술품 감정의 일반적인 목적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거래 목적 2. 세금 목적 3. 법적 목적 4. 재무 보고 목적 5. 관리 목적	미술품 감정의 목적
제4조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품(Artwork)"은 다음을 포함한다: 회화(Painting), 사진(Photograph), 드로잉(Drawing), 판화 및 종이 위의 작품(Prints and works on paper), 조각(Sculpture), 서예(Calligraphy), 중국 수묵화(Chinese Ink Paintings), 설치미술(Installation) 등. 2. 재질(Material) 3. 스타일/예술 운동(Stylistic / Art Movements) 4. 액자/지지대(Framed / Supports) 5. 상태(Condition)	용어 정의
제5조	감정사는 미술품을 평가할 때, 감정 사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공정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 또는 공정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공정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때 2. 자산의 유용성을 평가할 때 3. 청산 결정 시	가치 기준의 결정 및 공정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적용 상황
제6조	감정사는 미술품 감정 접근방법을 결정할 때, 해당 접근방법의 적합성과 감정 입력값의 신뢰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택된 감정 접근방법과 그 이유는 감정보고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감정 접근방법의 적합성 및 가치 입력값의 신뢰성
제7조	감정사가 감정 접근방법을 사용할 때, 해당 접근 방법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실적 또는 관찰 가능한 입력값을 확보하여 최종 가치 추정을 산출해야 한다.	감정 결과의 분석 및 설명
제8조	감정사가 미술품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용 접근법에서의 재생(대체) 비용법: 해당 자산의 실제 가치를	미술품 감정 방법 소개

	<p>나타내는 방법</p> <p>2. 시장 접근법: 유사한 지역에서의 유사 자산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를 결정하는 방법</p> <p>3. 수익 접근법: 미래의 금액을 단일 현재 가치로 변환하여, 해당 미래 금액에 대한 현재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방법</p>	
제9조	감정사는 미술품을 감정할 때, 감정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 감정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감정보고서의 발행
제10조	감정사는 평가보고서에서 미술품이 단독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다른 자산과 함께 평가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미술품이 다른 자산과 함께 평가된다면, 감정사는 결합 평가의 이유와 결합된 자산들을 설명해야 한다.	감정보고서의 항목 기록
제11조	<p>감정사는 평가보고서에서 채택한 평가 방법에 대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p> <p>1. 시장 접근법: 비교 가능한 거래 방법.</p> <p>2. 비용 접근법: 대체/재생 방법.</p> <p>3. 수익 접근법: 증가 수익 방법.</p>	각 평가 방법의 구체적인 설명
제12조	본 기준은 2023년 1월 9일에 발표되었으며,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발표 및 시행일

※ 출처: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 홈페이지

【표2-32】 미술품 진위 및 시가감정 기준: 진위감정

조문		설명
제1조	대만화랑협회(이하 '협회')는 엄격한 증거 규칙을 준수하고 미술품 진위감정 절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기준을 제정한다.	목적
제2조	미술품 진위감정을 수행하는 감정인원은 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용범위
제3조	진위감정은 진위감정에 필요한 교육, 기술적 능력, 경험, 훈련 또는 학문적 지식을 보유한 개인이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과 결과는 물리학, 화학 등의 과학 원리에 기초한 기기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학, 공학, 심리학 등 전문 지식과 경험에 기반할 수 있다. 진위감정 과정은 진위감정 대상 작품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과는 무관하다.	감정가 자격
제4조	<p>본 기준에서 "미술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p> <p>회화(Painting), 사진(Photograph), 드로잉(Drawing), 판화 및 종이 작업(Prints and works on paper), 조각(Sculpture), 서예(Calligraphy), 중국 수묵화(Chinese Ink Paintings), 설치미술(Installation)</p>	용어정의
제5조	진위감정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위감정가는 관련 사건에 대한 전문 의견이나 정보제공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 금전적 보상, 또는 후원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공개는 해당 인원이 편향되	진위감정가의 이해관계는 공개되어야 함

	었거나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다.	
제6조	진위감정 중에 제시된 의견은 관련 전문분야의 품질과 절차적 적합성을 따라야 한다. 전문적인 의견이 진실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만, 그것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감정가의 전문 능력은 사실 발견에 기여해야 하며, 진위감정 자체는 충분한 사실이나 데이터에 기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론에 근거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과 방법론이 진위감정의 대상에 신뢰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진위감정가는 감정 과정과 결과를 구술하거나 서면 보고서로 전달해야 하며, 보고서는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진위감정 인원의 전문성 2. 진위감정이 충분한 사실이나 데이터에 기반함 3. 진위감정이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으로 수행됨 4. 위의 원칙과 방법이 진위감정의 대상에 신뢰성 있게 적용됨.	진위감정보고서
제7조	이 기준은 2023년 1월 9일에 발표되었으며,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발표 및 시행일

※ 출처: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 홈페이지

3) 감정 관련 민간협회 및 기관

① 대만화랑협회 台灣藝術畫廊協會, TAGA

- 대만의 미술품 감정은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대만화랑협회(TAGA)와 협회 부설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TAERC)가 주축이 되어 감정평가 서비스와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 중임. 그 외에도 민간 감정 에이전시들이 미술품의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을 진행함.
- 1992년 6월 대만화랑협회를 설립할 당시부터 시장에서의 감정 및 평가에 대한 수요에 따라 협회 내 미술품 진품 감정위원 소그룹(美術品真跡鑑定委員小組)을 결성하여 서양화와 동양화(수묵화) 두 부문으로 나누어 미술품 감정 및 평가 서비스 제공 시작함.
- 대만화랑협회 미술품 감정 및 평가 기준은 크게 미술품 과학적 검사 기준(Artwork Scientific Testing Standards), 미술품 시가감정 기준(Artwork Appraisal Standards), 미술품 진위감정 기준(Artwork Authentication Standards)의 세 부문으로 구분되며, 이는 감정 및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²⁰⁾.
- 대만화랑협회는 문화부의 위탁을 받아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여년 이상의 갤러리

20) Fiona CHANG. (2024년 9월 8일). 개인 대면 인터뷰.

전시기록 약 40,000여 건의 아카이빙 작업을 완수함. 대만화랑협회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는 대만 상업화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미술관·박물관, 비영리재단 및 대안공간의 전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감정 초기 단계에서 대만 작가의 작품을 확인, 추적 및 조사할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됨.

2. 국가별 시가감정 관련 정책 및 시스템 관련 소결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어느 국가에서도 국가가 직접 감정을 행하는 기관이 있거나, 공인된 자격증 제도 등은 없음. 프랑스의 경우 법무, 행정의 필요에 따라 인증감정사 제도가 있으나, 대부분의 감정은 독립감정사들이 진행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은 민간 영역이 주도하여 성장해왔으며,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개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상이함. 자유방임주의와 팔길이 원칙에 입각한 미국, 영국의 사례와는 대비적으로 프랑스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법체계를 정비하여 감정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는 정부주도 하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국내와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미술품 감정에 관한 연구의 역사가 길지 않음.
- 영국과 미국은 진위감정과 시가감정 영역이 분리된 반면, 일본, 대만은 국내와 유사한 형태로 전문가가 진위와 시가감정을 병행하고 있음. 이는 미술시장의 규모와도 연계가 있으며 미술품의 진위에 대한 소장 이력(provenance) 정보가 부족한 현황에서 비롯됨.
- 자유방임주의와 민간주도형으로 민간협회에서 감정에 대한 윤리규정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제정하여 국세청(정부)의 인가를 받고, 재단을 두어 실무기준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며 협회 회원에 대한 교육, 규제, 지원을 행하는 미국 감정제도의 역사와 형태가 국내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큼. 더 나아가, 감정업의 발달 정도가 초기 단계에 있는 대만의 경우, 대표적인 기관이 정부의 지원아래 감정관련 실무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국내 감정업 현황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큼.
- 유수의 민간협회 및 단체에서 철저한 윤리규정을 통한 '엄격한 회원 관리' 및 주기

적인 재교육 등의 '교육 훈련 시스템'을 통해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예를 들어 '영국' '왕립가치평가사협회(RICS)'는 시가감정 인력에 대한 단계별 인증제를 운영하면서 엄격한 기준으로 '공인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미국감정가협회(AAA)'는 상급단계인 '인증회원'에 대해 전문분야 시험 통과 및 직접 작성한 시가감정 표본의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검증'하고 있음.

제4절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교육현황



1. 국내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1) 공공기관

1) 예술경영지원센터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한국 미술계의 미술품 감정 기반을 구축하고 차세대 미술품 감정 인력을 육성하고자 2015년부터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근현대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해외감정 프로그램 참가 지원을 통해 미술품 감정가의 전문성을 높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가감정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아래 3가지로 분류 가능.

【표2-33】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가감정 인력양성 교육 시스템

분류	내 용
시가감정 아카데미	- 2015년부터 다수의 미술품 감정 아카데미를 진행해오고 있음.
해외기관 협력 프로그램	- 2015년 해외감정 프로그램 참가 및 리서치 지원을 시작으로 미국감정가협회(AAA), 소더비 인스티튜트 등 해외 감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감정 관련 컨퍼런스	- KAMA (KAMS Art Market & Appraisal Conference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컨퍼런스)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 2015년 '아트북과 카탈로그 레조네'를 시작으로 '법률과 유통 시스템', '보존과학', '테크니컬 아트 히스토리',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매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공유하고 있음.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5년 기초 단계의 감정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미술애호가와 컬렉터, 미술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주로 미술품 감정의 기본개념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7년부터 미국감정가협회(AAA)와 협력하여 국제적인 감정 기준과 방법론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감정가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함. 2018년에는 국제 컨퍼런스와 심화 워크숍을 통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함.
- 소더비 인스티튜트와 협력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술품의 가치평가와 시가감정의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인력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이 도입되어, 법적 지식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임. 2020년에는 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감정인력의 교육을 담당할 강사 및 교육 과정 개발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이를 통해 국내 감정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표2-34】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감정 아카데미 주요 내용

연도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15	에이트 인스티튜트 2015년 미술품 감정인력 초급과정 (총 10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술애호가 컬렉터 및 미술 관련 사업종사 일반인, 미술 관련 전공 대학 및 대학원생 ▷ 내용: 미술계 전문적인 감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미술품 감정인력 초급 과정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병식(경희대 미술대학 평론, 경영학과 교수, 미술평론가) 미술품 감정학 개론: 미술품 감정의 역할과 기능, 한국 동서양 미술품 감정의 실제 - 김주삼(Art C&R 미술품보존복원 연구소 소장) 과학적 감정의 실제: 미술재료와 미술품 보존, 복원, 감정을 위한 과학적 조사 방법과 사례 소개 - 박혜경(에이트 인스티튜트 대표, 미술품 경매사) 한국 미술품 시가감정의 이해: 미술품 경매 가격산정과 경매 기록의 이해 - 이태호(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국 미술의 형성과 진화의 계보: 조선 시대 회화 감정-진작과 위작 - 정준모(미술평론가, 광주비엔날레 이사) 전통과 현대를 잇는 한국 미술의 형성과 진화의 계보: 서양화 도입 시기와 전후 추상 미술, 단색화 작품의 이해 - 박우홍(한국화랑협회 회장/동산방화랑 대표) 한국화의 작품 세계와 감정의 실제: 한국 채색화 작품 감정 - 송향선(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 가람화랑 대표) 서양화의 작품 세계와 감정의 실제: 1세대 서양화가의 이해(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중심으로) - 신옥진(부산 공간화랑 대표) 서양화의 작품 세계와 감정의 실제: 신사실파부터 컨템포러리까지(장욱진, 이우환, 박서보 중심으로) - 엄중구(샘터화랑 대표) 서양화의 작품 세계와 감정의 실제: 한국 근·

		<p>현대 주요 작가 작품 세계(전혁림, 손상기, 박서보 중심으로)</p> <p>- 최병식(경희대 미술대학 평론, 경영학과 교수, 미술평론가) 미술품 감정학 개론: 미술품 감정의 주요 사건- 위조범의 수법과 사례</p>
2019	미술품 감정가 육성 교육과정 입문 과정 (총 9강)	<p>▷ 내용: 미술품 감정(시가·진위·과학적 분석)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입문교육 과정</p> <p>▷ 대상: 근·현대 미술품 시가감정, 진위감정, 과학적 분석 관련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자. 20인 내외</p> <p>▷ 강연자 및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병식(경희대학교 교수): 미술품 감정의 기본: 미술품 감정의 의의, 대상, 필요성, 감정의 기능과 역할, 감정가의 자격 등 - 김인아(한국미술품감정협회 실장): 감정 방법론Ⅰ. 진위감정-감정절차 및 방법론과 준수의 필요성, 감정보고서 작성법 - 최명윤(한국미술과학연구소 소장): 감정방법론Ⅱ. 과학적 분석-감정절차 및 방법론과 준수의 필요성 - 박숙희(신세계미술관팀 수석 큐레이터): 미술품 감정의 기본: 미술시장 및 시장분석에 대한 이해 - 김운섭(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 감정 방법론Ⅲ. 시가감정: 감정 절차 및 방법론과 준수의 필요성 - 이재경(건국대학교 교수): 감정가의 의무와 책임/ 감정가의 권리 - 강태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적 검증 및 감정에의 적용-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판단, 케이스 스터디 등 - 과학적 검증 및 감정에의 적용 (현장 학습)
2019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인력을 위한 법률 교육 과정	<p>▷ 대상: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전문가(가치 및 시가 평가사, 감정가, 갤러리스트, 전시기획자 등), 센터에서 진행된 유관 교육 수료자 또는 이에 준하는 미술품 감정과 유통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p> <p>▷ 내용: 미술품 감정 및 유통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지회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정.</p> <p>▷ 강연자 및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순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술과 법-개론 및 미술과 관련된 법률 소개, 판례 검색 및 판결문 읽는 방법 - 캐슬린 김(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미술품 감정과 법-전문가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 분쟁의 예방과 면책, 미술품 감정 관련 법률 비교 - 윤용근(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시각예술과 저작권-저작권의 이해, 국내외 사례연구 -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미술품 유통과 법-미술시장 관련 법률 이해, 미술품과 세제, 미술품과 보험 - 김영철(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미술품의 위작 및 도품 거래-위작문제 및 불법행위 국내외 사례연구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감정아카데미 제공

【표2-35】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기관 협력 감정 프로그램

연도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15	<p>미술품 감정기반 구축사업</p> <p>해외 감정 프로그램 참가 및</p>	<p>▷ 대상: 김미정(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사)</p> <p>▷ 내용: 미국감정가협회(AAA) 교육과정,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가이드 리서치 및 ART LAW DAY 심포지엄 참가</p> <p>▷ 참가 프로그램:</p> <p>-뉴욕 ART LAW DAY 심포지엄</p>

	리서치 지원 ²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감정가협회(AAA) 전미 연례회의 (National Conference) · 리서치 기관: 미국감정가협회(AAA), 국제미술조사재단(IFAR)
2017	미국감정가협회(AAA) 협력 프로그램 - 미술품 감정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현대 미술품 감정과 관련한 학문 또는 현장경력이 있으며 미술품 감정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미술계 종사자, 최대 13인 이내 ▷ 내용: 국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감정가를 육성하기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으로 집중강의와 함께 현장학습으로 구성 ▷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미국감정가협회(AAA) 공동 기획·운영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시아 허버트(Cynthia Herbert): 미술품 감정의 이해, 미국감정평가실무 기준과 국제 가치평가 기준 - 낸시 해리슨(Nancy Harrison): 변화하는 미술시장 - 조안 케스튼(Joanne Kesten): 감정의 조사방법론 I, II - 사빈 윌슨(Sabine Wilson): 미술품 진위감정, 미술품 시가감정, 손상·손실된 미술품의 감정 - 메트로폴리탄 소장품을 대상으로 한 시가감정 사례학습 - 마이클 맥컬러(Michael McCullough), 정홍균: 미술시장에서의 법과 윤리 문제 - 박정민: 아트옥션, 오늘날 미술계와 아시아 현대미술 - 크리스티 옥션, 알바레즈 보존스튜디오, 갤러리 등 방문 - 샤론 크루스트 (Sharon Chrust): 미술품 감정평가보고서 작성
2017	해외 감정관련 프로그램 참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현대 미술품 감정과 관련한 학문 및 현장 경험이 있으며 미술품 감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감정 및 과학적 조사·분석 종사자 4인 이내 ▷ 내용: 근현대 미술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감정 관련 프로그램 (컨퍼런스, 워크숍, 단기연수) 참가 지원
2018	미국감정가협회(AAA) 협력 프로그램 -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현대 미술품 감정과 관련한 학문 및 현장경험이 있으며 미술품 감정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감정 및 과학적 조사·분석 종사자 10인 이내 ▷ 내용: 국제적 역량을 가진 차세대 감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 ▷ 기간: 조사연구지원(6일 조사/2개월 연구) ▷ 발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지혜(Ouvertmentor Art Finance 팀장): 미술품 시가평가 - 김서현(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미술품 평가를 위한 기준,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과 미국평가사협회의 지침을 중심으로 - 박효은((전)고려대학교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미국의 미술품 감정평가서 작성과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 유두현(아트 어드바이저): 소더비 랩(Sotheby's Lab) 과학연구부서 - 유재현(독립 아트어드바이저): 아트 비즈니스에서의 법과 윤리적 문제 - 고승혜(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 학예연구관): 미국 미술품 거래에 관한 법과 윤리 - 윤가람(서울옥션 근현대 미술품경매팀): 장식미술품 감정의 조사방법론 - 김현진(케이옥션): 미술품 시가감정에서의 핵심, 리서치 방법론 - 차승은(아트컨설턴트): 회화의 시가감정: 시가감정을 위한 조사방법론 - 백다은(충북대학교 강사):미국 미술시장의 역사와 시가감정 요소
2019	소더비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근·현대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심화 역량 강화자. 최대 30인. ▷ 내용: 한국 근현대 미술품 감정인력의 체계적,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가 감정 심화 교육과정.

	<p>Art)와 시가감정 심화교육과정</p> <p>-미술품의 가치와 시가감정 (SIA-KAMS Executive Programme Art Value and Appraisal</p>	<p>▷ 강연자 및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앤-마리 리차드(소더비 인스티튜트 순수미술, 장식미술 및 디자인 분야 디렉터, 미국감정가협회(AAA) 공인회원, USPAP compliant): 미술 시장 분석과 가치평가 비교분석, 미술품 소장이력 조사, 현대미술의 시가감정(순수 미술, 공예, 디자인 작품의 구분 등), 판화 에디션 작품의 가치평가, 새로운 매체-비디오, 개념미술 작품의 가치평가, 가치평가의 새로운 과제들:뉴미디어, 공공미술, 장소특정적 미술, 이퍼메럴아트(한시적 예술), 설치미술, 대지미술, 퍼포먼스 등 - 첼시 A. 콘라드(미술품 보험 및 컬렉터 매니지먼트 전문가, Chubb Insurance 퍼스널 리스크 서비스 개발팀장) : 보험, 손상미술품, 컬렉션 매니지먼트 - 니카 구트만 리에피(미술품 보존·과학적 분석 전문가, '살바토르 문디' 과학적 분석 진행 ART ANALYSIS & RESEARCH(AA&R) 수석연구원, Research Centre for Art 디렉터: 진위감정과 가치평가, 진위감정 체계의 견고화, 미술품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위감정 - 스타스 존슨-치지코브(Artsy 컨슈머 마켓플레이스 디렉터, 소더비 인스티튜트 강사): 뉴미디어아트 그리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진위감정
2020	<p>해외 연수 - 시가감정 강사양성 프로그램²²⁾ (총 5일, 35시간 교육)</p>	<p>▷ 대상: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3년 이상 업무종사자 또는 교육과정 강의·기획·운영 경험이 있는 자, '17-18 미국감정가협회(AAA) 협력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그에 준하는 미술품 시가감정 경험 및 이해도를 통해 시가감정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한 자, 영어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를 가능한 자 우선 선발</p> <p>▷ 내용: 사전조사 및 국제 프로그램 참여를 기반으로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 양성 방안 마련 (강의 로드맵 및 계획안, 국내 프로그램 운영안 등),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 및 개념, 방법론, 숙련된 시가감정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이해, 감정인의 윤리와 역량 등에 대한 강의 및 워크숍</p> <p>▷ 협력: 미국감정가협회(AAA)</p> <p>▷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감정가의 필요조건: 자격, 경력, 절차 등 - 새로운 장르/작가에 대한 감정: 어반 아트 시장의 이해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 미술품 시가감정가 양성을 위한 이론 및 방법론 - 시가감정보고서 작성가이드1: 시장분석을 중심으로 - 시가감정보고서 작성가이드2: 비교품 분석을 중심으로 - 데이비드 즈위너 갤러리 방문/ 비교품 분석 시가감정보고서 워크숍
2024	<p>글로벌 감정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p>	<p>▷ 대상: 근현대 미술품 감정 관련 학문 및 현장경험 5년 이상을 보유한 종사자 30인 내외</p> <p>▷ 내용: 국제적 역량을 가진 차세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 전문기관인 미국감정가협회(AAA)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p> <p>▷ 강연자 및 주제</p> <p>1) 온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강(이한빛) :국내 외 미술품 감정 현황 및 교육과정 소개 - 2강(Deborah Spanierman): 미술품 감정의 이해 I - 3강(Deborah Spanierman): 미술품 감정의 이해 II - 4강(Deborah Spanierman): 감정의 조사방법론 I - 5강(Deborah Zafman) : 감정의 조사방법론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강(이한빛): Discussion and Q&A - 7강(Pamela Grutman): 감정의 법과 윤리 문제 I - 8강(Pamela Grutman): 감정의 법과 윤리 문제 II - 9강(Sharon Chrust): 감정평가보고서 작성법 - 10강(Sharon Chrust): 감정평가보고서 작성법 - 11강(이한빛): 감정평가보고서 작성실기 / 평가 및 채점 - 12강(이한빛): Discussion and Q&A <p>2) 오프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PAP - Uniform Standards of Appraisal Practice 1 - USPAP - Uniform Standards of Appraisal Practice 2
--	--	---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2) 감정 관련 협회 및 단체

① (사)한국화랑협회

○ (사)한국화랑협회는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제적인 프로그램 진행 및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과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옴.

- 미국감정가협회(AAA)와 협력하에 선진화된 해외 감정 시스템의 소개는 물론, 미디어 아트(영상, AI, NFT)등 새로운 분야의 감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의 논리적 감정 방법에 대한 수업 등 각계 전문가의 수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임.
-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오랜 경력의 감정위원들의 지도하에 감정평가서 작성, 필드트립 등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이론과 현장이 어우러지는 과정을 진행.

○ 실제적인 프로그램 진행 및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방법을 모색함.

- 1990년대부터 다양한 감정관련 세미나 및 아카데미를 개최해왔으나, 특히 2020년부터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매년 중급·고급 과정 시가감정 아카데미를 운영 중. 2020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미술품 감정·유통·매개 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지원으로 매년 시가감정아카데미 중급 혹은 고급과정을 운영,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 2022년에는 국민대학교와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한 '아트로' 전공을 개설함(법학 석사학위 및 시가감정

21) <미술품 감정 기초자료 조사·연구 지원 / 해외 감정 프로그램 참가 및 리서치 지원> 공모 선정결과. (201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2) 미국감정가협회(AAA) 협력 프로그램 참가지원 공모 안내. (2019).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과정 이수증 수여).

【표2-36】 한국화랑협회 주요 시가감정 아카데미

연 도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20	시가감정 아카데미 (총 10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자 ▷ 내용: 전문 감정위원의 멘토링과 실제 사례연구를 통한 전문교육을 실시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병식(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미술품 감정개론-가격감정의 현장과 실제 - 캐슬린 김(법무법인 리우 미국 변호사): 시가감정가의 의무와 책임 - 황규성(한국문화산업연구소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미술품 가격결정 분석론 - 표미선(표갤러리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1차 시장 역할과 가격조건-갤러리 - 김현희(서울옥션 수석경매사), 음정우(서울옥션 수석경매사): 2차 시장 역할과 가격조건-경매 - 황규성(한국문화산업연구소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사례연구-서양화 - 윤용철(갤러리윤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사례 연구-동양화 - 황인(미술평론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사례연구-미디어아트 및 에디션 아트 - 김진화(모인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절차 및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 교육생 제출 과제 리뷰 및 Q&A
2021	미술품 시가감정 아카데미-중급 (총 9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술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내용: 2020년 실시된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국내 시가감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기획된 중급과정 아카데미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보름(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교수): 시가감정개론(시가감정이란 무엇인가? 시가감정의 의미와 방법) - 표미선(표갤러리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김현희(서울옥션 수석경매사): 시장 역할과 가격 조건 - 캐슬린 김(법무법인 리우 미국 변호사): 시가감정사의 의무와 책임 - 황규성(한국문화산업연구소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미술품 가격결정 분석론 - 윤용철(갤러리윤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사례 연구-동양화 - 황인(미술평론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사례 연구-에디션아트 - 김진화(모인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절차 및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 교육생 제출과제 리뷰 및 Q&A
	미술품 시가감정 아카데미-고급 (총 10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시가감정 관련 미술 분야(미술시장, 미술관, 미술사 등)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내용: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시가감정 사례와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전수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용철(갤러리윤 대표, 감정위원): 한국화랑협회 시가감정 현황 - 김인아(케이옥션 이사): 감정 목적에 따른 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 김보름(세종대 문화산업경영 연계·융합전공 주임 교수): 시가감정 용어 연구 - 황규성(한국문화산업연구소 대표, 감정위원): 미술작품 상태조사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중구(샘터화랑 대표, 감정위원): 현대 미술 작가 가격산정 연구 실습 - 양정무(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품 가격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격 평가 방안 - 황인(미술평론가, 감정위원): 미술품 가격 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격 평가 방안 - 김진화(모인화랑 대표, 감정위원): 신진작가 가격산정 연구 실습 - 신소윤(단청 대표, 감정위원): 고미술품 가격산정 연구 실습
2022	미술품 시가감정 아카데미- 고급 (총 14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시가감정 관련 미술계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하였으며, 시가감정에 관한 이론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중급과정 이상의 전문인력 ▷ 내용: 시가감정 현장의 사례연구 및 실습 교육 실시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용철(윤갤러리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이사): 국내 감정의 역사와 현황, 당면한 과제 / 시가감정 연구-동양화 - 이동기(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변호사): 미술감정가의 윤리 - SHARON CHRUST(미국감정가협회(AAA) 상임이사, Sharon Chrust & Associates대표): 미국의 시가감정 제도 현황과 시가감정의 주요 요소 - 김인아(K옥션 이사): 진위감정이 기반된 국내 시가감정 / 시가감정 연구, 현대회화 - 남세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시가평가 기준 및 시가평가 방법 실무 - 엄중구(샘터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키아프 시장답사 및 근현대 작품 연구(필드트립) - 윤용이(명지대 미술사학 석좌교수): 시가감정 연구-고미술 - 황인(미술평론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연구-멀티플아트 - 김진화(모인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국내 실정에 맞는 시가감정 평가서 양식 및 내용 이해, 평가서 작성 실습하기 - 작품의 보존수복/과학적 조사에 관하여(필드트립) - 감정 실습 3회: 시가감정과 컨디션 리포팅, 동양화, 현대회화
2023	미술품 시가감정 아카데미- 중급 (총 11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술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내용: 시가감정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시가감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기획된 중급과정 아카데미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미선(표갤러리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국내 감정의 현황과 역사/캐슬린 김(미국 뉴욕주 변호사,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윤용철(윤갤러리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감정의 이해, 진위감정과 시가감정 - 김보름(한성대학교 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과 시가감정의 요소 및 평가 - Linda Selvin(미국감정가협회(AAA) 상임이사): 시가감정의 개념과 방법론 - 엄중구(샘터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키아프 시장답사 및 근대 작품 연구 - Roslyn Goldman(미국감정가협회(AAA) 회원): 에디션 아트 감정에 대한 미국 사례 연구/ 황인(미술평론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에디션 아트와 디지털 아트의 미술품 감정 - 김주삼(Art C&R, 미술품보존복원연구소 소장): 작품의 수복과 미술품 감정/이한형(이송문화유산기술 대표): 과학기술을 활용한 미술품 감정 - 김인아(K옥션 이사): 진위감정과 작품론 - 황규성(한국문화유산연구소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작품상태와 미술품 양식에 따른 미술품 감정 - 김진화(모인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평가서의 요소 및 작성

2024	미술품 시가감정 아카데미- 고급 (총 11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시가감정 아카데미 중급과정 수료자 혹은 이에 준하는 미술품 감정 관련 교육 이수자, 시가감정 관련 미술분야(미술시장, 미술관, 미술사 등) 경력 3년 이상에 준하는 자 ▷ 내용: 시가감정 전문가를 양성 및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구축하고자 기획됨.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미선(표갤러리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국내 감정의 체계화 - 김보름(한성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 국내 미술품 감정시장의 현황과 과제 - 김인아(K옥션 이사): 시가감정 조사방법론 - Susan McDonough(미국감정가협회(AAA) 회원): 미국의 시가감정 제도 - 황규성(한국문화산업연구소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기준 및 방법론 - 기혜경(홍익대학교 교수,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서양화 시가감정과 고려사항 - 윤범모(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장르별 연구-한국화(작가론) - Claudia Worthington Hess(미국감정가협회(AAA) 회원, CEO of Hess Art Advisory): 시가감정 장르별 연구-미디어아트(영상, AI, NFT) - 김문정(A&A Conservation 디렉터): 모의감정 실습1-근·현대 미술품 상태 조사 방법론 - 윤용철(윤갤러리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시가감정 장르별 연구-동양화 감정의 실제 - 박우홍(동산방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모의감정 실습 2 : 한국 미술시장에서 위작의 역사와 현황 및 위작의 유통시도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예시 연구 - 김진화(모인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국내 실정에 맞는 시가 감정 평가서 양식 및 내용 이해, 평가서 작성 실습 및 토론

※ 출처: 한국화랑협회 제공

②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 2019년 설립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차세대 감정가 양성, 전문 자격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예술 분야 현장의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미술품 감정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음.
- 2021년부터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과의 협력하여 디지털 아트 및 NFT 아트 시장의 이해, 전통회화 및 조각 감정, 미술품 보존과 복원, 미술품 시장 동향 분석 등 감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업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음. 본 과정은 유료과정으로, 대상은 미술업계 종사자, 취업 준비인력,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컬렉터로 단계별 교육과정을 진행함.

【표2-37】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내용
2021 미술품 감정 평가 전문 인력 양성 I -미술품 감정평가[입문] (협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술종사자, 취업준비인력,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컬렉터 등 30명 내외 ▷ 내용: 미술품 감정과 평가의 이해, 미술 작품의 색상, 재료와 기법을 통한 진위 및 시가감정, 가격 평가 기준 및 가격 평가 방법 실무 등 ▷ 주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선(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실장): 미술품 감정과 평가의 이해 -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예술분야 활동과 비즈니스 영역 - 이원복(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고서화의 진위감정 방법론과 실제 사례-조선 시대 고서화를 중심으로 - 이호숙(감정연구센터 대표): 미술시장입문- 미술시장의 구조와 특성 - 김상균(뉴보스토키지 대표): 레지스트라 실무- 작품 다루는 방법 - 정준모(전 국한 학예연구실장): 소장 이력, 진위를 추적하다 - 손원경(토이키노 대표): 디지털 자산의 현재와 미래, NFT와 메타버스 - 박혜경(에이트 인스티튜트 대표): 감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 김기리(전 화랑협회 사무국장): 미술품 분쟁사례: 천경자 위작 사건 중심 - 윤철규(전 서울옥션 대표): 미술품 컬렉션: 약탈과 환수, 일제감정기의 컬렉션 - 손원경(토이키노 대표): 장난감과 피규어의 가치평가 - 홍선표(전 미술사학과 교수): 고서화의 진위감정, 한국회화감정의 역사와 실제 - 김상균(뉴보스토키지 대표): 색상, 재료와 기법을 통한 진위 및 시가감정-근현대미술작품을 중심으로 - 이호숙(감정연구센터 대표): 투자대상으로서의 미술품-미술시장 분석, 미술투자 실천 준비 - 이명선(한국미술품 감정연구센터 실장): 가격평가 기준 및 가격평가 방법 실무, 가격의 적절성 및 논리적 근거 찾기, 결과 보고
2022 미술품 감정 평가 전문 인력 양성 II -미술품 감정평가[심화] (협업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해외의 감정제도, 모델리안 분석법, 미술품 가격 감정의 목적과 가격 결정 요소인 안목 감정(Art Identification)과 출처(Provenance), 미술품 시장가치의 적용과 국가별 가격산정방법론 등 ▷ 주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 강연자 및 주제: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문화재 관련 법률, 세제, 보험 및 국제협약 - 해외의 감정제도 - 미술품 조사 보고서 작성 - 모델리안 분석법(Morellian Analysis) - 반 단치히(Maurits Michel van Dantzig)의 픽톨로지(Pictology) - 버나드 베렌슨(Bernard Berenson)법 - 출처(Provenance)-소장이력 - 출처(Provenance)-전시이력과 서지이력(Bibliography 또는 Literature) - 과학적 분석법-포렌식 분석법 - 과학적 분석법-디지털 인증 - 미술품 가격 감정의 목적과 가격 결정 요소 - 미술품 문화재 시장가치의 유형 - 미술품 시장가치의 적용과 국가별 가격산정방법론 - 예술적 가치감정 - 감정가와 감정기관의 윤리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술업계 종사자, 취업 준비인력,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컬렉터

<p>미술품 감정 평가 전문 인력 양성 I -미술품 감정평가[입문] 개론 (협업과정)</p>	<p>▷ 내용: 감정평가의 이해: 미술품 감정 뿐 아니라 경매, NFT와 메타버스, 장난감과 피규어 등 새로운 감정 분야를 짚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p> <p>▷ 주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p> <p>▷ 강연자 및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선(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실장): 미술품 감정의 이해: 미술품 감정의 역사와 용어 설명 - 박혜경(에이트 인스티튜트 대표): HOUSE SALE 세상의 모든 수집품: 감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예술분야 활동과 비즈니스 영역: 나에게 맞는 전문영역을 찾아보자 - 이원복(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전 경기도박물관장): 고서화의 진위감정 방법론과 실제 사례: 조선시대 고서화를 중심으로 - 조주현(아트핸들러): 미술품의 운송과 설치 - 윤용이(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도자 감정의 방법론- 고려청자의 이해 -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미술시장에 존재하는 위작에 대하여: 소장 이력, 진위를 추적하다 - 김상균(누보레스토레이션 / 누보스토리지 대표): 레지스트라 실무- 작품 다루는 방법 A to Z - 손원경(토이키노 대표): 디지털 자산의 현재와 미래- NFT와 메타버스 - 김기리(전 한국화랑협회 사무국장): 미술품 진위 분쟁사례- 천경자 위작 사건을 중심으로 -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 / 경기대학교 교수): 국제아트페어와 블루칩 화가- 아트 바젤에서 키아프까지 - 윤철규(한국미술정보개발원 대표 / 전 서울옥션 대표): 도자 시장의 이해- 도자기의 시장가치 및 전망 - 손원경(토이키노 대표): 세대교체로 떠오르는 새로운 수집 아이템- 장난감과 피규어의 가치평가 - 홍선표(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고서화의 진위감정- 한국회화 감정의 역사와 실제 - 이호숙(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가격평가 기준 및 가격평가 방법 실무-가격의 적절성 및 논리적 근거 찾기, 결과보고
<p>2022 미술품 감정 평가[심화_한국 전통회화] (협업과정)</p>	<p>▷ 내용: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 회화 탐구 및 동양미술품 감정</p> <p>▷ 주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p> <p>▷ 강연자 및 주제: 이원복(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전 경기도 박물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화일치: 서언 - 한자문화권 서화, 임모와 전칭작 - 시대구분: 조선시대 회화 개관 - 화풍의 특징 - 기준작과 대표작: 전통회화 소장처 -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 외 - 서화수집 : 조선시대 소장가 - 안평대군 이용과 석농 김광국 - 고려 : 중세회화(고려5백년) - 기록, 도자무늬와 불화, 초상, 공민왕의 유작 - 조선초기 I : 강희안과 이상좌 - 15세기 화단의 두 기둥 - 조선초기 II : 신사임당과 이암 - 초충도와 영모화 - 조선초기 III : 양팽손의 전칭작 - 조선중기 I : 양팽손의 전칭작 - <계회도>와 관련 - 조선중기 II : 창강 조속과 조지운 부자 - 수묵화조화의 대가, 홍세섭과 관계 - 조선후기 I : 겸재 정선 - 조선의 화성, 진경산수화의 창시자 - 조선후기 II : 남리 김두량과 김덕하 부자 - 합작, 개 그림 - 조선후기 III :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 - 호랑이 그림과 춘화 - 조선 말기: 장승업 - 조선왕조의 마지막 천재화가 - 결어 - 안목과 과학의 융합
<p>2022 미술품 감정</p>	<p>▷ 대상: 미술업계 종사자, 취업 준비인력, 예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컬렉터</p> <p>▷ 내용: 미술품 감정의 이해, NFT 아트 시장의 이해, 미술행정, 예술정책, 미술품과 세</p>

<p>평가 전문 인력 양성 I -미술품 감정평가[입문] 개론 (협업과정)</p>	<p>금 등</p> <p>▷ 주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p> <p>▷ 강연자 및 주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이호숙 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전문가 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감정의 이해 - 서양화 진위감정 기초 - 동양화 진위감정 기초 - 도자 진위감정 기초 -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제도 및 용어 - Luxury defined : 다이아몬드와 유색보석 기초 - 전문직 1: 큐레이터, 전시기획자 - 전문직 2: 미술 자산 관리 투자 자문 - 전문직 3: 경매 스페셜리스트 - 전문직 4: 컨저베이터 / 레스토레이션 - 전문직 5: 아트어드바이저 - 전문직 6: 미술행정, 예술정책, 미술품과 세금 - 전문직 7: 미술비평/ 아트인 컬처 대표 - 전문직 8: 아트핸들러 - 전문직 9: 미술품 감정가 - 라운드 테이블
<p>2023 미술품 감정 평가 전문 인력 양성 I -미술품 감정평가[입문] 개론 (협업과정)</p>	<p>▷ 내용: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제도 및 용어, 미술시장 입문: 미술시장의 구조와 특성, 미술 투자 실전 준비 등</p> <p>▷ 주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p> <p>▷ 강연자 및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선(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실장): 미술품 감정과 평가의 이해 - 정준모(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예술 분야 활동과 비즈니스 영역 > 나에게 맞는 전문영역을 찾아보자 - 이원복(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전 경기도박물관장): 고서화의 진위감정 방법론과 실제 사례 - 정준모(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미술시장에 존재하는 위작에 대하여: 소장 이력, 진위를 추적하다 - 윤철규(한국미술정보개발원 대표, 전 서울옥션 대표): 도자시장: 여명과 미학 - 정동암(키네틱 아트 작가/공학 박사/전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겸임 교수): 기술과학의 시대: 미디어 아트 - 정연진(미술감정사협회(AAA) 회원, ISA프로그램 수료, 미국 뉴욕대학교 미술품감정학 수료):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제도 및 용어 - 김효선(전 드니즈르네갤러리 아시아 디렉터): 아트어드바이저 / 아트비즈니스 - 김기리(전 (사)한국화랑협회 사무국장): 미술품 분쟁사례: 천경자 위작 사건을 중심으로 - 나선화(전 문화재청 청장): 한국도자의 특성 - 이호숙(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미술시장 입문: 미술시장의 구조와 특성, 미술 투자 실전 준비 - 이원복(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전 경기도박물관장): 한국회화의 아름다움: 한국화 특징과 위상 - 김복기(경기대 교수, 아트인컬처 대표): 국제아트페어와 블루칩 화가: 아트바젤에서 키아프까지 - 박삼철(공공미술 기획자):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공공미술의 맥락 읽기 - 김상균(누보레스토레이션 / 누보스토리지 대표): 레지스트라 실무: 작품 다루는 방법 A to Z

<p>2023 미술품 감정 평가 전문 인력 양성 II -미술품 감정평가[심화] 작가론 (협업과정)</p>	<p>▷ 내용: 한국의 추상미술, 시가감정:단색화 시장 분석 등 ▷ 주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 강연자 및 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준모(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단색조 회화의 재해석, 객인론 - 이준(전 삼성미술관 리움 부관장): 이우환의 사고와 통찰의 방식 -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 / 경기대학교 교수): 팝아트 - 무라카미 다카시와 네오팝 - 박남희(홍익대 대학원 초빙 교수, 미술비평): 정상화의 “고요한 파동, 견고한 격자 추상” 읽기 - 정준모(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서승원 (작가): 정준모가 묻고 서승원이 답하다 - 김복기(아트인컬처 대표 / 경기대학교 교수): 한국의 단색화 - 권영우 - 박천남(김택화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정창섭: 물아합일(物我合一)의 세계 - 정준모(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 이승조론 - 유진상(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제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총감독): 김창 열론 - 김성희(예술기획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이강소의 작품세계 - 박천남(김택화 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하종현: 배압(背押) 그 호흡과 ‘결’ - 김이순(미술사·전 홍익대학교 교수): 김복진과 한국근대조각 - 김상균(누보레스토레이션 / 누보 스토리지 대표): 진위감정 실제-단색화 작가군 - 이호숙(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 단색화 시장 분석
--	---

※ 출처: 카이인스티튜드 홈페이지

○ 교육원 KAAI 인스티튜드를 설립하여, 민간자격증 인증 과정으로 2022년 5월부터 ‘미술품 조사분석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5급부터 시작해 최종 1급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품 조사분석사’ 1급을 취득하면 ‘준감정가’ 민간자격을 부여(2022년 3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허가)하고, ‘준감정가’로써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미술품 시가감정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함. (장재선, 2022.4.13.). 5급과 4급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으며, 23년 12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회차의 자격증 시험이 치러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Private Qualifications Information, PQI)에서는 미술품 조사분석사의 업무능력 범위를 “미술품의 기본정보와 학술적정보를 조사연구하며, 유통경로(소장이력, 서지이력, 미술시장 거래분석)를 조사함. 다각적인 관점의 정보도출을 통해 그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인 데이터를 구축함” 이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자격증이 가진 효력의 한계, 또한 국내 감정 여건상 데이터 분석과 정보 가공도출능력은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일부 역량에 지나지 않음.

【표2-38】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 미술품 조사분석사 5급

회차	5급 프로그램 (온라인 진행, 회차당 15~20분)
1강	미술품조사분석사란?
2강	미술이란
3강	빛과 색의 관계
4강	원근법의 세계
5강	조형의 요소와 원리
6강	미술 재료와 표현-각양각색 평면미술
7강	미술 재료와 표현-각양각색 입체미술
8강	창작과 소통
9강	미술분야 탐색-미술과 기업
10강	시간순삭 우리미술-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11강	시간순삭 서양미술-선사시대부터 후기인상주의까지
12강	시간순삭 동양미술(중국)-고대에서 청대까지

※ 출처: 한국미술품감정센터 제공

【표2-39】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 미술품 조사분석사 4급

회차	4급 프로그램 (온라인 진행, 회차당 12~16분)
1강	꼭 알아야 하는 미술양식
2강	보이는 모든 것: 구상미술이란?
3강	상상의 세계: 추상미술이란?
4강	전시회에서 있었던 일: 미술감상이란?
5강	미술을 글로 말한다고?: 미술비평의 이해
6강	미술동네 사람들: 미술직업 탐색
7강	미술관의 역할: 미술관에서도 미술품을 살 수 있을까?
8강	미술동네마켓: 미술시장 눈팅하기
9강	미술품은 왜 비쌀까?: 미술품 가격에 대한 이해
10강	ART INDEX: 알아두면 도움되는 작품
11강	ART INDEX: 알아두면 도움되는 작가
12강	ART INDEX: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술 지식

※ 출처: 카이인스티튜드 홈페이지

③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 2021년도에 「미술품 시가감정가 전문교육 실습 아카데미-작가 중심 통상 가격표」와 「미술품 시가감정가 전문교육 실습아카데미-평면분야 작가중심 통상가격편」 2개의 과정을 운영함. 대상은 시가감정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10인 이내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서양화, 전통회화 등 장르별 실제 시가감정 실습위주의 프로그램이었음.

○ 2022년도에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의 상세는 아래와 같음.

【표2-40】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운영 교육 프로그램

연 도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22	미술품 시가감정가 전문교육 아카데미 KYS미술품 가격지수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술품 시가감정 분야 실무 경력 10년 이상 또는 작품활동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 본 과정의 중급과정 수료자 10인 내외. ▷ 내용: 미술품 유통문화의 건전한 풍토와 객관적인 대국민 인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술품 시가감정가 전문교육 및 실습 아카데미.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민주(리드앤리드 대표) : 한국미술품 가격지수 - 송향선(前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감정위원장) : 미술품 감정의 필요성, 진위와 시가감정, 박수근의 시기별 작품과 가격변동, 미술품 감정의 이론과 현장 그 차이점, 근현대 미술의 트렌드 변화, 이중섭 시기별 작품과 가격변동, 주로 거래되는 작가 분류①,② - 김순웅(아트컴퍼니 대표) : 한국 경제와 미술시장의 흐름 - 서성록(前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 안동대 교수) : 박수근 레조네를 중심으로 - 최병식(미술평론가, 경희대 객원교수) : 현재 미술시장의 흐름, 감정의 필요성 - 박영택(경기대 교수, 미술평론가) : 한국현대미술의 지형도 - 목수현(미술사학자, 서울대 강사) : 이중섭 레조네 중심으로 - 김영복(고미술감정위원) : 경매시장의 가격 변동 - 임명석(우림화랑 대표, 前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대표) : 근현대 고미술품 감정 사례와 가격 변동 - 김윤섭(미술경영연구소 대표, 미술사 박사) : 미술시장 변화에 따른 시가감정 변동추이 - 김영석(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미술학 박사) : 객관적 가격산출 위한 통상가격 실습과 현실 적용²³⁾

※ 출처: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홈페이지

④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 2003년 설립되어 현재는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협회이나 초창기 실효성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로 명시함.
-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차세대 감정 전문인력 양성(진위감정)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함. 교육 대상은 미술계 각 분야 전문가(미술사가, 학예사, 복원전문가, 미술시장 종사자 등) 1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작가 연구, 현장실습,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감정전문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교육을 진행함. 2017년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감정위원으로 기존 감정위원들과 함께 (주)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실제 감정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함(양지연, 2022:68).
- 2006년에 제1기 감정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로, 2008년 제2기 프로그램은 한국근현대 주요작가를 주축으로 1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감정교육을 시행함. 2008년도 2기 과정에서는 주요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감정 실습과 미술품 가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연구를, 2011년 3기 미술품 감정 아카데미에서는 동양화 감정 아카데미를 진행함. 2012년부터 진행한 미술품 감정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에서는 차기 감정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의실습, 작가별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물로써 2017년 「한국미술품감정시가감정연구집」을 발간함.
- 단기교육이 아닌 중장기 교육의 효과를 실증하는 예시로, 소수였으나 당시 배출된 인력들이 현장에서 미술품 감정사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단, 시가감정에 대한 수요나 개념이 미약했던 시기로 진위감정에 집중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됨.
- 소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미술계의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프로그램도 운영.

【표2-41】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운영 교육 프로그램, 2006년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06년 《미술품 감정 아카데미 전문가과정》 주요 교육 내용 및 교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 기존 《미술품 감정 아카데미 수료자 전문가 과정》 수강 대상 고려, 단계 별 수강 가능 - 최병식(경희대학교 교수): 감정학 개론 - 최명윤(명지대학교 교수): 과학 감정 방법론 중급 - 김정호(前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문서감정실장): 필적 감정 - 김주삼(호암미술관 현대미술보존 수석연구원): 미술품 복원 연구 - 최명윤(명지대학교 교수): 재료에 의한 현대회화 감정 중급 - 이효우(낙원표구 대표): 재료에 의한 서화 감정 중급 - 조명계(중앙대학교 교수): 서양의 감정 - 정영목(서울대학교 교수): 감정을 위한 전작도록 제작 연구 - 서진수(강남대학교 교수): 미술품 시가감정연구 - 진동만(KBS 진품명품 감정위원): 감정의 이론과 실제 - 서화 - 송향선((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 감정의 이론과 실제 - 근·현대회화

※ 출처: 양지연(2022:68) 재정리

【표2-42】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운영 교육 프로그램, 2017년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17년 미술품 시가감정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5년 이상 경력의 시각예술 관련 종사자(미술이론가, 미술품 유통 관련 종사자, 감정 관련 업무 종사자, 미술품 복원 전문가 등)와 연계 분야(법률, 경제, 금융 등) 종사자 중에서 시가감정 전문가로 활동을 원하는 자 ▷ 내용: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의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시가감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경은(갤러리 아트링크 대표): 한국미술품 시가감정의 이해 - 김미정(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사): 해외 시가감정 제도 및 교육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캐슬린 김(변호사, 홍익대 겸임교수): 미술품의 시가·가치평가-미국시가평가사협회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경(건국대 교수, 변호사): 미술품 감정 인력의 윤리규정 - 박혜경(미술품 경매사, 에이트 인스티튜트 대표): 2017 미술시장 이슈와 트렌드 - 이호숙(미술시장 애널리스트): Art&Financing:금융시장에서 예술의 역할 변화 - 정윤태(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팀장): 금융 자산으로서의 미술품 가치평가 - 음정우(서울옥션 고미술팀 팀장): 미술품 시가평가 방법론-고미술 - 이현희(서울옥션 근현대미술팀 팀장): 미술품 시가평가 방법론-근현대미술 - 김인아(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실장): 시가감정 조사방법론 - 김이순(홍익대 교수): 미술품 감정보고서 작성법 - 김진화(모인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 미술품 시가평가 방법 및 사례

※ 출처: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제공

(3) 박물관·미술관

- 국내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시가감정 관련 교육은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 외 사례를 찾기 어려움. 그 외, 진위감정에 대한 교육은 본태박물관, 화성시 향토박물관 등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된 바 있음.

【표2-43】 국내 박물관·미술관 운영 감정 교육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	주요 내용
아트센터 고마	시가감정 아카데미	▷ 대상: 미술에 관심있는 자 ▷ 주최: 공주시, 공주문화관광재단 ▷ 주관: 공주문화관광재단, 공주문화도시센터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강연자 및 주제 - 김기리: 미술시장과 미술품 감정 현황 - 김영복: 시가감정사례발표 및 Q&A - 송향선: 비싸게 팔린 작품의 비밀은? - 송향선: 우리나라 미술품 위작 사례 - 김윤섭: 미술품가치평가와 현대미술
	<미술작품가격의 메커니즘: 미술시가감정을 위한 모형과 매뉴얼>	▷ 내용: <공주그림상점로> 사업 일환으로 기획된 특강 ▷ 주최: 공주시, 공주문화관광재단 ▷ 주관: 공주문화관광재단, 공주문화도시센터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강연자 및 주제 - 김영석(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이사장, 미술학 박사): 미술품 가격 결정의 관행과 의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의 역할, 미술품 가격 결정을 위한 정량적, 정서적 평가내용, 미술품 가격 결정 매뉴얼

※ 문화 도시 공주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jccc2021/223405362232>

(4) 대학(교육기관)

1) 미술품 감정 관련 전공

- 명지대의 예술품 감정학과, 경기대 고미술감정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미술품 감정경매 전공은 폐지된 상태이며, 그 외 국민대학교 아트로 전공이 미술품 감정연계 학과로 개설되었으나 학과명과 같이 교육과정이 법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

①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원 아트로(Art Law)전공

- 국민대 법무대학원 아트로 전공은 (사)한국화랑협회와 업무제휴에 기반하여 2022년 후기에 개설됨. 예술 관련 주요 법률과 미술품 감정 영역을 포함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아트로(Art Law) 전공은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활용 공동소유 등 다양한 창작 및 유통 플랫폼의 등장이 따라 미술시장 확대, 미술 관련 다양한 법적 쟁점의 심화, 투자 수단 및 기부나 증여를 통한 절세수단으로 미술품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미술품 가치평가의 중요성 대두로 개설됨.
- 미술품 시가감정분야 전문인력에 필요한 감정관련 법적·윤리적 관련 지식 및 감정 실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법리 및 방법론 습득과 현장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함.

【표2-44】 국민대 아트로 과정 감정 관련 강의

과 목 명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미술품 감정개론 (Introduction to Legal and Ethical Issues in Art Authentication & Appraisal) • 시가감정 사례연구 (Case Study in Art Price Appraisal) • 미술분쟁과 해결 (Resolution of Art-related Disputes) • 감정인 윤리 (Ethics of Art Appraisers) • 미술품 시가감정 분석론 (Appraisal Analysis Theory of Artworks) • 감정서 작성 워크숍 (Appraisal Report Writing Workshop) • 감정실무 인턴쉽 (Appraisal Practices Internship) 	각2학점

※ 출처: 국민대학교 법학대학원 홈페이지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는 아트로 과정 외,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품 감정 인력양성 교육과정 지원을 받아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표2-45】 국민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시가감정 프로그램

연 도	프로그램	주요 내용
2023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고급과정 (15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술품 감정 관련 분야 경력 최소 5년 이상인 자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감정 개론 및 시가감정 현황 - 감정분석개론-근현대미술 I, II - 세미나 I,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분석개론-고미술 I, II - 감정분석개론-과학감정 I, II - 감정인 윤리 및 법적 책임 - 미술품 가격 및 데이터 분석 - 해외 감정서 작성 사례 연구 - 감정서 작성 기초 I, II - 라운드 테이블
2024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중급 과정 (15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술품 감정 관련 분야 경력 최소 3년 이상인 자 ▷ 내용: 시가감정 분석론 습득, 미술품 가격지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및 감정서 작성, 미술품 시가감정 현장 실습 등을 통한 감정인력 양성 교육 중급과정 ▷ 강연자 및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감정 개론 - 감정인의 윤리 및 법적 책임(감정인의 법적 책임 및 관련 분쟁 사례) - 미술품 복원과 감정(미술품 복원이 시가에 미치는 영향-현장방문) - 미술품 가격 및 데이터 분석(시가감정을 위한 가격 및 데이터 조사 및 분석) - 세미나(미술진흥법상 미술품 감정서 서식 및 진품증명서) - 감정서 작성 기초-근현대미술(근현대미술 분야 시가감정 방법 및 시가 산정 요소-시가감정서 작성 형식 및 방식) - 감정서 작성 기초-고미술(고미술 분야 시가감정 방법 및 시가 산정 요소-시가감정서 작성 형식 및 방식) - 중간평가(미술품 가격 분석 보고서 작성 실습 및 평가) - 공공미술품과 가치평가(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소장품의 가치평가, 미술진흥법상 공공미술품 가치평가) - 미국 미술품 시가감정의 이해(미국 미술품 시가감정 실무) - 감정서 작성 사례 연구-해외(미국, 일본의 감정서 작성 사례) - 감정서 작성 사례 연구-국내(국내 감정서 작성 실제 사례-근현대미술 고미술)

※ 출처: 국민대학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제공

②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품감정학과 석사과정

- 2001년 신설되었으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학과의 운영이 중지되었으며, 이전의 개설 과목으로 보아 고미술(도자기, 서화)이 중심이었음.
- 참조를 위해 2012년도의 모집요강에서 추출한 교수진과 개설과목은 아래와 같으며, 기초과정(1.2학기), 심화과정(3.4학기), 전문연구과정(5학기)로 이루어짐.

【표2-46】 명지대 예술품감정학과 프로그램(2012년도 기준)

	상세 내용
교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용이(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고려청자의 이해와 감정, 조선시대 도자와 감정의 기초 - 유용준(명지대 미술사 학과 교수): 한국미술사특론, 한국회화감정 - 이태호(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조선시대 서화감정, 한국근대미술사 - 이주현(명지대 예술감정학과 교수): 감정학개론, 중국회화사와 감정의 기초 - 이지은(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서양근현대미술사, 현대미술론 - 전태일(명지대 박물관학과 교수): 박물관 전시기획론, 박물관자료의 이해와 분석 - 최명윤(명지대 문화재보존관리학과 교수): 도자기복원기술연구, 작품분석과 해석 - 양의숙(특별초빙강사): 예술품감정실습 I, 예술품감정실습 II

	- 이효우(특별초빙강사) 지류문화재복원
개설과목	<p>* 주요 개설 교과목</p> <p>- 기초과정(1, 2학기): 예술품 감정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폭넓게 배우는 과정, 감정학개론, 현대미술론, 불교 미술론, 현대미술과 사진, 한국도자사 연구, 한국미술사 특론, 박물관전시기획론</p> <p>- 심화과정(3, 4학기): 예술품 감정에 필요한 이론적 학습과 현장학습이 병행하는 과정, 박물관, 미술관의 각종 전시회 참관과 옥션 투어를 통해 실물 경험을 축적, 고려도자와 감정기초, 조선시대 도자와 감정기초, 중국현대회화의 이해와 감정, 한국회화감정, 조선시대 서화감정, 중국회화사와 감정기초, 박물관 자료의 이해와 분석</p> <p>- 전문연구과정(5학기): 기초·심화 과정의 토대 위에 본격적 실물감정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경험을 쌓는 한편, 지도교수와의 개별적 논문지도를 통해 심도 있는 글쓰기를 훈련하는 과정, 지류문화재 연구, 예술감정실습1, 도자기 복원기술연구, 작품의 이해와 해석, 논문지도</p> <p>* 명지대 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보존관리학과와 교차수강 가능</p>

※ 출처: 명지대학교 제공

③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미술품감정경매(아트매니지먼트) 전공 석사과정

- 2011년에 9월 문화산업대학원에 문화산업석사과정에 미술품감정경매전공이 신설되었으나, 2012년 2월 문화산업석사 아트매니지먼트 전공으로 변경됨.
- 2012년도 기준 예술품 감정과 경매에 필요한 미술시장 분석, 미술사 관련 수업, 경영학, 행정학 관련 수업, 전시기획 관련 수업을 제공하며, 전시기획자, 미술관 박물관 큐레이터, 미술 행정관, 미술비평가, 미술이론가, 미술품 시가감정사, 경매사 등 미술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폐지됨.

【표2-47】 성신여대 2012년 수업 과목

구분	교과명	학점
석박사 공동과정	현대미술분석	3
	미술품 감정의 기초연구	3
	미술시장 및 경매	3
	한국미술사	3
	서양미술사	3
	예술경영	2
	미술 소장품 관리론	2
	박물관학 연구	2
	도자기 및 공예품 감정	2
	서화 감정	2
	한국 건축사	2
	예술 마케팅	2
	근대 미술사	2

디자인사	2
국제경매연구	2
경매실습세미나	2
감정실습세미나	2
미술품 감상 및 역사의 흐름	2

※ 출처: 성신여자대학교 제공

2) 기타 미술품 감정 관련 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관련 전공 대학원에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주)한국미술품연구센터와의 협업 프로그램이 진행 중임.

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 미술품 감정학(Connoisseurship in Art, 3학점): 미술사에서 미술작품 감정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방법을 연구함.

②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술평론·경영전공

- 미술품 감정론(Theory in Art Appraisal, 3학점): 미술품 감정사로부터 감정의 주요 방법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감정제도, 미국의 미술품 감정 현황, 감정의 실례를 연구, 진위감정, 시가감정, 감정절차 등을 포함함.

③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협동과정의 미술경영전공

- 미술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양성이 주요 목표. 해당 분야의 법·윤리·학문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짐.
-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석사, 박사과정의 작품감정론 1(Studies in Connoisseurship1), 작품감정론 2(Studies in Connoisseurship2), 미술작품의 제작에 사용된 바탕, 안료, 접착제 등의 재료적 측면과 기법적, 양식적 측면, 관식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 작품이 함의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밝혀보고 진본과 안작을 변별해 보는 과정. 조형예술 양식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다양한 실습이 병행. 미술학, 재료학, 화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와도 연계. 실제 작품의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작품의 복원과 보존, 그리고 감정에 응용.
- 미술대학 협동과정의 미술경영전공, 박사과정의 미술품 감정 및 평가 연구 (Connoisseurship and Appraisal Studies)

④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미술관 박물관학 전공

- 미술품 감정 보존관리(Topics in Maintenance of Collection, 2학점): 예술작품의 보존과 복원, 감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학습, 감정 이론과 수집 이론 및 국내외 작품의 진위판단이 사례를 통하여 미술품 감정의 현황을 학습함.

⑤ 그 외 대학 평생교육원 등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 2007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은 한국미술경영연구소와 함께 '미술애호가를 위한 재테크 특별강좌-「아트마켓&아트테크」를 개설. 7주차, 8주차 강의에서 '미술작품의 진위감정-근현대 미술'과 '미술품의 가치판단과 작품가격의 결정과정'등을 다룸.
- 「아트마켓&아트테크」 2014년 미술애호가 한국미술경영 아카데미 14기 입문을 위한 특별강좌 '아트마켓&아트테크'의 강의 중 4강(1회)에서 '미술품 진위감정과 작품 가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다룸.

○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으로 옮겨온 한국미술경영연구소의 아카데미는 2019년 11주차(1회)교육에서 '한국과 미국의 미술품 감정 시스템 비교 분석'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함.
- 현장 중심 실무형 강의를 중심으로 특히 초보 미술애호가들의 입문을 돕는 '미술 소양 교육'을 지향함.

○ 연세대학교 평생교육

- 본 연구의 (2)감정관련 협회 및 단체의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내용 참조(pp102-105)

2. 국내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관련 소결

○ 학교(전문교육기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의 교육진행이 대부분

- 현장 실무가 중요한 분야로 학교가 아닌 (사)한국화랑협회,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등 현장의 민간단체에서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명지대학교(전문교육기관)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수요의 부족 등으로 중단됨.

- 진위감과 시가감정이 통합된 국내 시스템에서는 학교(전문교육과정)에서의 이론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움.
- 학교와의 접점은 일정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원 등에서 재교육 차원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체계적인 단계별 중장기 교육과정의 부족

- 정부의 회계년도에 기초한 1년 단기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단체에서 교육이 이루어짐.
- 교육을 관장하는 주체별 단계 구분의 기준이나 제공하는 과목 및 과정의 상이함.
- 단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나, 아직은 교육실행 주체들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군인 만큼 중장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미국감정가협회(AAA)와 다수의 협업 프로그램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비교적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미국감정가협회(AAA)와 협업으로 운영해온 프로그램이 두드러짐.
- 국내에 적합한 시가감정 시스템 확립을 위해 유의미하나, 국내와 미국의 미술품 감정의 성립배경이나 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교육과 현장의 연계 미비

- 단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이 지속되다보니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짐.
- 교육을 수료한 자라도 현장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시가감정을 익히고자 하는 바, 이들이 갖추고 있는 기존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교육방식으로 인해 교육의 효율성 저하
- 결과적으로 교육 수료자들의 현장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직업군으로의 불안정성

- 대학교의 경우 관련 학과에 여러교과목중 하나의 교과목으로 개설된 경우가 많고 전공학과는 수요 부족으로 개설되었다가 중단된 경우가 많음.
- 하나의 직업군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무엇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우선되어야 함.

제5절 국외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1. 국외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현황

(1) 미국의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1) 인력 양성 교육의 특징

-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력한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와 달리 동산의 감정평가는 정부 기관의 규율을 받지 않고 민간 자율로 운영됨. 다만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협회차원에서 회원 자격 규제의 조건(교육과 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협회들은 자신의 위상 정립과 회원의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하여 자체적인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만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지속교육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관련 협회 중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협회로는 미국감정사연합(ASA), 국제감정사협회(ISA), 개인딜러협회 (PADA) 등이 있음.
- 대학들은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이지 않음. 미술품 시가감정시장의 중심인 뉴욕시의 경우, 패션기술대학교(FIT), 뉴욕대학교(NYU) 모두 시가감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교육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한 상태임.
- 정규교육과정 보다는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협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례가 더 일반적임. 일례로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의 Purchase College는 미국감정사연합(ASA)와 협력하여 2주간의 Summer Appraisal Camp를 운영하고 있음.
- 부동산 시가감정 교육과정이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운영되는 것과 크게 차이를 보임. 공인시험과 공인자격증제도로 운영되는 부동산과 달리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미

숯품 시가감정시장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함.

- 시장 영향력이 높은 기존협회들이 수익사업으로 고가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협회들이 대학의 정규교과과정 이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즉,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체계. 감정평가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원자격이 필요하고,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효용성을 확보할 수 없음.
- 이는 민간자율제도의 약점인 시장지배자에 의한 시장교란현상 사례로 대학교육이 정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2) 감정 관련 협회의 인력 양성 교육 및 회원 재교육 프로그램

- 미국 내에서 미술품 감정 관련 교육은 민간자율에 의거하여 기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요 협회가 제공하는 교육은 1)협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2)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각 협회의 회원관리 기준 등과 연동 되는 바, 대표적으로 미국감정가협회(AAA)의 경우 회원자격 및 회원등급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음.

【그림 2-2】 미국감정가협회(AAA) 시스템 및 교육내용

회원 등급	자격 요건	교육 내용	재교육
인증회원 (certified mem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의 미술시장 및 감정평가사 발급 경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시간 이상 교육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마다 70시간의 계속교육(USPAP 교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과정(Core Cour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서 작성 원칙 - 감정평가 이론 및 방법론 리뷰 - 감정평가사를 위한 연구 방법 - 감정평가의 법적, 윤리적 측면 - US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과정 (Core Cour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이론 및 방법론 리뷰
인가회원 (Accredited mem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의 미술시장 및 감정평가사 발급 경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시간 이상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마다 70시간의 계속교육(USPAP 교육 또는 시험 통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식안과 방법론 감식안 프로그램 방법론 주문형 프로그램
준회원 (Associate memb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P 수료 및 15시간 USPAP 교육과 시험 통과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P 수료 후 일정 전문 감정평가 경력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평가연구 프로그램(CASP)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방법론, 감정평가서 작성 등 이론과 실습 	

※ 출처: 미국감정가협회(AAA) 홈페이지, 재구성.

○ 미국감정가협회(AAA)의 인력양성 및 회원자격관리 프로그램

- 감정평가연구프로그램 (Certified Appraisal Specialist Program,CASP)교육
 - 감정평가재단의 (TAF)의 준회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학습프로그램으로 감정평가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 감정평가연구프로그램 (CASP)은 비전문가나 입문자에게 제공하는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으로 이를 이수한 자들은 준회원자격이 주어지나, 감정자격은 없는 예비회원임.
 - 감정평가연구프로그램(CASP)은 여름 단기 프로그램과 가을-봄 기간의 학기 프로그램의 두 종류로 운영되고 있음.
 - 각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같으며,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지원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감정평가재단(TAF) 준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음. 또한, 향후 인가 회원으로의 승급을 위한 조건도 충족하게 됨.

【표2-48】 2024-2025년도 미국감정가협회(AAA) CASP 교육 프로그램 개요

항목	여름 단기 교육코스	가을-봄 교육코스
기간	2024년 7월 8일 - 8월 2일	2024년 9월 - 2025년 4월
일정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화요일, 목요일, 저녁 6시-8시

형태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대면 세션	없음	10월 및 3월, 선택적 대면 주말
자격 요건	학사 학위 필수	학사 학위 필수
커리큘럼	1. 오리엔테이션 2. 감정 평가 개론 3. 감정 평가자를 위한 연구 방법 4. 감정보고서 작성 워크숍 5. 감정 평가의 법적 및 윤리적 이슈 6. 그림 액자 이해: 옛지의 예술에 대한 심층 탐구 7.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8. IRS 법적 가이드라인 9. 장식 예술의 형태와 장식 10. 보험 감정 11. 판화의 예술 12. 미술품 감정 13. 미술 경매 14. 미술품 보존 15. 장식 예술 보존 16. 주거용 감정물 감정의 일반 사항 17. 감정 사업 운영	

※ 출처: 미국감정가협회(AAA) 홈페이지

【표2-49】 미국감정가협회(AAA) CASP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 상세 내용

주제	내용
오리엔테이션	학생 소개, Appraisers Association 및 Appraisal Institute of America 개요, CASP 프로그램 목표, 기한 및 과제 논의
감정 평가 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 정의 - 자격 있는 감정사 및 감정 - 감정할 자산의 종류 - 고객 유형 - 감정 목적과 가치 유형 결정 방법 - 가치 산정 접근법 - 유사 매매를 통한 가치 결정 - 적절한 시장 - 감정보고서 요구 사항 및 기준 개요
감정사를 위한 연구 방법	적절한 연구 방법의 중요성, 필요한 장비 및 서적 시연, 도서관/박물관/갤러리 논의, 정보 통합 방법, 실제 감정 문제 해결
감정보고서 작성 워크숍	감정보고서 작성 요소 이해, USPAP 및 IRS 법적 요건 학습, 문서 준비 구조 모델 제공
감정의 법적 및 윤리적 이슈	감정의 법적 측면, 도난 예술품 소유권 문제, 문화재 보호 법률, IRS 법적 고려사항, 현대 미술품 감정 관련 법적 사례 분석

그림 액자 이해하기: 심층 탐구	시대별 액자 진화, 제작 기술, 액자 평가 방법 논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방문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 (USPAP)	정부 지원 감정 과정 검토, 올바른 감정 절차 학습, USPAP 인증 과정
IRS 법적 지침	예술품 감정에 적용되는 현재 세법 학습
장식 예술의 형태와 장식	17세기 후반~19세기 초의 장식 예술 진화, 스타일 변화 및 다양한 매체에서의 일관성 이해
보험 감정	보험 적용을 위한 감정 개발 및 전달, 보험 정책 및 문서화의 중요성 논의
판화의 예술	판화 기법 인식 및 식별, 판화 용어 설명, 판화 시장 이해
미술품 감정	독창적인 미술 작품 감정 방법, 현장 검사, 유사 사례 선택 및 시장 분석
미술 경매	경매의 역사, 형식, 법적 및 기술적 문제, 경매 과정의 모든 측면 이해
미술품 보존	예술 작품의 구조, 악화 원인, 기본 검사 방법 시연, 보존가와와의 협력 이해
장식 예술 보존	가구 및 장식 예술 보존, 역사적 제작 기술, 악화 원인 논의
유산 감정의 일반사항	일반 주거용 작품 감정의 기초, 고급 예술 및 기타 수집품 감정 방법
감정의 비즈니스	감정사로서 준비 과정, 계약, 기록 관리, 청구 등의 기본 사항 이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및 해결 방법 논의

※ 출처: 미국감정가협회(AAA) 홈페이지

- 미국감정가협회(AAA)의 회원등급 관리 및 심화 교육내용
 - 정회원 자격 트랙을 세 종류로 운영함: 준회원-인가회원-인증회원
 - 실제 감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회원 등급은 인증회원(Certified Member)과 인가회

원 (Accredited Member)부터임.

- 준회원은 감정평가연구프로그램(CASP)을 이수한 상태로 감정 자격은 없는 예비 회원임. 준회원 기간인 3년동안 인가회원 지원 자격이 주어짐.
- 심화 교육은 이미 감정사로 활동 중인 인증회원이나 인가회원 후보자를 위한 과정임.
-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인증회원은 이름 뒤에 "AAA"가 붙으며, 웹사이트 내 "Find An Appraiser"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됨. 인가회원은 "Find An Appraiser"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만, 이름 뒤에 "AAA"가 붙지 않음.
-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의 교육과정은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시가감정 이론 및 방법론, 감정평가서의 작성, 자료수집 및 분석, 법과 윤리 등 5개 수업으로 구성됨.
- 인증회원으로 지원할 경우, 특정 전문분야시험을 통과해야 함. 이 시험은 해당 분야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며, 응시자는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음. (단어 정의, 권한자, 적절한 시장, 현재 시장 논의, 일반 시장 논의, 작품 식별 등)
- 각 전문 분야마다 별도의 시험이 있으며, 예를 들어 구작, 인상파 및 현대 미술, 전후 현대 미술 및 신진작가, 미국 미술, 한국 미술, 인도 및 동남아시아 전통 미술 등으로 나뉨.

【표2-50】 미국감정가협회(AAA) 감정 과정 등록 자격

경력 수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미술시장 경력 5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감정 연구 프로그램 등록 - 준회원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수수료 3년 동안 준회원 활동 가능 - 경력 축적 후 지원 가능 - USPAP 기초교육 수업 (120시간) - USPAP 지속교육 수업 (15시간)
미술시장 경력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회원으로 지원 가능 - 필수 교육 이수 - 감정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추천서 필요 - 이론, 방법론, 법률 및 연구 관련 수업 - USPAP 지속교육 수업 (15시간) - 3개의 감정보고서: 보험, 유산, 기부
미술시장 경력 10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회원으로 지원 가능 - 필수 교육 이수 - 감정보고서 제출 - 전문분야 시험 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추천서 필요 - 이론, 방법론, 법률 및 연구 관련 수업 - USPAP 지속교육 수업 (15시간) - 3개의 감정보고서: 보험, 유산, 기부 - 7시간 시험 필수

※ 출처: 미국감정가협회(AAA) 홈페이지 및 인터뷰²⁴⁾

24) 린다셀빈. (2024). 시가감정 교육역량 인터뷰.

【표2-51】 미국감정가협회(AAA) 심화수업 커리큘럼

과목명	내용
Appraisal Writing Workshop	감정보고서 작성 기술을 배우는 워크숍
Theory and Methodology of Appraising	감정 평가의 이론과 방법론을 탐구하는 과정
Research Methods for Appraisers	감정 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과정
Legal & Ethical Aspects of Appraising	감정 평가의 법적 및 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과정
Theory and Methodology Review	감정 평가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복습 과정
USPAP	미국 감정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 과정

※ 출처: 미국감정가협회(AAA) 홈페이지

○ 미국감정사연합(ASA)의 교육 프로그램

- 미국감정사연합(ASA)은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상위개념인 동산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과정으로 운영 중임. 회원자격조건은 자체교육과정 수료, 자격시험 통과,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실무경력임. 특히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점임.
- 미국감정사연합(ASA)의 자체 교육과정은 ①동산 시가감정 교육과정 ②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교육과정, ③기타 추가 교육과정으로 구성됨. 동산 시가감정은 필수과정으로 총 4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 시험으로 통과 여부 결정됨.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은 15시간 단일 교육으로 시험 통과를 전제로 함. 기타교육과정은 방법론, 법률 등 시가감정 공통 분야에 대한 심화교육과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과정은 아님.

【표2-52】 미국감정사연합(ASA) 동산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 중 미술품 관련 항목

과목명	내용	강의횟수	수업형태
동산시가감정 필수	시가감정개론 - 시가감정 방법론 - 감정관련 개념의 이해 - 경제동향의 이해	27	온라인/오프라인
	자료조사와 분석 - 감정업무의 범위 - 시가감정 방법론 - 자료 조사 방법 - 자료의 분석 및 평가 - 실습	27	오프라인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법 - 자료의 정리 - 보고서 작성 연습 - 작성보고서 리뷰	27	오프라인
	법률과 실무 - 관련 법령과 규제 - 윤리 강령	27	오프라인

		- 목적에 따른 방법론 - 시가감정서 작성과 발표		
표준감정 평가실무 기준 USPAP	USPAP-동산	- 윤리강령 - 실무규칙 - 동산 감정시 주의사항	15	온라인/오프라인

※ 출처: 미국감정사연합(ASA) 홈페이지

【표2-53】 미국감정사연합(ASA) 시가감정 교육 프로그램 심화교육 과목

과목명	내용	강의횟수
회화를 통한 통찰	회화의 재료와 기법을 통한 미술 역사적 평가	1회
가정 내 자산 감정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가정 내 자산 감정	1회
개인 자산 감정 소개	개인 자산 감정 기초	1회 (3일 과정)
개인 자산 감정의 개발	개인 자산 감정 개발 및 연구	1회 (3일 과정)
개인 자산 감정: 법적 및 상업적 환경	법적 및 상업적 환경에서의 개인 자산 감정	1회 (3일 과정)
해리 베르토이아 조각	해리 베르토이아의 금속 조각 탐구	1회
18세기와 19세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장식 예술의 영향	아프리카계 미국인 장식 예술의 영향	1회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들의 유산에서의 문서화 격차	아프리카계 미국인 예술가들의 유산 문서화 격차	1회

※ 출처: 미국감정사연합(ASA) 홈페이지

○ 기타 미국내 여러 감정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커리큘럼(양지연, 2020: 206-208)

【표2-54】 미국 미술품 감정 교육관련 주요 협회의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 개요	커리큘럼
미국감정사	동산 시가감정 교육 프	▷ 심화교육

연합(ASA)	로그래를 필수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회화를 통한 통찰, 가정 내 자산 감정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개인 자산 감정 소개 등의 심화교육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를 통한 통찰 - 가정 내 자산 감정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 - 개인 자산 감정 소개 - 개인 자산 감정의 개발 - 개인 자산 감정: 법적 및 상업적 환경
미국 감정가 협회(AAA)	미술품 시가감정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 협회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p>▷ 심화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raisal Writing Workshop: 감정보고서 작성 기술을 배우는 워크숍 - Theory and Methodology of Appraising: 감정 평가의 이론과 방법론을 탐구하는 과정 - Research Methods for Appraisers: 감정 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론을 배우는 과정 - Legal & Ethical Aspects of Appraising: 감정 평가의 법적 및 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과정 - Theory and Methodology Review: 감정 평가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복습 과정 - USPAP: 미국 감정 평가 기준에 대한 교육 과정
감정평가연구프로그램(CASP)	예비 및 현직 감정사 및 예술 전문인을 위한 교육 제공(미술관련 실무 경험 5년 미만인 경우)	<p>▷ CASP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평가 개론 - 감정 평가자를 위한 연구 방법 - 감정보고서 작성 워크숍 - 감정 평가의 법적 및 윤리적 이슈 - 그림 액자 이해: 옛지의 예술에 대한 심층 탐구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 IRS 법적 가이드라인 - 장식 예술의 형태와 장식 - 보험 감정 - 판화의 예술 - 미술품 감정 - 미술 경매 - 미술품 보존 - 장식 예술 보존 - 주거용 감정물 감정의 일반 사항 - 감정 사업 운영

※ 출처: 양지연, 2020: 206-208

3) 대학의 인력 양성 교육

○ 미국 대학의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음.

【표2-55】 미국 주요 대학의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프로그램 내용

대학명	프로그램명	커리큘럼
뉴욕대학교 (New York University)	Appraisal and Valuation of Art 과목 개인 재산 감정을 위한 통일된 전문 감정 기준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다양한 미술품 상업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룸. - 다양한 직업군과 그들이 미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신흥 시장과 기술의 영향,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미술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함. - 미국감정가협회(AAA)와 협력일환으로 진행된 미술품감정사 자격증 연계프로그램은 2015년 여름학기 이후로 진행 종료됨. - 현재는 미국감정가협회(AAA)를 비롯한 미술품 감정 관련 단체와 연계된 현장연계 프로그램은 없음. - 감정 세미나는 개인 자산 감정에 중점을 두며, 미술품 감정가들이 필요로 하는 윤리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을 제시함. - 미국감정가협회(AAA)와 협력하여 제공되며,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시험 준비를 목표로 함.

※ 출처: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홈페이지 석사과정 소개 발췌

(2) 프랑스의 시가감정 인력 양성

1) 인력양성 교육의 특징

- 프랑스의 감정가는 진위감정과 가치평가를 모두 수행하는 특징이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 차원의 감정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과정은 없으나 공공 기관, 대학(학교), 관련 협회 등에서 감정 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함. 대부분 감정사는 대학과 루브르 학교 같은 예술학교에서 고고학, 미술사, 조형예술, 장식미술, 응용미술 등과 관련된 학위를 이수하고 전문분야에서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은 후 전문 감정사가 됨.
- 공공기관인 경매회사협의회(CMV)의 경매사 양성 및 공인과정, 드루오교육(Drouot Formation)에서 제공하는 미술시장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주요 민간협회인 전국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협의회(CNES)가 운영하는 전국 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협의회 연수원(Institut de Formation CNES)의 감정 및 평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회원 뿐 아니라 일반인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강 가능. 파리2대학(Universite Pantheon-Assas)은 평생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예술품 감정 대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양지연, 2020: 280).

2) 공공기관의 인력 양성 교육

- 감정인력 양성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는 경매회사협의회(CMV), 드루오 교육(Drouot Formation)이 있음.

【표2-56】 공공기관 감정인력 양성 교육과정

기관명	교육과정	교육대상 및 주요 교육내용
경매회사협의회(CMV)	연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 이론수업 및 현장수업 혼합 - 10%: 관련 학교에서 시행되는 이론수업 - 90%: 뮤지엄의 전시실 및 창고 등에서 이루어지는 실물을 유물 교육을 통해 학예사가 진행하는 현장수업 - 전국사법경매사협의회(CNCJP) 및 전국선서증개인위원회(CNCMA)와 함께 예비경매사를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운영. 입학시험 통과 후 들어갈 수 있는 연수과정으로 이론 및 연수 자격증에 대한 실무수업을 포함함. - 이 외에도 부수적인 자격으로 공개경매를 원하는 공증인(notaires)과 집행관(huissiers)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 진행
드루오 교육(Drouot Formation)	단기 과정, 컨설턴트 과정, 선택과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 이론 수업 및 실무 현장 수업 혼합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미술시장의 다양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디플로마(Diplôme) 획득이 가능 - 대학원, 감정가, 경매사, 법률가, 갤러리스트, 고미술상, 복원 전문가 등을 통해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출처: 양지연(2020:128) 재정리

① 경매회사협의회 교육과정 La formation du Conseil des maisons de vente, CMV²⁵⁾

- 경매회사협의회는 2000년부터 경매 관리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미래의 경매사를 위한 전문교육을 시작함. 교육내용은 이론수업 및 현장수업 혼합으로 10%가 이론수업, 90%는 뮤지엄(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 및 수장고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수업, 중심의 연수(훈련)교육 과정임.

25) 공공기관인 경매회사협의회(CMV) - 프랑스의 자발적 공개 경매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이다. CMV는 2022년 2월 28일 법률 제2022-267호에 의해 설립된 공개경매 규제기관으로, 예술시장 규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2023년 2월 20일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공개경매위원회 Conseil des ventes volontaires(CVV) 후속기관이다.

- 이 교육은 “칼리오피(Qualiopi)”²⁶⁾인증을 받은 선택적 교육과정으로, 법학 및 미술사, 고고학, 조형예술학, 응용예술학 등의 복수 학위 소지자는 자발적 경매인 인턴십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은 이론 수업이 포함된 24개월 과정으로 경매장, 법무사, 중개사, 공증사, 사법행정시설에서 6개월 이내로 인턴십을 하고 사법 경매인으로서의 연구와 두 개의 훈련 파트너 기관인 ESCP²⁷⁾와 루브르학교에서 연간 5주간(약 350시간) 이론 수업을 병행함. 루브르학교와 협력을 통해 미술사에 대한 실무적 지식을 심화하며 최고의 경영대학 중 하나인 ESCP와 협업을 통해 법률, 경영,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및 경영 지식을 심화시킴. 루브르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문화시설 등에서 소그룹으로 실습을 진행하며 ESCP에서는 사례연구가 제공됨.
- 드루오 경매 관람이 주 1~3회 진행되며 3시간 동안 경매장을 돌면서 20여 개의 오브제를 추정하고 설명함.

② 드루오 교육 Drouot Formation

- 드루오 교육(Drouot Formation)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매 및 예술품감정 교육기관으로 미술시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본 과정들은 주로 미술시장 분야 업계 종사자(경매사, 감정가 등)의 재교육, 혹은 경매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교육기관으로써 민간 학위 수여로 이어지는 전문 교육 과정임.
 - 경매사 자격증 준비 과정
 - 미술시장의 딜러 양성 과정
 - 골동품상 양성 과정
 - 갤러리스트 양성 과정
- 수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실용적인 교수법과 수준 높은 수업으로 인정받고 있

26) 국가 품질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조항의 적용을 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
 27) École Supérieure de Commerce de Paris(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 스쿨 중 하나)

으며, 여러 대학과의 파트너십도 진행하고 있음.

- 미술사가와 감정사 그리고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미술사 수업
- 경매인, 감정가, 골동품상, 갤러리스트가 진행하는 예술품 감정평가 수업
- 법조인, 전문 경영인이 진행하는 법률 수업 및 미술시장의 테크닉 수업
- 전문가 지도로 이루어지는 미술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창출 프로젝트 또는 활동 모니터링

○ 실제 작품, 시장 참여자들과 접점을 통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여, 전문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3) 민간협회의 인력 양성 교육

① 전국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협회의 연수원 Institut de Formation, CNES

- 프랑스 감정가 협회의 교육기관으로 2003년에 설립, 이 기관에서는 감정가들에게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다양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표2-57】 프랑스 전국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협회의 연수원 (CNES) 심화수업 과목

과목명	내용
예술품 감정	예술품의 진위와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박물관 및 컬렉션 방문	실제 예술품을 직접 보고 평가하는 실습 과정
전문가 강연	예술시장의 최신 동향과 감정 방법에 대한 강연
법적, 윤리적 교육	감정가의 법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수업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및 법률 교육	보험, 민사 및 형사 책임, 법률과 세무 관련 교육
사진의 역사	사진의 역사와 기술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
청동 및 미술품 주조	19~20세기 청동 제조 기술의 역사와 특수성을 배우는 과정
가구용 목재 및 청동	사용법, 진화 과정 및 기술적 특성에 대한 교육

전문지식의 방법론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랑스 장식 예술의 부흥의 역사	가구 및 장식품과 프랑스 장식 예술의 부흥에 대한 교육
도자기, 카펫, 제본	도자기, 카펫 및 제본의 역사와 기법에 대한 교육
고대부터 20세기까지의 보석	보석의 역사와 기법에 대한 교육
피렌체 메디치 시대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피렌체의 예술 과학 및 기술 진화에 대한 교육
프랑스 계몽주의의 영향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축과 미술 컬렉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교육
15~19세기의 포르투갈 예술품	포르투갈과 교역국 간의 기술적 예술적 교류에 대한 교육
로마의 고대 문화유산	르네상스부터 신고전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 출처: 프랑스 전국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협회의 연수원(CNES)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 발췌

② 전국감정가협회 LaCompagnie Nationale des Experts, CNE

-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주제별로 컨퍼런스를 개최함.

4) 대학별 인력 양성 교육

- 감정사나 경매사는 풍부한 미술사적 지식과 작품에 대한 감식안이 중요. 미술사 관련 학과로 유명한 학교에 석사 코스 위주로 마련되어 있으며, 현장실습을 위해 박물관, 경매사 등과 연계하여 교육하고 관련 기관의 인턴십 같은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 루브르학교, 파리1대학, 파리 2대학, 예술고등교육학교 등에 감정 관련 코스가 개설되어 있고, 파리 2대학 평생교육원에 예술품 감정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루브르 학교에는 인턴경매사 자격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① 루브르학교 L'École du Louvre

- 예술사와 박물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예술품 감정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예술품 감정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육성함. 루브르 학교 석사과정 2년차의 세미나 형식 수업에서는 오브제의 기술적, 역사적 연구에서부터 가치평가, 가치인증 연구와 토론이 진행됨.
- 예술시장에 대한 교육과정에서는 고대 미술시장과 현대 미술시장, 비서구 미술시장과 유럽 미술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준비. 경매장, 국제앤틱페어, 벼룩시장에 이르기까지 미술시장의 다양한 거래를 교육하며, 수업은 골동품 딜러, 경매 중개인, 갤러리스트, 감정사, 법률 고문, 전문 언론인, 아트 컨설턴트, 보험회사, 법원 또는 세관 전문가들이 진행.
- 석사과정인 <아트 마켓 Marché de L'Art 과정>의 장점은 시장법 과정 외에도 예술과 미술사, 아트 마켓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Paris Sud University 법대 및 전문가들과의 오랜 협업을 통해 법률 지식 획득과 실제 적용을 장려함.
 - 미술사: 다양한 예술 운동과 작가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
 - 재료와 기법: 페인팅,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예술 작품에 사용되는 재료와 기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작품의 진위를 감별하는 방법 습득
 - 감정 및 평가 기술: 예술품의 진품 여부를 평가하고, 시장가치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제공
 - 전시 및 박물관 관리: 작품 전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감정사로서 역할확대
 - 세미나 및 워크숍: 실제 사례를 통해 감정 경험을 쌓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최신 트렌드와 기법 습득 - 사례) 미술품 감정 관련 세미나 「MDA03 가치평가와 기준」 (2024.10월 기준)²⁸⁾

【표2-58】 프랑스 루브르학교 (L'École du Louvre) 아트마켓 Marché de L'Art 석사과정 커리큘럼

과목명	내용	과정
예술사와 박물관학	예술품 감정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전문성을 육성하는 과정	기초 (석사 과정)
오브제의 기술적, 역사적 연구	오브제의 기술적 및 역사적 연구를 통해 가치평가 및 인증을 학습하는 세미나	
예술시장 교육	고대, 현대 및 비서구 미술시장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술시장의 다양한 거래 방식 습득	
아트 마켓 법	시장법 과정을 배우고, 이론적 법률 지식을 실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교육	

28) programme des élèves 2024. (2024)

<https://www.ecoledulouvre.fr/fr/formations-etudiantes/deuxieme-cycle-master/master-2/>

예술 운동 이해	다양한 예술 운동과 작가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과정	
재료와 기법	페인팅, 조각, 공예 등에 사용되는 재료와 기법을 배우고, 작품의 진위를 감별하는 방법 습득	
감정 및 평가 기술	예술품의 진품 여부 평가 및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제공	
전시 및 박물관 관리	작품 전시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감정사로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과정	
세미나 및 워크숍	실제 사례를 통해 감정 경험을 쌓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최신 트렌드와 기법 습득	
MDA03: 오브제 가치평가	오브제의 가치평가와 검증에 관한 세미나로, 가치 및 가격, 감정 실무, 복원과 진위에 대해 논의	심화
인터넷상의 예술시장	인터넷상의 예술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법적인 측면을 배우는 과정	

※ 출처: 프랑스 루브르학교(L'École du Louvre)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 발췌

【표2-59】 프랑스 미술품 감정 관련 세미나 「MDA03 가치평가와 기준」

MDA03 세미나	오브제 가치평가와 가치 검증 Evaluation des objets, certification de leur valeur
이 세미나의 주요 초점은 오브제에 있으며 그 역사와 기술 연구 그리고 가치를 포괄적으로 다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과 메커니즘 및 감정사의 역할까지 순차적으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와 가격(Valeurs et prix) - 감정(L'expertise) - 감정 실무 1/2. 2/2(L'expertise: travaux pratiques) - 조언과 매매중개(Conseils et courtage) - 작품의 복원과 진위(Restauration et authentification des œuvres) - 국제 경매회사의 목록작성 실행: Christie's 케이스(La pratique du catalogage dans les maisons de ventes internationales: Christie's) - 언론/출판/저널리즘(La presse) - 인터넷상의 예술시장: 실질적이고 법적인 측면(Le marché de l'art sur internet: aspects pratiques et juridiques)

※ 출처: 프랑스 루브르학교(L'École du Louvre) 홈페이지, 프로그램 2년차 MDA03 - 미술품 가치평가 및 인증 2023, 2024 프로그램 소개 발췌

- 인턴십 제도: 모든 학생은 최소 3개월 이상(456시간 이상)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인턴십을 진행해야 함, 지방자치 박물관, 루브르박물관, 국립 또는 사립 박물관, 해외기관 등에서 가능. (인턴십은 학교에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을 신청 후 실습해야 함)

② 파리 1대학 L'Université Paris 1 Pantheon-Sorbonne

- 석사과정 <Master 2 professionnel Marché de l'art> 은 소르본느 로스쿨과 미술사 및 고고학 UFR (EHAAS) 간의 협력으로 법학-미술사 이중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모두 파리 1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임. 마스터 2 석사 학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권위 있는 경매회사인 크리스티(Christie's)가 파트너십으로 20시간 교육 제공
- 프로페셔널 석사과정 2년차 아트 마켓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미술시장법, 미술사, 미술 및 문화의 경제 및 관리에 대한 세 가지 교육을 이수함.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수업을 진행함.
 - 주요 교과는 미술시장에 적용되는 계약법, 미술시장에 적용되는 저작권, 미술시장에 적용되는 책임법 및 보험법, 미술시장에 대한 과세,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술, 미술과 시장 (19-21세기), 경매에 대한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
 - 예술과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 예술작품 관리, 영어수업, 경매인, 변호사, 감정사, 공증인, 저작권수집협회 책임자, 박물관 학예사, 갤러리스트, 문화기관장 등이 제공하는 수많은 실습 세미나도 진행됨. 또한, 석사 학위 과정의 파트너인 크리스티가 20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은 최소 3개월간의 인턴십을 완료해야 함.
 -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이전에 법과 미술사의 이중 과정을 이수해야 함. 최소한 미술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학 석사 학위와 미술사 학사 학위 또는 일반적으로 법학 석사 학위, École du Louvre의 졸업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가 있어야 등록 가능.
 - 본 학위의 소지자는 자유품공개경매에서 경매 진행의 권한을 얻으며, 경매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음.
- 루브르 학교는 CMV와 협업하여 직업 적성(적격) 시험에 앞서 2년간의 전문 인턴십 동안, 4주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 제공. 이 연수는 매년 3주간의 강의와 1주일간의 스터디 트립으로 구성되는데 전통적인 커리큘럼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지만, 경매장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창작 분야에 대한 미술사 지식 심화 목적. 루브르 학교에서 제공되는 강의는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또는 문화기관에서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실습수업으로 이어짐.

【표2-60】 프랑스 파리 1대학 석사과정 Master 2 professionnel Marché de l'art 2년차 커리큘럼

과목	학점
예술 시장에 적용된 저작권 법	1.5
예술 시장에 적용된 책임 법	1.5
예술 시장에 적용된 보험 법	1.5
예술 시장에 적용된 계약 법	1.5
예술 시장에 대한 세금 법	3
직업의 전문성	3

EU 경제	4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술	3
전문 지식과 실습	3
예술과 시장에 대한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법	3
미술사 선택과목	3
언어 (영어)	2
최소 3개월 인턴십	30
총합	60

※ 출처: Université Paris 1 Panthéon-Sorbonne 홈페이지, 파리 1대학 홈페이지 2024 프로그램 소개 발췌

③ 파리 2대학 파리 팡테옹-아사스 대학교 Université Panthéon-Assas

- 경매인 자격시험 준비와 미술사 및 법학 학사 준비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석사과정을 통해 지식을 심화, 보완할 수 있음. 예술작품의 전문지식에 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대학학위는 법률 및 예술에 관한 교육이 주를 이룸.
- 이 과정의 교수진은 공학학부의 물리화학자 교수, 관세청의 문화재 규정 담당자, 변호사, 미술사학자, 미술품 보존-복원가 전문 협회 위원, 법학교수, 갤러리스트, 헌병대 사령관, 고고학박사, 고고학 전문가, 공증인, 경매인, 감정가, 범죄학 전문가, 법의학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됨.
- 수업은 미술 작품 감정에 관한 법률, 예술 작품에 관한 법률 소개, 예술 작품 감정 방법론, 작품 소유권, 예술 작품에 적용되는 지적 재산권 규칙과 보호조건, 보호 저작물, 권리 보유가, 재판매 권리 및 저작권격을 포함한 경제적 권리, 권리 양도, 상속제도 등으로 구성됨.
- 교육내용
 - 보험 전문지식
 - 공동 상속 또는 분할에 대한 감정: 공동 재산의 상속 및 분할에 적용되는 법적 규칙, 공증인의 역할(전문가 선택 및 임명, 임무, 전문지식 통제, 책임, 윤리 현장 준수, 조사 및 연구, 결과, 인증서, 의견, 보고서 작성)
 - 자발적 경매의 감정: 자발적 경매에 적용되는 법적 규칙, 경매인의 역할(전문가 선택 및 임명, 임무, 절차, 전문지식 통제), 감정사의 역할(감정 수행, 양식, 기간, 텍스트 준수, 윤리 현장 준수, 다양한 의무, 조사 및 연구, 결과, 인증서, 의견, 보고서 작성), 경매인과 감정사의 책임
 - 법원과 세관에 감정 제출: 법원 명령에 따른 재판권 프레젠테이션, 민사법원 명령에 따른 감정, 전문성을 야기하는 사법적 맥락에 대한 감정 제시, 감정관련 사법관의 역할(전문가 선택, 임명, 임무, 절차, 전문지식 확인), 감정사의 역할(전문지식의 수행, 양식, 기간, 텍스트

준수, 다양한 의무, 윤리 현장 준수, 책임, 조사 및 연구, 결과, 의견, 보고서 작성), 감정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 형사법원 명령의 감정 조사: 감정사의 역할(직업적 위험, 책임, 조사 및 연구), 변호사의 역할(감정사의 의견 요청, 의견 수렴, 분쟁 조정, 심문, 보고서 접수, 보고서 사용, 재판 중 변호사와 감정사의 의견 수렴, 무효, 적대적 절차, 조사의 비밀 및 직업적 비밀)
- 세관 감정, 감정의 맥락 제시: 국가, 유럽 및 제 3자의 문화재에 대한 통제, 세관 감정 양식 제안(감정사 선택, 임무, 개입의 법적 틀 등)
- 감정의 과학적 기술 고려: 과학적 기법을 어떻게, 언제, 어떤 조건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미술사학자의 전통적인 작품과 기술의 대화와 융합 유도, 과학적 기법에 대한 전문가 및 미술사학자의 입장, 이 과학적 기술의 유용한 사용 방법, 기술 데이터 연구 및 분석 방법 모색
- 그 외, 컬렉션 관리, 과학적 영상의 주요 개념, 과학적 영상 응용, 과학적 분석 소개, 과학적 분석의 응용: 재료 분석, 작업 방식, 위조자들의 재료 재창조 방법, 애플루트 데이팅 기법, 작품의 보존상태를 판단하고 이전 개입을 찾는 기술 등

【표2-61】 프랑스 파리 2대학 팡테옹-아사스 대학교 법학 석사과정 2년차 예술시장 및 문화재 법 전공 커리큘럼

과목명	시간	학점
예술사 기초 (Fondamentaux de l'histoire de l'art)	26시간	3
미술시장 역사 (Histoire du marché de l'art)	26시간	2
현대 미술시장 (Enjeux contemporains du marché de l'art)	26시간	3
기업가정신 기초 (Initiation à l'entrepreneuriat)	20시간	2
미술 작품 판매법 (Droit des ventes d' Œvres d'art)	40시간	4
미술 작품의 공공법 (Droit public des Œvres d'art)	30시간	4
미술작품 및 문화재 보험 (Assurances des Œvres d'art et du patrimoine artistique)	15시간	2
미술 작품 감정 (Expertise des Œvres d'art)	15시간	2
미술 시장 세금 (Fiscalité du marché de l'art)	20시간	2
사유 문화재 기획 (Ingénierie du patrimoine artistique privé)	25시간	3
컬렉션 및 커뮤니케이션 가치화 (Valorisation des collections et communication)	25시간	2
미술 전시 및 운영 (Exposition et régie des Œvres d'art)	10시간	2
재단 및 후원 (Fondations et mécénat)	15시간	2
지적 재산권 및 미술 작품 (Propriété intellectuelle et Œvres d'art)	15시간	2

미술 작품의 형사 보호 (Protection pénale des Œuvres d'art)	20시간	2
미술 작품 반환 및 출처 조사 (Restitution des Œuvres d'art et recherche de provenance)	16시간	2
경영, 마케팅, 회계 (Gestion, marketing et comptabilité)	15시간	1
법률 영어 (Anglais juridique)	30시간	2
인턴십/학습 (Stage ou apprentissage)	5개월 이상	8
총합	373시간 (실습 제외) / 400시간 (실습 포함)	60

※ 출처: 프랑스 파리 2대학 팡테옹-아사스 대학교(Université Panthéon-Assas)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 발췌

④ 파리 2대학 팡테옹-아사스 대학교 평생교육과정 Université Panthéon-Assas

- 파리 2대학에서 2014년에 새로 개설한 <예술감정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평생교육 과정으로, 신청을 위해서는 4년(석사과정) 이상의 대학 교육을 이수해야 함. 2014년²⁹⁾에 시작한 이 교육과정 목적은 예술작품의 전문성에 관한 법률에서 예술계의 많은 사회적 또는 공적 종사자를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 과학기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임. 이 과정은 Art & Law Institute (l'Institut Art & Droit)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진행됨.
-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을 통과하면 예술품 감정사 대학 학위(Diplôme d'Université Expertise des œuvres d'art)를 취득 가능함
- 예술작품의 진위성 여부의 판단은 전통적으로 미술사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과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확성, 신뢰성 및 속도를 감안할 때 실무와 법적 절차 모두 점점 더 감정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 학제간 교육은 법률 모듈 및 과학기술 모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률, 예술 및 과학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양성이 가능.

⑤ 예술고등교육학교 Institut d'Etude Supérieures des Arts, IESA

- 예술, 럭셔리 및 문화 경영에 특화된 사립 국제 고등교육으로. 예술시장, 문화 경영,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학사 및 석사과정이 있음. IESA는 이 예술 분야와 문화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경험을 제공함.
- <미술시장 Marché de l'art>코스는 2년과 3년 과정으로 대학과 같은 기간과 학력을 인정

29) <http://www.umar-lams.fr/droitettechniquesdelexpertisedesoenvresdart-2014/>

받고, 이후 3번째 프로페셔널 과정에 해당하는 가구와 공예품, 회화와 그 외 그래픽 작품, 현대미술 매트리스로 한국의 석사과정에 해당함.

- 분교가 있어서 1학년에는 피렌체, 2학년에는 브뤼셀에서 오르타 박물관, 3학년에는 15일간 런던의 소더비에서 국외 경매체계 이해와 감정에 사용되는 영어 용어의 숙지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짐.
- 졸업생의 70%가 감정관련 인력으로 진출하고, 그중 30%가 10년 정도 지난 후 자신의 사무실을 세워 감정가로 활동. 졸업 후에 세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은 획득 가능하나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공부를 지속해야 하며, 세관의 인정제도는 학교 자체를 인정기관으로 선정하여 세관에서 추천을 요청할 때 학교에서 감정전문 인력을 추천하는 시스템임.
- <아트 마켓 컨설턴트 전문 과정 La formation de consultant spécialiste>은 드루오 포메이션(Drouot Formation)에서 운영함. 1년간의 단기 집중 코스로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는 예술의 역사, 전문기술 및 연구, 예술시장의 작동방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료 후 바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양성함.

【표2-62】 프랑스 예술고등교육학교(IESA) 드루오 포메이션(Drouot Formation) 커리큘럼

과목명	내용
개인 컬렉션에서 공공 박물관으로	컬렉션의 역할을 통한 문화 유산 창출 탐구
미술 법률	미술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교육
미술사: 1600-1815	1600-1815년의 미술사에 대한 탐구
현대 미술 및 문화 유산	현대 미술과 문화 유산의 관계 탐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웹 마케팅	문화 산업을 위한 마케팅 전략 교육
주제 세미나 1: 문화 경제학	문화 경제학의 이론 및 연구 워크숍
주제 세미나 2: 문화 기업가정신	문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론 교육
문화 경제학: 실증 연구	문화 경제학에 대한 실증 연구 교육
문화 기업가정신: 실증 연구	문화 기업가정신에 대한 실증 연구 교육
주제 세미나 3: 문화 유산 관리	문화 유산 관리의 이론 및 사례 탐구
주제 세미나 4: 문화 관광 경제	문화 관광의 경제적 측면 탐구
문화 유산의 경제학	문화 유산의 경제적 가치 및 관리 탐구
석사 논문 클래스	석사 논문 작성을 위한 클래스

※ 출처: 프랑스 예술고등교육학교(IESA) 드루오 포메이션(Drouot Formation) 홈페이지

【표2-63】 프랑스 예술고등교육학교(IESA) 아트 마켓 컨설턴트 전문 과정 커리큘럼

과목명	내용
개인 컬렉션에서 공공 박물관으로	컬렉션의 역할을 통한 문화 유산 창출 탐구
미술 법률	미술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교육
미술사: 1600-1815	1600-1815년의 미술사에 대한 탐구
현대미술 및 문화 유산	현대미술과 문화 유산의 관계 탐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및 웹 마케팅	문화 산업을 위한 마케팅 전략 교육
주제 세미나 1: 문화 경제학	문화 경제학의 이론 및 연구 워크숍
주제 세미나 2: 문화 기업가정신	문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 교육
문화 경제학: 실증 연구	문화 경제학에 대한 실증 연구 교육
문화 기업가 정신: 실증 연구	문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실증 연구 교육
주제 세미나 3: 문화 유산 관리	문화 유산 관리의 이론 및 사례 탐구
주제 세미나 4: 문화 관광 경제	문화 관광의 경제적 측면 탐구
문화 유산의 경제학	문화 유산의 경제적 가치 및 관리 탐구
석사 논문 클래스	석사 논문 작성을 위한 클래스

※ 출처: 프랑스 예술고등교육학교(IESA) 홈페이지

⑥ 예술및문화활동 상업학교 L'Institut de Commerce de l'Art et de l'Action culturelle, ICART

- 예술 및 문화 경영에 특화된 사립 고등 교육기관으로 1963년에 설립된 ICART는 예술시장, 문화 경영,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이 있음. 본 연구에서는 MBA 과정인 <국제미술시장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코스를 살펴봄.
- 본 과정은 이론적 지식과 실무 기술을 결합한 전문교육과정을 표방함.
- <국제미술시장 International Art Market>과정에서 6개월의 이론수업과 더불어 6개월간 파트너 기관 및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랑스 또는 해외)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함. 외교 관련 정부지원 및 각국의 문화전문기관(갤러리, 경매장, 박물관 및 문화기관)과의 관계를 통한 해외 인턴십 지원
- 미술품 감정사의 역량으로 호기심과 열정, 분석적 사고, 관찰력과 주의력, 철저함, 신중함, 미술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 미술시장에 대한 지식, 법률에 대한 지식, 경영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함.

(3) 영국의 감정 관련 인력 양성

1) 인력 양성 교육의 특징

- 영국은 국가 차원에서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을 위한 공인된 전문기관 및 과정이 없으나, 관련 협회와 경매회사가 대학과 연계하여 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함.
- 민간협회의 경우,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가 킹스턴대학교(Kingston University)와, 미술·고미술딜러협회가 웨스트민 미술·보존대학교와 각각 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대학 차원에서는 실제 감정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보다는 감정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초지식인 미술사, 고고학, 미술품 보존 및 복원과 관련된 과목 및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협회 및 박물관·미술관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기도 함. 그러나 가치평가 실습을 제공하는 킹스턴대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복원 및 보존 등 진위감정과 관련된 교육 및 과학적 분석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의 비중이 높음.
- 경매회사의 경우, 소더비나 크리스티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석사과정 및 전문과정에서 미술과 진위감정, 시장의 가격데이터 분석, 가치평가, 카탈로그 작성법 등을 포함한 감정 및 평가 실무 과목을 포함하고 있음.

【표2-64】 영국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과정
준회원 양성교육 공인회원 재교육 비회원 전문성 개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기준 약 222개의 교육과정 및 이벤트 운영 · 이 중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132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61개 ▷ 주제: 가치평가, 건물관리, 보존 및 복원, 동산, 자산관리, 지속가능성 등 17개 주제
대학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킹스턴대학교의 킹스턴예술대학(Kingston School of Art) 아트 비즈니스 석사(Art Business MA) 과정 연계 · RICS가 수습 실무자(probationer practitioner) 대상 교육으로 인정한 유일한 미술품·골동품 과정 ▷ 교육 내용: 감정평가 전문인력 입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의 역사(30학점) - 미술품 분석과 가치평가(30학점): 다양한 평가목적에 따라 작품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을 다루며 미술품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와 역할·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 - 비즈니스와 미술(60학점)
--	--

※ 출처: 킹스턴대학교(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홈페이지

【표2-65】 영국의 기관 유형별 감정인력 양성 교육 현황

유형	기관명	과정구분	교육 대상 및 주요교육내용
민간/협회	왕립공인가치평가사 협회(RICS)	양성교육 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평가사 대상 온라인교육, 세미나, 컨퍼런스 운영 - 2024년 기준 약 15개의 교육과정 및 이벤트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대학	킹스턴대학교 (Kingston University)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및 디자인 대학원의 예술경영 석사 과정 내에 주요 과목으로 <분석과 감정(Object Analysis & Appraisal)>를 포함 - 1년(교육과정) 혹은 2년(전문 실습 병행) 과정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주2회 출석 - RICS에서 인증한 유일한 미술품·골동품과정
	영국왕립예술원 (Royal Academy of Arts)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식안(Connoisseurship) 과정: 2일 단기 과정,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
경매회사	소더비인스티튜트 런던 (Sotheby's Institute of Art London)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과 뉴욕 캠퍼스에서 1년~1년 반 과정으로 운영, 또는 온라인 과정으로 1년 반~2년 과정으로 운영 - 예술경영(Art Business) 석사과정 안에 <미술시장 연구와 가치평가>, <미술자산 및 금융>, <미술법: 미술품의 법적 생애주기>, <리서치 방법론>과 <필드 스터디> 등의 과목을 포함 - 역사적 미술과 디자인(Historic Art and Design) 석사과정 안에 <미술시장 연구와 가치평가>, <감정: 파트원/투>, <국제 미술시장> <리서치 방법론>과 필드 스터디 등의 과목을 포함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런던 (Christie's Education London)	전문인증과정 (수료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과 비즈니스(Law and Business) 12주 과정 중 전반 6주간 “미술 비즈니스와 가치평가”를 주제로 <투자로서의 미술>, <가치평가와 감정>, <미술의 감식안> 등을 포함, 후반 6주간 “예술법과 규범” 주제에 <진위성과 전문성> 수업 등을 포함

※ 출처: 국가별 미술 및 감정 분야 정책·제도 연구. (2020). 예술경영지원센터. p.175-178 표를 업데이트 및 재구성.

2) 감정 관련 협회의 인력 양성 교육

- 영국의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전술한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의 감정평가사 공인제도와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살펴 볼 수 있다. RICS는 부동산·동산·기업 감정평가사들의 국제적 단체로, 공인회원(Chartered Member)과 준회원(Associate Member)을 두고 있다. 미술품·골동품 감정평가는 공인회원만 두고 있으며, RICS 소속 미술품·골동품 분야 공인회원은 2022년 기준 100명임(양지연, 손차혜, 2023: 51).
- 영국의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는 미술품·골동품 가치평가사의 역량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미술·고미술딜러협회(LAPADA)가 웨스트던 미술·보존대학(West Dean College of Arts and Conservation)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석사과정,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가 미술·고미술 분야 전문과정으로 인증한 킹스턴 대학교(Kingston University)의 《미술시장과 가치평가(Art Market&Appraisal of Professional Practice)》 석사과정이 있음(양지연, 2020: 280).

3) 대학의 인력 양성 교육

① 영국 킹스턴대학교 Kingston University

- 킹스턴대학교(Kingston University) 예술대학원(Art and Design)의 예술경영학 석사과정(Art Business MA)에서는 이론적 토대와 실무 기술 훈련을 균형있게 설계하고자 하며, 런던 미술산업 전문가들의 학제간 학문적·실무적 교육과 연계하고 갤러리, 경매장, 아트페어 등 다양한 미술 관련 기관으로의 현장경험을 할 수 있으며 킹스턴 비즈니스 스쿨(Kingston Business School)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경영 지식 및 법률적 이해를 함양할 수 있도록 미술 경영프로그램을 운영함.
- 과정 과목은 핵심모듈(미술시장의 역사, 작품 분석과 감정, 비즈니스와 예술, 캡스톤 프로젝트) 과 선택모듈(전문실습)로 구분됨.
- 해당 과정의 초청 연사로는 감정 및 미술품 보험 전문가, PR 전문가, 주요 경매회사 전문가, 독립 미술품 감정가, 갤러리스트 및 예술가, 아트페어 주최자 등을 포함하여 현장과 연계.

【표2-66】 영국 킹스턴대학교 미술경영 과정 세부내용

과목명	학점	내용
미술시장의 역사 History of the Art Market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동적인 학제 간 학문인 미술시장의 역사를 소개하며 후원, 예술 작품의 유통채널, 경매 및 딜러 시스템 등 미술시장의 주요 중개자들의 발전 과정을 이해 - 미술시장의 역사를 연구하며 경제사, 정치사, 수집 역사 등을 아우르는 학제 간 포괄적인 접근
작품 분석 및 감정 Object Analysis & Appraisa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및 2차 시장 맥락에서 작품 분석 및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 - 작품 조사, 비평, 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검토 - 실무자 특강 포함 - 경매 카탈로그의 연구 및 제작 과제
비즈니스와 미술 Business and Art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상업화 요소를 탐구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투자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 - 지역 및 글로벌 환경 내에서 예술 기반 사업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기술과 혁신, 지속 가능성 및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고 예술의 역할과 기회를 탐색
메이저 프로젝트 Major Project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논문, 포트폴리오, 또는 비판적 해설이 포함된 창의적 프로젝트의 형태의 결과물 제출 - 학생들이 석사과정 전반에 걸쳐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종합하여 적용하며 프로젝트 개발, 계획, 연구 및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자원을 제공함. - 비판적 연구와 창조산업학과 (the School of Critical Studies and Creative Industries) 석사과정 학생들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학제 간 및 실습 주도 접근방식을 포함.
전문실습 Professional Placement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실습 학습을 포함하는 석사과정을 따르는 학생들을 위한 핵심 과정 -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적절한 실무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과 주제별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
총계	300 ³⁰⁾	

※ 출처: 킹스턴대학교 홈페이지

4) 경매회사의 인력 양성 교육

- 소더비 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 크리스티 에듀케이션(Christie's Education) 등 주요 경매회사가 설립한 《예술경영(MA Art Business)》, 《역사적 미술과 디자인(MA Historic Art and Design)》석사과정, 또는 《법과 비즈니스(Law and Business)》 전문과정에서 감정 및 가치평가를 다루고 있음. 강의명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나 시가감정과 관련된 과목이 정기적으로 개설됨.

30) 영국의 학점(credit) 제도는 한국의 학점제도와 다르게 환산될 수 있으며, 300학점은 일반적인 대학원 1년과정임.

① 소더비 인스티튜트 Sotheby's Institute of Art

- 소더비 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는 국제적인 경매회사 소더비(Sotheby's)의 교육기관으로 예술시장, 예술경영, 예술사 등 여러 예술 관련 분야에서 고등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과 런던에 캠퍼스를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정을 운영함.
- 소더비가 운영하는 소더비 인스티튜트 런던은 2019년까지는 과정을 이수했을 시 맨체스터 대학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 수여 협정을 맺고 있었으나, 현재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품 감정 및 경매 관련 학위나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Master's Degrees)과 전문 과정(Professional Courses)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단일 강좌로 운영되는 전문과정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인텐시브코스(Intensives)와 12주간 진행되는 전문자격증과정(Professional Certificates)으로 나뉨.
-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은 2개 학기로 구성되어 최소 1년 이상 진행되며, 런던 캠퍼스 석사 과정은 총 네 개로 (1) 럭셔리 비즈니스 전공(Luxury Business), (2) 예술경영 전공(Art Business), (3) 현대미술 전공(Contemporary Art), (4) 순수 및 장식미술과 디자인 전공(Fine and Decorative Art and Design)으로 나뉨. 뉴욕 캠퍼스의 석사과정은 총 세 개로 (1) 예술경영 전공(Art Business), (2) 역사적 미술 및 디자인 전공(Historic Art and Design), (3) 현대미술 전공(Contemporary Art)으로 구분됨.
- 전문 자격증 과정(Professional Certificates)은 (1) 예술경영(Art Business), (2) 예술경영과 미술사(Art Business and Art History), (3) 미술사(Art History)가 있음.

【표2-67】 소더비 인스티튜트 런던 석사과정 학기별 운영체계 예시

학기/전공	예술경영 전공	현대미술 전공	미술 및 장식 디자인 전공	럭셔리 비즈니스 전공
2024년 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미래 • 전문실습 • 아트 비즈니스: 관리 및 금융 (part 1) • 국제미술시장: 시장 • 법률 및 윤리 (par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미래 • 전문실습 • 1968년~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미래 • 전문실습 • 미술 및 장식 예술: 생산 및 후원 (part 1) • 예술 및 디자인: 근대성과 모더니즘 (par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락 속의 럭셔리 • 럭셔리 시장
2025년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 비즈니스: 관리 및 금융 (part 2) • 국제미술시장: 시장, 법률 및 윤리 (part 2) • 선택 과목 1 • 선택 과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현재 • 선택 과목 1 • 선택 과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및 장식 예술: 생산 및 후원 (part 2) • 예술 및 디자인: 근대성과 모더니즘 (part 2) • 선택 과목 1 • 선택 과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럭셔리 비즈니스 관리 • 선택 과목 1 • 선택 과목 2

2025년 여름	캡스톤 (논문 또는 프로젝트)
-------------	------------------

※ 출처: 소더비 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 홈페이지

【표2-68】 소더비 인스티튜트 런던 석사 과정 선택과목 소개 (감정 관련)

과목명	강좌 상세
미술품 감정 (Art and Authent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의 역사적 및 문화적 정의와 해석, 법적 및 제도적 명령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조사 - 미술시장에서의 감정과 관련된 문제, 위조품 및 모조품의 구성 및 위치를 비판적으로 분석. 위와 같은 이론적 틀을 통해 감정 과정의 맥락 제공 및 미술품에 부여하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습득
윤리, 법률 및 미술 거래 (Ethics, Law and the Art Tra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 미술계에서의 주요 윤리적 및 법적 문제에 관한 탐구 - 갈등 상황에서의 문화유산, 나치 약탈 미술, 현대미술의 창작 및 거래와 관련된 주제에 중점 - 문화유산의 제작, 무역, 수집 및 전시에 관련된 국내 및 국제 법률 시스템에 대한 연구 - 갤러리, 경매장 및 기타 미술시장 이해관계자의 운영에 중요한 실사(due diligence) 관행에 대한 논의 - 법적/윤리적 사례 연구를 통한 출처 연구 및 기원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와 문화유산 및 미술 범죄 사례에 대한 조사 - 예술가, 딜러 및 수집가 간의 관계를 미술 비즈니스의 윤리적 및 법적 맥락에서 분석

※ 출처: 소더비 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 홈페이지

【표2-69】 소더비 인스티튜트 뉴욕 석사 과정 학기별 운영체계 예시

학기/ 전공	아트 비즈니스 전공	현대 미술 전공	역사적 미술 및 디자인 전공
2024년 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세계 탐색 · 미술시장 연구 및 평가 · 럭셔리 시장 경제학 · 컬렉션 관리 및 물류 · 미술 자산 및 금융 · 미술 법: 스튜디오에서 시장까지의 미술 생애주기 · 현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세계 탐색 · 뉴욕 현대 미술 현장 · 팝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 미술 실습 · 비평 이론 · 현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세계 탐색 · 미술시장 연구 및 평가 · 장식 예술: 역사와 시장 · 감정: part 1 · 국제미술시장 · 현장 연구
2025년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법 · 경매, 갤러리 및 박물관 · 미술 법: 윤리 및 정책 · 예술의 디지털 전략 및 마케팅 · 선택 과목 · 현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법 · 경매, 갤러리 및 박물관 · 글로벌 아트 · 현대 미술 관리 · 선택 과목 · 현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법 · 경매, 갤러리 및 박물관 · 현대 디자인: 역사와 시장 · 모더니즘: 역사와 시장 · 선택 과목 · 현장 연구
2025년 가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캡스톤 · 뉴욕 또는 런던에서 선택적 3학기 과정 		

선택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미술 전시 기획 · 보석 및 보석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비평, 언론 및 대중 · 신진 예술 및 예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렉션 빌딩 및 예술 자문 · 인턴십 · 감정: Part 2
----------	---	---	---

※ 출처: 소더비 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 홈페이지 2024/2025 석사과정 프로그램 소개 발췌

【표2-70】 소더비 인스티튜트 뉴욕 석사 과정 감정 관련 과목 소개

과목명	강좌 상세
컬렉션 관리 및 물류 (Collection Management & Log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페어, 비엔날레, 주요 미술관의 글로벌 확장, 박물관, 여행 컬렉션, 순회 전시까지, 컬렉션 관리의 거래는 급격히 증가 - 강의와 필드트립을 통해 학생들은 전통적인 네트워크 회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했는지 탐구 - 물리적 및 비물리적 예술작품의 분류, 재고 관리, 보존, 포장, 취급, 저장, 아카이빙 및 이동의 모범 사례와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탐구 - 객체 관리, 지식 창출, 예술사에 대한 역할에 관한 연구
미술 법: 스튜디오에서 시장까지의 미술 생애 주기 (Art Law: The Legal Life Cycle of Art from the Studio to the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와 갤러리의 관계, 개인적인 작품 처분, 보증, 라이선스, 경매, 전문가 의견, 도난 및 위조 등 미술시장에 특화된 법적 및 윤리적 문제 소개 - 과목의 상당 부분은 저작권에 할애되어 있으며, 특히 전유미술, 도덕적 권리, 인터넷 문제, 프라이버시 및 퍼블리시티 권리에 중점 - 수업, 토론 및 모의 계약 협상을 통해 글로벌 미술 세계의 맥락에서 법적 개념과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 - 미국 및 해외의 현대 법적 논란에 관한 토론과 학생 시험 및 평가
미술시장 연구와 가치평가 (Art Market Research & 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 연구와 동향, 평가 및 가격 책정 과정에 대한 조사 - 역사적 연구원과 온라인에서 작품의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방법 교육 - 평가 대상의 계층, 가격 동향, 데이터 드라이버 및 관련 평가 방법론의 개념을 소개 - 다양한 예술과 디자인 범주를 조사하여 연구 기술 연습 - 소규모 그룹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작품에 대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배정 - 교육생별 최소 12개의 예술작품에 할당된 금전적 가치 제공을 목표
감정: 파트 원 (Connoisseurship: Part 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은 오브제 기반의 이해와 미술품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지침을 제공 - 감정학의 역사, 미술사와의 관계, 이미지 포화의 세계에서의 가치 등을 검토 - 읽기, 토론, 미술작품의 분석을 통해 재료, 기법, 스타일적 특성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법을 습득 -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현장 방문과 필드트립을 통해 미술작품을 분석하는 과제 - 파트 원에서는 회화, 판화, 사진에 중점
국제 미술시장 (International Art Mar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미술시장에 대한 통합적이고 미술사적인 이해를 제공 - 오늘날 3대 미술시장인 미국, 유럽, 아시아에 집중하여 동서양의 미술 수집의 역사 및 감정학을 검토. 특히, 동서양의 국제미술 거래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동시에 예술 수집에서 각자 선호하는 바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논의 -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을 포함한 다른 신흥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 예술가, 갤러리, 경매장, 아트 페어, 공립 및 사립 박물관, 미술 비평가 및 예술

	매체를 포함한 글로벌 미술시장의 주요 이해 관계자를 소개
예술 세계의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in the Art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글로벌화와 온라인 기술의 지원으로 인한 미술계의 변화 및 관련 산업의 기업가적 비즈니스 모델,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논의 - 국제미술시장에 대한 강의, 워크숍 및 실습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구상, 경쟁 및 제품 적합성 평가, 비즈니스 계획 개발, 투자자, 후원자 및 스폰서를 위한 피치 데크 준비, 국제 시장에서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는 방법을 교육 - 개별적으로 아이디어 구상, 고객 발견, 제품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단계에서 팀 또는 개인으로 작업하며, "데모 데이"와 예술산업 전문가 앞에서의 발표로 마무리 - 예술 세계의 기업가적 사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업의 게스트 연사와 현장방문 - 다양한 예술계 직업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 사고를 촉진
감정: 파트 투 (CONNOISSEURSHIP: PART TW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은 오브제 기반의 이해와 미술품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지침을 제공 - 감정학의 역사, 미술사와의 관계, 이미지 포화의 세계에서의 가치 등을 검토 - 읽기, 토론, 미술작품의 분석을 통해 재료, 기법, 스타일적 특성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법을 습득 -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현장 방문과 필드트립을 통해 미술작품을 분석하는 과제 - 감정: 파트 투는 조각, 도자기, 유리 제품 및 섬유를 다룰 예정

※ 출처 : 소더비인스티튜트(Sotheby's Institute of Art) 홈페이지 2024/2025 석사과정 프로그램 소개 발체

②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Christie's Education

- 크리스티 에듀케이션(Christie's Education)은 국제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Christie's)의 교육기관으로 뉴욕, 런던, 홍콩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함.

【표2-71】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감정 관련 과목 소개

유형	과목명	강좌 상세
온라인/ 전문과정	법과 비즈니스 (Law and Business)	▷ 기간: 12주, 주1회 90분 ▷ 세부내용: - 미술시장 생태계 공공 vs 사적: 박물관, 민간 재단 및 기업 컬렉션 - 공급과 수요: 미술시장 경제학 - 예술로서의 투자: 미술자산의 투자, 가격 데이터베이스, 투자 평가 기법 등 - 평가 및 감정: 감정방법론, 시장비교, 소장이력 확인, 상태평가 등 - 미술의 감정학: 과학적 분석 및 진위감정 - 미술 법률 및 준수: 계약법 - 상법 - 창의성과 저작권: 지적 재산권 및 표현의 자유 - 진품성과 전문가 - 이동 제한: 수출입 세금, CITES 및 문화재법 - 미술품 반환 및 회수
온라인/ 단기	감정과 미술자문 (Appraisals and Art)	▷ 기간: 주1회 90분, 총 4회 진행 ▷ 개요: 개인 및 공공 미술컬렉션의 작품 선정, 취득 및 판매를 하

	Advisory)	<p>는 미술 전문가의 역할, 감정 관행, 미술시장 등을 개괄</p>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감정 및 자문 소개: 미술 전문가의 자격, 기술 및 주요 활동 - 1차, 2차, 개인 시장에서 일하는 방법 - 자문 피치를 작성하는 방법 및 지급 구조 포함 - 미술 전문가의 신탁 책임 - 미술 자문과 관련된 법적 문제
온라인 또는 뉴욕/단 기	미술 비즈니스 전문과정 (Art Business Certificate Program)	<p>▷ 기간: 5일간 중일 프로그램으로 진행</p> <p>▷ 개요: 미술 비즈니스와 미술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를 다루는 미술경영 전문과정</p>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세계 탐색 (Navigating the Art World) - 미술 세계를 위한 글쓰기 (Writing for the Art World) - 컬렉션 큐레이팅 및 관리 (Curating & Managing a Collection) - 보존, 진위 및 가치 (Conservation, Authenticity & Value) - 미술과 금융: 대출 및 투자 기금 (Art & Finance: Lending & Investment Funds) - 미술 딜러 초상 (Portrait of an Art Dealer) - 크리스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경매 미리 보기 (Auction Preview with Christie's Specialist) - 미술 법: 거래의 미술 (Art Law: the Art of the Deal) - 개인 판매 (Private Sales) - 감정 및 미술의 가치 (Appraisals & the Value of Art) - 완벽한 경매 가이드 (The Complete Auction Guide) - 모의 경매 및 필드트립(갤러리, 보존 스튜디오 등)
런던/단 기	미술작품 취급 및 목록화 (Handling and Cataloguing Artworks)	<p>▷ 기간: 이틀간 중일 프로그램으로 진행(09:30-17:00)</p> <p>▷ 개요: 미술작품 취급 및 목록화의 기본개념과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실습 워크숍</p>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취급 소개 - 미술품 취급의 모범 사례 - 미술품 포장 및 운송 - 미술품 개봉 및 상태 보고서 작성 - 미술품 목록화(cataloging) 소개 - 미술품 목록화 절차
온라인/ 단기	소장 이력과 반환 (Provenance and Restitution: The Stories Behind the Art)	<p>▷ 기간: 4시간 (각 1시간씩 총 4회)</p>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의 소유 이력의 중요성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소장 이력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 용어 정의. 미술품 반환의 의미와 귀환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미술품 반환 접근법: 법적, 윤리적, 미학적 고려사항

※ 출처 :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홈페이지

(4) 일본의 감정인력 양성

1) 인력 양성 교육의 특징

○ 일본은 감정인력을 양성하는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나 대학의 교육과정은 없으며, "

고물상 허가"를 받은 고미술 골동상에 의해 도제식으로 감식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짐. 사설기관으로는 미술관, 화랑, 감정단체 등의 교육과정이 있다. 대학, 단기대학, 전문대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 후 미술관, 화랑, 고미술상 등에서 경력을 쌓아 미술품 감정사로 활동하게 됨.

- (재)도미감정평가기구가 관련 교육을 계획 중이며, (주)미연감정 등의 관련 협회 및 사설 기업에서 신규 가치평가 인력양성 및 회원 대상 강연회, 실습 경험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사설학원이자 고미술 골동상이 회원으로 가입된 일본골동학원에서 전문 강좌나 회원 대상 주제별 특별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골동품 구별법, 구입 방법 등 골동상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양지연, 2020: 281).

2) 감정 관련 협회 및 민간의 인력 양성 교육

① (재)도미감정평가기구 道美鑑定評價機構, TOCFA

- 재단의 사업내용에서 당법인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재육성을 꾀고 있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향후 기획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2024.10월 기준)

② 일본골동학원 日本骨董学院

- 고미술, 골동품 관련해서는 1991년 설립된 일본골동학원(日本骨董学院)이 비교적 전문화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전문가양성강좌, 개인강좌, 특별강좌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전문가양성강좌는 코로나 이후, 개인강좌로 변경되어 맨투맨 형식으로 회당 1시간 30분 이상의 강좌를 총 5회 진행함. 특별강좌로 중국 도자기를 보는 법, 일본검의 감정법과 감정에 대한 강좌가 진행되며, 그 외에도 골동품 시장 가이드, 박물관 실습 프로그램, 중국의 고미술, 골동품 프로그램이 제공됨.
- 설립 35주년이 되었으며, 누적 회원수가 총 2,955명이며 총 9,830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공개함. (2024.9월 기준)

(5) 대만의 감정 관련 인력 양성

① 대만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 台北藝術經濟研究中心, TAERC

-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TAERC)는 대만 문화부의 위탁을 받아 2023년부터 '예술품 감정 전문 국제 인재 과정'(藝術品鑑價專業國際人才專班)을 운영하고 있음.
- "예술품 감정 전문 국제 인재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동 진행되며, 총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하여 국제감정사회(ISA)와 협업으로 진행함. 네 가지 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과정 A: 예술시장 개론 및 법규 - 예술시장의 기본개념과 관련 법규 체계를 탐구하는 과정으로, 강의는 예술시장의 구조, 운영 메커니즘, 시장 동향 등을 포함하며, 예술품 기증 및 유산 계획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룬다. 사례 분석을 통해 예술시장의 운영 모델을 이해하고 법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
 - 과정 B: 예술 자산의 재무 보고 목적 평가 - 예술 자산을 재무 보고에 포함시키는 평가 과정과 회계 기준 및 법규의 도전 과제를 다루며, 대만 현행 평가 기준에 따라 강의를 진행
 - 과정 C: 유형 예술 자산 평가 절차 및 방법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작업 시스템과 연계하여, 예술품의 가치 판단 기준과 평가 도구 및 기술을 학습하며, 실제 사례와 시장 동향 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
 - 과정 D: 문화 창조산업의 기업 가치평가 - 문화 창조산업의 기업 가치 구성요소와 평가 기본 구조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실제 사례 분석과 다양한 환경 및 시장 조건에서의 가치 변화를 평가

【표2-72】 대만 미술품 감정 전문 국제 인력 과정 소개

교육과정모듈		코스내용	시수	형식	강사
과정A 미 술 시 장 개론 및 규 제 (2 0 시 간, 중국 어)	A-1 예술시장 개 론	예술시장의 운영 및 관리 실무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에이전시, 대리, 전시, 허가 등의 경제적 및 법적 측면이 포함됩니다. 사례 분석을 통해 예술작품의 에이전시 및 대리 관련 법적 문제와 계약 조항을 분석하며, 학습자들이 예술시장의 선택 및 계획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습니다.	3	온라인/ 오프라인	후이슌 (胡懿勳) 마카오 도시 대학 문화 산업 박사 과정 겸임 교수
	A-2 예술 관리자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		2		우인제(吳仁杰) PwC (Pricewaterhouse Coopers) 부총경리
	A-3 관세 소개 및 세관 업무		3		황자민(黃澤民) 상하이 국제 물류 주식회사 그룹 집행장
	A-4 예술가 자산 (Artist's Estate) 구축 및 관리		3		

	A-5 예술가 자산 (Artist's Estate) 관리 및 신탁		3		커인펑(柯人鳳) 타이베이 예술 산업 연구소 소장, ISA 국제 감정사
	A-6 문화 창조산업의 지적 재산권 안내		3		리즈런(李智仁) 교수
	A-7 예술가 자산: 예술 저작권 실무 적용		3		송황지(宋皇志) 국립 정치 대학 기술 관리 및 지적 재산 연구소 교수
과정B 재무 보고 목적의 예술자산 평가 (6시간, 중국어)			6	온라인/ 오프라인	평후오슈(彭火樹) 국립정치대학교 회계학과 겸임 교수
과정C 유형 미술 품 평가절 차와 방법 (69시간, 영어)	C-1 감정기본 과정	- 감정의 요령: 감정 과정, 감정 보고서 의 종류, 감정 보고서의 용도, 가치의 정의, 감정 방법, 자산 식별 방법 - 감정의 법적 및 윤리적 측면: 윤리 규 범, 법적 가치, 계약 - 감정평가사의 연구 방법: 감정평가 이론 및 원칙, 시장의 정의, 시장 리 서치 및 분석 - 감정 작성 워크숍: 서술형 보고서 작 성 - 미국 국세청(IRS) 미술 및 장식 예술 평가의 법적 지침 (부동산, 기부 및 선물에 대한 평가) - 시험 포함	54	온라인	International Society of Appraisers, ISA
	C-2 표준감정평 가실무기준 (USPAP)과 정	-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자격 과정 - 이 과정을 완료해야만 ISA 회원등급 (member level)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시험 포함	15		Meredith Meuwly, ISA CAPP
과정D 문화 창조 산업의 기 업 가치 평 가	D-1 평가 기본 구조: 평가 대상, 목적, 가치 기준, 가치 전 제, 가정, 가치 방법 및 특정 가치 방법 소개		6	온 라 인 / 오프라인	彭火樹 (대만 무형 자산 및 기업 평가 협회 명예 이사장)
	D-2 평가 기본 구조: 평가 대상, 목적, 가치 기준, 가치 전 제, 가정, 가치 방법 및 특정 가치 방법 소개		6		
	D-3 기업 평가: 역사적 재무 제표의 획득, 재무 제표 분석 및 정규화 조정		6		
	D-4 기업 평가: 시장법		6		
	D-5 기업 평가: 시장법		6		
	D-6 기업 평가: 수익법		6		
	D-7 기업 평가: 수익법		6		
	D-8 기업 평가: 자산법		6		
	D-9 기업 평가: 가치 결론 및 기업 평가 보고서		6		
전 과정	총 학습시간		149		

※ 출처: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 홈페이지

※ 상기 과정은 강의 외에도 다음을 포함: (1) 실제 사례의 평가보고서 분석 (2) 모의 사례의 평가보고서 작성.

【표2-73】 국가별 감정 현황 비교

구분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대만
감정관련국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회사협회의(CMV)에서 공인경매사 및 자유판매운영자(OVV)규제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예술위원회(ACE)에서 미술품물납제, 문화기증제도를 진행, 미술품 시가감정 담당 - 국세청에서 다양한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IRS)에서 조세관련 미술품 감정업무 수행 - 감정평가재단(TAF)에서 표준감정평가 실무기준(USP AP)과 시가감정사의 자격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감손회계제도 도입 - 국세청에서 조세관련 진위감정, 시가감정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하에 민간협회에서 미술품 감정평가 기준 및 제도 마련 - 진위감정, 시가감정, 과학적 분석 세 분야로 제도화
주요감정관련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조합(SFEP) - 전국미술품·수집품전문감정가협회(CNES) - 전국미술전문감정가연맹(FNEP SA) - 프랑스예술품감정가연합(UFE) - 전국감정가협회(CNE) - 유럽미술감정가연합(CEDEA)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 - 미술경매사·가치평가사협회(SOFAA) - 미술·고미술딜러협회(LAPADA) - 국제미술·고미술무역협회(CINOA)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감정사연합(ASA) - 미국 감정가협회(AAA) - 국제 감정사협회(ISA) - 개인 딜러 협회(PADA) - 미국 가치평가사협회(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미술구락부감정위원회 - 일본양화상협동조합 감정등록위원회 - (재)일본아트평가보존협회 - (재)도미감정평가기구 - (주)미연감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화랑협회(TAGA) - 민간감정기관 등
감정사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경매사 제도, 인증감정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의 인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제도는 없고, 민간협회에서 가입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자격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자격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진위/시가감정은 독립감정사들에 의해 진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제도는 없고 협회 가입을 통해 전문가로서 공신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재단(TAF)에서 표준감정평가 실무기준(USP AP) 제정, 주기적 개정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협회 가입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립공인가치평가사협회(RICS)에서 미술품감정사 역량제시 			
감정관련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인 경매회사협회의(CMV)경매사 양성 및 공인과정 - 루브르 학교, 파리1대학 등 학교에서 다수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협회와 경매회사가 대학(학교)과 연계하여 인력양성 진행 - 대학에서는 감정의 기초지식과 더불어 미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협회에서 감정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부 협회가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및 사립대학 미술사관련 보존·수복 관련 학과에서 기초교육 제공 - 전문화된 시가감정 교육기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화랑협회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TAERC)에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파리2대학의 드루오 교육과정	고고학, 보존 복원 등을 교육 킹스턴대학교, 캠브리지 대학교 등 - 경매회사(소더비/크리스티)교육 과정 운영			
감정사 직업 현황	- 전문가가 진위· 시가감정 진행 - 독립감정사들이 자유 직업군으 로 형성	- 진위감정은 미술 사학자나 미술관 학예사/갤러리 스트, 딜러, 경매회 사 직원 등이 자 율적, 독립적으로 감정업무를 수행 - 딜러들이 진위감 정 및 시가감정 수행	- 진위감정과 시 가감정의 분리 - 감정사의 직업 화	- 전문가 중심으 로 진위·시가 감정 진행하 나, 체계가 잡 힌 진위에 비 해 시가감정은 미비한 상황	- 전문가 중심 으로 진위·시 가감정을 진 행

2. 시가감정교육 수료 후 현장과의 연계시스템 분석

(1) 국내 연계시스템

- 국내에서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이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민간단체에서
는 교육에서 양성된 인력의 현장투입을 위한 시스템 설계(준감정위원, 준감정사 제도)를 해
두었으나, 단기교육으로 양성된 인력이 아닌 만큼 양성된 인력의 현장투입으로 연계되지
못한 상황임.

【표2-74】 국내 민간단체의 교육과 현장연계 시스템

	주요 내용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한국화랑협회에서 제공하는 「시가감정 아카데미」의 중급-고급-심화과정을 통해 5년 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사)한국화랑협회의 「준감정위원」으로 위촉가능 - 준감정위원 제도는 후진양성과 전문가의 폭을 넓히고자 제정됨. 준감정위원으로 2년의 활동 후 평가를 통해 감정위원으로 위촉 가능 - 준감정위원은 감정결과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감정회의의 참관 업무보조가능³¹⁾
(주)한국미술품감정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 교육원인 「카이(KAAI)미술품감정평가학원」에서 미술품조사분석사 과정을 5단계로 개설. 5단계부터 1단계까지 수료한 사람은 준감정사의 자격으로 (주)한국미술품감정 센터의 감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실제 미술품 실무를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중(문화일보, 2022) - 현재 4급까지만 인력이 배출된 상황

(2) 미국의 연계시스템

【표2-75】 미국 시가감정 기관별 현장연계 시스템

기관명	현장 연계시스템
미국감정가협회(A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의 주요 경매회사, 갤러리와 협력하여 인턴십 및 현장 실습 기회 제공 - 회원은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경력 발전 기회 제공 - 경매사, 딜러, 박물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거래 및 감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미국감정사연합(A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감정사연합(ASA)는 감정사들이 경매회사, 보험사, 금융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회원 자격을 통해 멘토링 및 실무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경험을 쌓을 기회 제공
국제감정사협회(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감정사협회(ISA)는 경매회사, 갤러리, 딜러 및 보험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감정사들이 실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됨
소더비 인스티튜트 (Sotheby's Institute of 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theby's 와의 연계를 통해 경매장에서 직접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글로벌 경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 - 학생들은 Sotheby's 에서 인턴십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으며, 이후 갤러리, 경매회사, 박물관 등에서 일할 기회 부여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Christie's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ristie's Education은 경매와 감정을 아우르는 심화 교육을 통해 졸업생들이 실제 미술품 감정 및 경매 운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 Christie'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국제미술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졸업생들이 경매사, 딜러 및 박물관에서 일할 기회를 얻음.

○ 주요 연계시스템 특징

- 실습 및 인턴십 기회: 대부분의 교육기관은 경매회사나 갤러리와 협력하여 인턴십과 실습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감정과 경매 경험을 쌓을 수 있음. 소더비 인스티튜트와 크리스티 에듀케이션은 특히 경매 실습을 강조함.
- 네트워킹 및 멘토링: 각 기관은 회원 자격을 통해 신입 감정사들이 경력자들과 네트워크를

31) 한국화랑협회 정관 및 규칙 내 「감정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정위원 및 특별감정위원) ① 감정운영위원장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함께 바른 인격과 품성을 지닌 자 중에서 감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위원을 위촉한다.

4. 준감정위원으로 2년 이상 위촉되어 위촉기간 동안의 활동이 우수한 자.

제9조 (준감정위원) ① 감정운영위원장은 감정위원의 후진 양성과 전문가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감정운영위원이나 감정위원의 추천 및 감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준감정위원은 실제 감정결과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감정위원회 참여와 감정 업무의 보좌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기적인 워크숍과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멘토링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적인 조언을 얻고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음.

(3) 프랑스의 연계시스템

- 대부분의 감정관련 교육과정은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학교의 교육과정도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을 키우고자 박물관과 연계 교육하며, 관련 기관의 인턴십 수업과 같은 실무경험을 제공함.
- 또한, 다양한 현장 필드트립 현장참여교육과 시장 참여자인 전문강사진들과의 인맥 구축 지원을 통해 교육 수료 후 현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

【표2-76】 프랑스의 교육과 현장 연계시스템 사례

학교 및 과정	상세내용
루브르 학교의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브르박물관과 연계하여 실물작품을 통한 감식안 교육, 작품의 보존, 수복 등 과학적 분석과 관련한 현장 연계교육을 제공함. - 석사과정인 <아트 마켓 Marché de L'Art 과정>의 인턴십 제도: 모든 학생은 최소 3개월 이상(456시간 이상)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인턴십을 진행해야 하며, 지방자치 박물관, 루브르박물관, 국립 또는 사립 박물관, 해외기관 등에서 가능. (인턴십은 학교에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찾아서 그 기관의 프로그램을 실습해야 함)
예술고등교육학교 학사 및 석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 Marché de l'art>코스의 학사 과정에서는 경매회사, 다양한 세미나, 갤러리, 경매장, 박물관에서의 연출작업 및 워크숍을 통해 교육과 현장의 연계 시스템을 형성
예술 및 문화활동 상업학교 MBA과정 ³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미술시장 International Art Market>과정에서 6개월의 이론수업과 더불어 6개월간 파트너 기관 및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랑스 또는 해외)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함. - 외교 관련 정부지원 및 각국의 문화전문 기관(갤러리, 경매장, 박물관 등)과의 관계를 통한 해외 인턴십 지원 - 본 과정은 이론적 지식과 실무를 결합한 전문교육과정을 표방.

32) Programme Master Marché International de l'Art - MBA ICART

(4) 영국의 연계시스템

- 영국 킹스턴 컬리지에서는 전문 실습수업을 제공하며, 이는 석사 프로그램의 핵심 과정 중 하나임. 학생들은 120학점을 이수한 후, 전문 실습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
- 소더비 인스티튜트의 Art Conservation / Art Appraisal 여름 단기 프로그램 내에서는 소더비 경매장을 방문하여 전문 평가가 판매 준비의 일상적인 작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고, 전문가들과의 만남 및 비하인드 투어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크리스티 에듀케이션의 Inside the Art Market 코스는 런던의 예술시장 경험을 제공함. 다양한 장소에서의 투어와 전문가의 강의를 결합되어 있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도 쌓을 수 있음.
- 아티스트 스튜디오 탐방, 레지던시 공간 방문, 갤러리 투어와 같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

(5) 일본의 연계시스템

- 일본은 관련학과 및 자격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진위감정이 체계가 잡힌 것에 비해 아직 시가감정의 발전은 미비함. 대부분 화상이나 골동품상 등 오랜 경력의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진위·시가감정을 행하는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의 도제식 수련이 일반화되어 있음.

(6) 대만의 연계시스템

-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1) 교육부 인정의 국내외 대학교 이상 학위소지자, (2) 회계 또는 법률 기초지식이 있는 자 우대, (3)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특히 미술시장, 미술사 및 감정 관련 경력자 우대, (4) 감정 관련 과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예술품 감정 전문 국제 인재 과정’을 수료한 경우, 대만화랑협회에서 발급하는 ‘예술품 감정 전문 국제 인재 수료증’을 수여함.
- 상기 교육생에게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TAERC)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나³³⁾,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현장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미술시장 및 감정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인된 경력 자격을 갖추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으로 사료됨.
- ‘예술품 감정 전문 국제 인재 과정’ 내에 ISA 협력 과정이 있어서(과정C) 해당 과정 수료후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에 의해 감정을 수행할 자격이 있음. 특히,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는 해외의 감정과 대만 현지의 감정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단계별 외부 자원을 도입하고자 함³⁴⁾. 또한 무형 자산의 평가 및 가치를 다루는 과정 D의 경우 대만 무형 자산 협회 관련자가 강의자로 참여하고 해당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즉 대만의 경우 자체적인 시스템 외에 외부 협력관계를 통해 교육 인력의 실무경험을 지원하는 전략을 취함.

33) Fiona CHANG. (2024년 9월 8일). 개인 대면 인터뷰.

34) Fiona CHANG. (2024년 9월 8일). 개인 대면 인터뷰.

3. 국외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관련 소결

-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각 민간단체와 학교(전문교육기관) 등에서 미술품감정사 관련된 전문교육과정 및 다양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미술관, 박물관, 경매, 갤러리 등 현장과 강한 연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기관들의 교육과정이 시가감정보다는 진위감정, 보존·수복 등에 집중된 것에 비해, 미국감정가협회(AAA)의 교육과정은 철저하게 시가감정에 집중됨.
- 미국의 경우, 시가감정과 진위감정 영역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고, 또한 시가감정사가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시가감정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국내를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감정학과가 전공이나 학과로 자리잡지 못하였고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단기 교육이 행해지고 있음.
- 미술품의 소장 이력(provenance)과 작가 관련 아카이브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 국내상황에서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이 분리되기 어렵고 진위감정에 기반하여 시가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미술사적 지식과 미술계 현장경험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현장실무 교육을 위한 인턴십 혹은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전문교육기관에서 진행되어도 영국, 프랑스의 예시와 같이 현장에서 감정을 행하는 기관 혹은 협회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어야 함. 현장이 주축이 되어 교육을 진행하는 미국 등 해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큼.
- 민간의 영역에서 교육을 담당하여도 재원확보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정부의 지원 및 전문교육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임. 한편, 미술품 감정에 대한 것을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감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정실무기준과 윤리강령을 만들어 감정사들을 지원, 규제하며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공인된 미술품 감정협회 혹은 협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미술품감정사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술품 감정평가사의 수요 증대와 미술품 시가감정사가 직업군으로 자리 잡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제3장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분석 및 개발

제1절 직무역량의 정의 및 역량기반 교육 현황.....	159
1. 직무역량의 정의 및 개념.....	159
2. 직무역량 기반 교육의 중요성 및 현황.....	161
제2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분석.....	163
1. NCS의 개념 및 현황.....	163
2. NCS 기반 직무역량 검토.....	168
3. 시가감정 직무역량 선행연구.....	180
제3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 과정.....	182
1.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 절차.....	182
2.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 개요.....	184
3. 전문가 델파이 조사개요.....	186
4. 전문가 자문 개요.....	192
제4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도출.....	193
1.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모형 도출.....	193
2. 시가감정 전문인력 주요 역량 도출.....	224
3. 시가감정 전문인력 주요 역량 상대적 중요도 도출.....	228

1. 직무역량의 정의 및 개념

(1) 역량의 정의 및 개념

- 역량(competency)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업 경영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역량의 개념은 주로 조직 및 산업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발전해 왔음. 본격적인 연구는 1973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사회심리학자 David McClelland(1973)가 미 외무성(U.S. Foreign service)의 위탁으로 효과적인 인재채용 및 선발을 위해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용하였으며, '동기, 특질, 태도나 가치, 내용지식 또는 인지적 행동기술이 합쳐져서 신뢰성 있게 측정 및 계량화할 수 있고 일반 성과자와 우수 성과자를 나눌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정의함.
- 역량의 개념은 이후 구체화 및 확장되며 학자들마다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를 제시함. 특히 직업현장에서의 직무수행(Job performance) 향상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Mirabile(1997)에서는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또는 특성'으로, Boyatzis(1982)는 '성공적인 성과로 이끄는 개인의 내적 특질'로 정의하고, 구성요소로 지식, 기술, 특질, 동기, 자기 이미지, 사회적 역할을 제시함. McClelland의 역량개념을 따라 Spencer&Spencer(1993)는 역량을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보통의 성과를 내는 사람과 구분 짓는 개인의 특성'이자, '특정한 직무나 상황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 패턴의 집합'으로 정리함.
- 국내에서도 역량에 대한 개념과 요소를 기업 및 조직의 인사와 인재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역량을 '우수성과자의 행동특성'으로 정의하며 개인과 조직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이자 관찰 및 측정 가능한 내재적 특성으로 봄. 행정안전부(2008)에서는 역량을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성과자들의 차별화된 특질 또는 능력'이라고 정의함.

【표 3-1】 연구자별 역량 정의

연구자	정의
White(1959)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또는 동기
Boyatzis(1982)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개인이 보유해야 하는 내적 특성
McClelland (1973, 1993)	실제 수행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평범한 수행자와 구분되는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
Dubois(1993)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업무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지식, 기술, 행동 및 기타 특성
Spencer & Spencer(1993)	일 또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탁월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등의 개인의 내재적 특성
Cheetham & Chivers(1996)	전문직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행동, 지식, 기술 및 태도의 통합된 조합
Mirabile(1997)	직무에서 높은 성과와 연관된 지식, 기술, 능력 등으로, 문제 해결, 분석적 사고, 리더십과 같은 요소를 포함
OECD(Rychen&Salganik, 2003)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사회적, 행동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지적, 실천적 기술을 가동시켜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
소경희(2009)	특정 직업이나 직무에 국한된 구체적 능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
박민정(2009)	과제수행의 맥락을 분석하고 맥락적 특성에 비추어 자신이 가진 자원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상황적 지식을 의미
이광우 외(2009)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행정안전부(2008)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고성과자들의 차별화된 특질 또는 능력

(2) 본 연구에서의 개념적 정의

○ 앞선 역량에 대한 정의 및 구성요소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역량의 정의를 직무에 한정하여, **직무역량(Job competency)**을 ‘특정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을 포함하는 개인 특성’으로 정의하고자 함.

○ 직무역량은 크게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지식(Knowledge)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이나 정보를 의미하며, 기술(Skill)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 능력, 태도(Attitude)는 직무와 관련된 가치관이나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함.

- 이러한 직무역량은 조직의 목표 달성 및 개인의 경력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사 관리, 교육 훈련, 성과 평가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 직무역량 모델은 조직의 인재 관리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조직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직무역량은 직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개인의 능력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임.

2. 직무역량 기반 교육의 중요성 및 현황

(1) 직무역량 기반 교육의 중요성

- 직무영역에서의 핵심역량의 개념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으로, 직무에서의 과업 혹은 특정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체계화된 교육을 통한 개발이 가능함(박용호 외, 2012; 엄미리, 권정언, 2017; 김문희, 정대영, 2020).
- 직무역량 기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과 직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조직의 성과를 증진하는데 기여함.
- 역량 기반 교육은 개인별 역량 수준과 직무 요건 간의 격차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므로, 불필요한 학습 요소를 제거하고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조직은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며 목표 성과에 집중할 수 있음.

(2) 직무역량 기반 교육 현황

- 역량기반 교육은 기존의 지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 OECD(2018)에서도 「교육 2030」에

서 역량 중심 접근법을 미래 교육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며,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음.

- 세계 주요 기업들 또한 직무 중심의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역량 기반 채용 및 훈련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직무역량과 교육훈련 체계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대학교육,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교육 등에서 직무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무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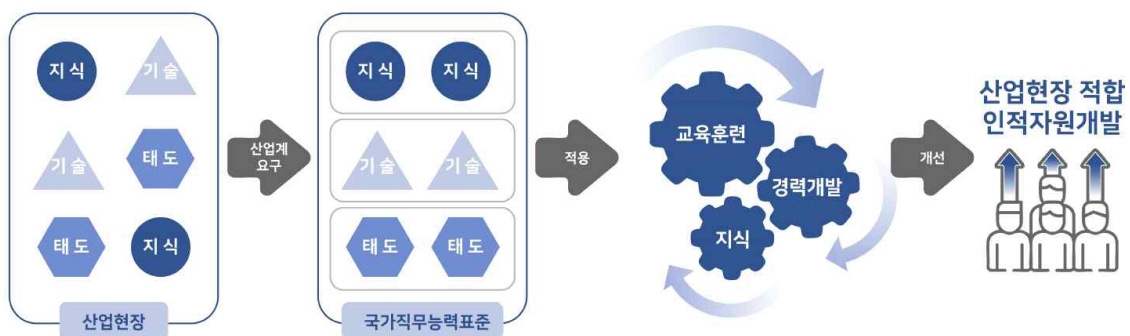
제2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분석

1. NCS의 개념 및 현황

(1) NCS의 개념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이란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의 항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함.
- 자격기본법(법률 제 19095호, 2022.12.27. 일부개정)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함(자격기본법 제2조 제2항).
- 2013년 2월부터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국정 정책 과제로 확정해 이듬해 총 797개의 NCS를 표준화하였으며, 점진적인 개발 및 추가 과정을 거쳐 2023년까지 총 1,093개의 NCS가 고시됨 (2023.11월 기준).

【그림 3-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념도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2015), 6쪽.

(2) NCS의 분류체계 및 구성

- NCS는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의 집합으로 구성되며, 능력단위 요소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수행준거로 구성됨.
- 2013년 2월부터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정책 일환으로 국정과제로 확정해 표준화함. 2024년도 기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Korean Employment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등을 참고하여 분류함.

- 현재 기존의 NCS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대분류(24개)-중분류(81개)-소분류(273개)-세분류(1,093개)의 네 개로 단계적으로 구성되며, 세분류의 하위에 각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가 있음.
- NCS의 기본 구성요소가 되는 능력단위는 복수의 능력단위 요소 집합,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 등의 정보로 구성되며, 이 중 능력단위 요소는 수행준거(지식·기술·태도)를 구성함.

【표 3-2】 NCS 구성항목 및 내용

구성항목	내용
① 능력단위분류번호 competency unit code	능력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련번호로써 12자리로 표현
② 능력단위명칭 competency unit title	능력단위의 명칭을 기입한 것
③ 능력단위정의 competency unit description	능력단위의 목적, 업무수행 및 활용범위를 개략적으로 기술
④ 능력단위요소 competency unit element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
⑤ 수행준거 performance criteria	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
⑥ 지식·기술·태도 knowledge·skills·attitude (KSA)	능력단위 요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⑦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range of variable	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 및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등
⑧ 평가지침 guide of assessment	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⑨ 직업기초능력 key competency	능력단위별로 업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
⑩ 개발·개선 이력 improvement history	해당 능력단위의 최초 개발부터 능력단위가 변경된 이력관리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그림 3-2】 NCS 능력단위 개념도



- NCS는 총 8단계의 수준체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수준에 따른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별 산업현장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하고 있음.
- 예를 들어, 1수준은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하에 기초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준의 숫자가 커짐에 따라 고차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기술 역량, 경력을 요구함.
- 8수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으며,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수준으로 규정할 수 있음.

【표 3-3】 NCS 직무수준 8단계

수준	직무수준 정의
8수준	(정의)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지식·기술) -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 -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역량)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
	(경력) 7수준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7수준	(정의)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p>(지식·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수있으며, 근접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수 있는 수준 -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
	<p>(역량)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p>
	<p>(경력) 6수준에서 2~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p>
6수준	<p>(정의)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p>
	<p>(지식·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수준 -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수 있는수준
	<p>(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수준 - 독립적인 권한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p>(경력) 5수준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p>
5수준	<p>(정의)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밀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p>
	<p>(지식·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매우 복잡하고 비밀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p>(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p>(경력) 4수준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p>
4수준	<p>(정의)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p>
	<p>(지식·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p>(역량)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p>

	(경력) 3수준에서 1~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3수준	(정의)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기초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기술) - 해당분야의 기초 이론 및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역량)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경력) 2수준에서 1~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2수준	(정의)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된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기술) -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역량)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경력) 1수준에서 6~12개월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
1수준	(정의)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이해, 계산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지식·기술) - 문자이해, 계산 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역량)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2. NCS 기반 직무역량 검토

(1) 현행 NCS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의 위치 검토

- 현행 NCS에서는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유사 직무를 참고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에 필요한 직무역량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음.
- 미술품 시가감정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와 간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는 문화 분야 전문인력은 문화·예술·디자인·방송(대분류), 문화·예술(중분류), 문화재관리(소분류), 학예(세분류)의 하위 능력단위인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 등을 꼽을 수 있음.
- '문화재 조사' 능력단위의 경우 적용범위의 고려사항으로 문화재의 특성 및 가치에 대한 역사와 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며, 평가 항목 중에 발굴조사, 문헌조사, 채집조사의 수행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문화재를 답사하고 발굴하며 결과물을 정리하는 미술사학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됨.
- '문화재 연구' 능력단위의 경우 문화재 조사에서 수집된 문화재에 대해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실행하는 것으로 문화재나 예술품의 가격보다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공동체 관점에서의 의의를 중시하고 있음.
- '문화재 평가' 능력단위의 경우 문화재 각각의 개별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업성과, 이용자만족도, 경영성과 등 학예와 관련된 제반 사업의 운영방식과 관련한 평가의 비중이 높음. '문화재 평가'의 능력단위 요소 중 '문화재 가치평가하기(NCS분류번호 0801040108_20v2.3)'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평가한 문화재 가치를 문화재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감정의 목표 및 가치와는 괴리가 있음.
- 학예의 하위 능력단위는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개발한 것으로 비영리기관인 미술관·박물관의 미술품에 대한 접근 방식 및 평가체계를 미술품 시가감정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표 3-4】 현행 NCS상의 학예 직무 분류 체계(부분) 및 능력단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 정의	수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문화·예술	문화재 관리	학예	01. 문화재 수집	문화재 수집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자료관리, 정보관리, 수장환경 관리 등을 수행하는 능력	5
				02. 문화재 보존	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위한 보존 정책 수립, 예방 처리, 수복처리, 보존환경, 보존기록 등을 관리하는 능력	5
				03. 문화재 조사	문화재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 실행, 분석, 정리하여 그 결과물을 도출하고 활용하는 능력	5
				04. 문화재 연구	수집된 문화재를 토대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자료조사 및 연구실행 후 결과를 도출하고 정리하는 능력	7
				05. 문화재 전시	문화재의 가치를 모색하고 전파하기 위해 일정한 주제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시물을 보여주는 능력	4
				06. 문화재 교육	교육대상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개발, 실행, 평가, 환류하여 문화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수·학습하는 능력	6
				07. 문화재 교류	교류실태를 분석하여 교류정책을 수립하고,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류협력 성과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6
				08. 문화재 평가	학예와 관련된 제반 사업의 평가계획 수립, 사업 성과 평가, 문화재 가치평가, 이용 만족도 평가, 경영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	6
				09. 문화재 경영	기관(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사업개발, 재정 운영계획 수립, 인적 자원 관리, 건축·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7
				10. 문화재 마케팅	홍보를 포함한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을 조직체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에 적합하도록 해당 분야의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분석하며, 해당 업무의 실제적인 실행 및 그 성과를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11. 문화재 정보서비스	이용자에게 문화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콘텐츠 개발, 콘텐츠 활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4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 미술품 시가감정에서 주요한 조사항목으로 활용하는 미술품 경매 관련 직무나 갤러리스트, 아트딜러 등 상업 부문의 미술 전문인력도 NCS에서 다뤄지지 않음.

- 경매의 경우 농축수산물 경매는 영업판매(대분류), 판매(중분류), 상품중개·경매(소분류)의 세분류로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 경매도 영업판매(대분류), 부동산(중분류), 부동산컨설팅(소분류), 부동산경·공매(세분류)로 포함되어 있으나 미술품 경매는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음. NCS는 미술산업 인력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른 산업군의 유사 직종과 비교할 때 미술품 시가감정에 적합한 능력단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소분류로 '감정평가' 항목이 있으며, 하위 세분류로 '부동산·동산감정평가', '기업가치평가',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 감정평가에 대한 총 능력단위가 34개로 세분화되어 있음.

(2) 유사 직종의 직무역량 분석

1) 학예 직무의 능력단위 분석

○ 학예 직무의 정의 및 수준

- 학예는 “자연 및 인류에 관한 유·무형 자료를 보존, 전승하고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조사를 시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시, 교육, 교류, 평가, 경영, 마케팅,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일”(NCS)로 정의함.
- 학예 직무는 4등급 직급체계(준학예사-3급-2급-1급)를 따르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에 관련 자격 및 자격제도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학예사 종사자의 평균 학력은 전문대졸 7%, 대졸 37%, 대학원졸 53%의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추정한 해당 직업의 직능수준별 대략적인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수준은 4~7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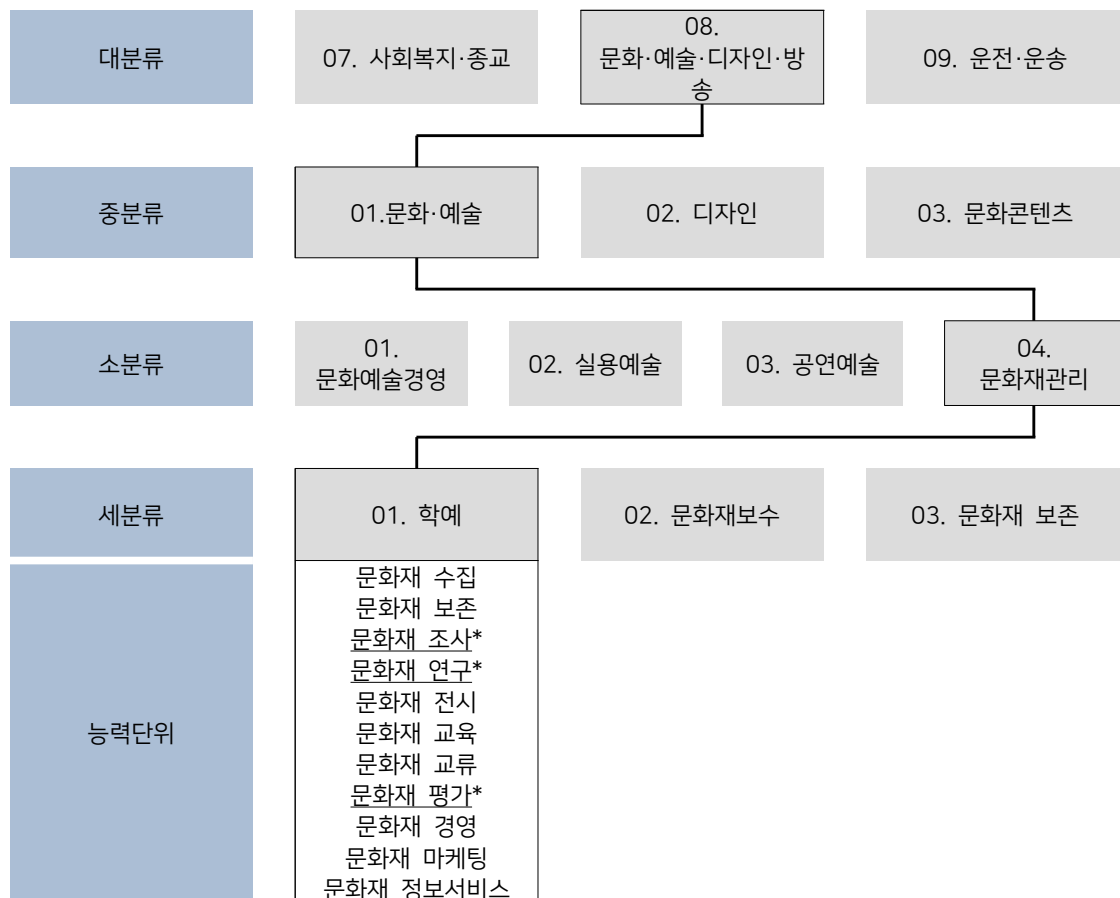
【표 3-5】 현행 NCS상의 학예 직무 분류 체계(부분) 및 능력단위

세분류 직능수준	학예
Ⅳ (직무경험 17년 이상)	정학예사(1급)
Ⅲ (직무경험 10~16년)	정학예사(2급)
Ⅱ (직무경험 5~9년)	정학예사(3급)
Ⅰ (직무경험 1~4년)	준학예사

○ 학예직무의 NCS 분류

- 학예직무의 분류체계는 【그림 3-3】 과 같으며, 학예에 속하는 능력단위로는 문화재 수집, 문화재 보존,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전시, 문화재 교육, 문화재 교류, 문화재 평가, 문화재 경영, 문화재 마케팅, 문화재 정보서비스 등이 있음.

【그림 3-3】 NCS 학예직무 분류 체계도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 학예직무 중 미술품 감정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직무역량을 포함하는 능력단위는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로 추릴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문화재 평가'가 현재의 NCS 상에서 시가감정에 적용 적합한 항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에 대한 NCS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3-6】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에 대한 NCS 정의

문화재 조사	문화재 조사란 문화재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 실행, 분석, 정리하여 그 결과물을 도출하고 활용하는 능력
문화재 연구	문화재 연구란 수집된 문화재를 토대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자료조사 및 연구실행 후 결과를 도출하고 정리하는 능력
문화재 평가	문화재 평가란 학예와 관련된 제반 사업의 평가계획 수립, 사업성과 평가, 문화재 가치 평가, 이용 만족도 평가, 경영성과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

- 【표 3-6】에 기술된 능력단위의 능력단위요소는 【표 3-7】과 같으며, 그 중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능력단위요소를 아래 표의 음영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또한 음영 부분에 대한 수행준거를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고 있음.

【표 3-7】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 의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
능력단위요소	조사계획 수립하기	연구계획 수립하기	평가 계획 수립하기
	유·무형 자료 조사하기	연구 자료 조사하기	사업성과 평가하기
	조사 실행하기	연구 실행하기	문화재 가치평가하기
	조사 결과 분석하기	연구 결과물 정리하기	이용자 만족도 평가하기
	조사 결과물 활용하기	연구 결과물 해석하기	경영성과 평가하기

【표 3-8】 '문화재 조사', '문화재 연구', '문화재 평가' 능력단위요소별(부분) 수행 준거 및 구성요소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문화재 조사	유·무형 자료 조사하기	1. 문화재 조사계획에 따라 유·무형 문화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 조사대상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다. 3. 조사대상 유·무형 문화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지식 · 자연 및 인류에 관한 유·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 ·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수집·분석·정리에 필요한 지식 · 조사대상, 목적, 내용에 따른 조사기법에 대한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보호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문화재 수집·분석을 위한 관련 기기 조작 능력 · 조사 목적·내용에 부합하는 분석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조사활동에 대한 사명감 · 분석 수행에 대한 객관적 사고와 판단 · 다양한 문화재의 분석에 대한 윤리의식
	조사 실행하기		1. 문화재 특성에 따라 발굴조사, 문헌조사, 채집조사의 방법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 계획에 따라 시간, 인력,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문화재 조사활동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및 인류에 관한 유·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 · 문화재 조사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전문지식 · 다양한 조사대상의 가치 및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전문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목적·내용에 부합하는 조사·분석 능력 · 유관 기관과의 소통 능력 · 조사활동 및 과학적 분석을 위한 각종 기기 조작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조사활동에 대한 사명감 · 조사활동에 대한 객관적 사고와 판단 · 다양한 문화재의 조사에 대한 윤리의식
	연구 자료 조사하기		1. 연구계획에 따라 조사일정을 세울 수 있다. 2.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자료들을 조사할 수 있다. 3. 국내외 자료의 소재를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4. 조사된 연구자료를 분석 분류 평가 정리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언어의 자료 성격에 관한 지식 · 자료소장자에 대한 정보 지식 · 연구자료 조사의 방법과 이론에 대한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된 자료 목록 작성능력 · 조사된 자료 내용 간략 정리능력 · 정리된 자료를 분석 분류 평가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조사지에서 관련 인사와 적극 접촉하기 · 자료소장자로부터 유익한 정보 얻어내기 · 현장 자료정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태도
문화재 연구	연구 실행하기		1. 수립된 연구계획과 조사된 자료를 연계시킬 수 있다. 2.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연구계획 절차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4.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된 자료에 대한 배경 지식 · 연구하려는 문화재에 적합한 이론 지식 · 연구의 방법 및 형식에 관련된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연구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팀과의 융화적 태도 · 논리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 ·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자세
	연구 결과물 정리하기		1. 연구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 결과물을 작성할 수 있다. 2.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실물자료와 사진자료, 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관한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3.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귀중 자료는 박물관에 소장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화재 평가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한 분류지식 연구의 타당성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의 결과물을 정리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 연구의 타당성과 일관성 점검할 수 있는 능력 수집자료의 분류 및 보존, 관리하는 능력 연구비를 정산할 수 있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찾아내려는 자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철저히 사후 관리하려는 태도 연구 결과물을 정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연구 결과물 해석하기	1. 해석계획 단계에서 전시연계 또는 교육 연계를 전제로 구체적인 해석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 2.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해석계획에 따라 해석팀을 조직할 수 있다. 3. 해석주제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방법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4. 기존 해석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해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5. 연구 결과물의 전시연계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연구자료에 대한 배경 지식 해석하려는 문화재에 적합한 이론 지식 해석의 방법 및 형식에 관련된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해석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석팀과의 융화적, 포용적 태도 논리 개발에 적극적인 태도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자세
	평가 계획 수립하기	1. 해당 사업에 따라 수립할 평가계획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평가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3. 평가 대상 및 요인에 따라 평가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 4. 수행한 해당 사업 및 경영성과 분석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평가 이론에 관한 기초 지식 통계학에 관한 기초 지식 문화예술경제학에 관한 기초 지식 보존공물, 문화재,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 비영리 경영평가의 특수성에 관한 지식 문화재 가치평가 방법론에 관한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능력 평가대상의 특성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평가계획 수립의 기대치와 문제점을 산출하는 능력 평가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확립하려는 자세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사고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의식
	사업성과 평가하기	1. 수행한 사업의 성과에 따라 도출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2. 수행한 사업의 항목에 따른 개별 평가 지표를 사업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3.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4. 수행한 사업의 성과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를 추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평가 이론에 관한 기초 지식 통계학에 관한 기초 지식 문화예술경제학에 관한 기초 지식 보존공물, 문화재, 박물관 자료에 관한 지식 비영리 경영평가의 특수성에 관한 지식 문화재 가치평가 방법론에 관한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의 특성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평가계획 수립의 기대치와 문제점을 산출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 분석·평가 대상자료를 공정하게 통계 처리하는 능력 · 분석·평가한 자료를 검증·해석할 수 있는 능력 · 분석·평가한 자료를 환류·활용할 수 있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처리 자료 해석의 타당성을 확립하려는 자세 ·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사고 ·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의식 · 공명정대한 평가 자세
	문화재 가치평가 하기		1. 문화재 가치를 이해·추출할 수 있다. 2. 문화재 가치 관련 자료를 분석·평가할 수 있다. 3. 평가한 문화재 가치를 문화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가치에 관한 지식 · 문화재 가치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식 · 자원 보존과 활용에 관한 지식 · 역사적·문화적·지리적 맥락의 이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가치평가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 산출된 가치를 검증·해석할 수 있는 능력 · 평가된 자료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가치평가의 타당성을 확립하려는 자세 ·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사고 ·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의식 · 공명정대한 평가 자세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https://www.ncs.go.kr>)

2) 부동산·동산감정평가 및 유관 직무의 능력단위 분석

○ 미술품 시가감정의 직무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미술계 이외의 동산감정평가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분석하고자 함.

- 동산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범위 중 동산에 속하는 항목으로 미술품에 대한 시가감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NCS 상의 동산감정평가 관련 직무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감정평가의 비중은 부동산이 기타 동산에 비해 크기 때문에 현행 NCS 제도에서도 동산감정평가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부동산(중분류) 감정평가(소분류) 아래에 부동산·동산감정평가(세분류)로 포함되어 있음.

○ 부동산·동산감정평가 직무정의 및 수준

- 부동산·동산감정평가란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높은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대상의 구체적 사항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로 정의함.
- 감정평가 분야는 통상적으로 각 직능수준에서는 3년 내외의 경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고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직무 경험이 요구됨. 감정평가사의 평균 학력은 대졸 93%, 대학원졸 7%의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추정한 해당 직업의 직능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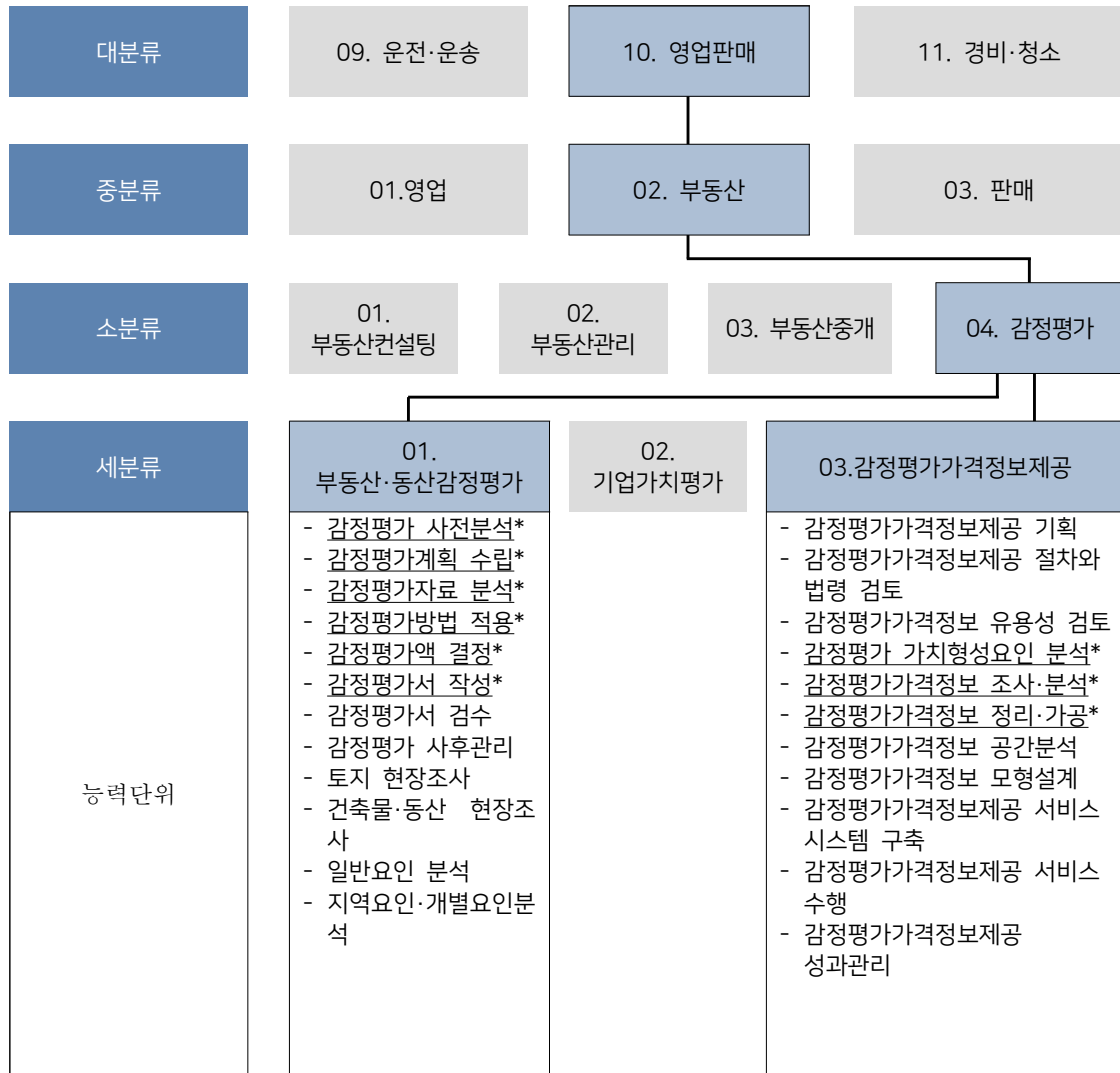
대략적인 KQF 수준은 5~6수준인 것으로 판단됨.³⁵⁾

○ **현행 NCS상의 부동산(중분류) 감정평가(소분류) 관련 분류의 체계도**

- 감정평가사 제도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은 동산감정평가의 여러 동산 중 하나의 항목으로 미술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감정평가 하위항목에서 미술품 감정평가와 유사하거나 관련 직무역량을 포함하는 세분류는 (1) 부동산·동산감정평가와 (2)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이 있음.
- 부동산·동산감정평가(세분류)는 능력단위에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 분석, 의뢰배경 분석, 감정평가액 도출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실질적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시 중요한 직무역량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세분류)은 감정평가가격정보의 조사, 분석, 활용 및 사후관리까지 가격 결정을 위한 세부적인 직무역량을 다루고 있음.

35) NCS 능력단위 「감정평가가격정보 조사·분석」의 「환경분석」

【그림 3-4】 NCS 부동산 감정평가 직무 분류 체계도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s://www.ncs.go.kr>

※ 비고: 별표(*) 항목은 미술품 시가감정에 참고 또는 적용 가능한 내용임.

○ 부동산·동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에서 미술품 시가감정과 관련한 능력단위 추출

- 각 능력단위의 정의 및 수준은 【표 3-9】에서 제시하고 있음.

【표 3-9】 현행 NCS상 부동산 감정평가 능력단위 정의, 수준 및 요소

소 분류	세 분류	능력단위	정의	수 준	능력단위요소
감정 평가	부동산 ·동산 감정평 가	감정평가 사전분석	특정 부동산·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앞서 감정평가 의뢰배경 분석, 대상물건 분석,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감정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능력	3	감정평가 의뢰배경 분석하기 대상물건 분석하기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하기
		감정평가 계획 수립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사항을 확정하고, 감정평가업무량을 파악하여 감정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능력	3	기본사항 확정하기 감정평가량 확정하기 감정평가계획 수립하기
		감정평가자료 분석	특정 부동산·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에 앞서 감정평가 대상자료를 수집하고 대상 물건에 적합한 평가자료를 분류하여 평가방식 적용에 부합되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5	감정평가 대상자료 수집하기 대상물건 적합 평가자료 분류하기 감정평가방식 적용자료 분석하기
		감정평가방법 적용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3방식 등 적절한 감정평가방법을 선정하고 적용하여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능력	6	감정평가 3방식 검토하기 감정평가방법 선정하기 감정평가방법 적용하기
		감정평가액 결정	감정평가방법을 통하여 산정된 시산가액을 감정평가의 목적, 대상물건의 특수성, 수집된 가격자료의 신뢰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6	대상물건의 특수성 검토하기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검토하기 시장상황 검토하기
		감정평가서 작성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형식, 기재사항의 확인 및 검토를 통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와 결정의견을 작성하는 능력	7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하기 감정평가서 기재사항 작성하기 감정평가액 산출 근거·결정의견 작성하기
	감정평가 가격 정보 제공	감정평가 가치형성요인 분석	평가대상물건의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자연적 요인과 지역 특성, 개별특성에 따라 평가가치를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작업하는 능력	4	감정평가 가치형성요인 분류하기 감정평가 가치형성요인 분석하기
		감정평가 가격정보 조사·분석	감정평가의 기본적 활동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대상물의 결정, 관련된 권리의 확인, 감정평가의 분류와 목적의 정의, 감정평가 시점 결정 등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가격정보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능력	4	감정평가가격정보 조사·분석 기획하기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하기
		감정평가 가격정보 정리·가공	감정평가가격정보제공에 앞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가격정보의 정리·가공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감정평가가격정보 정리·가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6	감정평가가격정보 정리·가공 정의하기 감정평가가격정보 제공에 따른 정리·가공 범위 설정하기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3)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 수준

- '감정평가' 분야는 KQF 수준을 5~6으로 보고 있으며, '학예'의 경우는 KQF 수준을 4~7로 보고 있음. '학예'의 경우 대학원졸업 이상의 학력이 53%인 것에 비해, 감정평가사는 대부분(93%) 대학교 졸업 후 공인된 시험을 거쳐 직무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두 영역이 상이한 양상을 보임.
- KQF 수준에서 1수준은 중졸미만, 2수준은 중졸, 3수준은 고졸, 4수준은 전문 학사(2년제), 5수준은 전문학사(3년제), 6수준은 학사, 7수준은 석사(또는 그에 상당), 8수준은 박사(또는 그에 상당)로 제안함. KQF상 학위-자격-경험(경력)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술계에서의 현장경험을 본 체계 안에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프랑스의 경우 미술품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국가 학위 혹은 대학 학위 소지자의 경우 7년간의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학위가 없는 경우 10년간의 직업 활동을 증명해야 함. 공인자격증이 없는 국내에서는 대학학위에 상응하는 경력을 참조할 수 있으며, 프랑스 통상의 학사 학위 3년에 상응하는 직업 활동(경력)을 3년으로 책정한 예시로 볼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보다는 현장경력을 통해 체득되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보아, 학사 4년을 현장경력 2년으로 상정함.
-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최소 석사 이상의 기반 지식", "10년 이상의 수련기간 (교육+실무)", "오랜 기간의 교육과 실무경험" 등의 내용에서 추출할 수 있듯이 직무역량에 대한 기준치가 높으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KQF는 5~7수준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최소 학사 수료 후 3년의 현장경력 혹은 그에 상당하는 7년 정도의 미술계 현장에서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3~4년에 걸친 이론·실습 교육과정, 2년 이상의 연수생 과정을 통해 현업에 투입되기 전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과정을 제안할 수 있음. NCS의 직무수준 5단계가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밀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된 것과 비교해도 5~7수준의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시가감정 직무역량 선행연구

-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선행연구 중 시가감정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선행연구 두 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역량을 재정리함.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시각·공연예술분야 직군분석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직무 가이드 라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22년에 진행한 연구 '시각·공연예술분야 직군분석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직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미술품 감정평가사는 아래의 능력을 필요로 함.

- 미술품에 대한 고도의 숙련된 전문지식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작품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신중하게 문서화 할 수 있는 능력
- 이를 위해서 뒷받침의 근거로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연구능력이 필요하며 자료에 대한 탁월한 분석 능력
- 작품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쌓고, 관련한 미술품을 선별할 수 있는 감각, 강한 호기심, 다양한 경제 사회적인 지식을 통하여 미술품의 시장가격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
- 법적인 사항과 다양한 가치평가를 위해 필요한 원칙을 준수하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엄격성

- 해당 연구에서 적시한 미술품감정평가사의 전문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분석력-【기술】
- 종합적 판단 능력-【기술】
- 세밀함, 치밀함-【태도】
- 강력한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 기술-【기술】
- 연구 능력-【기술】
- 미술품 감정 및 보험과 관련된 세법 지식-【지식】
- 미술사와 사진에 대한 지식-【지식】
-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능력-【기술】

2) 양지연·손차혜(2023),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Art appraiser)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양지연·손차혜(2023)는 미술시장 및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2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직무 및 갖춰야 할 역량을 지식, 능력, 태도의 세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함.

○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의 직무

- 자료조사 및 정리·분석
- 미술시장 분석
- 독자적 업무 성격
- 보고서 작성
- 상태조사
- (실무 인력) 감정위원 지원·감정평가 외 모두 진행
- 가격평가 기술
- 가치감정
- 대상 물건의 확정
- 데이터 통계화 및 시각화
- 비교 개체 제공

○ 해당 연구에서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의 직무역량은 【표 3-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10】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

구성요소	세부 역량
지식	미술사 지식, 미술에 대한 전반적 지식, 세분화된 작가/장르 전문성, 가격 형성요소 이해, 미술사적 지식과 현장 경험 견비, (시가)감정 방법론 및 이론 지식, 1차 시장/2차 시장 가격 지식, 미술시장 이해, 법률/정책/금융 지식, 작가/작품의 절대적 가치평가, 작품관리/보존 지식
능력	미술시장 실무능력, 정보/자료수집 및 리서치 능력, 가격/데이터 분석 능력, 보고서 작성/글쓰기 능력, 미술계 네트워크, 목적별 가격 산정 능력, 미술 전반 경험과 지식, 비평가적 안목/감식안, 작품분석 능력, 의사소통 능력
태도	윤리성(도덕성), 이해상충방지, 직접 확인하는 자세·책임감, 도전의식, 원만함, 열정

※ 출처: 양지연(2023), 57쪽, 재구성.

제3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 과정



1.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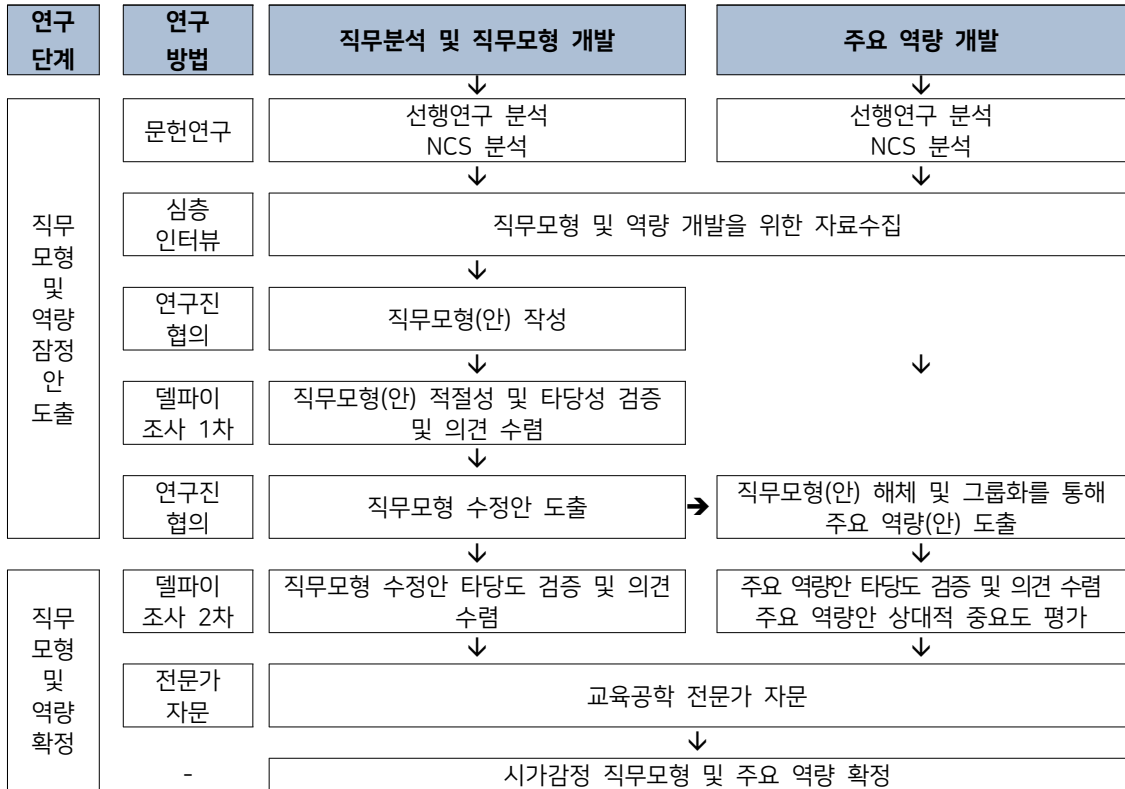
(1)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의 방향

- 본 연구는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시가감정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개발하고자 함.
- 시가감정 직무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가감정의 과업과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중심적 분석'과 시가감정사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중심적 분석'을 결합하여 효과적인 역량을 개발하고자 함.
 - 직무모형 구성 및 직무역량 도출을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필요하며, 직무분석의 방법은 작업중심적(job-based) 분석과 사람중심적(person-based) 분석이 있음(조성우, 2007; 최준희, 2021; Campion et al., 2011; Sanchez & Levine, 2001).
 - 작업중심적 접근은 직무 자체의 과업, 책임, 절차 등을 분석하여 직무의 본질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주로 직무기술서 작성이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함
 - 사람중심적 접근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지식, 기술, 능력 및 역량을 갖춘 사람이 적합한지에 중점을 둠.
 - 인적자원을 교육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접근법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Sanchez & Levine, 2001), NCS의 경우 직무중심적 접근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과업의 흐름과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여 두 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의 개발은 NCS와 유사한 직무모형을 구성하는 것과 시가감정사 직무역량을 도출하는 것을 병행하여 진행함.
 - NCS의 경우 직무모형과 직무역량이 혼합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직무모형 내에 직무역량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편의상 "직무모형"과 "직무역량"으로 지칭하며, 실질적으로 시가감정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두 요소가 위계 또는 순서로 명확히 나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두 요소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계하여 다루고자 함.

(2)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 세부 절차

-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을 개발하고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 두 차례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과정을 거침.
 - 문헌연구를 통해 그간 진행한 주요 선행연구와 NCS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수행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거쳐 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및 수행준거로 구성된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직무모형안을 구성함.
 -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직무모형안을 제시하여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함.
 - 전문가 델파이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직무모형을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함.
 - 직무모형 최종안을 바탕으로 연구진의 내부 협의를 거쳐 주요 역량 및 세부 역량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AHP 분석을 통해 역량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함.
-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역량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 3-5】와 같음.

【그림 3-5】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개발 절차



2. 전문가 심층인터뷰 조사 개요

- 관련 선행연구와 NCS 직무역량에 대한 문헌 검토 및 분석내용을 토대로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직무역량에 대한 핵심 개념 정의, 분석틀에 적용 가능한 이론적 내용, 그리고 지표 구성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유의점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함.

1) 인터뷰 일정 및 방식

- 전문가 심층인터뷰는 2024년 8월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 전문가 총 20명과 진행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일대일 대면 인터뷰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같은 분야의 전문가 2인 그룹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서면으로 진행함.
- 인터뷰 실시전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의 사전 질문지를 전달하였으며, 사전동

의하에 녹음하여 반복적으로 분석을 진행함.

2) 소요시간

- 인터뷰 별로 약 50~90분이 소요되었으며, 그룹인터뷰의 경우는 90~120분이 소요됨.

3) 조사 대상

- 직무역량 키워드를 다각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미술계 내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매회사의 감정위원, 관련 학계 전문가, 보존·수복전문가, 일반 감정평가사를 모두 포함함. 미국감정가협회(AAA)의 공인회원과 국제감정평가사협회(ISA) 공인회원 등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함. 각 인터뷰 대상은 본인의 산업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나 유사업종인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경우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를 고려하여 10년으로 설정함.

【표 3-11】 인터뷰 대상 목록

	참여자	소속/직책	성별	인터뷰일시
1	참여자A	아트컨설팅회사 대표 미국감정가협회(AAA) 공인회원	여	2024.9.7
2	참여자B	대만시가감정위원, 국제감정평가사협회(ISA) 공인회원	여	2024.9.8
3	참여자C	미국감정가협회(AAA) 이사	여	2024.10.9
4	참여자D	○○아트인스티튜트 디렉터, 미국감정가협회(AAA) 공인회원	여	2024.10.11
5	참여자E	○○협회 감정위원, (전)레지스트라	남	2024.8.12
6	참여자F	○○협회 감정위원, 갤러리 대표	남	2024.9.12
7	참여자G	○○협회 감정위원, 갤러리 대표	여	2024.9.26
8	참여자H	○○협회 감정위원	남	2024.9.26
9	참여자I	○○협회 감정위원, 미술대학 명예교수	여	2024.10.07
10	참여자J	미술경영연구소 소장, 시가감정위원	남	2024.10.7
11	참여자K	△△협회 감정위원	여	2024.10.8

12	참여자L	△△협회 감정위원장	남	2024.10.8
13	참여자M	○○ 경매회사 이사	여	2024.9.27
14	참여자N	(전)B경매회사 이사, 시가감정위원	여	2024.10.8
15	참여자O	B경매회사 팀장	여	2024.10.8
16	참여자P	○○기념재단 이사	여	2024.10.7
17	참여자Q	미술품보존복원연구소장	남	2024.9.30
18	참여자R	큐레이터학과 대학교수	여	2024.9.30
19	참여자S	감정평가사	남	2024.9.27
20	참여자T	감정평가사	여	2024.9.27

4) 인터뷰 내용

- 전문가 심층인터뷰는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미술품 시가감정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도출함.
- 주요 내용은 직무경험 기반 직무역량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나, 추가적으로 연구의 진행을 위해 현행 감정제도에 대한 의견, 실무연계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표 3-12】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주요 내용

- 커리어패스 및 관련 경력
-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의 분리 여부 및 시가감정의 필요성
- 현행 감정시스템의 문제점
- 직무경험 기반 직무역량 요소 탐색
- 직무역량 교육과정
- 교육과 현장 및 실무연계 방안

3.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모델 수립을 위한 직무모형 및 주요 역량 도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방법을 활용함.
- 델파이 조사는 적절한 해답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여러 차례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집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임.

-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된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복적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합의법으로 전문가 패널을 통해 미래 예측이나 불확실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때 사용함(이종성, 2001).
-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 보다는 정확할 것'이라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소수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정확할 것이다'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근거하는 방법임(이종성, 2001:7).
- 국내에서 미술품 감정은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조사가 많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델파이 조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함.

○ NCS 분석을 포함한 문헌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직무역량(안)을 도출하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2차례 수행함.

- 보통 일반적인 델파이 접근방식에서는 1회 설문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전문가 패널들의 직관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에서 이미 개방형 질문이 포함되었으므로, 문헌자료 분석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잠정 확정된 구조화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함.

○ 1차 조사 진행 후 패널의 의견을 종합하여 삭제 및 수정, 보완된 키워드를 구성하고 2차 조사를 진행함.

- 1차 조사: 2024년 10월 18일 ~ 10월 30일
- 2차 조사: 2024년 11월 11일 ~ 11월 14일

(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미술품 감정 분야(미술품 감정, 경매, 동산 감정평가사)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함.

2) 조사 기간

- 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일간 진행하였음.

3) 조사 방법 및 내용

○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현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음. 전문가의 분야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분야', '기타' 분야로 나누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16명,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분야 3명, '기타' 1명(자격인증협회 소속)이 응답하였음.

○ 1차 전문가 조사의 설계는 아래 【표 3-13】과 같이 구성하였음.

【표 3-13】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지표 영역	세부내용
일반현황	- 종사분야 및 경력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역량 능력수준 체계의 적절성	- 직무 정의의 적절성 - 직무 능력단위 단계의 순서와 구분의 적절성 및 보완 의견 - 직무 능력단위 정의의 적절성 및 보완 의견
시가감정 직무역량 능력수준 하위 능력단위 요소의 타당성	- 하위 능력단위 요소 타당성 및 보완 의견
시가감정 직무역량 능력수준 수행준거(지식, 기술, 태도)의 타당성	1. 감정 의뢰 접수 및 업무 범위 확정의 수행준거 타당성 및 보완 의견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의 수행준거 타당성 및 보완 의견 3. 대상미술품 종합 분석의 수행준거 타당성 및 보완 의견 4. 가격정보 분석 및 가격결정의 수행준거 타당성 및 보완 의견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의 수행준거 타당성 및 보완 의견 6.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의 수행준거 타당성 및 보완 의견
교육과정 운영 세부 방안	-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학과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수강생의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 - 기타 연구 진행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4) 응답자 특성

○ 1차 전문가 조사의 최종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성별은 남성은 5명으로 25.0%, 여성은 15명으로 75.0%으로,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종사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는 16명(80.0%),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분야'는 3명(15.0%), '기타' 분야 1명(5.0%)으로 나타남. 종사 형태별로 살펴보면, '현장 종사자'는 65.0%(13명), '교수/연구자'는 25.0%(5명), '공공기관 종사자'는 5.0%(1명), '기타' 5.0%(1명)으로 분포되었음. 경력별로 살펴보면, '20년 이상'이 80.0%으로 대부분이며, '15~20년 미만'이 10.0%, '10~15년 미만'이 5.0%, 5~10년 미만이 5.0%이며, 5년 미만은 없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0명으로 0.0%,

‘40대’는 4명으로 20.0%, ‘50대’는 4명으로 20.0%, ‘60대 이상’은 12명으로 60.0%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높은 경력과도 연결됨.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80%(16명), ‘기타’가 20%(4명)으로 분포됨.

【표 3-14】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측값 제외)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5	25.0
	여성	15	75.0
분야1(산업)	문화예술 분야	16	80.0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분야	3	15.0
	기타 분야	1	5.0
분야2(직무)	현장 종사자	13	65.0
	교수/연구자	5	25.0
	공공기관 종사자	1	5.0
	기타	1	5.0
경력	2년 미만	0	0.0
	3~5년 미만	0	0.0
	5~10년 미만	1	5.0
	10~15년 미만	1	5.0
	15~20년 미만	2	10.0
	20년 이상	16	80.0
연령	30대	0	0.0
	40대	4	20.0
	50대	4	20.0
	60대 이상	12	60.0
국적	한국	16	80.0
	그외	4	20.0

5) 산출 내용

- 델파이 패널의 1차 응답 값을 취합하여 평균, 표준편차 CV(Coefficient Variation), 수렴도, 합의도,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값을 산출함.

(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2차 전문가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 5명을 대상으로 함.

2) 조사 기간

- 조사 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4일간 진행하였음.

3) 조사내용

- 2차 전문가 조사의 설계는 아래 표와 같음. 일차적으로는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의견을 반영한 직무모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직무모형 최종안을 도출함.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차 평정 결과를 제시하고, 타당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함.

【표 3-15】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계

지표 영역	세부내용
일반현황	- 종사분야 및 경력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역량체계의 적절성	- 직무역량체계의 능력단위의 타당성 - 직무역량체계의 하위 능력단위 요소의 타당성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단위의 적절성	- 역량 정의의 적절성 및 보완의견
주요 역량의 중요도 평가	- 주요 역량에 대한 교육과정 구성에서의 중요도 상호평가

- 한편,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토대로 직무모형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수정안을 연구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체 및 유사한 속성끼리 그룹화하여 주요 역량을 도출함.

4) AHP 분석

- 2차 전문가 조사는 도출된 주요 역량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각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을 진행함. AHP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상대적 중요도 혹은 선호도를 비율 척도(Ratio Scale)로 측정하여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임.
- AHP 분석에서는 응답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a를 b보다 x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b를 c보다 y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a를 c보다 x*y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것임. 쌍대비교에서 응답의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응답 일관성을 비일관성비율(Inconsistency Ratio)로 나타냄. 비일관성 비율이 0의 값에 가까울

수록 응답자가 일관성을 유지하여 응답한 것을 의미함. 비일관성 비율이 0.1 이하이면 쌍대 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하며, 0.2 이하이면 전문가 판단의 일관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유효한 응답으로 볼 수 있음.

- 쌍대비교항목에 대해 평가 결과가 서로 '같다(1점)'를 기준으로 Saaty(1980)가 제안한 9점 척도를 사용하였음.

【표 3-16】 AHP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예시

문항	항목(A)	평가척도																	항목(B)
		A가 B보다 중요 ←								같 다	B가 A보다 중요 →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1	미술 전문역량																		미술시장 전문역량

5) 응답자 특성

-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2명으로 40.0%, 여성은 3명으로 60.0%로 나타났으며, 2차 델파이 조사의 경우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에 집중하기 위하여 전원 문화예술 분야 관련자로 구성하였음. 직무를 살펴보면, 현장 종사자 80.0%(4명), 교수 및 연구자 20.0%(1명)이며, 전원 경력 20년 이상인 전문가로 구성함. 현장 감정위원 종사자의 경우 화랑대표, 경매회사 이사, (전)레지스트라 등 배경을 다양하게 하고자 했으며, 교수 및 연구자의 경우도 현재 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로 선정함.

【표 3-17】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측값 제외)

변수	항목	빈도	%
성별	남성	2	40.0
	여성	3	60.0
산업	문화예술 분야	5	100.0
직무	현장 종사자	4	80.0
	교수/연구자	1	20.0
경력	20년 이상	5	100.0
연령	50대	2	40.0
	60대 이상	3	60.0
국적	한국	5	100.0

4. 전문가 자문 개요

- 시가감정 직무역량의 도출을 토대로 효과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교육공학 전문가 자문을 거침.
- 자문은 2회의 대면 회의를 포함하여,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방식을 함께 진행함.

제4절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 도출



1.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모형 도출

(1)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 인터뷰 참여자들이 언급한 역량은 크게 미술품 시가감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적 역량과, 다른 직무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나눌 수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문역량
 - 미술사적 지식
 - 미술작품에 대한 지식
 -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장르 및 재료학에 대한 지식
 - 작품 보존 및 관리 지식
 - 미술시장에 대한 지식
 - 가격형성요소
 - 가치이론에 대한 이해
 - 안목·감식안
 - 미술계 네트워크
 - 미술계 현장경험
 - 다른 직무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
 - 법률·세법 지식
 - 금융·경제 지식
 - 리서치 능력
 - 데이터 분석 능력
 - 의사소통 능력 및 글쓰기
 - 윤리성
 - 신뢰성
- 인터뷰 참여자들마다 같은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유사한 뜻은 그룹으로 묶어서 다음의 【표 3-18】과 같이 정리함.

【표 3-18】 심층인터뷰 직무역량의 표현방식에 대한 전처리 결과

정리	역량에 대한 세부 표현	분류 ³⁶⁾
미술사적 지식	기본적 이론, 석사 또는 박사 수준의 기초지식, 근현대미술 이해, 아카데미한 기초	미술 관련 전문 지식
미술작품에 대한 지식	감정 평가대상 미술품 지식, 작품분석 능력, 작품을 질적으로 보는 능력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가들, 세분화된 작가와 작업에 대한 전문성	
미술장르 및 재료학에 대한 지식	장르, 기법, 미술재료나 기법에 대한 지식	
작품보존 및 관리 지식	작품 상태 및 보존 컨디션 평가능력, 보존 과학	
안목·감식안	감식력	미술 관련 전문 기술
미술계 네트워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술계 내부 정보 취득 능력	
미술계 현장경험	포괄적인 미술현장에서의 실무경험, 실습	
가치이론에 대한 이해	감정평가방법, 비교사례식별, 감정이론지식, 가치형성요인, 가치평가방법, 평가이론, 감정평가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	시가감정 관련 지식·기술
미술시장에 대한 지식	미술시장의 기본개념, 작품시장 이해, 트렌드, 시장 동향, 시장 민감도, 미술시장을 보는 눈, 글로벌 미술시장에 대한 안목, 1차시장 2차시장의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	
가격형성요소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 시장가격에 대한 이해, 작품이 위치한 곳의 사회·정치·경제적 요소의 이해, 작가의 가격 변동,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장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시장 가격에 대한 분석능력	
금융·경제 지식	재무 보고서 읽기, 경제학 교육, 경제와 경영 지식	지식
법률·세법 지식	법적 기준 준수, 법 제도 이해, 법적·제도적 이해	
리서치 능력	신뢰 가능한 데이터를 구분하는 능력, 데이터를 취득하고 정리하는 능력, 데이터 수집	기술
데이터 분석 능력	통계, 통계적 접근과 분석기술	
의사소통 능력 및 글쓰기	보고서 작성 능력, 정보 제시, 글쓰기 능력, 가치 설명 능력, 논리적 설명, 외국어 능력, 접수를 받고 설명할 줄 아는 사무능력	
윤리성	공정성, 도덕성, 윤리적 책임감, 이해 상충에 대한 부분	태도
신뢰성	중립성, 독립성	

【표 3-19】 심층인터뷰를 통한 직무역량 추출

역량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합계
미술사적 지식				○	○	○	○		○	○			○	○			○	○			10
미술작품에 대한 지식					○	○				○	○			○							5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	○	○			○			5
미술장르 및 재료학에 대한 지식							○		○		○										3

36) 편의에 따라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고자 하였으나, 사실 해당 분류는 엄격하게 적용되기 어려움. 예를 들어, "가격형성요소"의 경우, '가격형성요소에 대해 아는 것'은 지식으로 분류되지만, '가격형성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능력'은 기술로 분류될 수 있음.

작품보존 및 관리 지식					○		○						○				3
가치이론에 대한 이해			○	○	○									○	○	○	6
법률·세법 지식	○				○				○					○			4
미술시장에 대한 지식			○	○	○			○	○	○	○					○	8
가격형성요소		○		○	○	○					○	○					6
금융·경제 지식	○	○			○											○	4
미술계 현장경험	○	○		○	○	○								○	○	○	8
리서치 능력							○	○	○	○			○			○	6
데이터 분석 능력								○	○	○				○		○	6
의사소통 능력			○						○	○				○		○	6
안목·감식안			○		○	○	○									○	5
미술계 네트워크			○	○			○					○	○			○	6
윤리성						○		○	○			○	○		○	○	7
신뢰성						○									○	○	3

○ 가장 많이 언급된 역량은 ‘미술사적 지식’으로, 전체 응답자의 50%(10명)가 미술사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다음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지식’이 전체 응답자의 40%(8명), 미술계 현장경험이 40%(8명), ‘윤리성’이 35%(7명)로 중요하다고 언급함.

- 미술사적 지식

- “제일 중요한 것은 미술사.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면] 근현대 미술품에 대한 미술사 전공자”(참여자Q)
- “이론적인 학습[이] 충분히 좀 쌓여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석사까지 해서 그러면서 석사나 박사 정도 해가지고 그 미술사나 작가나 혹은 미술시장이나 이런 쪽에 대한 베이스가 충분히 좀 있어야지 리서치 할 때도, 레퍼런스도 알고 네트워크도 알고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거지..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참여자R)

- 미술시장에 대한 지식, 미술계 현장경험

- “5년, 10년, 의사들이 인턴하듯이 해야(중략)” (참여자F)
- “오랜 실무경험 (중략) 현장에 대한 실무 경험, 미술품 거래든 미술시장이든 아트마켓 리서치 등 그런 경험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감정업무든 경험이 있어야..”(참여자R)
- “[경제학교육, 미술경제학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감정가로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참여자A)
- “[제 주변에] 코로나 기간동안에 인터넷으로 AAA 자격증을 딴 사람이 서너명 있어요. (중략) 그런데 패스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중략) 자기는 패스를 다 했는데도 그림을 보고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라, (중략) 적어도 10년 정도가 걸려야 한다는 [겁니다]” (참

여자G)

- 감정가는 자신이 평가하는 작가의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정보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C)
- 시가 감정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에요. 시장. 미술시장이 어떤가? 미술 시장을 알아야 되는 거죠.(중략) 미술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특정 작가가 어떻게 가격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작가와 관련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참여자M)

- 윤리성

- “또 감정평가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강조되는 영역이 사실은 윤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이나 신뢰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렇죠. 남의 재산이든 직업이 이제 의뢰받은 쪽이나 혹은 연관된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최대한 공정하게 이거를 하려는 거거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참여자R)
- “가장 큰 것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시장에 있다 보면 이해상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 작품을 얼마로 평가했을 때 벌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중략) 도덕성이라든지 이해상충 방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참여자O)

○ “미술사적 지식”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입장이 존재하는데 일반 동산·부동산 감정평가법인 소속 참여자 2인은 미술사적 지식을 중요한 역량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동산감정평가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을 취급하는 본인의 경력과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있으며, 미술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모든 미술품과 장르에 해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시장가치와 예술사적 가치는 다르며 시가감정은 전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함.
- “미술 전문가들이 미술의 시가를 논하려면 사실 미술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중학교 미술만 제대로 해서 (중략) 밸류(value)를 설명하는데는 미술적 지식은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중략) 가치에 대한 개념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참여자S, 감정평가사)
- “시장가치라는 건 (중략) 예술사적 가치랑 다르잖아요. 굉장히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시장에서 안 사면 개는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헐값에 팔리면 그거는 헐값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중략) 제가 이제 미술품 감정을 요즘에 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보면 데이터를 다 분석하다 보면 이제 [가치는] 다 파악이 돼요.”(참여자T, 감정평가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가치있는 미술품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과 안목에 대해서는 미술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며, 비미술계 감정평가사로서의 한계를 인정함. 국내외 현직 감정위원들은 안목/감식안을 주요 역량으로 다수 언급함. (5명, 25%)

- “동그라미 물방울, 물방울에 글씨가 있냐 없냐³⁷⁾ 데미안 허스트가 점을 찍었는데 점을 크게 찍었냐, 작게 찍었냐, 골고루 찍었냐, 물리게 찍었냐, (중략) 고흐의 그림인데 꽃이냐, 초상화냐 꽃의 가치 형성 요인하고 초상화의 가치 형성 요인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중략) 내가 과연 이 작품의 가치 형성 요인을 다 알까?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아야 하나? 이게 좀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S, 감정평가사)
- “미술품도 마찬가지로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고 해도 수준도 차이가 나고 말씀하셨듯이 같이 다 다른데 그 부분을 판정할 수 있는 사실 안목은 좀 필요하기는 한 거죠.” (참여자T, 감정평가사)
- “[미술을 잘 모르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기준이 없는데. 그 미학적인 기준인데. (중략) 일본말로 메노쇼부(目の勝負)라고 합니다. 메노쇼부(目の勝負)가 뭐냐, 눈의 승부[라는 겁니다]. (중략) 같은 피카소, 같은 사이즈라도 가격이 10 배 이상씩 차이날 수 있는데 이는 그 진가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 것,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밖에 없다. 똑같은 작가라도 너무 차별화가 많고 단가차이도 이렇게 많구나, 작은 차이에요. 스몰 디퍼런스(small difference) [is] 빅 디퍼런스(big difference)잖아 [요]” (참석자F)
- “[감식력이 매우 중요한데], 감정가는 자신이 평가하는 작품에서 ' 좋음(Good)', '더 좋음(Better)', '최고(the Best)'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략) 또한 작품이 왜 중요한지 또는 단순히 평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자C)

○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의 차이를 지적하며,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분석 능력을 강조한 전문가도 다수였음(40%, 8명).

- “시가감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에요, 미술시장을 알아야되는 거죠, (중략) 미술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특정 작가가 어떻게 가격이 달라지고 있는지, 이 작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중략) 미술시장에 대한 민감성..(중략) 시장조사를 엄청하고..가격들 정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오차범위를 줄여가는 거죠.. (참여자S)
- “생산자로부터 수요자, 소장자들에게 넘어가면 시장의 룰이 적용되는 가격을 받아들이야 합니다.. (중략) 미술품이 유통되는 시장의 논리를 존중해야 한다.”(참여자P)

37) 김창렬의 물방울 미술품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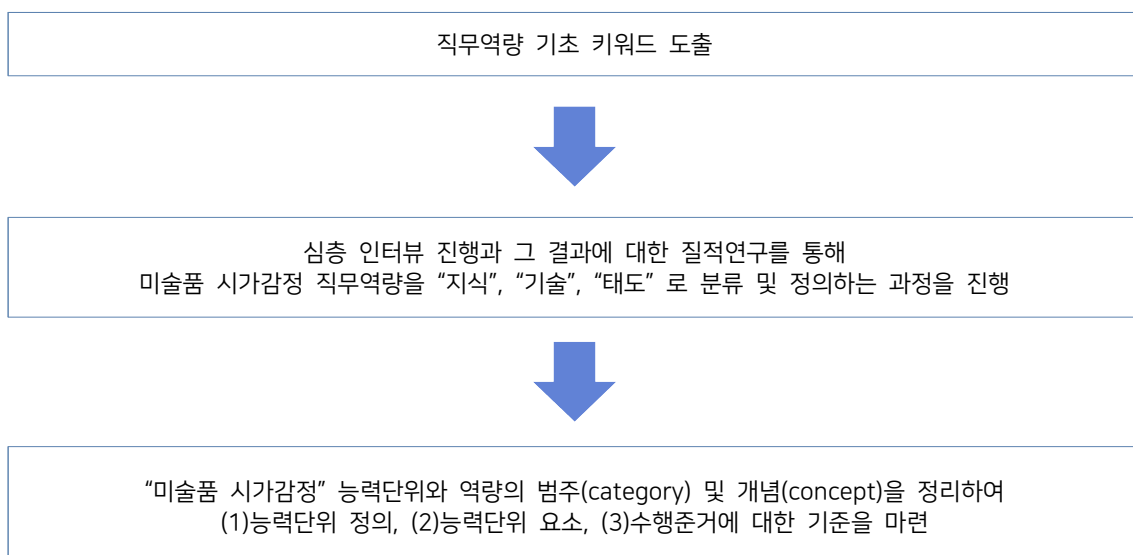
-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시장에 대한 이해, 현장경험, 법적·경제적 지식과 이해 등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고도화된 직종이라는 의견도 많았음. 그만큼 미술품 시가감정은 다른 직무에 비해 전문화된 능력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세부역량들을 잘 기술을 해주었는데, (중략) 다른 “[모든]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역량이다. 지식, 기술, 태도가 밸런스있게...골고루 겸비할 수 있게 노력해야한다.” (참여자O)
- “[제시된] 모든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술품 감정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는 지식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참여자D)

(2)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모형(안) 작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선행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서 추출한 미술품 시가감정의 직무역량을 분석하여, 연구원들의 협의를 거쳐 직무역량 안을 도출함.
- NCS의 양식에 맞추어 각 역량은 능력단위별로 정의하였으며, 각 수행 준거는 직무역량의 구성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함.
- 해당 역량은 추후 전문가 인터뷰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검증하기 위한 사전 자료로 활용함.

【그림 3-6】 능력단위 도출 순서



-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역량은 실질적인 시가감정 평가의 프로세스에 맞추어 작성함.
- 이는 NCS에서 직무역량을 제시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며, 「부동산·동산가격평가」의 능력단

위와 「문화재 가치평가」의 능력단위에 제시된 과정을 시가감정의 현실에 맞추어 재조합하였음.

- 추가적으로 미국감정가협회(AAA) 및 표준감정실무표준(USPAP)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과정을 참고하여 반영함.

【표 3-20】 미국감정가협회(AAA)의 감정평가 과정

	평가과정	세부사항
과정1	문제 및 과제의 파악	평가 의뢰인과 실질적 활용자를 파악
		평가 사무의 실질적 목적 파악
		가치의 유형과 정의 파악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 파악
		자산에 대한 다양한 특성 파악
		과제의 조건 파악
		자산의 범위(소유권 등)을 확인
과정2	업무의 범위 결정	자산 조사의 범위(평가사가 채택한 조사방법과 채택하지 않은 조사방법) 결정
		정보의 유형과 조사의 범위 결정
과정3	자료 조사 및 분석	의뢰 물품에 관한 시장 분석
		물품에 대한 수요 조사
		물품에 대한 공급량 조사
		물품의 시장성 조사
과정4	가치 분석 방법의 적용	시장정보 비교방식 채택
과정5	가치 지표의 통합적인 고려	
과정6	가치에 대한 의견 보고	

※ 출처 : 이한빛 (2024) 글로벌인력양성프로그램 1강 자료

【표 3-21】 표준감정실무표준(USPAP)의 감정평가 과정

평가과정	세부사항
문제정의	Client, intended users, type and definition of value
업무범위 규정	Scope of work, necessary to develop a credible solution to the problem
자료수집 및 분석	Data analysis, market analysis

가치접근법 결정	Cost, Sales comparison, Income
최종의견	Develop the aspect of appraisal process to reach a conclusion of value
최종보고	Last component, Communication written or oral

○ 미술품 시가감정은 의뢰받은 “감정대상미술품에 대한 감정 업무범위 결정,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대상미술품의 종합분석과 가격정보 분석을 토대로 최종평가액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서³⁸⁾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함.

- 미술품 시가감정(세분류)의 능력단위는 총 6개로 구성됨.
 - ①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확정: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가능여부 및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능력
 - ②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자료조사: 현장에서 미술품의 물적동일성 및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 ③ 대상 미술품 종합 분석: 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 일반요인, 시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 ④ 가격정보 분석 및 가격 결정: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적합한 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가격자료의 신뢰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 ⑤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를 통해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산출근거와 결정의견을 작성하는 능력
 - ⑥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제공하고 원본 및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능력

【표 3-22】 미술품 시가감정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 초안

	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1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감정평가계획 수립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관련 자료 수집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대상작품의 개별요인 분석
		대상작품의 일반요인 분석

38) 국내에서 <감정보고서>로 관례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의 결과물로서 미술품의 복합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서>로 통일하여 사용함. 향후, 「미술진흥법」 등에서 명시하여 용어 사용의 통일이 필요함.

		시장요인 분석
4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	가격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최종평가액 결정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6	감정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 미술품 시가감정의 직무역량의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에 맞추어 수행준거(지식, 기술, 태도)를 설정함.

- 수행준거는 선행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에서 도출된 지식, 기술, 태도를 반영하여 작성함.

【표 3-23】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모형 초안

순 번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1	감정 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확정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 사항을 바탕으로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경제적 사항을 바탕으로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에 대한 이해 · 감정평가이론 · 미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의뢰 목적 확인 및 이해 능력 ·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 · 법률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조사태도 · 이해상충방지를 비롯한 감정평가의 윤리성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의뢰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하고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의 소요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보수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추정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 관련 지식 · 감정평가의 업무범위 확정 · 감정평가 수수료 규정 및 대상미술품의 가격체계에 대한 이해 · 미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감정평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필요사항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경제적 필요사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조사태도 · 이해상충방지를 비롯한 감정평가의 윤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의 특성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감정평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세부 평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지식 ·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 · 평가목적에 대한 지식 · 미술품 감정 관련 규정 및 법령 이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능력 · 평가 대상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 조사기간,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사계획수립 능력 ·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술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조사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미술품의 작가, 종류, 매체를 확인할 수 있다. - 의뢰미술품의 물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에 관한 전문지식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 · 대상미술품의 물적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대상미술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의뢰서류와 비교검토하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조사 태도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대상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 작품 보존·관리에 관한 지식 · 조사대상의 가치 및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전문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감식안 · 조사 목적·내용에 부합하는 분석능력 · 대상미술품의 보존·관리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조사활동 및 과학적 분석을 위한 각종 기기 조작 능력 · 미술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능력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관련 자료 수집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조사 태도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원만한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안다. - 대상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 -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시장 및 현황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소장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적절한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필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미술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원만한 대인관계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대상미술품의 개별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에 대한 특수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다. - 대상미술품의 개별요인이 갖는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 감정대상 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 · 대상미술품의 보존·관리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미술품의 특성 파악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소장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대상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 태도 · 논리적인 태도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대상미술품의 일반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에 대한 일반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다. - 대상미술품의 기법, 장르, 매체에 따른 특성 및 가치를 정리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전문지식 · 감정대상 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대상미술품의 화풍, 경향, 사조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의 일반적 요인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미술품의 특성 파악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소장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대상 미술품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분석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4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시장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미술품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알고 분석할 수 있다. - 미술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알고 분석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과 미술시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지식 · 금융 및 경제적 지식 ·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이해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분석 능력 · 가격형성요소 분석 능력 ·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분석 능력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가격정보 조사·분석 과 가치접근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의 가치형성요인을 알고 가격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 대상미술품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에 대한 전문지식 · 감정평가 목적 및 분류에 대한 지식 · 가치이론에 대한 지식 · 가격정보의 정리·가공 체계와 방법 · 가격정보 제공의 유형,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지식 · 감정평가의 실무기준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에 대한 판별 능력 · 감정평가의 목적 및 분류에 대한 이해 능력 · 대상미술품의 가치형성 요인 분석 능력 · 거래사례 중 비교가능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사례와 대상미술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전산 자료 처리 능력 · 유형별 평가방식 적용에 대한 분석 능력 · 감정평가가격 체계화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균형잡힌 평가를 하는 자세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과 비교성 있는 거래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 대상미술품과 거래사례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 가격자료의 신뢰성에 따른 감정평가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자료 수집방법 ·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 및 비교대상미술품 자료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사례 중 비교성이 있는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사례와 대상미술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가격자료의 신뢰성에 따른 감정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자료 검토를 위한 분석력과 판단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조사 태도
		최종평가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이론 및 방법 ·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가액 산출된 감정평가액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가치를 결정하고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해석하는 능력 · 최종 감정평가액을 도출해 내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합리적인 판단력 · 윤리성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목적, 조건에 따라 임의적 기재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감정 관련 법령 · 감정평가서 종류와 형식에 관한 지식 · 감정평가 업무량에 따른 일정 파악과 비용에 관한 지식 · 필수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전산처리 능력/인터넷 활용능력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서 형식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난이도에 따른 감정평가서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전산정보 검색 및 처리능력 · 형식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태도 · 인터넷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습득하려는 태도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 의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의 목적, 수준, 정도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사자료,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 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지식 · 구체적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현장조사와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산출근거와 결정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 전산처리 능력/인터넷 활용능력 ·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태도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6	평가서 제공 및	평가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서의 원본 및 관련 서류를 보존, 관리할 수 있다.

			- 보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원본 및 관련서류의 폐기여부를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의 폐기여부를 정할 수 있다.
			【지식】 · 감정평가서의 보존 · 감정평가의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 전산처리를 위한 지식 · 감정평가서의 분류기준 【기술】 · 감정평가서의 보존능력 ·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을 알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전산처리 능력 및 인터넷 활용능력 · 감정평가서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 능력 · 전산정보 검색 및 처리능력 · 수요자 요구 대응능력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필수 비밀유지 조항을 지키려는 태도 · 인터넷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습득하려는 태도

(3) 직무모형 1차 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분석

1)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 정의의 타당성

○ 델파이 조사응답의 안정도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의 정의 문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의 정의를 살펴보면, 평균이 4.55, 표준편차가 .826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CV)를 살펴보면, 0.5 미만이므로 전문가간의 의견 합의가 있다고 판단됨. 수렴도가 0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때, 0.5 이하이면 의견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합의도가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때, 기준치 0.75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봄. 내용타당도(CVR)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는 그 문항에 대해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 집단이 20명 정도일 때 0.5 정도이면 양호한 문항으로 판단됨.

【표 3-24】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 정의의 타당성(1차 안)

	기술통계			안정도		신뢰도/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CV	수렴도	합의도	CVR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의 정의	4.55	.826	1	0.182	0.50	0.80	0.8

2)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 능력단위 단계 및 순서의 타당도 검증

○ 델파이 조사응답의 안정도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의 능력단위 단계의 설정이 타당하게 도출된 것으로 나타남.

- 먼저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을 살펴보면, 평균이 4.55, 표준편차가 .826으로 나타남.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조사를 살펴보면, 평균이 4.85, 표준편차가 .366으로 나타남.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을 살펴보면,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410으로 나타남.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을 살펴보면, 평균이 4.75, 표준편차가 .550으로 나타남.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를 살펴보면, 평균이 4.70, 표준편차가 .470으로 나타남.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를 살펴보면, 평균이 4.65, 표준편차가 .489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CV)를 살펴보면, 0.5 미만이므로 전문가간의 의견 합의가 있다고 판단됨. 모든 항목의 수렴도가 0 또는 0.5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판단됨. 모든 항목의 합의도가 0.8~1로, 기준치 0.75 이상을 충족하여 전문가간 의견 합의가 있다고 봄. CVR이 1 또는 1에 근접하여 타당도 기준을 충족함.

【표 3-25】 직무 능력단위 단계에 대한 타당성(1차 안)

	기술통계			안정도		신뢰도/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CV	수렴도	합의도	CVR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	4.55	.826	6	0.182	0.50	0.80	0.8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4.85	.366	1	0.075	0.00	1.00	1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4.80	.410	2	0.085	0.00	1.00	1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	4.75	.550	3	0.116	0.00	1.00	0.9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4.70	.470	4	0.100	0.50	0.80	1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4.65	.489	5	0.105	0.50	0.80	1

○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에 대한 합의도는 0.80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전문가 패널의 응답 중 "업무 범위가 아닌 대상 및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적절함. 감정평가의 업무 범위는 감정평가에 수반되는 것이며, 감정평가 외의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 부분은 감정평가 업무와 분리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범위 결정'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계획 수립'으로 수정함.

-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의도는 0.80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전문가 패널의 응답 중 사후관리의 의미가 모호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연구진 내부 검토 결과 “평가서 제공”으로 수정함.

【표 3-26】 직무 능력단위 단계에 대한 수정안

수정 전	수정 후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	감정의뢰 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평가서 제공

- 수정안을 반영한 직무 능력단위 단계에 대한 타당성(2차 안)에 대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수정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

【표 3-27】 직무 능력단위 단계에 대한 타당성(2차 안)

	기술통계			안정도		신뢰도/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CV	수렴도	합의도	CVR
감정의뢰 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4.80	.447	4	0.093	0.25	0.90	1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5.00	.000	1	0.000	0.00	1.00	1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5.00	.000	1	0.000	0.00	1.00	1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	5.00	.000	1	0.000	0.00	1.00	1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4.80	.447	4	0.093	0.25	0.90	1
평가서 제공	4.80	.447	4	0.093	0.25	0.90	1

- 수정된 능력단위인 ‘감정의뢰 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447으로 나타남. 수정된 능력단위인 ‘평가서 제공’을 살펴보면,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447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CV)를 살펴보면, 0.5 미만이므로 전문가간의 의견 합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 수렴도가 0에 가까우므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내용타당도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는 그 문항에 대해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 집단이 5명일 때 1정도이면 양호한 문항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안정도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능력단위 문항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 능력단위 정의의 타당도 검증

○ 델파이 조사응답의 안정도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 능력단위의 모든 항목에 대한 정의가 타당하게 도출된 것으로 나타남.

- “1.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의 정의는 평균 4.60, 표준편차 .598,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의 정의는 평균 4.70, 표준편차 .571,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의 정의는 평균 4.75, 표준편차 .444, “4.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의 정의는 평균이 4.65, 표준편차가 .587,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의 정의는 평균 4.70, 표준편차 .571, “6.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정의는 평균이 4.70, 표준편차가 .470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CV) 0.5 미만을 충족, 수렴도 기준치 0.5 이하 충족, 합의도 기준치 0.75 충족, 내용타당도 기준치 0.5 이상 충족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합의가 있다고 판단됨.

【표 3-28】 직무 능력단위 정의에 대한 타당성(1차 안)

	기술통계			안정도		신뢰도/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CV	수렴도	합의도	CVR
[1.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의 정의	4.60	.598	6	0.130	0.50	0.80	0.9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의 정의	4.70	.571	2	0.121	0.38	0.85	0.9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의 정의	4.75	.444	1	0.093	0.38	0.85	1
[4.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의 정의	4.65	.587	5	0.126	0.50	0.80	0.9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의 정의	4.70	.571	2	0.121	0.38	0.85	0.9
[6.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의 정의	4.70	.470	2	0.100	0.50	0.80	1

4) 미술품 시가감정 하위능력단위 요소의 타당도 검증

○ 델파이 조사응답의 안정도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미술품 시가감정 능력수준의 하위능력단위 요소가 타당하게 도출된 것으로 나타남.

- 능력단위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의 하위능력단위인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평균 4.85, 표준편차 .366,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은 평균이 4.55, 표준편차가 .826, “감정평가계획 수립”은 평균이 4.75, 표준편차가 .550으로 나타남.

- 능력단위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의 하위능력단위인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은 평균이 4.75, 표준편차가 .550,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은 평균이 4.85, 표준편차가 .366, “관련 자료 수집”은 평균이 4.75, 표준편차가 .444으로 나타남.
- 능력단위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의 하위능력단위인 “대상작품의 개별요인 분석”은 평균이 4.85, 표준편차가 .366, “대상작품의 일반요인 분석”은 평균이 4.70, 표준편차가 .733, “시장요인 분석”은 평균이 4.75, 표준편차가 .716으로 나타남.
- 능력단위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의 하위능력단위인 “가격정보 조사·분석과 가치 접근법 적용”은 평균이 4.75, 표준편차가 .550,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는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410, “최종평가액 결정”은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523으로 나타남.
- 능력단위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의 하위능력단위인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은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41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은 평균이 4.85, 표준편차가 .366으로 나타남.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를 살펴보면,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410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CV) 0.5 미만을 충족, 수렴도 기준치 0.5 이하 충족, 합의도 기준치 0.75 충족, 내용타당도 기준치 0.5 이상 충족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합의가 있다고 판단됨.

【표 3-29】 하위능력단위 요소의 타당성(1차 안)

		기술통계			안정도		신뢰도/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CV	수렴도	합의도	CVR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4.85	.366	1	0.075	0.00	1.00	1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4.55	.826	15	0.182	0.50	0.80	0.8
	감정평가계획 수립	4.75	.550	5	0.116	0.00	1.00	0.9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4.75	.550	5	0.116	0.00	1.00	0.9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4.85	.366	1	0.075	0.00	1.00	1
	관련 자료 수집	4.75	.444	5	0.093	0.38	0.85	1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대상작품의 개별요인 분석	4.85	.366	1	0.075	0.00	1.00	1
	대상작품의 일반요인 분석	4.70	.733	14	0.156	0.00	1.00	0.9
	시장요인 분석	4.75	.716	5	0.151	0.00	1.00	0.9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	가격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4.75	.550	5	0.116	0.00	1.00	0.9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4.80	.410	4	0.085	0.00	1.00	1
	최종평가액 결정	4.80	.523	4	0.109	0.00	1.00	0.9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4.80	.410	4	0.085	0.00	1.00	1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4.85	.366	1	0.075	0.00	1.00	1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4.80	.410	4	0.085	0.00	1.00	1

-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분석’ 능력단위의 하위 능력단위요소 중 ‘대상미술품의 개별요인 분석’에 대한 합의도는 1로 매우 양호하나, 전문가 패널의 응답 중 ‘일반요인’과 대응하는 용어로 ‘개별요인’보다 ‘특수요인’을 제안한 내용이 있어서 연구자 협의 결과, 수정하기로 결정함.

【표 3-30】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하위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수정안

수정 전	수정 후
대상미술품의 개별요인 분석	대상미술품의 특수요인 분석

- 수정안을 반영한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하위 능력단위요소의 타당성(2차 안)에 대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수정사항을 최종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

【표 3-31】 하위능력단위 요소의 타당성(2차 안)

	기술통계			안정도		신뢰도/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CV	수렴도	합의도	CVR
감정평가가능여부확인	5.00	.000	1	0.000	0.00	1.00	1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4.80	.447	8	0.093	0.25	0.90	1
감정평가계획 수립	5.00	.000	1	0.000	0.00	1.00	1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5.00	.000	1	0.000	0.00	1.00	1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4.80	.447	8	0.093	0.25	0.90	1

관련 자료 수집	5.00	.000	1	0.000	0.00	1.00	1
대상미술품의 특수요인 분석	5.00	.000	1	0.000	0.00	1.00	1
대상미술품의 일반요인 분석	4.80	.447	8	0.093	0.25	0.90	1
시장요인 분석	4.80	.447	8	0.093	0.25	0.90	1
가격 및 시장 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5.00	.000	1	0.000	0.00	1.00	1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4.80	.447	8	0.093	0.25	0.95	1
최종평가액 결정	4.80	.447	8	0.093	0.25	0.95	1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4.80	.447	8	0.093	0.25	0.95	1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4.80	.447	8	0.093	0.25	0.95	1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5.00	.000	1	0.000	0.00	1.00	1

5) 시가감정 직무역량 능력수준 수행기준 타당도 검증

- 델파이 조사응답의 안정도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변동계수(CV) 0.5 미만을 충족, 수렴도 기준치 0.5 이하 충족, 합의도 기준치 0.75 충족, 내용 타당도 기준치 0.5 이상 충족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합의가 있다고 판단됨.

【표 3-32】 능력수준의 수행기준(지식, 기술, 태도) 타당성(1차 안)

	기술통계			안정도		신뢰도/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CV	수렴도	합의도	CVR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지식	4.75	.550	1	0.116	0.00	1.00	0.9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기술	4.70	.657	2	0.140	0.00	1.00	0.8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태도	4.80	.523	2	0.109	0.00	1.00	0.9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지식	4.65	.587	2	0.126	0.50	0.80	0.9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기술	4.70	.657	5	0.140	0.00	1.00	0.8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태도	4.80	.523	5	0.109	0.00	1.00	0.9
감정평가계획 수립: 지식	4.80	.523	5	0.109	0.00	1.00	0.9

감정평가계획 수립: 기술	4.80	.523	5	0.109	0.00	1.00	0.9
감정평가계획 수립: 태도	4.80	.523	5	0.109	0.00	1.00	0.9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지식	4.75	.550	5	0.116	0.00	1.00	0.9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기술	4.75	.550	5	0.116	0.00	1.00	0.9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태도	4.75	.550	5	0.116	0.00	1.00	0.9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지식	4.80	.523	5	0.109	0.00	1.00	0.9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기술	4.65	.671	5	0.144	0.38	0.93	0.8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태도	4.75	.550	5	0.116	0.00	1.00	0.9
관련 자료 수집 : 지식	4.70	.571	5	0.121	0.38	0.93	0.9
관련 자료 수집 : 기술	4.75	.550	5	0.116	0.00	1.00	0.9
관련 자료 수집 : 태도	4.80	.523	5	0.109	0.00	1.00	0.9
대상작품의 개별요인 분석: 지식	4.70	.657	5	0.140	0.00	1.00	0.8
대상작품의 개별요인 분석: 기술	4.70	.657	5	0.140	0.00	1.00	0.8
대상작품의 개별요인 분석: 태도	4.75	.550	21	0.116	0.00	1.00	0.9
대상작품의 일반요인 분석: 지식	4.70	.657	21	0.140	0.00	1.00	0.8
대상작품의 일반요인 분석: 기술	4.75	.550	21	0.116	0.00	1.00	0.9
대상작품의 일반요인 분석: 태도	4.75	.550	21	0.116	0.00	1.00	0.9
시장요인 분석: 지식	4.80	.410	21	0.085	0.00	1.00	1
시장요인 분석: 기술	4.90	.308	21	0.063	0.00	1.00	1
시장요인 분석: 태도	4.85	.366	21	0.075	0.00	1.00	1
가격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지식	4.85	.366	21	0.075	0.00	1.00	1
가격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기술	4.80	.410	21	0.085	0.00	1.00	1
가격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4.80	.410	30	0.085	0.00	1.00	1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지식	4.80	.410	30	0.085	0.00	1.00	1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기술	4.80	.410	30	0.085	0.00	1.00	1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태도	4.85	.366	30	0.075	0.00	1.00	1
최종평가액 결정: 지식	4.80	.410	30	0.085	0.00	1.00	1
최종평가액 결정: 기술	4.80	.410	30	0.085	0.00	1.00	1
최종평가액 결정: 태도	4.80	.410	30	0.085	0.00	1.00	1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지식	4.65	.587	30	0.126	0.50	0.90	0.9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기술	4.70	.571	30	0.121	0.38	0.93	0.9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태도	4.70	.657	30	0.140	0.00	1.00	0.8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지식	4.80	.410	30	0.085	0.00	1.00	1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기술	4.70	.571	41	0.121	0.38	0.93	0.9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태도	4.70	.657	41	0.140	0.00	1.00	0.8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지식	4.55	.759	41	0.167	0.50	0.90	0.7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기술	4.60	.681	44	0.148	0.50	0.90	0.8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태도	4.70	.657	45	0.140	0.00	1.00	0.8

*p<0.05, **p<0.01

6) 운영기관에 대한 의견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교육과정 운영을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의 결과는 【표 3-33】과 같음. 특히 해당 설문은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찬성 및 반대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한 서술형 응답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응답 값이 찬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기관에 비해 학교를 선호한다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서술형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찬반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제곱)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Fisher검증을 실시함.

【표 3-33】 미술품 시가감정교육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에 대한 찬반 결과값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찬반		총계	X^2 (p)
			찬성	반대		
분야(직무)	현장 종사자	명	6	7	13	2.220 (1.000)
		%	46.2%	53.8%	100.0%	
	교수/연구자	명	2	3	5	
		%	40.0%	60.0%	100.0%	
	공공기관 종사자	명	1	0	1	
		%	100.0%	0.0%	100.0%	
	기타	명	1	0	1	
		%	100.0%	0.0%	100.0%	
국적	한국	명	6	10	16	6.556 (.010)
		%	37.5%	62.5%	100.0%	
	그외	명	4	0	4	
		%	100.0%	0.0%	100.0%	

*p<0.05, **p<0.01

○ 총 20명의 응답자 중 현재 미술품 시가감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포함한 현장 종사자 중 찬성이 46.2%(6명), 반대가 53.8%(7명)으로 나타남. 교수/연구자를 살펴보면, 찬성이 40.0%(2명), 반대가 60.0%(3명)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종사자를 살펴보면, 찬성이 100.0%(1명), 반대가 0.0%(0명)으로 나타남. 기타를 살펴보면, 찬성이 100.0%(1명), 반대가 0.0%(0명)으로 나타남.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2.220이고, 유의확률은 1.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 중 찬성이 37.5%(6명), 반대가 62.5%(10명)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응답자 중 찬성이 100.0%(4명), 반대가 0.0%(0명)으로 나타남.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X^2 는 6.556이고, 유의확률은 0.0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외 응답자들은 AAA나 ISA 자격증 취득 제도에 기반하여 응답하기 때문에 학교를 보조적인 배움의 수단으로서 찬성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찬성 응답자 10명 중, 학교이든 다른 기관이든 운영기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

라는 의견이 40%(4명), 현장 실습 또는 실무경험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이 40%(4명)이었으며,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공신력 있는” 학교 기관의 지위에 대한 신뢰도임.

- 반대 응답자 10명의 반대 이유로는 시가감정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과의 학점 이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50%), 이론보다는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적합하다는 의견(40%), 학교의 과정운영은 자격증 과정을 수반하지만 시가감정의 수요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10%) 등이 있음.

7) 수강자력에 대한 의견

- 수강자력에 대해서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의 75%(15명)³⁹⁾를 차지함. 또한 “고졸 이상”의 응답값이 0%이라는 것은 앞서 교육기관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지정한다고 해도 학사과정에서는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즉 수강자력에 대해서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사와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응답자의 특성(직무, 국적)에 따라서 수강생 자격요건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제곱)을 하였으며,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Fisher검증을 실시함. 결과는 【표 3-34】와 같으며, 유의확률은 각각 0.646, 0.1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39) 해당 수치는 “기타”응답의 수치를 포함한 값으로, “기타” 응답값의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10~15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제시된 보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력을 요구함.

【표 3-34】 수강생 자격 요건 결과값

			수강생 자격요건						총계	X ² (p)
			고졸 이상	학사학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실무경력 1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실무경력 2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기타		
분야 (직무)	현장 종사자	명	0	0	2	1	8	2	13	9.644 (.646)
		%	0.0%	0.0%	15.4%	7.7%	61.5%	15.4%	100.0%	
	교수/연구자	명	0	0	1	0	4	0	5	
		%	0.0%	0.0%	20.0%	0.0%	80.0%	0.0%	100.0%	
	공공기관 종사자	명	0	0	0	0	1	0	1	
		%	0.0%	0.0%	0.0%	0.0%	100.0%	0.0%	100.0%	
	기타	명	0	0	0	0	0	1	1	
		%	0.0%	0.0%	0.0%	0.0%	0.0%	100.0%	100.0%	
국적	한국	명	0	0	1	1	12	2	16	5.665 (.101)
		%	0.0%	0.0%	6.3%	6.3%	75.0%	12.5%	100.0%	
	그외	명	0	0	2	0	1	1	4	
		%	0.0%	0.0%	50.0%	0.0%	25.0%	25.0%	100.0%	

*p<0.05, **p<0.01

(4)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모형 최종안

○ 최종적으로 도출된 시가감정의 정의 및 능력단위는 【표 3-35】와 같음.

【표 3-35】 미술품 시가감정의 직무 및 능력단위의 정의

시가감정의 정의		
감정대상미술품에 대한 감정 업무범위 결정,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대상미술품의 종합분석과 가격정보 분석을 토대로 최종평가액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능력		
	능력단위	능력단위의 정의
1	감정의뢰 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가능여부 및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능력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현장에서 미술품의 물적동일성 및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요인, 일반요인, 시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4	가격 및 시장 정보 조사, 분석, 가격결정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적합한 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수집된 가격자료의 신뢰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를 통해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산출근거와 결정의견을 작성하는 능력
6	평가서 제공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제공하고 원본 및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능력

【표 3-36】 미술품 시가감정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 요소 최종안

	능력단위	능력단위 요소
1	감정의뢰 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감정평가계획 수립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관련 자료 수집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대상미술품의 특수요인 분석
		대상미술품의 일반요인 분석
		시장요인 분석
4	가격 및 시장 정보 조사, 분석, 가격결정	가격 및 시장 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 상황 최종 검토
		최종평가액 결정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6	평가서 제공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표 3-37】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역량 최종안

순 번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1	감정 의뢰 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 사항을 바탕으로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경제적 사항을 바탕으로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에 대한 이해 · <u>미술시장에 대한 이해*</u> · 감정평가이론 · 미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의뢰 목적 확인 및 이해 능력 ·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 · 법률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조사태도 · <u>이해상충방지와 보안유지를 비롯한 감정평가의 윤리성*</u>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의뢰의 목적과 성격을 파악하고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의 소요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보수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추정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 관련 지식 · 감정평가의 업무범위 확정 · 감정평가 수수료 규정 및 대상미술품의 가격체계에 대한 이해 · <u>감정평가 업무량에 따른 일정 파악과 비용에 관한 지식*</u> · 미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경제적 필요사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조사태도 · <u>이해상충방지와 보안유지를 비롯한 감정평가의 윤리성*</u>
		감정평가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의 특성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감정평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방법에 따라 세부 평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지식 ·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지식 · 평가목적에 대한 지식 · 미술품 감정 관련 규정 및 법령 이해 <p>【기술】</p>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능력 · 평가 대상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 조사기간,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사계획수립 능력 ·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술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조사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미술품의 작가, 종류, 매체를 확인할 수 있다. - 의뢰미술품의 물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에 관한 전문지식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 · 대상미술품의 물적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대상미술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의뢰서류와 비교검토하는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조사 태도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 작품 보존·관리에 관한 지식 · 조사대상의 가치 및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전문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감식안 · 조사 목적·내용에 부합하는 분석능력 · 대상미술품의 보존·관리상태를 분석하여 <u>상태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u> · 조사활동 및 과학적 분석을 위한 각종 기기 조작 능력 · 미술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 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조사 태도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원만한 대인관계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안다. - 대상미술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다. -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시장 및 현황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소장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적절한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필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미술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원만한 대인관계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시장 및 현황에 대한 전문지식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소장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적절한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필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미술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능력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원만한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대상미술품의 특수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에 대한 특수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다. - 대상미술품의 <u>특수요인</u>이 갖는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 감정대상 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 · 대상미술품의 보존·관리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미술품의 특성 파악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소장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u>대상미술품만의 독특한 가치와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u>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 태도 · 논리적인 태도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대상미술품의 일반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에 대한 일반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할 수 있다. - 대상미술품의 기법, 장르, 매체에 따른 특성 및 가치를 정리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전문지식 · 감정대상 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대상 미술품의 화풍, 경향, 사조에 대한 전문지식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미술품의 일반적 요인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미술품의 특성 파악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소장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대상 미술품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분석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시장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상미술품의 가치형성요인을 알고 가격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u> - 미술품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알고 분석할 수 있다. - 미술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알고 분석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대상미술품에 대한 전문지식*</u> · 금융 및 경제적 지식 ·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이해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분석 능력 · 가격형성요소 분석 능력 ·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분석 능력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4	가격 및 시장 정보 조사, 분석,	가격 및 시장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미술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u> - 감정대상미술품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격결정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과 미술시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전문지식* · 감정평가 목적 및 분류에 대한 지식 · 가치이론에 대한 지식 · 가격정보의 정리·가공 체계와 방법 · 가격정보 제공의 유형,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지식 · 감정평가의 실무기준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에 대한 판별 능력 · 감정평가의 목적 및 분류에 대한 이해 능력 · 대상미술품의 가치형성 요인 분석 능력 · 거래사례 중 비교가능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사례와 대상미술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전산 자료 처리 능력 · 유형별 평가방식 적용에 대한 분석 능력 · 감정평가가격 체계화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법령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균형잡힌 평가를 하는 자세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과 비교성 있는 거래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 대상미술품과 거래사례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 가격자료의 신뢰성에 따른 감정평가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자료 수집방법 ·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미술품 및 비교대상미술품 자료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사례 중 비교성이 있는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사례와 대상미술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가격자료의 신뢰성에 따른 감정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 가격자료 검토를 위한 분석력과 판단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조사 태도
		최종평가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이론 및 방법 ·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가액 산출된 감정평가액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가치를 결정하고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해석하는 능력 · 최종 감정평가액을 도출해 내는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합리적인 판단력 · 윤리성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적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목적, 조건에 따라 임의적 기재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감정 관련 법령 · 감정평가서 종류와 형식에 관한 지식 · 감정평가 업무량에 따른 일정 파악과 비용에 관한 지식 · 필수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서 형식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난이도에 따른 감정평가서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전산정보 처리능력 및 인터넷 활용 능력 · 형식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태도 · 인터넷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습득하려는 태도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의 목적, 수준, 정도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사자료,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 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지식 · 구체적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지식 · 평가액 협의 및 감수, 작성 후 확인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현장조사와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산출근거와 결정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태도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6	평가서 제공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서의 원본 및 관련 서류를 보존, 관리할 수 있다. - 보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원본 및 관련 서류의 폐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자료의 폐기 여부를 정할 수 있다.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서의 보존 · 감정평가의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 <u>전산처리 및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지식*</u> · 감정평가서의 분류기준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서의 보존능력 ·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을 알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전산처리 능력 및 인터넷 활용능력 · 감정평가서의 분류기준에 따른 분류 능력 · 전산정보 검색 및 처리능력 · 수요자 요구 대응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필수 비밀유지 조항을 지키려는 태도 · 인터넷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습득하려는 태도

※ 초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밑줄로 구분

2. 시가감정 전문인력 주요 역량 도출

(1) 시가감정 전문인력 주요 역량(안) 도출

1) 주요 역량 도출 방법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수립한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직무역량의 능력수준과 수행준거(지식, 기술, 태도)를 해체하여 유사한 속성끼리 두 단계를 거쳐서 단순화·그룹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세부역량과 주요 역량을 도출함.

【그림 3-7】 주요 역량 도출 방법의 예시

수행준거		세부역량으로 단순화		상위역량으로 그룹화
[지식] 대상 미술품의 화풍, 경향, 사조에 대한 전문지식		미술사적 지식		미술 전문역량
[지식] 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작가에 대한 이해		미술 전문역량
[지식] 미술사적 전문지식	→	미술사적 지식	→	미술 전문역량
[지식]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장르, 재료, 기법에 대한 이해		미술 전문역량
[기술] 대상미술품의 물적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미술품 상태 확인 역량		미술 전문역량

2)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주요 역량(안)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주요 역량은 총 6개로 추출하였으며, ① 미술 전문역량, ② 미술시장 전문역량, ③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④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⑤ 법과 직업윤리 역량, ⑥ 커뮤니케이션 역량으로 구분함.

- 연구진의 내부 협의를 거쳐 도출한 주요 역량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미술 전문역량:**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역사적 맥락, 미술 장르 및 재료에 따른 속성과 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미술시장 전문역량:**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시장 동향, 가치의 흐름, 경매 및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능력

-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 다양한 감정평가기법과 이론을 숙지하고 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감정품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 **법과 직업윤리 역량**: 법과 윤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법적 요구사항과 감정가의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 **커뮤니케이션 역량**: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 각 역량에 대해서는 전문가 2차 델파이 조사 및 AHP 분석을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며, 교육공학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증함.

(2) 델파이 조사결과

○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균, 표준편차 CV(Coefficient variation), 수렴도, 합의도 그리고 CVR(Content validity ratio)를 아래 【표 3-38】과 같이 구함.

【표 3-38】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주요 역량에 대한 타당성 검증 결과

	기술통계			안정도		신뢰도/타당도	
	평균	표준편차	순위	CV	수렴도	합의도	CVR
미술 전문역량	4.80	.447	2	0.093	0.25	0.90	1
미술시장 전문역량	5.00	.000	1	0.000	0.00	1.00	1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4.40	.548	4	0.125	0.50	0.75	1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4.40	.894	4	0.203	0.75	0.70	1
법과 직업윤리 역량	4.80	.447	2	0.093	0.25	0.90	1
커뮤니케이션 역량	4.00	1.414	6	0.354	1.20	0.64	0.6

- ‘미술 전문역량’ 도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447, ‘미술시장 전문역량’ 도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균이 5.00, 표준편차가 .000, ‘자료조사 및수집 역량’ 도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균이 4.40, 표준편차가 .548,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도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균이 4.40, 표준편차가 .894, ‘법과 직업윤리 역량’ 도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균이 4.80, 표준편차가 .447, ‘커뮤니케이션 역량’ 도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균이 4.00, 표준편차가 1.414으로 나타남.

- 변동계수(CV)를 살펴보면, 0.5 미만이므로 전문가간의 의견 합의가 있다고 판단이 됨. 수렴도가 0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0.5 이하이면 의견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 합의도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보는데 기준치 0.75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봄. 내용타당도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는 그 문항에 대해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가 집단이 5명 정도일 때 1 정도이면 양호한 문항으로 판단함.
- 안정도와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타당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안에 감정평가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과 미술계 내의 네트워크 및 대인관계를 관리하는 역량이 묶여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교육과정 개발 시 수강생의 보유역량에 따라 선택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두 요소를 각각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3)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역량 최종안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역량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하며, 해당 주요역량 및 세부역량은 연구진 내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확정함.

【표 3-39】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주요 역량 및 세부 역량

역량 영역	정의	세부 역량
미술 전문역량	감정을 위한 한국미술사, 작가론 연구,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사적 지식 - 작가에 대한 이해 - 미술 일반에 대한 이해 - 장르, 재료, 기법에 대한 이해 - 미술품 상태 확인 역량 - 미술품 복원 및 과학적 조사 지식 역량 - 감식안
미술시장 전문역량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시장 동향, 가치의 흐름, 경매 및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 역량 - 미술시장 트렌드 분석역량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다양한 감정평가기법과 이론을 숙지하고 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 미술시장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감정품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자료분석 및 평가 역량 - 미술시장 자료분석 및 평가 역량
법과 직업윤리 역량	법과 윤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법적 요구사항과 감정가의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도덕적 역량 - 관련법과 제도 이해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작성 역량 -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역량

3. 시가감정 전문인력 주요 역량 상대적 중요도 도출

- 미술품 시가감정의 주요 역량을 이후 교육모델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량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역량별로 중요한 정도에 따라 교육의 강도, 수준 및 시수에 반영하여 미술품 시가감정 역량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1) AHP 분석 결과

- AHP는 설문지의 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일관성 지수는 【표 3-40】과 같음.
- 일관성 비율은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임의 지수(RI: Random Index)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0.1~0.2 이하의 값이 나와야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함.
- 설문지에 참여한 5명 모두 일관성 비율이 각 0.05~0.18 사이에 분포하여 설문지의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5명에 대한 가중치는 기하평균을 통해 합산하여 전체 가중치를 산정함.

【표 3-40】 AHP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	λ -max	CI	C.Ratio
미술품 시가감정 주요 역량	6.08132	0.01626	0.01312

- AHP의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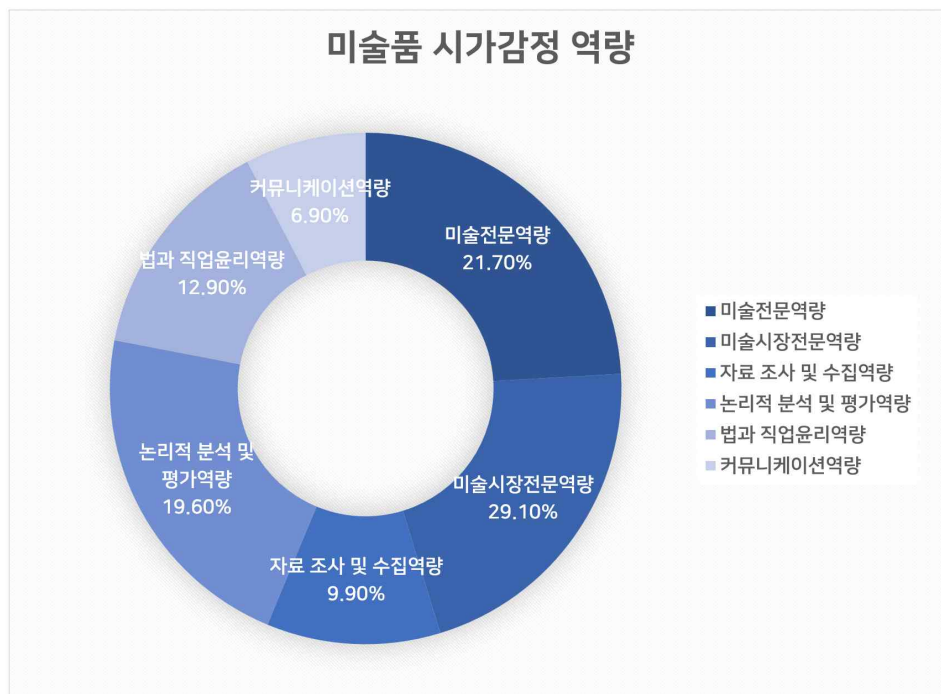
【표 3-41】 주요 역량별 중요도 분석 결과

항목	세부항목	중요도(%)	항목내 순위
미술품 시가감정 역량	미술 전문역량	0.21681	2
	미술시장 전문역량	0.29074	1
	자료조사 및수집 역량	0.09854	5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0.19620	3
	법과 직업윤리 역량	0.12897	4
	커뮤니케이션 역량	0.06874	6

(2) 시가감정 교육과정의 주요 역량의 중요도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의 6가지 주요 역량 중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 '미술시장 전문역량'(29.1%)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어서 '미술 전문역량'(21.7%),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19.6%), '법과 직업윤리 역량'(12.9%),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9.9%)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음.

【그림 3-8】 미술품 시가감정 주요 역량별 교육과정의 중요도



-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본 역량은 미술품 시가감정사가 갖춰야 할 역량의 중요도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설계 및 구성할 때 해당 역량이 얼마나 반영되어야 하는가의 중요도이며,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전원이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감정 교육과정의 기대 수강생 역시 문화예술 관련 경력자가 많을 것으로 상정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역량을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미술시장 전문역량'이 '미술 전문역량'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에 대해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제4장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모델 설계

제1절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231
1. 시가감정의 중요성 대두와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231
2. 교육과정의 개발방향	232
3. 교육과정의 체계	232
4. 역량기반 교육과정 상세	239
제2절 교육과정의 실행방안	243
1. 교육과정의 운영	243
2. 페르소나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245
3. 교육과정 핵심 성공 요인으로서의 강사진 운영 방안	250
제3절 교육과정의 전환 및 협력적 연계 방안	253
1.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교육과정의 전환	253
2. 시가감정사 양성 교육과정의 기대효과 및 의의	253

제1절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1. 시가감정의 중요성 대두와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 미술품이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미술품 시가감정의 수요 증가

- 미술품 가격 상승 및 고가의 미술품 등장으로 미술품 자산가치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됨.
- 사망, 이혼, 파산, 재해(4D) 등의 경우, 미술품의 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함.
- 미술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산가치평가를 위해 시가감정의 전문성이 요구됨.

○ 미술품 물납제의 도입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 부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의 미술품 물납제 도입 이후 2024년 10월 최초로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신청이 허가됨⁴⁰⁾. 이는 미술품이 자산으로 공인된 예시로,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
- 미술품 물납제의 경우, 보존상태와 활용가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가 반드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미술품 물납제의 경우 정책의 취지와 성격상 가격이 높은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를 갈음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미술품 시가감정의 중요성이 증대됨.
- 부정확한 시가감정은 미술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국민의 경제적 자산에 대한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시가감정이 필요함.

○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법원, 국세청, 금융기관 등 미술시장 이외의 영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확보와 그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시가감정은 문화재 반환 또는 교환시 미술품의 적절한 가치 산정, 미술은행 등 국가 보유 컬렉션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 국가의 이익 및 국민의 질 높은 문화향유를 위한 공공적 성격도 있으므로, 국익 자원으로서 고급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40) 2024년 1월 미술품 상속세 물납신청은 총 10점의 미술품 중 4건이 10월 물납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이 네 건에는 경매 추정가가 11억6천만원~15억원에 달하는 정판즈의 작품 두 점과, 한지 작가로 유명한 전광영의 500호 이상의 대작, 한국 작가 이만익의 1990년대 초기 작품이 포함되어 있음(유승목, 2024).

2. 교육과정의 개발방향

-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의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양성
- 새로운 직업군 양성을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에 부합하게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시가감정사 교육과정 수립
- 현 시가감정 체계를 반영한 순차적 단계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과정 설계의 목적은 미술품의 가치를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해 한국미술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
- 미술품 시가감정 영역의 미술 서비스 산업으로 토대 구축에 일조

3. 교육과정의 체계

- 본 연구는 미술품 시가감정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역량 단위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함.

(1) 교육과정의 수준별 단계

- 교육단계 구성 및 현장과의 연계
 - 연간 초급, 중급, 고급, 심화의 각 1년씩 4단계로 설정된 교육을 수료 후, 2년간 현장의 민간협회·기관의 준감정위원 혹은 준감정사 제도를 활용한 연수생을 진행하는 것으로 총 6년의 과정을 설계함.
 - 앞서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할 수 없는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 현장경험이 중요한 본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정을 실제로 행하는 민간협회 혹은 기관에서의 연수생 과정을 통해 교육과 현장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육 이수자가 현장에서 실제 미술품 시가감정사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함.

○ 교육단계별 시수

- 미국감정사협회는 120시간의 교육수료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현재 감정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석사과정의 24학점, 360시간을 수료 기준으로 함.
- 미국감정사협회의 경우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나,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국내 감정 현황상, 국내의 시가감정사는 미술품 진위감정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미국감정사협회의 전체 교육 시수를 2배로 하고, 초급에서 심화에 이르기까지 총 4년 과정을 통해 수업 240시간+실습 90시간(총 330시간)으로 설정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함.
- 각 단계별 교육시간을 60시간으로 설계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에서 강조되었던 것과 같이 이론과 실습이 겸비되어야 하는 만큼 고급·심화 과정으로 갈수록 필드트립을 비롯한 현장 실습과 워크숍의 비중을 높임.
- 교육단계 및 시수에 관해서는 상대적 평가를 통해 교육생을 선별하여 교육 수료시마다 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로 승급시킨다면, 설계된 교육과정의 비교적 높은 엔트리 단계를 고려할 때 교육시수가 적합한 것으로 전문가 FGI를 통해 확인함.

【표 4-1】 교육단계별 최소 교육시수

	초급 ⁴¹⁾	중급	고급	심화	총 시수
수업시간	60	60	60	60	240
실습시간	9	21	27	33	90

(2) 교육단계별 수강자격 요건

○ 교육과정의 엔트리(entry) 단계⁴²⁾

- 전문가들은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 및 복합적인 직무역량을 요하는 만큼, 교육의 엔트리 단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함.
-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관련 학사 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⁴³⁾이 교육의 엔트리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0명 중 15명(75%)이었으나, “관련 학사 졸업 후 1년 이상”으로 대답한 전문가도 3명(15%)⁴⁴⁾ 있어서 해당 응답에 대한 의견을 아예 반영하지 않기는 어려

41) 이론시간 외 실습시간은 예시로 운영상황에 따라 시수는 변경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급·심화로 진행될수록 실습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함.

42) 본 연구에서 엔트리 단계란, 해당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수강자격 요건을 의미하며,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수강자격’보다 ‘엔트리’라는 용어를 사용함.

43) “관련 학사 졸업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연구진이 제시한 보기 중 가장 높은 실무경력을 요하는 선택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한 수강자격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음. 실제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참여자 중 2인은 졸업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서술함.

44) 해당 응답자 중 2명은 국외 전문가로 국내와 국외의 미술품 시가감정의 실정이 다를 것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우며, 그간 민간협회에서 진행해 온 시가감정교육의 엔트리 단계가 운영기관별 편차가 컸던 점도 고려하여, 초급과정 교육 엔트리 단계는 “관련 학과 졸업 후 3년의 현장 경력⁴⁵⁾”을 가진 자로 설정함.

-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현장 경력 5년”이 있는 지원자의 엔트리 단계를 중급단계로 설정하였음. 더불어, 그간 진행되어 온 민간협회의 시가감정 아카데미의 단계별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들의 엔트리 단계로 설정함. 이를 통해 기존의 시가감정 관련 아카데미 수료자들을 흡수하여 과거 진행된 교육 사업들과의 연계선상에서 한 단계 나아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정으로 입지를 확고히 함.
- 중급과정 및 고급과정의 경우, 수강정원 중 소수의 인원에 대하여는 추천제⁴⁶⁾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경력을 갖추어 해당 과정을 들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수용하여 교육생의 질적담보를 도모함.
-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수료하지 않아도, 필드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미술계 전문인으로서 그 경력을 인정받은 자는 고급과정부터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음.
- 위와 같이 급수별 엔트리 단계를 열어두어 현장 경력자들의 단계별 유입을 촉진하나,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고급과정 수료자만이 진입 가능한 과정으로 설정하여, 고급과정과 심화과정 최소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강하여야만 최종 단계인 연수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육 단계 및 엔트리 단계의 설정은 전문가 FGI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해당 FGI에서 (1) 각 단계의 교육생모집은 물론, 다음 단계로의 승급에서 상대적 평가를 통해 교육 대상자들을 선별해 나갈 것, (2) 시행 초기 연도에 초급과 중급과정을 동시에 개설하여 그간 교육에서 배출된 인력을 중급에서 흡수할 것을 강조함.
- 전문가 인터뷰 및 FGI에서 현장실습 및 연수생 과정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감정교육과정의 목적이 많은 인원의 감정사를 양성하기보다는 소수의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학교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정을 행하고 있는 민간기관·협회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권고됨.

45) 여기서 현장경력은 감정 경력이 아니라 감정과 관련된 미술계 또는 감정평가 실무경력을 의미함.

46) 추천인은 시가감정사로 제한함.

【표 4-2】교육단계 및 단계별 엔트리 단계 설정

초급	중급	고급	심화	연수생 2년
관련학과 학사 및 현장경력3년	관련학과 학사 및 현장경력 5년	그에 준하는 10년 이상 경력의 미술계 전문인	고급과정 수료자	심화과정 수료자
혹은 그에 준하는 5년의 현장경력	혹은 그에 준하는 7년의 현장경력			
	초급수료자	중급 수료자		

※ 관련학과: 회화과, 조소과, 조형예술과, 미술이론과, 미술사학과, 예술경영학과 등

※ 현장경력: 미술관, 미술품 경매회사, 미술관련 문화재단 및 기관, 갤러리, 감정평가사 등

(3) 교과목 구성

○ 도출된 주요 역량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성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미술품 시가감정사에게 필요한 주요 역량의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상대적 중요도를 델파이 2차 조사를 통해 도출함.

【표 4-3】주요 역량의 교육과정에서 상대적 중요도

주요 역량	중요도
미술시장 전문역량	29.1%
미술 전문역량	21.7%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19.6%
법과 직업윤리 역량	12.9%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9.9%
커뮤니케이션 역량	6.9%

- 도출된 6개의 주요 역량 중 '미술시장 전문역량'이 29.1%로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미술 전문역량'이 21.7%로 2위,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이 19.6%로 3위, '법과 직업윤리 역량'이 12.9%로 4위,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이 9.9%로 5위,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6.9%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량으로 답함. 위 상대적 중요도는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추출 후 전문가 4인의 FGI에서 검증됨.
- FGI의 전문가들은 도출된 주요 역량의 상대적 중요도에 동의하며, 미술시장에서의 전문역량이 미술품 시가감정사로서의 활동에 있어 가장 주요한 역량임을 강조함. 또한 미술 전문역량 또한 기반이 되는 주요 역량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사가 단순히 데이터의 조사·분석을

통해 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미술사와 작가,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재차 강조함.

○ 교과목의 추출 및 구성

- 최근 5년간 국내외 총 27개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중, 진위감정에 치우치거나 고미술에 치우친 교과목을 제한 428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분류 및 통합과정을 진행함.
- 연구진 논의를 통해 교과목군과 교과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중요도를 판단하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함. 교과목명은 예시로 운영과정에서 변경 혹은 세분화될 수 있음.

【표 4-4】 인력양성을 위한 교과목군과 교과목 예시

교과목군	교과목(예시)
미술일반	한국근현대미술사(필수), 서양현대미술사(필수) 서양미술사(선택), 동양미술사(선택), 한국미술사(선택) 도자사(선택) 등
	작가론연구(필수) 작가 스튜디오 방문(선택)
	미술관 박물관, 제도기관, 비평, 큐레이터 등(필수)
작품의 재료 / 작품관리	서양화, 한국화, 조각, 영상, 사진, 도자 등 장르별 특징,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해(필수), 유화, 수채화, 파스텔, 먹, 채색(선택)
	상태조사 방법론(필수) / 미술작품 상태조사 실습(필수)
	미술품 복원과 감정, 과학적 분석(필수)
필드트립 I	전시회 방문, 작가 스튜디오 방문, 작품실견(필수)
미술시장 일반	미술시장의 역사, 1차시장과 2차시장, 미술시장의 이해(필수)
	시장 구조와 가격형성, 미술시장의 역할과 가격 조건(필수)
미술시장의 특성	변화하는 미술시장(필수)
	금융 시장에서 예술의 역할 변화(선택), 미술과 자본(필수)
필드트립 II	아트페어 및 갤러리 시장답사(필수), 전문가 네트워킹(필수)
감정학 일반	감정개론(필수) 진위감정(필수) 시가감정(필수) 국내외미술품시가감정현황(필수)
	케이스별 연구: 손상미술품, 공공미술품 등(필수)
시가감정 방법론 및 평가실무	미술품 가격 감정의 목적과 가격 결정 요소(필수), 시가평가 기준 및 시가평가 방법 실무(필수)
	거래사례비교법 실무, 케이스 스터디(필수)
자료 조사, 데이터수집	작품의 조사방법론, 작품의 전시력, 소장력 미술품 자료 분석(필수)
	미술품 가격지수, 시가감정 분석론, 방법론(필수)/ 감정의 조사방법론(필수)
감정인의 윤리	감정인의 윤리 및 법적 책임(필수),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관련법과 제도	미술품 감정과 법(필수)/미술품 분쟁사례(선택)
	미술품 평가에 적용되는 세법 학습(선택)

전문가 네트워킹	전문가 토론회 등(필수)
보고서작성	국내 실정에 맞는 시가감정 평가서 양식 및 내용 이해(필수) 평가서 작성 실습하기(필수)

○ 교육단계별 교과목의 구성

- 전문가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4단계 교육 단계별 교과목의 구성에 대한 중요도를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통해 확인함.

【표 4-5】 4단계 교육 단계별 교과목의 중요도 (4점 이상 음영)

교과목군	교과목(예시)	초급	중급	고급	심화
미술일반	한국근현대미술사(필수) 서양현대미술사(필수) 서양미술사(선택), 동양미술사(선택), 한국미술사(선택) 도자사(선택)	5	4	2	1.5
	작가론연구(필수) 작가 스튜디오 방문(선택)	2	3	4.25	4.5
	미술관 박물관론 (선택), 전시기획 및 미술비평 (선택)	4.25	3.75	2.75	2.25
작품의 재료 / 작품관리	서양화, 한국화, 조각, 영상, 사진, 도자 등 장르별 특징(필수)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해(필수)	5	4.25	2.75	1.75
	상태조사 방법론 (필수) 미술작품 상태조사 실습(필수)	2.5	3.5	4.25	3.25
	미술품 복원과 감정, 과학적 분석(필수)	1.75	2.75	4.5	4.25
필드트립 I	전시회 방문, 작가 스튜디오 방문, 작품실견(필수)	3.5	4.5	4.75	4.5
미술시장 일반	미술시장의 역사, 1차시장과 2차시장, 미술시장의 이해 (필수)	4.25	3.75	3.25	2.25
	시장 구조와 가격형성, 미술시장의 역할과 가격 조건(필수)	3.25	3.75	3.75	3.75
미술시장 의 특성	변화하는 미술시장(필수)	3.25	3.5	3.25	3
	금융 시장에서 예술의 역할 변화(필수), 미술과 자본 (선택)	2.5	3.75	2.75	3
필드트립 II	아트페어 및 갤러리 시장답사(필수)	4.5	4.5	4	3
감정학 일반	감정개론(필수) 진위감정(필수) 시가감정(필수)국내외미술품시가감정현황(필수)	4	4	2	2.5
	케이스별 연구: 신진작가/손상미술품/공공미술품(선택)	2.5	3	4	3.5
시가감정 방법론 및 평가실무	미술품 가격 감정의 목적과 가격 결정 요소(필수) 시가평가기준및시가평가방법실무(필수)	2.5	3.25	4	4
	거래사례비교법 실무, 케이스 스터디 (필수)	2.25	2.75	3.75	4.25
자료 조사, 데이터수	작품의 조사방법론, 작품의 전시력, 소장력 미술품 자료 분석(필수)	3.75	4.75	2.75	2.25
	미술품 가격지수, 시가감정 분석론, 방법론(필수)	2	3	5	3

집	감정의 조사방법론(필수)				
감정인의 윤리	감정인의 윤리 및 법적 책임(필수)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3.25	4	4.5	4
관련법과 제도	미술품 감정과 법(필수)/미술품 분쟁사례(선택)	2.25	3.75	4.25	2.75
	미술품 평가에 적용되는 세법 학습(선택)	2.5	3.5	4.75	3.75
전문가 네트워킹	전문가 토론회 등(필수)	2.25	3.25	4.5	4.75
보고서작성	국내 실정에 맞는 시가감정 평가서 양식 및 내용 이해(필수) 평가서 작성 실습하기(필수)	2.25	3.5	4.75	4.75

- 리커트 척도는 1930년대 초 사회심리학자 렌시스 리커트와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방법론으로 특정 대상, 개념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감정, 신념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낮은 점수는 해당 문항에 대해 중요도가 낮음을 의미하고, 높은 점수는 긍정적이거나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리커트 5점 척도에서 '4.0 이상'은 '높은 긍정적 평가 또는 중요도 높음'을 의미하므로 도출된 결과에서 4점 이상인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배치함.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최종 단계별 교과목 편성에 대한 기본 틀의 제시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과목은 실제 과목을 담당할 강사의 의견 및 운영기관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및 조정하도록 함.

【표 4-6】 리커트 척도 반영 단계별 교과목명 예시

과정 별 필수/ 선택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심화과정
필수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근현대미술사* - 서양현대미술사* - 서양화, 한국화, 조각, 영상, 사진, 도자 등 장르별 특징* -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해* - 미술시장의 역사, 1차시장과 2차시장, 미술시장의 이해 - 아트페어 및 갤러리 시장답사 - 국내외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 감정개론 - 진위감정 - 시가감정 - 국내외 미술품 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근현대미술사 - 서양화, 한국화, 조각, 영상, 사진, 도자 등 장르별 특징 -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해 - 전시회 방문, 작품실견 - 아트페어 및 갤러리 시장답사 - 국내외 미술품 시가감정 현황 - 작품의 조사방법론, 작품의 전시력, 소장력 미술품 자료 분석 - 감정개론 - 진위감정 - 시가감정 - 국내외 미술품 시가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가격지수, 시가 감정 분석론방법론* - 감정의 조사방법론* - 작가론 연구 - 상태조사 방법론 - 미술작품 상태조사 실습 - 미술품 복원과 감정, 과학적 분석 - 전시회 방문, 작가 스튜디오 방문, 작품실견 - 미술품 가격 감정의 목적과 가격 결정 요소 - 시가평가기준 및 시가 평가방법 실무 - 미술품 감정과 법 - 전문가 토론회 등 - 감정평가서 양식 및 내용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론연구 - 작가 스튜디오 방문 (이동) - 미술품 복원과 감정, 과학적 분석 - 전시회 방문, 작가 스튜디오 방문, 작품실견 - 미술품 가격 감정의 목적과 가격 결정 요소 - 시가평가기준 및 시가 평가방법 실무 - 거래사례비교법 실무, 케이스 스터디 - 전문가 토론회 - 감정평가서 양식 및 내용의 이해 - 감정평가서 작성 실습

	감정현황(필수)	현황	- 감정평가서 작성실습 - 아트페어 및 갤러리 시 장답사	
공통 과목		- 감정인의 윤리 및 법적 책임,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선택 과목	- 서양미술사 - 동양미술사 - 한국미술사 - 도자사 - 전시기획 및 미술비평 - 미술관 박물관론	- 서양미술사 - 동양미술사 - 한국미술사 - 도자사 - 작가 스튜디오 방문 등	- 미술품 분쟁사례 - 미술품 평가에 적용되는 세법 학습 - 작가 스튜디오 방문 - 케이스별 연구: 신진작가/손상미술품/ 공공미술품 등	- 장르별 강좌 - 작가별 강좌 - 케이스 스터디 등

※ 별표(*)는 리커트 척도 5점을 나타냄.

4. 역량기반 교육과정 상세

○ 최종 역량별 교육과정 설계 및 검토 기준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역량과 세부역량, 그리고 도출된 교과목군과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설계된 역량별 모델링 교육과정은 【표 4-7】과 같음.
- 역량 모델링 교육과정은 전문가 FGI를 거쳐 그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의 기준은 전문성, 교과 구성의 적절성, 체계성, 역량 중심성, 지속 실행 가능성에 근거함.
 - 전문성: 본 과정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가?
 - 교과구성: 교과목구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체계성: 단계별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역량 중심성: 역량에 기반하여 교과목 구성이 이루어졌는가?
 - 지속 실행 가능성 : 실제로 실행 가능하여 지속적인 교육과정인가?

【표 4-7】역량별 양성과정 커리큘럼 체계

주요역량군	세부역량	교과목군	교과목(예시)
미술 전문역량	미술사적 지식	미술일반	한국근현대미술사 (필수) 서양현대미술사(필수) 한국미술사 (선택) 서양미술사 (선택) 중국미술사 (선택) 일본미술사 (선택) 도자사(선택)
	작가에 대한 이해		한국작가론 연구 (필수)

			서양현대작가론 연구 (필수) 작가 스튜디오 방문 근현대(선택) 작가 스튜디오 방문 신진작가(선택)
	미술 일반에 대한 이해		예술 공공기관과 미술품 -미술관, 박물관 (선택) 예술 사립기관과 미술품 -갤러리, 옥션 (선택) 비평론 연구(선택) 전시론 연구(선택)
	장르, 재료 기법에 대한 이해	작품의 재료 / 작품관리	서양화 기법과 재료 탐구 (필수) 한국화 기법과 재료 탐구 (필수) 조각, 도자 기법과 재료 탐구 (선택) 사진, 영상 기법과 재료 탐구 (선택)
	미술품 상태 확인 역량		상태조사 방법론 (필수) 미술작품 상태조사 실습(필수)
	미술품 복원 및 과학적 조사 지식 역량		미술품 복원과 과학적 분석 (필수), 미술품 복원 실습 (선택)
	감식안	필드트립 I	근현대 전시회 방문(필수) 신진작가 작품 전시회 방문(필수) 옥션, 미술재단 현장 방문(선택)
미술시장 전문역량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 역량	미술시장 일반	미술시장의 역사(필수) 1차 ,2차 미술시장의 이해(필수)
			시장 구조와 가격형성(필수) 미술시장의 역할과 가격 조건(선택)
	미술시장트렌드 분석역량	미술시장의 특성	21세기- 변화하는 미술시장(필수) 미술과 자본의 흐름(필수) 금융 시장과 예술의 역할 변화(선택)
		필드트립 II	아트페어 및 갤러리 시장답사(필수)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감정의 이해	감정학 일반	감정개론(필수) 진위감정과 시가감정(필수) 국내 미술품시가감정현황(선택) 국외 미술품시가감정현황(선택)
	케이스 스터디 (미술품 자료분석 및 평가 역량)		케이스별 연구: 손상미술품(필수), 케이스별 연구: 공공미술품 (필수), 케이스별 연구: 개인재산미술품 (필수)
	시가감정의 이해	시가감정 방법론 및 평가실무	미술품 가격 감정의 목적(필수) 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 (필수) 시가평가 기준 및 시가평가 방법 실무(필수)

	케이스 스터디 (미술품 자료분석 및 평가 역량)		거래사례비교법 실무(필수), 한국 근현대미술 시가감정 케이스 스터디 (필수) 서양 현대미술 시가감정 케이스 스터디 (필수)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미술품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자료 조사, 데이터 수집	작품의 조사방법론(필수) 작품의 전시력, 소장력 자료 분석(필수)
	미술시장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시가감정 거래사례 자료 분석 (필수) 시가감정의 조사 방법론 (필수) 한국 근현대미술품 가격지수 조사 (선택) 서양 현대미술품 가격지수 조사 (선택)
법과 직업윤리 역량	윤리적, 도덕적 역량	감정인의 윤리	감정인의 윤리 및 법적 책임(필수),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미국 USPAP)(필수)
	관련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역량	관련법과 제도	미술품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필수) 미술품 분쟁사와 판례조사 (선택) 미술품 법률 자문가 세미나 (선택)
			미술품 평가에 적용되는 세법 학습 (선택) 미술품 기부와 상속 관련 법률 세미나 (선택)
커뮤니케이 션 역량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역량	전문가 네트워킹	미술품 감정 전문가 토론회(필수)
	보고서 작성 역량	보고서작성	국내 실정에 맞는 시가감정 평가서 양식 및 내용 학습 (필수) 평가서 작성 실습하기(필수)

○ FGI를 통한 적절성 검토 결과

- FGI 결과, 본 교육과정은 체계적·중장기적으로 그간의 단기적·간헐적 미술품시가감정 교육 과정의 한계를 보완하며, 본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사로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도출된 주요역량군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동의하며, 특히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정량적 시가감정과 차별화된 미적전문역량에 기반한 정성적 시가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양성 영역에서 처음으로 역량기반으로 개발된 유의미한 커리큘럼으로 평가하며,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군의 추출도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 많은 인원을 양성하기보다는 소수의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만큼 학교에서의 양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감정을 행하고 있는 민간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며, 현장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연수생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함.
- 교육단계 및 시수에 관해서는 상대적 평가를 통해 교육생을 선별하여 교육 수료시마다 평가

를 통해 다음 단계로 승급시킨다면, 설계된 교육과정의 비교적 높은 엔트리 단계를 고려할 때 교육시수가 적합한 것으로 동의함.

- 교육과정의 엔트리가 높은 만큼, 교육생 선발 과정에 있어 현장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한 교육생의 유입은 제안함. 이는 미술품시가감정 시장의 형성기에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사료됨.

○ 교육과정 운영의 중장기적 지원의 필요

- 전문가 FGI 결과, 학교나 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서 중장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미술품 시가감정시장의 규모가 한정적인 만큼 교육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의 확보, 전문성을 갖춘 운영시스템을 갖추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본 교육과정이 자리 잡을 때까지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제2절 교육과정의 실행 방안



1. 교육과정의 운영

(1) 교육시간의 구성

○ 교육대상을 고려한 야간 및 주말 수업 배치

- 교육대상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교육생들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하며, 교육시간은 주중 저녁 시간 또는 주말로 배치하여 진행함.

○ 회당 3시간으로 진행 및 별도의 실습 시행

- 과정별 연간 60시간의 이론교육을 3시간 단위, 20회로 나누어 진행하며, 단계별 실습 및 필드트립 시간이 【표4-1】과 같이 추가되어야 함.

(2) 단계별 교육 운영

○ 초급, 중급, 고급, 심화의 4 단계로 교육

-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심화의 4단계로 운영하며 각 단계별 소요시간을 일년 과정으로 설계함.
- 초급은 필수 과목 위주로 설계하여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기본적인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도록 하며 심화로 갈수록 전문화 및 개별화된 학습을 배치함.

○ 연간 2 개 과정의 동시 개설

-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간 2개의 단계씩 운영하며 교육과정 시행 첫 해에는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동시에 개설하고, 2년차에 중급과정과 고급과정, 3년차에 고급과정과 심화과정을 운영함.
- 교육과정 3년차 이후로는 교육생의 역량 평가 및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운영방식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간 2개 과정의 동시 운영을 통해 해당 과정의 교육생들은 페르소나와 니즈에 맞는 타과정의 수업 청강이 가능함. 이는, 온라인 콘텐츠 교육체계가 구축되기 전까지 선택형 수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음.

(3) 현장 연계 교육방식

○ 현장 전문가에 의한 현장 중심 교육

- 단순히 이론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중급과정 이후부터는 교육생이 직접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가감정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지향함.
- 구체적으로는 중급과정에서는 조별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고급과정에서는 개인별로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 평가를 받는 현장중심 교육을 진행함.
-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인적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장과 밀접하게 접목된 교육을 진행함.

○ 주제별 현장역량 강화 교육

- 주요 역량으로 도출된 미술 전문역량과 미술시장 전문역량은 실제적인 미술품 실건과 다양한 미술시장 현장경험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작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감정결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작품 컨디션 확인과 상태보고서 작성 실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다양한 필드트립 등 미술품실건과 미술시장의 현장경험 학습을 초·중·고급·심화 전 과정에 배치하여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함.

○ 현장연계 연수생 과정 및 지원제도

- 본 연구의 심화과정을 통해 배출한 인력이 2년간의 현장 연수생 과정을 진행하여 직접 시가감정과 관련된 직무를 현장에서 배우고 행하는 현장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연계함.
- 단, 현장에서 시가감정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관 및 협회에서 연수생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지원제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수료생 대상 재교육 과정 운영

- 심화과정 수료 후, 연수생 과정 중에도 본인이 부족한 교과목군은 청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재교육을 운영함.
- 추후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가감정사들의 재교육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진행이 필요하며, 해당 재교육은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 감정인의 윤리, NFT 등 기술 발전이나 트렌드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알아야 할 미술품 감정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미술

품 시가감정사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함.

(4) 온라인 교육콘텐츠 구축

○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모듈형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 설계된 교육과정에서 진행될 강연들을 촬영 및 영상 편집하여 향후 온라인 교육콘텐츠 및 플랫폼을 운용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이는 중급과정부터 진행될 페르소나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의 선택과정으로 제공되어 교육생의 일정에 맞춘 맞춤형 교육 및 수준별·페르소나별 선택형 재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생들의 다양한 학습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블렌디드 러닝으로 심화과정의 전문성 향상

- 심화과정에서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⁴⁷⁾으로 활용 가능하며,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이 결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가능함. 이는, 수업 전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통해 사전학습을 하고 수업시간에는 토의, 문제해결 등의 학습을 위주로 진행하는 학습모형⁴⁸⁾으로 심화과정에서의 교육생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및 실효성 증진 기대

- 필요에 따른 선택형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통해 과목운영 및 강사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교육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통해 과목운영 및 강사운영에 여유를 갖게 되어 고급/심화 과정이 개설되었을 때 한정된 강사진들이 고급/심화 과정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2. 페르소나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1)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 주요 수강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주요 수강대상은 미술계 안팎의 현업 종사자로 예상

47)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오프라인 강의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와 매체를 활용하여 사전에 선수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쇄자료, 강의노트 만이 아니라 교수 동영상, 웹 사이트에 존재하는 관련 강의 동영상 등을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음 (한현중 외, 2015)

48) 이현경 외, (2017), Flipped Learning 수업을 위한 동영상 제작 및 활용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선진화센터 이슈 리포트 IR - 2017 - 02호

되기 때문에, 현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수 운영이 필요하며 따라서 제한된 교육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함.

○ 교육생들의 수강목적에 충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 본 교육과정에 등록하기 전부터 이미 특정 분야에 능숙한 교육생의 경우 원래부터 알고 있는 수업내용을 다시 듣기보다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직무역량을 갖추는 것에 효과적임.

(2) 주요 역량에 따른 페르소나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의 6가지 주요 역량에 기반하여 수강대상 그룹화 및 페르소나(persona) 설정

- 교육공학 전문가와의 자문 및 연구진 내부 회의를 통해, 미술품 시가감정의 역량을 기반으로 수강대상을 그룹화하여, 여섯 가지 주요 역량 중 수강대상이 부족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페르소나(persona)는 마케팅이나 경험디자인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상적인 사용자 또는 고객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로 표현되며, 사용자를 이해하며 사용자의 목표와 동기, 행동양식 및 기대를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 모형으로 최근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됨(이상은 외, 2019: 75; 황윤자, 2023: 313).

○ 페르소나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의 기대효과

- 본 시가감정 교육과정의 예상 수요자를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하여 구분하고, 각 페르소나에 맞춘 모듈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의 효율성 및 교육효과 극대화가 기대됨.
- 페르소나 기법은 본 시가감정 교육과정을 수강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해당 교육생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수업 방향 및 운영체계를 구체화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의 페르소나는 크게 전문가와 일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문가에는 ①미술분야 전문가 ②미술시장 전문가 ③감정평가사형이 포함되고, 일반에는 ④미술일반형으로 구분

-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가감정 교육과정을 실제 수강했던 교육생들의 특징, 직업 및 경력, 수강 동기 및 목적을 기반으로, 연구진 내부 협의를 통해 본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 가지 페르소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시가감정 주요 역량과 연계하여 이미 개발된 역량과 차후 교육을 통해 보완해야 할 역량을 구분하여 정리함.
- 네 가지의 페르소나는 아래와 같음.
 - **미술분야 전문가형**: 큐레이터, 비평가, 연구자 등 미술계에서 경력을 쌓으며 일반 미술 관련 지식을 갖추었으며,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도 있는 자
 - **미술시장 전문가형**: 갤러리스트, 경매사, 아트딜러 등 미술품의 가격과 시장에 민감한 자
 - **감정평가사형**: 미술 외의 분야를 전공하였으며,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면서 동산·부동산의 가치평가에 능숙한 자
 - **미술일반형**: 작가나 미술교육자를 포함하여 미술을 전문적으로 접했으나 미술 분야 전문가형이나 미술시장 전문가형에 속하지 않는 자

【표 4-8】 페르소나 프로파일 설정

페르소나 구분	전문가형			일반형
	미술 분야 전문가형 A	미술시장 전문가형 B	감정평가사형 C	미술일반형 D
직업 및 경력	- 미술사 및 예술학 석사 - 미술관 학예사 5년	- 미대 학사 - 갤러리대표 - 화랑 운영 5년	- 경영대 학사 - 감정평가사 - 경력 7년	- 미대 학사 - 전업작가 6년 - 미술학원 강사 2년
수강동기 및 목적	- 미술관 재직 중 미술품의 진위, 가치 평가, 보존 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며, 정확한 가치평가 역량을 키우고자 함.	- 미술품 시가감정, 보존 등 역량을 고양하여 갤러리 운영 자로서 역량을 키우고자 함.	- 동산 감정 업무에서 미술품 감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에 도움이 될 지식 및 기술을 배우고자 함.	- 작가 활동 외에 미술품감정사에 직업적 관심이 있어 전문역량을 키우고자 함.
보유역량	- 미술 전문역량 - 커뮤니케이션 역량 (네트워크·대인관계)	- 미술시장 전문역량 - 미술 전문역량 - 커뮤니케이션 역량 (네트워크·대인관계)	-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고서작성)	- 미술 전문역량
집중 교육역량	- 미술시장 전문역량 -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고서작성)	-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고서작성)	- 미술 전문역량 - 미술시장 전문역량 - 커뮤니케이션 역량 (네트워크·대인관계)	- 전체 역량

(3) 페르소나 기반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계획 상세

○ 중급과정부터 페르소나에 따른 교육과정 선택 가능

- 초급은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입문 단계이므로 모든 교육생이 페르소나와 상관없이 동일한 교과목군을 수강하며, 중급과정부터는 각 수강자가 본인의 역량에 맞추어 모듈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함.
- 중급, 고급, 심화로 거쳐 발전될수록 교육생의 페르소나에 맞추어 시가감정 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고양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선택형 모듈과정을 구성하여 유연하게 운영하여야 함.

【표 4-9】 페르소나별 집중교육 교과목군 예시

페르소나 구분	전문가형			일반형
	미술분야 전문가형 A	미술시장 전문가형 B	감정평가사형 C	미술일반형 D
집중 교육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 전문역량 -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 커뮤니케이션 역량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분야 전문역량 - 미술시장 전문역량 - 커뮤니케이션 역량 (대인관계·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역량
집중교육 교과목군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일반 - 미술시장의 특성 - 감정학일반 - 시가감정 방법론 및 평가실무 - 자료조사 데이터 수집 - 보고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일반 - 감정학일반 - 시가감정 방법론 및 평가실무 - 자료조사 데이터 수집 - 보고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일반 - 작품의 재료/작품 관리 - 필드트립 - 미술시장일반 - 미술시장의 특성 - 감정학일반 - 시가감정 방법론 및 평가실무 - 자료조사 데이터 수집 - 보고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일반 - 작품의 재료/작품 관리 - 필드트립 - 미술시장일반 - 미술시장의 특성 - 감정학일반 - 시가감정 방법론 및 평가실무 - 자료조사 데이터 수집 - 보고서작성
공통 교과목군	- 감정인의 윤리·관련법과 제도, 감정학일반			

○ 페르소나별 모듈형 교육과정 구성의 주안점

- 페르소나 모듈별 교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전체 시수 60시간을 충족해야 함.
- “미술일반형 D” 페르소나는 모든 주요 역량에 대한 교육을 전체 수강해야 하는 유형으로 상

정함.

- “미술분야 전문가형 A”와 “미술시장 전문가형 B”의 경우,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에 집중된 수업을 들어야 함.
- 이와 반대로, “감정평가사형 C”는 미술 전문역량, 미술시장 전문역량에 집중된 수업을 통해 본인이 보유하지 못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양성할 수 있음.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모든 페르소나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 보고서 작성 관련된 부분은 미술 전문가형과 미술시장 전문가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감정학 일반과 법과 직업윤리 역량은 모든 페르소나 타입에서 교육되어야 하는 부분임.

○ 교육 시점에 따른 운영 방안 상세

- 페르소나별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중급과정의 경우 모든 페르소나 타입이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군을 아래표와 같이 교육과정 전반에 선배치하고, 각 페르소나 타입이 중점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교과목을 초중반, 중반, 중후반에 나누어 배치하는 등 교육 시기별 차등을 두어 모듈별 선택할 수 있게 함.

【표 4-10】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한 중급과정 예시

수업차수	전반	초중반	중반	중후반	후반
교과목군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 법과 직업윤리 관련 역량에 집중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전문역량 집중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 전문역량에 집중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에 집중된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집중된 교과목
교과목군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학일반 - 감정인의 윤리·관련법과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일반 - 작품의 재료/작품 관리 - 필드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시장일반 - 미술시장의 특성 - 필드트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감정 방법론 및 평가실무 - 자료조사 및 데이터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네트워킹 - 감정학일반 - 보고서 작성
페르소나 타입	A,B,C,D	B,C,D	A,C,D	A,B,D	A,B,C,D
수업시수 및 평가	선택 설계 교과를 통해 최소 60시간 시수 수강				

○ 다면적 평가를 통해 수료 여부 결정

- 교육생마다 각자의 페르소나별 상이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므로 평가에 대한 이슈

가 발생함. 이에, 동료 평가, 강사진 평가 등 다면적 평가를 통해 과정의 수료 여부를 평가 및 선별하여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진행함.

- 무엇보다 페르소나 기반의 교육과정은 교육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년도 이후의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은 초기년도에 배출된 교육생의 특성과 【표4-10】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한 교육구성 예시를 준용하여 차후의 교육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3. 교육과정 핵심 성공 요인으로서의 강사진 운영 방안

(1) 책임강사제 운영

○ 책임강사제 운영을 통한 교육생 관리

- 아카데미식 여러 강사의 순차적 강연이 아닌 과정별 「책임운영 강사제」로 진행하여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기간내 교육생들의 출결과 교육성과를 관리함.
- 주입식 이론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생들의 작품실견 보고서 작성 및 수업리뷰 작성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생들을 관리함.

○ 책임강사제를 통해 초기 교육생 이탈방지 및 교육 실효성·전문성 증대

- 초·중급 단계에서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문 직무교육인 만큼 초기에 교육생들의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책임운영 강사제는 이와 같은 초기 교육생들의 이탈을 방지하며 교육과정에 안착시키는 역할이 기대됨.
- 또한, 교육과정 단계가 올라갈수록 교육생에 대한 심층 관리가 가능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교육생의 장르별, 작가별 전문성(Specialty)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책임강사의 교육생 평가

- 초급, 중급, 고급, 심화 및 인턴과정을 거치며 현장에 투입하여 작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기에 각 단계별 교육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면적인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책임운영 강사의 평가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됨.

(2) 역량별 전문강사진의 기용

○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강사진 선정의 중요성

- 학교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중장기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강사진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 민간협회의 보유인력만이 아닌 관련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강사진 섭외가 요구됨.

○ 교과목군별 강사진 선정의 주안점

- 초급과정에 광범위하게 분포될 미술사를 비롯한 '미술 전문역량'의 수업은 학교에서 미술사를 수업하는 교수진을 섭외하여 각 분야별 포진시켜야 하며, 미술품의 상태에 대한 조사 및 손상시의 복원에 대한 이해 등은 미술관 레지스트라, 미술품 복원/수복 전문가의 이론적 강연과 더불어 실제적인 실습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작품의 물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 방법론에 관해서도 관련 전문가의 강연이 필요하며, '미술시장 전문역량'도 대학의 예술경영학과 관련 교수진을 섭외하여야 함.
- '미술 전문역량'의 감식안의 경우, 이론수업으로는 배양될 수 없는 역량으로 작품의 실견이 중요함.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작품을 실견할 수 있는 장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작품을 접하고 더불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보는 안목을 키울수 있음. 작성된 보고서는 책임운영진에 의한 리뷰 과정을 거쳐야 함.
-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의 경우, 감정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유사직군인 감정평가사, 혹은 미국감정평가재단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연의 전문성을 높일수 있음. 그러나 중급/고급 과정으로 진행할수록 '미술 전문역량'과 '미술시장 전문역량'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진 '논리적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감감정위원들의 강연이 필요함.
- 더불어 고급/심화과정으로 진행될수록 장르별 시가감정, 혹은 특수 케이스별 시가감정 방법론에 대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내 감정위원들의 강연이 필요함.
- '법과 직업윤리 역량'의 경우, 법제에 전문화된 지식을 보유한 관련 변호사의 강연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미국의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에 관해서는 USPAP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미국감정가협회(AAA) 관계자의 강연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경우 감정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이 큰 우위를 차지하므로 강사진으로는 미국감정가협회(AAA) 전문가의 강연과 더불어 국내 실정에 맞는 보고서의 도출을 위한 국내 감정전문위원의 강연이 필요함. 더불어 교육단계가 올라갈수록 감정평가보고서를 작성, 발표, 리뷰를 진행하는 워크샵 횟수를 증가시켜야 함. 그 외 각

수업을 진행하는 관련 전문 인사들,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컬렉션 방문 등 현장 필드
트립에서 교육생들과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제3절 교육과정의 전환 및 협력적 연계 방안



1.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교육과정의 전환

- 201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시가감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수의 시가감정 아카데미가 진행되어옴. 특히 2020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미술품 감정·유통·매개 인력 양성지원을 위해 단년 지원사업으로 아카데미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음.
- (사)한국시가감정협회, (사)한국화랑협회, 국민대학교 등 다양한 운영 주체에 의해 중급, 고급, 심화과정이 진행되었고 동시다발적으로 인력들이 배출됨. 단계별 진행은 되었으나 1년 단위 사업의 특성상 지속성 있는 교육 운영 및 교육생 관리가 어려워,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인식확산의 효과와 단발적인 지식전달의 효과는 있었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미술품 시가감정사로서 작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은 불가한 한계를 지님.
- 그간 민간에서 진행되어온 시가감정 아카데미 사업을 포괄함과 동시에 그 결과의 효용성을 강조하고자, 기존 진행된 과정의 고급, 심화 수료자들에게는 선별과정을 통해 본 교육과정 중급의 엔트리 자격을 주고자 함.
- 이를 통해 기존 사업의 우수한 교육생들을 흡수하여, 본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교육과정과 단절된 것이 아닌 연계 선상에 있으나 한 단계 발전된 체계적인 과정으로서 포지셔닝 함.

2. 시가감정사 양성 교육과정의 기대효과 및 의의

- 그간 진행되어온 단기적, 간헐적 교육의 한계와 더불어, 시가감정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복합적인 직무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직무로 단기간에 양성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님. 이에, 기존 시가감정사 양성교육 이수 후, 현재 현장에서 작동되는 인력은 없는 상황임. 본 교육과정은 총 4년의 교육과정과 2년의 연수생 과정 등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사로 작동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론만이 아닌 현장 실습이 중요한 직무인 만큼, 실질적으로 감정을 행하는 민간협회 혹은 기관과의 연수생 과정 연계를 통해, 설계된 교육과정과 현장의 연계 고리를 형성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미술품 시가감정 시장의 형성기로서 단기적으로 본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현장의 인력 수요가 미진한 상황임. 본 교육과정의 민간협회 혹은 기관과의 협력관계는 교육생들의 현장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임.
- 단순히 가격데이터의 조사, 분석을 통한 미술품 시가감정가격의 도출이 아닌 미술 전문역량과 미술시장 전문역량의 중요성이 도출된 것은 유의미한 결과로, 이는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이 분리되지 못한 국내 현황을 반영한 결과임. 본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공학자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과 교육공학 전문가의 의견이 복합적으로 구현된 교육과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으로써 의의가 큼.
-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미래 유망직종의 가능성을 지닌 미술품 시가감정사에 대한 직무역량분석과 이에 맞춘 교육과정의 설계를 통해 우수한 직무역량을 지닌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양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
- 단기적으로는 미술품시가감정의 시장의 형성기로 다수의 교육생을 배출하기 보다는 소수의 우수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 4년 과정의 교육과정과 2년의 연수생과정을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과 단계별 상대평가를 통한 선별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수의 전문화된 인력의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음.
- 엔트리 단계가 높은 교육과정인 만큼 교육생들이 지닌 페르소나별 특성이 강할 것으로 판단됨. 중급부터 개인이 지닌 역량을 살리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페르소나 기반 역량별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시가감정사를 교육, 양성함으로써, 미술품 거래 및 미술 자산에 대한 공신력있고 신뢰할 만한 체계마련의 토대를 구축하고, 미술서비스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미술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함.

제5장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제1절 시가감정 인력양성 교육 방향 및 중장기 계획.....	257
1.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의 비전 및 목표.....	257
2. 추진전략.....	258
3. 단계별 목표 및 전략과제.....	261
제2절 기대효과 및 정책적 제언.....	267
1. 기대효과.....	267
2. 정책적 제언.....	267

제1절 시가감정 인력양성 교육 방향 및 중장기 계획

1.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의 비전 및 목표

(1) 기본방향 설정

- 국내미술산업을 뒷받침하는 고급 인적자원으로서의 미술품 시가감정사 양성
 - 국내 미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술품 시가감정사는 국내외 시장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미술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의 기반이 됨.
 - 국내 미술과 작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시가감정의 체계와 문화가 확립되는 것이 중요함.
- 단기적으로 많은 미술품 시가감정사를 배출하기보다는, 과정을 수료후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수립
 - 단기적으로 많은 시가감정사를 배출하는 양적 접근보다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질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임.
 - 자격증 제도나 학위제도는 미술품 시가감정사를 양적·단기적으로 확장시키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실제 학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후에도 실질적인 전문성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그만큼 미술품 시가감정은 고도화된 전문분야로 심화된 교육과 현장실습이 필요하며, 교육 수강생의 자격요건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지위 확보 및 미술품 시가감정 시장의 저변 확대
 - 현재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법적·제도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음. 미술에 대한 안목과 감식안을 기반으로 수십년간 미술품 시가감정을 진행해오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감정위원들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인력의 유입 및 미술품 감정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체계적인 전문 교육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국내 미술산업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함.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법적·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술품 시가감정 시장은 물론 미술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음.

(2) 비전 및 목표

1) 비전

- 국내 미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2) 목표

-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 개발로 미술품 시가감정 신뢰도 제고
 - 글로벌 기준과 국내 미술시장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미술품 시가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함.
- 수강생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
 - 수강생의 개별 역량을 고려한 페르소나 기반 커리큘럼을 통해 개인별로 향상해야 할 역량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춘.
- 교육과정 이수 후 실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실무연계 체계 구축
 -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6년의 교육 이수 후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 가능한 전문 인재를 양성함.

(3) 추진기반 및 준거

- 미술진흥법에서 미술품 감정업을 미술산업 내 주요 업으로 인정
- 「시각·공연예술 분야 직군 분석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에서 시가감정사를 차세대 유망직업군으로 제시
- 미술품 물납제 실시 등 미술품에 대한 자산가치 인정

2. 추진전략

(1)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초급-중급-고급-심화의 교육단계 세분화 및 단계별 맞춤교육
 - 현재는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로, 양적으로 인력을 많이 배출하여도 배출된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장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많은 인력을 배출하기보다는 소수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야 함.

- 초급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한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인식확산과 더불어 심화 과정으로 갈수록 소수의 고도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 초급, 중급, 고급, 심화과정으로 세분화 된 중장기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수강생의 단계별 학습 수준을 체계화시키고,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함.
- 초급단계에서는 미술품 시가감정에 관심있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이론 및 기본 감정 프로세스를 교육하며, 심화 단계로 갈수록 프로젝트 중심 및 심층 연구를 통해 개별 전문성을 강화함.

○ 국내 미술산업의 실정에 맞춘 커리큘럼 설계

-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은 미술품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며, 시가감정과 진위감정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실정으로, 해외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이에, 국내 감정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설계함.
- 국내·외 미술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근현대 작가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한국 미술산업의 내실을 다지는데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시가감정은 집단 감정체계와 일인 감정이 병행되고 있는 바, 새롭게 배출되는 양성인력은 점차적 개인 감정사 감정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국내 미술품 감정업의 구조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기존의 체계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정부 지원의 미술품 감정교육 및 민간 기관 교육과정과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체계를 설립함.
- 실질적으로는 수강생의 역량 및 수준에 따라 중급 또는 고급 단계부터 수용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정 운영 1년 차에 초급과 중급과정을 동시 개설하고, 수강정원의 일정 비율은 추천제도를 활용하여 중급으로 편입을 가능케 함.

(2) 역량기반의 모듈형 교육 제공

○ 경력자 대상의 역량기반 모듈형 교육 제공

-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은 고급 인적자원으로서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미술계 또는 감정평가업계에서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주요한 수강대상으로 상정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함.

- 수강생의 기존 역량을 토대로 페르소나를 구분하고, 부족한 역량을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한 모듈형 교육을 설계함.
- 획일적인 교육체계보다는 직무역량 및 개인의 페르소나에 기반한 체계화된 중장기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임.

○ 장기적인 데이터 기반 개선

- 수강생들의 학습 데이터 및 피드백을 축적하여, 점진적으로 교육 모듈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색함.
- 교육 운영 초기부터 온라인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여,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듈의 구성이 더욱 원활할 수 있도록 함.

○ 수강생 주도의 학습 활성화 및 지원

- 수강생들이 그룹스터디 및 실무 사례 기반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문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심층 프로젝트를 통해 수강생들이 시가감정 분야에서 특정 작가, 특정 사조, 특정 장르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실무 연계 기반 구축 및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지위 확보

○ 현장실습 및 실무경험의 비중 확대

- 필드트립 등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미술품을 실물로 보고 논의할 수 있는 수업을 마련하며 심화과정으로 갈수록 실물 미술품을 직접 접할 기회를 확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미술품 시가감정에 필요한 안목과 감식안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민간 감정기관이나 경매회사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강생들에게 실습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함.
- 심화과정 이후 2년의 연수생을 통해 미술품 거래와 감정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을 경험하며, 교육 이수 후 곧바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양성함.
-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 기관 혹은 협회가 주체가 되어 교육과정을 시행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현장과의 링크에 대한 부분도 민간 기관·협회에서 담당하여 실습에 기반한 교육뿐 아니라 교육 이후의 현장과의 연계성을 높임.

○ 미술계의 네트워크 확장

- 본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시가감정에 있어 미술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국내 미술품의 경우 데이터가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시가감정을 위해서 미술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신뢰도 높은 시가감정을 위해 필수적임.
- 협회, 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 내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강사와 수강생들 간의 네트워킹 및 졸업생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지위 확보와 공신력 강화

- 전문적인 시가감정사로 활동할 수 있을 잠재성을 지닌 수강생을 확보하고, 실무와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함.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법적·제도적 지위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및 이해당사자 협의를 적극 지원함.

○ 중장기적으로 미술품감정관련 협회 혹은 협의체에 의한 미술품감정기준 마련, 미술품감정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품감정사를 통합하여, 인증제도를 통해 관리하며, 미술품 감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및 재교육을 전담할 미술품 감정 관련 협회 혹은 협의체의 존재가 필요함.
- 미술품 감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미술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임.

3. 단계별 목표 및 전략과제

(1) 수립기(1~3년)

1) 교육과정 운영의 전략과제

○ 역량기반으로의 체계화된 교육과정 개발

- 초급, 중급, 고급, 심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춘 교육을 제공함.
-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미술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

○ 기본 교육자료 제작 및 온라인 강의 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는 강사가 자율적·주도적으로 강의를 진행할지라도 별도로 기본 교육자료를 제

작하여 교육의 기초를 다짐.

- 오프라인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모듈 운영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강의 체계를 구축함.

○ 교육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마련

- 학습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및 성과 지표를 개발함.
- 교육 수료 후 실무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는 검증 시스템을 마련함.
- 기존의 교육은 주로 한 강사가 1 회차의 수업을 담당하는 특강형 방식이었으나, 한 강사가 두 회차의 수업을 시차를 두고 진행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심화단계 수료생이 배출되는 3년 후 시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 및 검증하며 시장의 상황을 같이 고려하여 차년도 수강생 모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수강생들의 성장과 가능성, 교육의 피드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므로 전담 강사제로 운영함.

2)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향

○ 민간기관 및 현장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 민간 감정기관 및 미술관, 갤러리, 경매회사 등과 협력하여 현장학습 기회를 마련함.
- 실무형 연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업계와의 연결성을 확보함.

○ 직무특성을 반영한 소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

- 심화단계 수료생과 민간협회 혹은 기관과의 링크 부분은 정부의 추가적인 조력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 확보를 위한 정부 및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연수생 기간에도 준학예사 제도와 같이 수강생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 조력을 통해 민간 기관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직무 특성상 교육과정의 엔트리 단계가 높으며 소수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생의 양적 배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함.

○ 미술진흥법을 통해 시가감정업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

- 미술품 시가감정 시장의 확장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사들의 지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과 지위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가감정사의 업무와 자격 기준을 구체화해야 함.
- 미술진흥법 상의 모호한 미술품 시가감정업에 대한 정의는 조속히 개선되어 미술품 시가감정사들의 활동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임.
- 미술품 감정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신력을 확보함.

○ 미술품 감정실무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제도적 인정을 지원

- 미술계의 감정평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술진흥법」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2026년까지 실질적으로 미술품 감정 방법, 감정평가보고서 작성 기준 등과 관련한 미술품 감정 관련 실무지침에 대한 표준화 필요.
- 표준화될 감정 관련 실무지침은 미국의 표준감정실무지침(USPAP)등 해외의 사례는 참고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과 제도가 필요함.

○ 미술품 시가감정의 실질적 시장확대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

- 이원화된 미술품 시가감정 영역이 향후 미술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미술품의 자산 가치에 대해 새롭게 제도적·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금융계, 법원, 국세청 등과 관련한 업무임.
- 이들 분야에서의 미술품 시가감정은 공신력과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주로 자격증이 있는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향후 확대되는 시가감정 시장이 지금의 상태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간의 조율 및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함.

○ 근현대 작가 카탈로그 레조네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진위감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미술품 시가감정이 분리되어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 진위감정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 및 소장 이력(provenance) 등을 체계화하여 아카이빙하고 있는 곳인 바,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의 확충 및 유지 관리 필요함.
- 주요 작가 및 작품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함.
- 카탈로그 레조네 출판이 가능할 정도의 기반 연구가 되어 있는 근·현대 주요작가에 대한 카탈로그 레조네 출판 계기를 마련함.

(2) 안정기(4~6년)

1) 교육과정 운영의 전략과제

○ 배출된 인력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시스템 마련

- 미술품 시가감정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확장되고 미술품 시가감정사란 직업이 자리잡기 시작한 안정기에는 인력의 안정적 배출과 더불어 기존 배출 인력의 재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법적, 제도적 변천에 대한 부분,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은 2년 주기로 주기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며, 배출된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을 통해 역량기반 교육 프로그램 완성

- 대면 강의와 온라인 교육을 조화롭게 병행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함.
- 이를 통해 수강생들의 역량과 관심을 반영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향

○ 시가감정사의 제도적 지위를 확보

-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정사에 대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되, 자격증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함.
- 감정사 직군의 법적·제도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미술품 감정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함.

○ 주요 근·현대 작가와 작품에 관한 연구 지원 확대

- 국내 작가들의 경우 작가 및 작업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시가감정 및 진위감정의 신뢰도와 관련됨.
-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의 주요 근·현대 작가 및 작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 및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연구자료 및 감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공유함.

(3) 성숙기(7~10년)

1) 교육과정 운영의 전략과제

○ 근현대 작가와 장르별 전문성을 확장하여 심화 교육을 진행함.

- 장르 및 작가별로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또는 개별·그룹 연구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 미술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의 확장과 발전을 추구함.
-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가감정사들에 대한 세분화된 재교육 제공을 통해 장르별, 작가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

○ 배출된 인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실무 연계시스템 완성

- 수료생과 업계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무연계를 강화함.
-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통해 교육 품질 및 인력 활용성을 제고함.

○ 주기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유지 및 강화

- 새로운 법적·제도적 요구에 부합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함.
- NFT 등 변화하는 미술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수료생을 대상으로 추가 커리큘럼이나 세미나를 제공함.
- 교육 이수 후 전문 자격 유지를 위한 인증 및 갱신 과정을 마련함.

2)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향

○ 미술품 시가감정사 협회· 협의체를 구성하여 미술품 시가감정사에 대한 관리 및 지침 마련

- 이해충돌방지 등 감정의 윤리성을 지키며 감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술품 시가감정사 협회의 설립을 통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및 행정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유럽과 미국의 공신력있는 감정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협회 혹은 협의체가 궁극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곳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및 관리와 교육, 감정실무관련지침의 제정 및 주기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는 미술품 감정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공적지원을 통해 협의체의 발족과 유지 등 자생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미술품 시장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및 가격지수 개발**

- 현재 공개된 미술품 가격은 옥션 기록이 전부임. 미술품 시가감정은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바, 미술품 가격 및 시장 데이터에 대한 자료 축적 및 아카이브 구축 필요
-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미술품 가격지수 연구를 통해 미술산업으로의 초석을 다짐.

제2절 기대효과 및 정책적 제언



1.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술산업의 기반이 될 미술품 시가감정사 전문인력 양성 가능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전문적 양성과 더불어 이들의 활동영역이 확보되어 미술품 시가감정사가 미래 유망직업군으로서 미술산업에서 자리잡게 될 것임.
- 정확한 미술품 시가감정을 통해 미술품의 자산가치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미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짐.

2. 정책적 제언

1)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법적·제도적 측면

- 본 연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술품 시가감정사를 직업군으로써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미술진흥법의 정확한 정의를 통한 미술품 시가감정사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즉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감정평가서가 국세청, 법원 및 정부 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에서 공신력있는 문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야 함.
- 미국의 형태와 같이 민간협회에서 주된 활동을 진행하되, 궁극적으로 미국감정평가재단(TAF)과 같이 민간에서 활동하는 감정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민간협의회 혹은 협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축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미술품 시가감정사 양성 교육 관련 제언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경우 고도로 전문화된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바, 최소 3년 이상 중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소수정예 전문가 양성을 기조로 진행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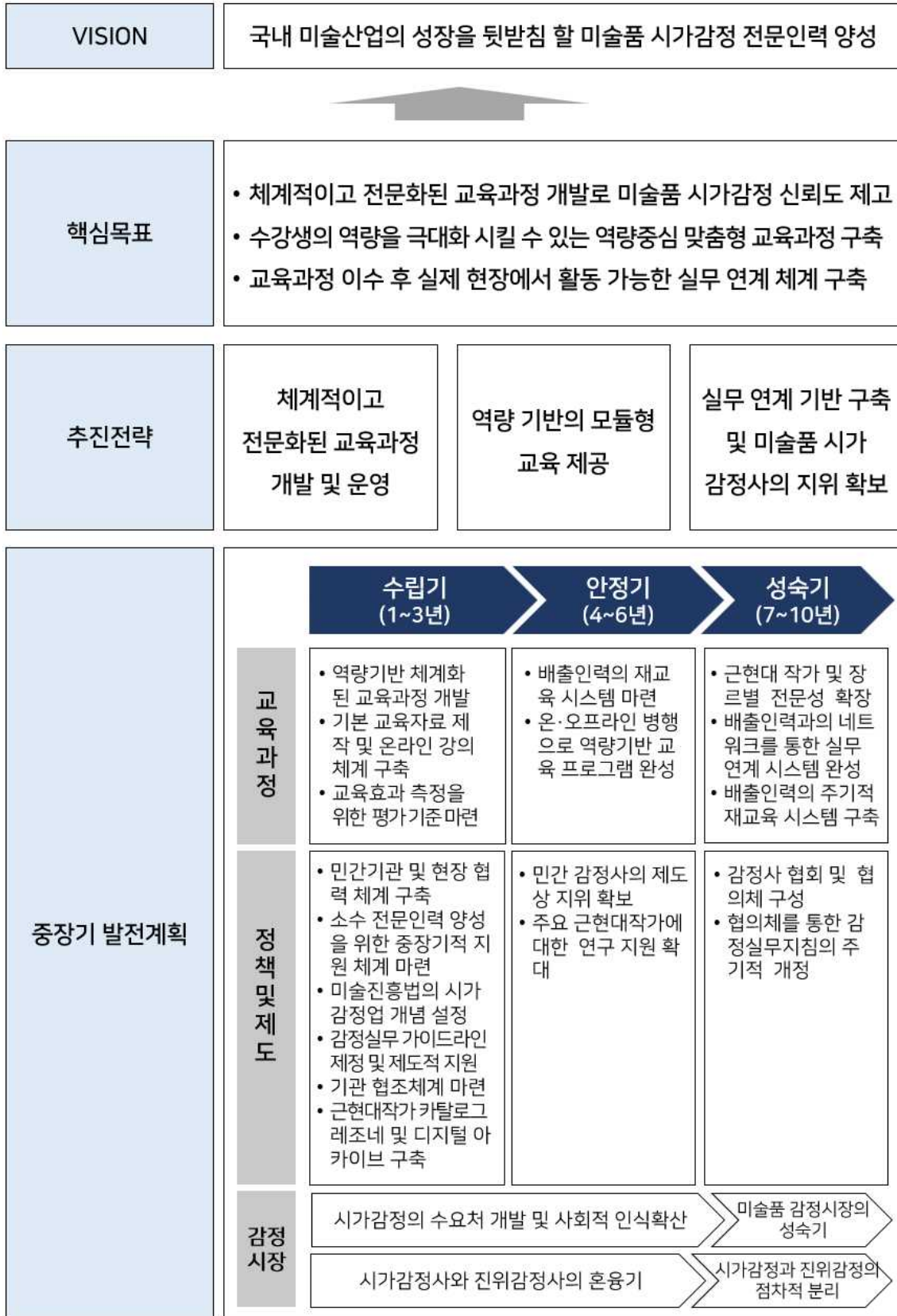
함. 또한 직무특성상 교육과정의 엔트리 단계가 높은 바, 이는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미술품 시가감정사 양성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님을 인지해야 함.

- 현재는 인력의 양적 배출보다는 소수의 전문가 양성이 중요한 시점으로, 교육과정의 상위단계에서는 교육생의 양적 배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만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임.
- 교육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장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만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감정을 행하는 민간기관·협회와의 협업이 중요함.
- 정부가 미술품 감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거나, 연구에서 도출된 것과 같이 시가감정교육은 중장기계획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이루어져야 교육의 실효성이 있음. 이에 정부의 지원사업 또한 단년도가 아닌 최소 3년 이상의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3) 미술품 시가감정이 미술산업이 되기 위한 인프라 측면

- 장기적으로 시가감정과 진위감정이 분리된 형태가 되어야 하는 바, 국내 근현대작가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카탈로그 레조네 사업, 카탈로그 레조네 사업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원로작가들의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 등을 통해 진위감정의 기초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미술품 시장자료에 대한 데이터 축적 및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미술품 가격지수 개발 연구 등 미술산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그림5-1】 중장기 발전방안 체계도



부록

부록1.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자문의견 및 시사점	271
부록2. 델파이 조사(1차) 설문지	291
부록3. 델파이 조사(2차) 설문지	303
부록4. 교육과정별 교과목 중요도 확인 설문지	310

부록1. 미술품 시가감정관련 자문의견 및 시사점



1. 미술품 시가감정 자문의견 주요 내용

1)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대한 외부 수요 증가

- 미술품은 예술품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미술계 외부의 법률, 세금, 보험, 금융 등 분야에서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임. 따라서 정확한 가격 산정이 필수적이며,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 미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

- 미술품이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미술시장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며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미술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시가감정에 대한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함.
- 학예사, 갤러리스트, 컬렉터 및 일반인들도 미술산업과 감정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술산업의 저변 확대가 가능함.

○ 전문영역으로서의 시가감정의 중요성

- 미술품 시가감정은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 전문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음.
- 국내의 미술품 시가감정은 진위감정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미술품 가치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미술품 시가감정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 및 체계가 필요함.

2) 현행 감정제도의 문제점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법적·제도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

- 미술품 시가감정사들은 수십 년간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법적,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할 자격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는 감정사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시가감정 제도 및 체계, 윤리규정의 확립 필요

- 시가감정 제도가 명확하게 확립되어야 하며, 주요 용어의 정리와 통일이 필요하고, 시가감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감정과정과 윤리규정이 마련 되어야함.

○ 미술품 시가감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 시가감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가감정시 가치 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현재 미술품 감정은 미술계 내에서 쌓아온 전문지식과 감식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치평가의 근거를 시스템화하기 어려워 의뢰인에게 감정 결과와 평가의 근거를 납득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미술품 시가감정사와 감정기관의 신뢰도 향상이 필요

- 시가감정의 주체인 감정기관과 감정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미술품 시가감정은 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함. 현행 국내 미술품 감정은 경매회사와 갤러리 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해 상충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그러나 해외에서도 미술품 시가감정사가 갤러리나 경매회사, 아트딜러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 행위 자체의 문제보다는 감정기관의 독립성과 권위를 보장해주며 그만큼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시가감정사의 정보가 지나치게 비공개되어 있거나, 시가감정의 세부 전문분야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점도 신뢰도에 영향을 미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전문분야 특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미술품 시가감정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술품 시가감정 산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시가감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진위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가감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됨.
-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에서는 작가별, 사조별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자격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실질적인 수요와 실효성 없는 자격증 제도는 '제도를 위한 제도'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국가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단기적·단편적 지원의 한계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은 다른 미술산업 인력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됨. 미술품 감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체계가 불연속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 취지와 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미술품 감정은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확립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3)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에 대한 제언

○ 실용적 교육과정 운영 및 실무 기반 전문강사진의 필요성

- 실용적인 측면에서, 미술품 감정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가감정 방법론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바, 전반적인 교육이 아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작가론'을 다룰 때도 미술사의 주요 작가를 다루기보다는 실용성이나 현실성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현장방문, 토론 등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미술시장의 복합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전문강사진이 필수적임.

○ 실습과 현장경험의 중요성

- 학위나 자격증만으로는 미술품 감정사로서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우므로, 일정 시간 이상 미술품을 직접 보면서 실무경험을 쌓는 현장경험이 매우 중요함.
- 실습과 현장경험을 통해 다양한 미술품을 실제로 접하고,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함.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가감정 교육과정은 이론 중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이

론 교육을 담당하고, 민간 감정기관에서는 실습을 맡는 협업 방식이 제시될 수 있으나, 민간 감정기관이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거나 이론과 실습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수강대상의 상향 설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제안

- 시가감정 교육은 단기 과정보다는 전문가 양성 심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하며, 대학생 보다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미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
- 1~2년의 단기 과정보다는 2~3년 이상의 교육 기간과 현장경험을 갖춰야 함.
- 학예사, 아트딜러, 갤러리스트 등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시가감정 관련 이론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더 효과적임.

○ 교육생의 페르소나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 교육 수강대상을 기존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상향 설정할 경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과정은 생략하고 필요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모듈화 과목 운영이 효율적임.

4)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의 세부 교과목에 대한 제언

○ 실용적·현장 중심적 교과목 설계 제안

-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은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교육과정은 현장경험을 중시하고, 미술품 감정에 필요한 실무능력,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작가론 교육은 시장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술품의 상태와 보존에 관한 지식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전문성(specialty)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과목 제안

- 특정 분야에 대한 시가감정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 교과목이 선택과목(모듈화)으로 운영되는 것도 필요함. 특정 장르별 또는 특정 작가별 전문성을 갖춘 감정가가 배출될 수 있어야 함.

○ 수료생에 대한 재교육

- 이미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시가감정사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5) 교육과정과 현장의 연계방안

○ 교육과정 중 미술품을 실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실제 미술품을 실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감식안을 키우고, 사례 분석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아트페어나 갤러리 전시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미술품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미술품 감정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됨.
- 단, 미술품을 단순히 많이 보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멘토링을 병행하고, 동료들과 미술품의 가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토론하는 적극적인 학습 과정이 병행되어야 함.

○ 연수생 등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마련

- 교육과정 이후 현장에서 바로 미술품 시가감정사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연수생 과정 등 실무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장경험은 궁극적으로 작품분석 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시장의 동향에 대한 이해로 발전되어야 함.

○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 현장실습 및 실무경험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주고 받는 과정이 중요함.
- 국내 미술품 시가감정은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평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교육과정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6)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제언

○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통합 매뉴얼·가이드라인 필요

-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정책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인 매뉴얼과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정책, 용어집, 사례연구 등을 포함한 참조 매뉴얼이 한국미술시장에 유용할 것임.
- 미술품 시가감정의 신뢰성 확보와 공신력 증진을 위해 체계화된 매뉴얼과 윤리 규정 마련 필요

○ 교육과정과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인 지원 필요

- 시가감정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아직 시가감정의 시장 규모가 활성화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시가감정 인력이 필요한 현장과의 연계 단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의 비전과 목표를 염두에 둔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

- 미술품 시가감정사는 매년 많은 학생을 배출하기보다는 소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미술 및 감정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인력양성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또한, 미술진흥법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내실없는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 및 시행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은 본인이 전문적으로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차세대 감정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가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도록 해야 함.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새로운 세대에 전달되고 시가감정 산업에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함.

2. 미술품 시가감정 자문의견 인터뷰

1)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 대한 외부 수요 증가

- "기부, 상속세, 대출, 투자, 보험 및 계획수립을 위해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은행, 보험 및 세금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예술을 구매하거나 투자 또는 판매할 때도 중요합니다" (참여자 C)
- "국내는 앞으로 물납제도 있고, 또 기업에서도 [미술품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아트 비즈니스 안에서 컬렉션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아직 의무화는 안 되어 있었지만 자산 평가[를] 또 가끔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고, (중략) 미국도 [미술품 감정]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보험이랑 자산분할이랑 상속세잖아요. 그런 수요도 늘겠죠. 요즘에 미술품을 투자나 장사로 보는 경우도 [많아서] 분명히 [수요가] 앞으로 늘 것이라는 생각은 해요." (참여자 R)
- "그래도 아시다시피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여러 가지 가치를 산정하는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가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N)
-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고객을 대면했을 때 저희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더 가까이서 이제 편의성을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올해 시가감정평가 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참여자 O)

○ 미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

- "왜 중요하냐 또 필요하냐 이 부분은 미술계 내에서도 미술품 현물로서의 미술품이 유통되어야만 경제적인 사이클 여러 가지 미술계 생태 미술시장 생태계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이게 소위 회전될 수 있는 거죠. 지속 될 수 있는 거예요." (참여자 J)
- "그리고 이게 완전히 직업적으로 [특정한] 일 때문에 필요한 때도 있지만, 저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작품에 대한] 가격 어드바이징(advising)에 대해 또는 갤러리스트들도 좀 필요하고 또 해외 같은 경우 보면 시가감정 인력양성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중략) 전공생이나 일반인들, 컬렉터들도 듣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저변적인 요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주 소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 나가고 양성하거나 전문가들을 좀 계속 교육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참여자 R)
- "시장의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관점에서 미술품을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가치평가된 결과물을 누구나 공유하고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위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는데 그 전반적인 부분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이 바로 시가감정의 행위다. 시가감정의 객관적인 접근 방법론 이 부분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성공적인 설득력을 얻는가? 이것이 결국은 미술품이 형성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도 정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여자 J)

○ 전문영역으로서의 시가감정의 중요성

- "[진위감정은] 연구의 영역인 거고 [시가]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미술시장하고는 좀 독립적인 (중략) 파생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략) 법률적이라든지, 보험, 금융에서의 니즈가 훨씬 큼니다. (중략) 이 미술품이 미술계에서의 쓰임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쓰임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혹은 금융회사에서의 어떤 금융으로서의 쓰임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감정평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미술계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술품을 다루기 때문에 미술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서 이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한 상황이지요." (참여자 M)
- "심지어 [감정평가사들이] 작성한 보고서조차 결국 저나 미술품 감정 및 미술품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면서도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심지어 선점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참여자 P)
- "기존의 기관에서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을 진행할 경우, 두 서비스의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국내 고객들은 아직 이러한 이중적인 비용 구조에 대한 인식이 해외 고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별 서비스라는 개념보다는,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결과값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 O)
- "시가감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시가감정의 목적에 따라 가격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중략) 우리 지금 감정하는 사람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해. [미술계 내의 사람들이] (중략) 가격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몰라, 자기가 파는 가격. (중략)목적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을 맨날 해도 틀려, 몰라. (중략)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면 아주 싼 가격에도 거래할 수 있고, (중략)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을 때는 [원래 가격의] 120%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이해를 못 해." (참여자 F)
- "[시가감정과 진위감정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이익 충돌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예술가 재단이 진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작품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인해 미국에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작품의 진품 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여자 D)
- "진위감정가가 별도의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주로 학문적인 영역이고, 그런데 시가감정 영역은 그래도 일종의 약간 직업화될 부분이 있죠. (중략) [현재는] 미술시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안목감정이나 자료를 통해서 진위도 판단하시고 가격도 현황이나 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또 자료조사 한 걸 바탕으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략) 앞으로 시가감정이라는 수요가 많아지고 전문적인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시가감정 자체 업무의 성격에 좀 더 가까운 형태의 프로세스나 전문성이 더 필요하

- 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시가감정] 의견들이 어떻게 도출됐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의뢰자가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R)
- "저희가 분리된 진위감정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기관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진위감정을 진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소장 이력(provenance)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기록이 엉망인 경우가 많고, 미술시장의 역사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중략)서양에서는 진위감정이 주로 미술 작가나 전문가 개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집단 회의 체제로 감정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중략) 우리 근대미술의 어떤 지점 즉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록과 그 다음에 당시의 그림에 대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위 말하는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거기 근대 미술사에서 딱히 이거를 증빙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말해줄 만한 학자도 없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또 우리 한국 미술이 앞으로 미술이라는게 예술적 가치도 있지만 재화적 가치가 있는데 그걸 뒷받침해 주려면 어떠한 카테고리의 작품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미래의 모든 미술품들에 적용되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참여자 P)

2) 현행 감정제도의 문제점

○ 미술품 시가감정사의 법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

- "내가 [그림을] 돈 주고 사고파는데 우리가 [미술품 매매에서] 손해 안 나려고 그러면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냄새도 알고 붓의 터치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격증이 없는 거라. 이거, 이거 중요해요. 맞아요. (중략) 우리들은 지금 자격증 못 따. 시험을 보라고 그러면 될 사람이 누가 있어?" (참여자 G)
- "하나는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법률적으로 감정평가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감정평가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모두가 다 유사감정 행위다. 법률이 보장하는 유일한 자격은 감정평가사들에게만 있다.' (중략) 그렇다면 법률이 생기기 전부터 행해왔던 이 업무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만들어져야, 잘하든 못하든, 그리고 못했을 때 책임을 묻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중략) 40년 동안 해왔는데 이 법이 한 10년쯤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해왔는데 나는 그러면 30년 동안 해왔던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10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에 어떤 예외 조항을 둘 건지 이 자들에게 법적인 부여를 지금은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에게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앞으로 하려는 사람은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참여자 M)

- "지금은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전문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감정평가사들은] 메인이 부동산이고 그 법률에서 허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대요. 여기 '등'에 해당하는 수백만 가지 중의 하나인 거예요, 미술품이. 그렇다면 거기에 예외 조항을 두든지, (중략) 아니면 미술과 관련된 지금 진흥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진흥법 안에서 동일하게 그냥 이 법과는 상관없이 [미술진흥법도] 법률이니깐 그냥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감정평가사도] 부동산 법에서 그냥 부여해 버린 권한이거든요. (중략) 그렇다면 미술계도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가운데 그 법률 통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⁴⁹⁾"(참여자 M)
- "이게 뭔가 제도화된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진위감정이든 시가감정이든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기관이나 기구에서 그룹화해서 평가하시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하나의 국내 문화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런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법제화되거나 행정적으로 제도화했을 때 감정 활동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O)
- "법 해석이 그러하듯이, 판사가 판단할 때 법률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상 참작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는 결국 판사의 역량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문성을 단기간에 양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P)

○ 시가감정 제도 및 체계의 명확한 확립 필요

- "규모와 체계가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산정에 대한 투명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중략) 인력들의 전문성, 그리고 [감정]업 자체의 체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잘 확립하거나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중략) 소비자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로, 시장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자 R)
- "정책, 기준 및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전문적으로 준비된 감정평가사 또는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의, 용어집 및 사례연구가 포함된 참조 매뉴얼이 한국의 미술, 고미술 및 수집품 시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자 D)

○ 미술품 시가감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 "[국내의 일부 감정 사례를 보면] 여전히 협회 명의로 [감정평가서가] 나가고 최종 가격 혹은 진위여부만 제시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의뢰한 쪽에서도 '어디 공신력이 있는 데서 이거라더라' 라고 해주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그냥 중요할 수도 믿고 충분히 만족할 수는

49) 법적 검토와 무관하게 인터뷰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임을 명시함.

-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 제도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과연 적절한 신뢰성 있는 가격인지, 공평한지, 신뢰성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성이] 필요해지는 여러 맥락이 있는 거죠. 미술품 유통업이나 금융업이나 혹은 세금, 국세청이나 법원이나. (중략)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데 미국같이 완전히 하나의 리포트로, [또는] 유럽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가격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기본 자료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의뢰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이제 일종의 또 데이터가 되고 기록화가 되면, 1차적으로는 그런 노력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참여자 R)
- "예를 들어서 [한 작가의] 젊을 때 그림이랑 죽기 직전의 그림이 있어요. [둘 중 한쪽이] 더 좋다 쳐요. 그러면 그걸 가치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는 것을 '왜 그렇다. 어떻게 그렇다'. 하다못해 최근에 거래됐던 비슷한 거래사례 2~3개라도 갖고 와서 [가치평가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한 0.7 정도 차이 나더라. 한 7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걸로 봐야 한다. 이 정도 설명은 가능해야 해." (참여자 S)
- "부동산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미술품 시가감정] 방법론은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론으로 해요. (중략) 내용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디테일하게 반영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빠졌을 수는 있어도 방법론 자체를 놓고 보면 (중략)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방법론 자체는 [부동산]과 같죠." (참여자 M)

○ 미술품 시가감정사와 기관의 신뢰도 향상이 필요

- "경매사나 갤러리 대표들이 감정을 맡을 때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여러 가지 복잡한 이익 관계들이 얽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매사나 갤러리에서는 자신들이 맡은 작품에 대한 감정을 할 때 불가피하게 이해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참여자 D)
- "미술품 감정사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제3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 속해야 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자 N)
- "[그래서] 시가감정을 하는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그걸 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성이 더 뒷받침 된다면 미술품이 경제적인 재화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략)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어쨌든 최소한 감정회사에 어떤 감정인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감정하는 전문분야가 뭔지, 감정 전문가의 전문분야가 뭔지 [등을] 주로 [감정] 회사에서 공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략) 전문가를 공개하는 것도 일단은 의뢰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고." (참여자 R)
- "그 전문인력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 그리고 시가감정을 진행한다고 함에 있어서 그 제도적인 시스템 제도적인 구조에 대한 또 사회적인 공론화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굉장히 충분히 기반을 다져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 J)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미술품 시가감정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우리는 스스로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해서 기본기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알 수 있는데 지금 화랑들은 [기획만 하고 그림을 사고 파는 갤러리가 드물어서] 자기 작가 외에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경매에서 그림을 주로 사니까, 당연히 맞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틀렸나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지금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다.”(참여자 F)
-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중략) [과거에]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고, (중략) [개인 재산을 투입해서라도] 내가 댄 건 몰라도 감정요거는 자료를 만들고 정착을 시키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여자 G)
-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장 이력(provenance)이 없으니까 그 진위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감정사[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진위인가 아닌가 먼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진위감정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장 이력(provenance)이 (중략) 만들어져가고 있는 세상이고, 밝혀져야만 그림이 팔리니까 이거라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참여자 F)
- “시가감정을 하려면 일단은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의뢰하는 물건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개 데이터가 한국에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해외 [가격]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경매 작품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자료도 해외 유료 사이트에서는 정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래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중략) 정보 투명성이나 정보 체계화[가] 아직은 매우 미발달 상태이죠. (중략) 가격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나 투명성 이런 부분들 이게 1차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참여자 R)
- “요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에비던스 베이스(evidence-based)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근거나 자료가 기반이 되어 하는데,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적다보니까, 소개도 안 되고 ” (참여자 R)
- “[시가감정에 참여할 때] 얼마큼 책임감이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몇 번 특별 감정에 참여를 해봤지만, 방에 열 명 [남짓] 모여서 의견을 내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공동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중략) 사실은 여러 명에서 [하더라도] (중략) 한 사람이 다수 의견을 가져가는 거는 그런게 있는데,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중략)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평생 김환기를 보고 [감정을] 해왔던 사람하고, 어쩌다가 전시장에서 봤던 사람하고 같은 표를 주면 안 돼. 근데 [전문분야가 아닌 감정가가 의뢰물을] 가져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표가 일 대 일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볼 때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거는 진짜인데 다른 사람들이 동의가 안되는거예요.” (참여자 Q)

○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자격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 “근데 USPAP은 미술품에 대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술품만을 보자고 그 학예사 자격시험 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략) 일단 [학예사 자격증처럼] 자격증 제도의 폐해도 많이 보잖아요.” (참여자 R)
- “학예사 제도. 그게 자격증이잖아요. 그 자격증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략) 이게 기본적으로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것 같아요. (중략) [학예사 자격증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줄 때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더라거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되는 거지, 직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갤러리에서 전시를 기획하거나 어떤 딜러로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직무와는 연관성이 없고 (중략) 뭔가 조금은 이렇게 현장에서 섞이지 않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도 학예사 제도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자각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M)
- “저는 결국은 자격증은 어떻게 누가 줄 것인지 하는 문제. 국가자격증이 가능할까?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행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미국 AAA 같은 [감정가] 협회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에게 일임을 하는 거죠. (중략) 제대로 된 탄탄한 협회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협회를 만들어놓고 협회를 컨트롤하기보다는 믿고 협회에서 감정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략) [국가]자격증을 부여해서 자격증을 줬어. 그런데 감정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면] 이걸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미술품은 부동산과는 다르게 [진위에 따라] 제로(0)나 백(100)이나 문제이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람을 사람의 능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I)

○ 단기적·단편적 지원의 한계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 미국에 가서 반쯤 알아듣고 왔는데, 이제 [미국에서의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실무에서도 계속 논문도 보고 공부를 하고 현장에 부딪히면 조금 깊이가 들어가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실정이다] (중략) [교육을] 듣고 나서 70~80%는 하는데 이걸 계속 적용을 하고 [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참여자 F)
- “차세대 감정가 육성. 저는 오히려 그냥 이게 너무 이렇게 규모나 예산 이런 문제보다 오히려 [초기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소규모의] 차세대 감정가 육성이 훨씬 더 진정성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발성을 갖고 질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지 이게 뭔가 규모의 경제를 잠깐만 따지다 보면

실효성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새로운 직업, 하나의 정책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갑자기 많은 예산과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영역 이거든요. [시가감정은] 되게 중요한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그냥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략) 단기간 투입해가지고 [단기간의 지원이] 가져오는 기능도 분명히 좋지만,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죠." (참여자 R)

3)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에 대한 제언

○ 실용적 교육과정 운영 및 실무 기반 전문강사진의 필요성

- "이게 대학에서만 [감정] 코스를 듣는다고 해서 현업에서 받아주거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학이랑 연계해서 했거나 대학에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던 [곳들은] 힘을 잃거나 [과정 일부는 현장에] 위임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도하게 너무 대학 중심으로 가는 것에 기대하는 것도 (중략) 해답은 아닐 수 있다." (참여자 R)
- "[교육 시스템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술시장의 복잡한 요소를 이해하는 교수진, 즉 학계나 현장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중략) 교육적 관점에서 강의, 실습, 현장방문 (박물관, 갤러리, 작가 스튜디오, 작품복원 스튜디오, 경매 프리뷰 등), 관련 전문가와의 토론, 그룹참여 활동 등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 방법과 방법론 및 분석을 논의하고, 모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여자 D)

○ 실습과 현장경험의 중요성

- "그림을 그려본 사람은 테라핀과 린시드 오일을 얼마만큼 섞느냐에 따라 붓이 어떻게 [캔버스를 지나]갔다 하는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틀려요. 작품이 오면 10년, 20년 이런 차이가 나면 (중략) 물감이 산화된 냄새가 이 작가는 이렇게 나고, [저] 작가는 저렇다는게 짐작이 가요. (중략) [수장고에] 가서 그림을 보면 이게 몇 년도에 어떻다라는게 보인다니까. 그 경험을 갖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어느 레벨부터는 참관을 시켜서 [중략]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구분이 갈 정도로 됐을 때 감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여자 G)
-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감정가로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경험이 많은 감정가에게 멘토링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참여자 A)

○ 수강대상의 상향 설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 심화과정 제안

- "[교육과정은] 1년짜리는 안 돼.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1년에서 되면 나도 누구라도 다 하지. (중략) 전문가 양성 가르쳐야 해." (참여자 H)
- "미국 AAA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예요.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얻으려고 나오는 직군이 아닌 거예요." (참여자 M)
- "그리고 [기존에 미술계 경력자들이] 제일 중요한 건 네트워킹이에요. (중략) 그 사람들에게 아주 간단한 직무 교육만 시키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참여자 M)
- "시가감정은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5학기는 가야 한다고 봐요. (중략) 시가감정은 이제 막 졸업한 사람들이나 초년생 준비가 아니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었던 사람들의 재교육 체계적인 재교육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장 논리까지 경제적인 관점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해서 제대로 된 소위 아카데미를 학위 수요 개념의 아카데미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J)
- "교육 기간은 좀 장기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최소 몇 년 정도 최소 2년. 경매회사하고 조인해야 하는데 경매회사 측에서는 어떤 작품이 들어와 있는 걸 그렇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 (참여자 N)

○ 교육생의 페르소나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 "본인이 그게 베이스가 되는 [미술] 교육의 경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미술 이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신 분들은 감정평가에 대한 실습이든 이론이든 실무든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이게 모듈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 교육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미술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석사 이상을 갖고 시장에서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중략)" (참여자 R)
- "미술사, 근현대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중략) 쓸데없이 미술사를 또 한 번 하는 것이 뭘 상관이야. 차라리 아카데미 식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그 커리큘럼 다양한 거 있잖아요. 현장, 보존 그리고 실제로 저기 먼저 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 이제 옥션 레코드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엑셀 자료를 사용하는지." (참여자 Q)

4)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과정의 세부 교과목에 대한 제언

○ 실용적·현장 중심적 교과목 설계 제언

- 미술품 시가감정 실무
 -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러기보다는] 미술을 이렇게 좀 표기해야 될 것 같아요.

미술 혹은 미술품 뭘 하나를 해야 정확한 말이 될 것 같아. 미술과 미술품은 전혀 또 다른 맥락이니까 (중략) 리서치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보고서 [작성 능력] 등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춘 게 미술시장 실무능력에서 필요하죠. 이게 딜러로서의 실무능력인지 아니면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미술시장의 실무능력인지 뭐 혹은 미술시장에서 작품에 대한 작품 중개에서 소개하는 방식이라든지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참여자 J)

-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가 중심의 작가론 수업

- "제일 필요한 건 미술사예요. (중략) 미술사는 통사론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필요는 없거든요. 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면 충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작가론'이에요. (중략) 우리는 작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가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략) 시장에서 거래되는 작가 5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아마 (중략)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의 미술사 그러니까 [한국미술의 경우에는] 근대미술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중략) 미술사에서 다루는 작가와 시장에서 다루는 작가가 많이 겹쳐지지 않아요.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가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작가들, 그리고 컨템퍼러리 작가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M)

- 작품의 보존상태 분석

-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한 복원 상태인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액자 상태 같은 거 중요하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는 거고." (참여자 Q)

- 작품 분석 능력 및 방법

- "감정 역량이라든지 꼭 해야 할 부분들, (중략) 기본적으로 작품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작품 분석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 분석 능력이 뭐냐, 작품의 형상 색감이나 기법, 바탕 재료, 채색 재료, 그리고 서명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보고 이것을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계속 노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참여자 K)

○ 전문성(specialty)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과목 제안

- "감정을 위해 전문화된 분야도 나눠져야 합니다. AAA의 경우 구체적인 감정 분야를 명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지원 신청 시 해당 분야에 대한 3개의 감정평가서 제출이 필수로, 이를 통해 해당 지식수준과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인상파, 현대미술, 전후 현대미술, 미국미술 등입니다. 각 분야에 속해있는 예술작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작품의 시장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야 하며, 특정 예술가의 시장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참여자 C)

○ 수료생에 대한 재교육

- "실습이나 실무는 이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고 양성이라고 할 때[는] (중략) 재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춰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큐레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못 하잖아요, 안 하고." (참여자 R)

5) 교육과정과 현장의 연계방안

○ 교육과정 중 실물 미술품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미술품을 직접 다루면서 그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험이 없으면 이론적으로만 배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참여자 G)
- "학교 특강이면 프리즈나 키아프 [같은 국제아트페어가 있을 때], 작품을 보면서 해야지. [음식 평론가들이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평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 먹어본 사람이 보지도 않고 책 보고 쓴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참여자 F)
- "이론교육과 실무경험을 병행하여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고미술품 감정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다양한 나무의 종류를 배우고 가구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배우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직접 살펴보는 거죠. (중략) 서랍을 직접 열어보고, 서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봅니다. [이 서랍이] 영국에서 온 것인지, 프랑스에서 온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온 것인지도 알아보죠. 그래서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구나 고미술을 판매하는 곳에 직접 가는거죠." (참여자 A)
- "많이 봐야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면 안 돼요. (중략) 한 점 한 점에 나름대로 자기가 기록을 [해야] (중략) 외워지기도 하고 기록으로 다시 보기도 돼요. 여기에 확실하게 그러면은 메모리가 되기도 하고 외워지기도 하고 기록으로 다시 보기도 하고 돼요. (중략) [좋은 작가의 좋은 전시가 있는] 좋은 갤러리를 가야 됩니다." (참여자 G)
- "현장에서의 교육과 실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AAA 프로그램의 경우에 실무경험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종합감정연구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중략)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실습 및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예술품을 살펴봄, 토론하는 수업을 제공[합니다] (중략)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논의하며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여자 C)

○ 연수생 과정 등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마련

-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미술품을 직접 다루면서 그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험이 없으면 이론적으로만 배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참여자 G)

- "미술품 감정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죠." (참여자 B)
- "실습이 6개월이다 그러면 2개월은 어디, 2개월 다른 곳, 이렇다든가 3개월 순번제로 돌아가면 2명씩 3명씩 돌아가면서 실습하면 부담 없거든. 그런 것도 방법이죠. 어차피 [강사가] ○○협회 소속들이니까 그분들이 어떤 협조를 구해서 그런 데서 일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화랑에서 일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참여자 Q)
- "그러면 이상적인 교육과정은 제가 보기에 저는 표본을 많이 보고 많이 반복하는 과정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생각을 잘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작가가 비슷하게 거래되고 왜 비슷하게 거래되고 그 작가에 비싸게 거래되는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작품이 어떤 되게 세분화해서 데이터화 할 수 있어야 하죠" (참여자 N)

○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 "(본인이 받은 시가감정 교육을 소개하며) 실제로 매주 감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유효했던 것 같아요. 매주 감정을 하면 매주 정말 작품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략) 감정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늘 자료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스스로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늘 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 현장에서] 결과를 받으니까, '이게 나랑은 또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면 그냥 바로 물어보는 거[에요]. '이거 이런 부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저도 무언가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그 의사결정의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을 테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참여자 M)
- "교육과정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 전문가들과의 피드백을 통해 그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실무에서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참여자 H)
- "실질적으로 세미나나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 대학원,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업에 대해 논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없다면, 결국 일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분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만남과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O)
-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블루칩 작가분을 연구를 진위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혹은 진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축적한 현장 인력들이 생존해 계실 때 그분들에 대한 평가 노하우를 흡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참여자 J)

6)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제언

○ **미술품 시가감정 관련 통합 매뉴얼 또는 가이드 제시 마련**

- "정확한 정책과 기준이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 시가감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문가들의 경험이나 용어집,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N)

○ **교육과정과 현장을 연계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인 지원 필요**

-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해요. 국가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인턴 프로그램이나 심화과정 등을 통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여자 L)
- "차라리 [시가감정교육의] 인턴으로 실습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고], 학예사처럼 취직과도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든 어디든 간에 [일자리와 연계가 되어야] 폭이 넓어지고, 그럼으로써 가격도 [데이터화를 통해] 객관화 될 수 있다." (참여자 F)

○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의 비전과 목표를 염두에 둔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

-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자 D)
- "시장 규모를 고려해서 대규모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기보다는 [소수의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분석을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감정가의 수요를 예측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참여자 M)
-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발성을 갖고 질적으로 하는 게 훨씬 좋지 이게 뭔가 규모의 경제를 잠깐만 따지다 보면 실효성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의 새로운 직업, 하나의 정책 영역, 이렇게 해서 여기 갑자기 많은 예산과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시가감정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그냥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략) 단기간 투입해서 [단기간의 지원이] 가져오는 기능도 분명히 좋지만 그것 만으로 되지는 않죠." (참여자 R)
- "진짜 필요한 전문가를 뽑아서 그 전문가에게 계속 심도 있는 교육이 심도있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전문감정가가 나오는거지, 사실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건데 특수한 사람만 세금 혜택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략)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이고 전문가는 결국 국가를 위해서 일반인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기 때문에 (중략) 특수한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지 또 전문가가 나오는 거고요." (참여자 I)

- “약간 우려되거나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은] 미술진흥법으로 인해서 [시가감정 등이] 막 업(業)이 되고 제도화되고 이러니까 많은 유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아트딜러 자격증, 무슨 감정 자격증, 그런 거 하는 업체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중략) [한 군데에서만 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과정이나 직무에 대한 로직 같은 거를 좀 그래도 체계적으로 도출을 해보자라는거고, 문화예술 교육 강사 이런 거는 대학에서 지정해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잖아요. (중략) 정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참여자 R)
- “미국AAA에 보내봐야 아무 필요 없다.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를 양성한다라는 정확한 취지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해야 해요. 그 목적에 맞게 [가야합니다]. 전문가를 키우는게 목적이라면 경력자를 뽑아서 경력자가 진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경력자로서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야 합니다. (중략) 현재 시가감정 진위감정 하고 있는 [분들이] 60대 아래가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2,30년 후에 어떻게 할건데요? (중략) 그러니까 차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같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참여자 I)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모델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연구의뢰로 한국화랑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모델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모든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연구가 추후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한국화랑협회

책임연구원: 기혜경 연구교수(홍익대)

Q1. 응답자 정보

소속기관명		성별	①남성 ②여성
성명		직책/직급	
전화		email	
분야1	① 문화예술 분야 ②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분야 ③ 기타 분야 ()		
분야2	① 현장 종사자 ② 교수/연구자 ③ 공공기관 종사자 ④ 기타 ()		
관련 분야 경력	① 2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⑤ 15~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연령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국적	① 한국 ② 그 외 국가 (국가명:)		

※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본 연구는 한국의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시가감정 직무역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길잡이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다음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역량 능력수준 체계의 적절성

문1. 연구진은 미술품 시가감정의 직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자 합니다. 적절하게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술품 시가감정의 직무는 의뢰받은 “감정대상미술품에 대한 감정 업무범위 결정,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대상미술품의 종합분석과 가격정보 분석을 토대로 최종평가액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능력”으로 정의함	적절성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			⑤ 매우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있으신 경우)					

문2.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의 능력단위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계의 순서와 구분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단위명	적절성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			⑤ 매우 적절하다
1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	①	②	③	④	⑤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①	②	③	④	⑤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①	②	③	④	⑤
4	가격정보 분석 및 가격결정	①	②	③	④	⑤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①	②	③	④	⑤
6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문3. 위의 항목에서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4. 미술품 시가감정 능력단위 정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무에 대한 각 능력단위의 정의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단위 및 정의	적절성			수정 보완 의견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	⑤ 매우 적절하다			
1.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가능여부 및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 한 능력	①	②	③	④	⑤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조사 현장에서 미술품의 물적동일성 및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3. 대상 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 일반요인, 시장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가격정보 분석 및 가격 결정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적합한 가치접근법을 적용하 여 수집된 가격자료의 신뢰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서 형식 검토를 통해 명확하고 일관성있게 산출근거 와 결정의견을 작성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6.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제공하고 원본 및 관련 서 류를 관리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Part 2

시가감정 직무역량 능력수준 하위 능력단위 요소의 타당성

문5. 연구진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능력단위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연구진이 설정한 하위 능력단위요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제안 부탁드립니다.

능력단위명	하위 능력단위요소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① 전혀 타당하 지 않다	③ 보통	⑤ 매우 타당하 다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①	②	③	④	⑤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①	②	③	④	⑤	
	감정평가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①	②	③	④	⑤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①	②	③	④	⑤	
	관련 자료 수집	①	②	③	④	⑤	
대상미술품 종합 분석	대상작품의 개별요인 분석	①	②	③	④	⑤	
	대상작품의 일반요인 분석	①	②	③	④	⑤	
	시장요인 분석	①	②	③	④	⑤	
가격정보 분석 및 가격결정	가격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①	②	③	④	⑤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①	②	③	④	⑤	
	최종평가액 결정	①	②	③	④	⑤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①	②	③	④	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①	②	③	④	⑤	
평가서제공 및 사후관리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기타의견(있으신 경우)

문6. 연구진은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의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수행준거를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연구진이 설정한 수행준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감정 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					
능력단위 요소	하위 능력단위요소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 지 않다	③ 보통	⑤ 매우 타당하 다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에 대한 이해 · 감정평가이론 · 미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 필요사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경제적 필요사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조사태도 · 이해상충방지를 비롯한 감정평가의 윤리성 	①	②	③ ④ ⑤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가격체계에 대한 이해 · 미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 감정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필요사항 	①	②	③ ④ ⑤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경제적 필요사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조사태도 · 이해상충방지를 비롯한 감정평가의 윤리성 	①	②	③ ④ ⑤
감정평가 계획 수립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 필요사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경제적 필요사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업무 수행능력 	①	②	③ ④ ⑤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능력 · 평가 대상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 조사기간,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사계획수립 능력 ·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술 	①	②	③ ④ ⑤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조사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①	②	③ ④ ⑤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능력단위 요소	하위 능력단위요소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 지 않다	③ 보통	⑤매우 타당하 다
미술품 물적동일 성 확인	지식	· 미술품에 관한 전문지식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기술	·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 · 대상미술품의 물적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대상미술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의뢰서류와 비교검토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 객관적인 조사 태도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① ② ③ ④ ⑤		
대상미술 품 상태 확인	지식	· 대상미술품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 작품 보존·관리에 관한 지식 · 조사대상의 가치 및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전문지식	① ② ③ ④ ⑤		
	기술	· 작품에 대한 감식안 · 조사 목적·내용에 부합하는 분석능력 · 대상미술품의 보존·관리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조사활동 및 과학적 분석을 위한 각종 기기 조작 능력 · 미술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 객관적인 조사 태도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원만한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⑤		
관련 자료 수집	지식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시장 및 현황에 대한 전문지식	① ② ③ ④ ⑤		
	기술	· 개별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소장 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적절한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필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미술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 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원만한 대인관계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① ② ③ ④ ⑤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능력단위 요소	하위 능력단위요소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 지 않다	③ 보통	⑤매우 타당하 다		
대상미술 품의 개별요인 분석	지식	· 미술사적 전문지식 · 미술재료 및 기법, 장르적 특성에 대한 지식 · 감정대상 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①	②	③	④	⑤
	기술	·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 · 대상미술품의 보존·관리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미술품의 특성 파악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소장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대상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 태도 · 논리적인 태도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①	②	③	④	⑤
대상미술 품의 일반요인 분석	지식	· 미술사적 전문지식 · 감정대상 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대상 미술품의 화풍, 경향, 사조에 대한 전문지식	①	②	③	④	⑤
	기술	· 대상 미술품의 일반적 요인 분석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미술품의 특성 파악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소장이력, 카탈로그 레조네 등) · 대상 미술품의 사회, 문화적, 역사적 의미에 대한 분석 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①	②	③	④	⑤
시장요인 분석	지식	· 미술시장과 미술시장의 작동방식에 대한 전문지식 · 금융 및 경제적 지식 ·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기술	· 미술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분석 능력 · 가격형성요소 분석 능력 ·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분석 능력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 관련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세밀하고 치밀한 조사 및 분석태도	①	②	③	④	⑤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

4. 가격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					
능력단위 요소	하위 능력단위요소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 지 않다	③ 보통	⑤매우 타당하 다
가격정보 조사·분석 과 가치접근 법 적용	지식	· 대상미술품에 대한 전문지식 · 감정평가 목적 및 분류에 대한 지식 · 가치이론에 대한 지식 · 가격정보의 정리·가공 체계와 방법 · 가격정보 제공의 유형,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지식 · 감정평가의 실무기준 및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① ② ③ ④ ⑤		
	기술	· 감정평가 대상물에 대한 판별 능력 · 감정평가의 목적 및 분류에 대한 이해 능력 · 대상미술품의 가치형성 요인 분석 능력 · 거래사례 중 비교가능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사례와 대상미술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전산 자료 처리 능력 · 유형별 평가방식 적용에 대한 분석 능력 · 감정평가가격 체계화 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 관계 법령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균형잡힌 평가를 하는 자세	① ② ③ ④ ⑤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지식	· 감정평가 자료 수집방법 ·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기술	· 대상미술품 및 비교대상미술품 자료의 공신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사례 중 비교성이 있는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 거래사례와 대상미술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 가격자료의 신뢰성에 따른 감정평가방법을 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 · 가격자료 검토를 위한 분석력과 판단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조사 태도	① ② ③ ④ ⑤		
최종평가 액 결정	지식	· 감정평가이론 및 방법 ·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가액 산출된 감정평가액	① ② ③ ④ ⑤		
	기술	·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가치를 결정하고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산출된 감정평가액을 해석하는 능력 · 최종 감정평가액을 도출해 내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합리적인 판단력 · 윤리성	① ② ③ ④ ⑤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능력단위 요소	하위 능력단위요소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 지 않다	③ 보통	⑤매우 타당하 다		
감정평가 서 형식 검토 및 작성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감정 관련 법령 · 감정평가서 종류와 형식에 관한 지식 · 감정평가 업무량에 따른 일정 파악과 비용에 관한 지식 · 필수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전산처리 능력/인터넷 활용능력 	①	②	③	④	⑤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서 형식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난이도에 따른 감정평가서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전산정보 검색 및 처리능력 · 형식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태도 · 인터넷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습득하려는 태도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①	②	③	④	⑤
최종 평가 액 결정하 기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대상미술품 및 작가에 대한 전문지식 · 미술시장에 대한 전문지식 · 구체적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지식 	①	②	③	④	⑤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현장조사와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산출근거와 결정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 · 전산처리 능력/인터넷 활용능력 ·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태도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태도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①	②	③	④	⑤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

6.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능력단위 요소	하위 능력단위 요소		타당성	
			① 전혀 타당하 지 않다	③ 보통 ⑤매우 타당하 다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품 감정 관련 법령 · 감정평가서 종류와 형식에 관한 지식 · 감정평가 업무량에 따른 일정 파악과 비용에 관한 지식 · 필수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전산처리 능력/인터넷 활용능력 	① ② ③ ④ ⑤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평가서 형식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서 종류와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난이도에 따른 감정평가서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감정평가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서 형식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 전산정보 검색 및 처리능력 · 음성 및 이미지 보고서 작성 능력 · 음성 및 이미지 자료 검색 및 활용능력 	① ② ③ ④ ⑤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로서 원칙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판단하는 자세 · 객관적인 태도 · 인터넷 환경변화를 확인하고 습득하려는 태도 ·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① ② ③ ④ ⑤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

문7. 직무역량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해당교육과정의 운영을 “학교(대학/대학원)”에서 학과 과정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

문8. 직무역량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해당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수강생의 자격요건**에 대한 의견을 아래 항목 중 체크 및 작성해 주세요

① 고졸 이상

②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③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

④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

⑤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⑥ 기타:

의견에 대한 설명:

문9. 이 밖에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모델 연구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연구의뢰로 한국화랑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미술품 감정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모델 연구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을 통해 얻어진 모든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연구가 추후 미술품 감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에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한국화랑협회

책임연구원: 기혜경 교수(홍익대)

Q1. 응답자 정보

소속기관명		성별	①남성 ②여성
성명		직책/직급	
전화		e-mail	
분야1	① 문화예술 분야 ② 부동산·동산 감정평가 분야 ③ 기타 분야()		
분야2	① 현장 종사자 ② 교수/연구자 ③ 공공기관 종사자 ④ 기타 ()		
관련 분야 경력	① 2년 미만 ④ 10~15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⑤ 15~20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⑥ 20년 이상~
연령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국적	① 한국 ② 그 외 국가 (국가명:)		

※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본 연구는 한국의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시가감정 직무역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미술품 시가감정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길잡이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다음 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역량 체계 조정안의 적절성 검토

본 연구진은 1차 전문가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직무역량 체계의 능력단위, 하위능력단위 및 수행준거 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귀하평정>이라고 명시된 값은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귀하가 제시한 수치입니다. 아래 제시된 20인 전문가의 능력단위 <평균값>과 본인의 1차 델파이값을 참조하셔서, 직무역량 조정안의 적절성에 대한 최종 의견을 1~5의 값으로 "2차 평정값"란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정방법>

1-매우 부적합하다, 2-부적합하다, 3-그저 그렇다, 4-적합하다, 5-매우 적합하다

능력단위	1차 평정결과			2차 평정 최종의견
	평균	최빈값	귀하평정	
1. 감정의뢰 접수 및 업무범위 결정 ⇒ 1. 감정의뢰 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4.55	5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4.89	5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4.80	5		
4. 가격 정보 조사, 분석 및 가격결정 ⇒ 4. 가격 및 시장 정보 조사, 분석, 가격결정	4.75	5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4.70	5		
6.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 6. 평가서 제공	4.65	5		
1차 제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업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라(2명) 평가계획 수립으로 변경 · 4. 가격 외 시장 또는 경제적 맥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2명) · 6. 사후관리의 개념적 모호성(2명)이 지적되어 '능력단위' 수준에서는 '사후관리' 삭제 			
2차 의견 진술				

<평정방법>

1-매우 부적합하다, 2-부적합하다, 3-그저 그렇다, 4-적합하다, 5-매우 적합하다

능력단위명	하위 능력단위요소	1차 평정결과			2차 평정값
		평균	최빈값	귀하평정	
1. 감정의뢰 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감정평가 가능여부 확인	4.85	5		
	업무범위 및 기본사항 확정	4.55	5		
	감정평가계획 수립	4.75	5		
2. 대상미술품 실물조사 및 관련 자료 조사	미술품 물적동일성 확인	4.75	5		
	대상미술품 상태 확인	4.85	5		
	관련 자료 수집	4.75	5		
3. 대상미술품 및 자료에 대한 종합 분석	*대상미술품의 개별요인 분석 ⇒ 대상미술품의 특수요인 분석	4.85	5		
	대상미술품의 일반요인 분석	4.70	5		
	시장요인 분석	4.75	5		
4. 가격 및 시장 정보 조사, 분석, 가격결정	*가격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 가격 및 시장 정보 조사·분석과 가치접근법 적용	4.75	5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및 시장상황 최종 검토	4.80	5		
	최종평가액 결정	4.80	5		
5. 감정평가서 작성 및 검토	감정평가서 형식 검토 및 작성	4.80	5		
	감정평가액 산출근거·결정의견 작성	4.85	5		
6. 평가서 제공	평가서 제공 및 사후관리	4.80	5		
1차 제시 의견	• 3*, 개별요인보다 특수성이 적합하다는 의견(1명) • 4*, 능력단위명 변경에 따른 수정				
2차 의견 진술					

Part 2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역량단위의 적절성 검토 및 중요도 평가

본 연구진은 1차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행준거(지식, 기술, 태도)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역량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요소별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 상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비교평가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역량의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의 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각 역량단위의 정의를 보시고 그 적절성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구분	세부내용 정의	적절성				
		① 전혀 적절하 지 않다		③ 보통		⑤ 매우 적절하 다
미술 전문역량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역사적 맥락, 미술 장르 및 재료에 따른 속성과 상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미술시장 전문역량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시장 동향, 가치의 흐름, 경매 및 거래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다양한 감정평가기법과 이론을 숙지하고 미술품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감정품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법과 직업윤리 역량	법과 윤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며 법적 요구사항과 감정가의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커뮤니케이션 역량	사람들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①	②	③	④	⑤

수정 및 보완의견

Q2. 미술품 시가감정 직무역량의 수행준거를 기반으로 다섯가지의 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각 역량단위의 중요도를 상호평가하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구분	교과목 예시*
미술 전문역량	감정을 위한 한국미술사, 작가론 연구,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해 등
미술시장 전문역량	미술시장개론, 미술품 가치의 형성, ART&파이낸싱, 미술시장 연구 및 평가 등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작품의 조사방법론, 작품의 전시력, 소장력 자료 분석 등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감정평가의 이론과 방법론, 진위감정과 시가감정, 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 등
법과 직업윤리 역량	미술시장의 세금과 법률, 감정의 법과 윤리 문제, 미국감정평가실무기준 (USPAP)과 시가감정 요소 및 평가 등
커뮤니케이션 역량	미술품 감정평가보고서 작성, 세미나 및 워크숍-국내 감정 전문가 토론회 등

*한 교과목 내에도 다수의 역량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설문 이해도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문 항	항목(A)	평가척도																		항목(B)	
		A가 B보다 중요 ←									같 다	B가 A보다 중요 →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	미술 전문역량																		미술시장 전문역량		
2	미술 전문역량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3	미술 전문역량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4	미술 전문역량																		법과 직업윤리 역량		
5	미술 전문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6	미술시장 전문역량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7	미술시장 전문역량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8	미술시장 전문역량																		법과 직업윤리 역량		
9	미술시장 전문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10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11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법과 직업윤리 역량		
12	자료조사 및 수집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13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법과 직업윤리 역량		

14	논리적분석 및 평가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15	법과 직업윤리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록4. 교육과정별 교과목 중요도 확인 설문지



교육과정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심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교과목군에 대해서 1~5점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배점표>					
1점)	필요성이 매우 낮다	2점)	필요성이 낮다	3점)	필요하다
4점)	상당히 필요하다	5점)	매우 필요하다		

교과목군	교과목(예시)	초급	중급	고급	심화
미술일반	서양미술사(선택), 동양미술사(선택), 한국미술사(선택) / 한국근현대(필수)				
	작가론연구(필수) / 작가 스튜디오 방문(이동)				
	미술관 박물관, 제도기관, 비평, 큐레이터 등				
작품의 재료 / 작품관리	서양화, 한국화, 조각, 영상, 사진, 도자 등 장르별 특징, 작품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이해 (필수), 유화, 수채화, 파스텔, 먹, 채색				
	상태조사 방법론 (필수) / 미술작품 상태조사 실습(필수)				
	미술품 복원과 감정, 과학적 분석(필수)				
필드트립	전시회 방문, 작가 스튜디오 방문, 작품실견				
미술시장 일반	미술시장의 역사, 1차시장과 2차시장, 미술시장의 이해 (필수)				
	시장 구조와 가격형성, 미술시장의 역할과 가격 조건(필수)				
미술시장의 특성	변화하는 미술시장(필수)				
	금융시장에서 예술의 역할 변화(선택), 미술과 자본				
필드트립	아트페어 및 갤러리 현장 답사				
감정학 일반	감정개론(필수), 진위감정(필수), 시가감정(필수), 국내 외미술품시가감정현황(필수)				
	케이스별 연구: 손상미술품/공공미술품				
시가감정 방법론 및 평가실무	미술품 가격 감정의 목적과 가격 결정 요소(필수), 시가평가 기준 및 시가평가 방법 실무(필수)				
	거래사례비교법 실무, 케이스 스터디				
자료 조사, 데이터수집	작품의 조사방법론, 작품의 전시력, 소장력 미술품 자료 분석(필수)				
	미술품 가격지수, 시가감정 분석론, 방법론(필수)/감정의 조사방법론(필수)				
감정인의 윤리	감정인의 윤리 및 법적 책임(필수), 표준감정평가실무기준(USPAP)				
관련법과 제도	미술품 감정과 법(필수)/미술품 분쟁사례(선택)				
	미술품 평가에 적용되는 세법 학습(선택)				
전문가 네트워킹	전문가 토론회 등(필수)				

참고문헌

참고문헌

- 김문희, 정대영. 「중등특수교사의 직무역량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9:1 (2020): 223-243.
<https://doi.org/10.23944/Jusers.2020.03.59.1.11>
- 김보름. 「미술품 시가감정을 위한 수요개발과 전문가 양성방안」, 『미술품 시가감정 세미나집』, 2021.
- 김보름. 「문화산업에서 미술품 감정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 『문화산업연구』 22:1 (2022): 161-170.
- 김영주 의원 외 11인.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018867)」,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2월 27일.
- 김이순. 「미술품 감정 보고서 현황 분석 및 양식개발 연구 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6.
- 김혜인. 「미술 분야 생태환경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4.
- 매일경제. 「삼화저축銀, 미술품 담보대출」, 『매일경제』, 2009년 5월 14일.
<https://www.mk.co.kr/news/economy/4583965>
- 문화체육관광부. 「미술품 감정인력 양성사업 결과자료집」, 2017.
- 문화체육관광부. 「2023 미술시장조사(2022년도 기준)」, (2017).
- 박민정.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이론적 탐색」, 『교육과정연구』 27:3 (2009): 1-23. (2009).
- 박용호, 조대연, 배현경, 이해정. 「중등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2012): 299-320.
- 박정환. 「미술계 현안 담아낼 '국립미술진흥원' 만든다...미술진흥법 제정 추진」, 『뉴스1』, 2021년 6월 17일. <https://www.news1.kr/life-culture/performance-exhibition/4341112>
- 서정화. 「테사-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미술품 경제적 가치 산정 시스템 구축 MOU」, 『전자신문』, 2024년 2월 19일. <https://www.etnews.com/202402200000072>
- 세계일보. 「예보, 파산저축은행 보유 미술품 236점 경매」, 『세계일보』, 2015년 8월 20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150820001843>
- 소경희.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2009): 1-20.
- 양지연. 「국가별 미술 및 감정 정책제도 연구: 가치평가 전문인력양성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 양지연, 손차혜. 「미술품 시가감정 인력(art appraiser) 양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65: (2023): 41-72.
- 양현미. 「(가칭) 박물관 기증유물 감정평가센터 설립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210-212.
- 엄미리, 권정연. 「일반 교원의 진로지도 및 상담 직무영역에서의 핵심역량 도출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20:2 (2017): 125-160.
-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품 감정 기초자료 조사·연구 지원 / 해외 감정 프로그램 참가 및 리서치 지원: 공모 선정 결과」, 2015.
- 예술경영지원센터. 「미국감정가협회(AAA) 협력 프로그램 참가지원 공모 안내」, 2019.
- 유승목. 「[단독] 간송이 물꼬 트고 이견희가 심은 '미술품 물납제' 첫 사례 나왔다」, 『한국경제』, 2024년 10월 27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78956i>

- 유진선, 손영은, 주연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요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우선순위 분석」, 『보건사회연구』, 43:3 (2023): 138-155.
- 이경자. 「STO로 시작해 미술품 종합 금융회사로」, 삼성증권 열매컴퍼니 기업보고서. 2023년 2월 23일.
- 이경택. 「미술품 감정평가 제도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이동기. 「미술 관련 행정에서 미술품 평가제도 정책 연구」, 『국정관리연구』, 14:1 (2019): 83-103.
- 이상은, 서윤경, 이상훈, 윤희정, 임유진. 「경험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대학 신입교원 퍼소나 개발」, 『대학 교수-학습 연구』, 12:2 (2019): 69-105.
- 이재경. 「국내외 미술품감정 관련 법제 연구 및 미술품감정 인력의 윤리규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2015.
- 이종성. 『델파이방법』. 파주: 교육과학사. 2001.
- 이현경. 「Flipped Learning 수업을 위한 동영상 제작 및 활용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선진 화센터 이슈리포트』 2 (2017).
- 임성윤, 변승혁. 「해외 미술품 유통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살펴본 국내 미술품 진본성 확보방안」, 『중 재연구』 30:1 (2020): 199-215.
- 장재선.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미술품 조사분석사' 교육 5월부터」, 『문화일보』. 2022년 4월 13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13MW141918273281>
- 정향진, 최영렬.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구축과 활용」, 『직업과 인력개발』 19:5 (2016).
- 조성우. 「사회복지사 훈련프로그램의 내용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훈련에 대한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9:2 (2007): 115-142.
- 최공호, 고우리. 「문화재 감정 제도 연구-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2:3 (2013): 59-95.
- 최준희. 「국내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논문 분석: 2000년 이후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지』 24:1 (2021): 1-25.
- 최병식. 「한국 미술품감정 중장기 진흥 방안」. 문화관광부. 200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시각·공연예술분야 직군분석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직무 가이드 라인」. 2022.
- 한형종, 임철일, 한송인, 박진우. 「대학 역전학습 온-오프라인 연계 설계전략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 연구』 31:1 (2015): 1-38.
- 행정안전부. 「공무원 역량평가 매뉴얼」. 2008.
- 홍기훈. 「국내 미술금융 활성화 전략 및 활용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9a.
- 홍기훈.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요약」. 한국금융연구원. 2019b.
- 황윤자. 「페르소나 기법을 활용한 비대면 환경에서의 설계교과목 집중이수제 적용 방안」, 『실천공학 교육논문지』 15:2 (2023): 311-319.
- 황희경.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와...평판즈 작품 등 4점」, 『연합뉴스』. 2024년 10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71209000005?input=1195m>
-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Personal Property Appraiser Minimum Qualification Criteria*. 2018.
- Boyatzis, R. E.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Thousand Oaks, CA: Corwin, 1982.
- Campion, M. A., Fink, A. A., Ruggeberg, B. J., Carr, L., Phillips, G. M., & Odman, R. B.

- "Doing Competencies Well: Best Practices in Competency Modeling". *Personnel Psychology*, 64:1 (2011) : 225-262.
- Cheetham, G., & Chivers, G. "Towards a Holistic Mod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0:5 (1996): 20-30. <https://doi.org/10.1108/03090599610119692>
- Dubois, D. D. *Competency-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Change*. HRD Press, 1993.
- Neumann, W. "Educational Responses to the Concern for Proficiency". In: Granr. G. et al. (Eds.). *On Conference: A Critical Analysis of Competence-based Reforms in Higher Education*. 66-9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79.
- McClelland, D. C. "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973): 1-14.
- McClelland, D. C. "The Concept of Competence". In: N. Warren (Ed.), *Studies in Human Motivation*. 23-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Mirabile, R. J.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Competency Modeling". *Training & Development*, 51:8 (1997): 73-77.
- OECD.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Publishing, 2018.
- RICS, "RICS Requirements and Competencies Guide, Competency Requirements by Pathway: Personal Property/Arts and Antiques" (updated in 2022). 2018.
- Rychen, D. S., & Salganik, L. H. (Eds.).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 Huber, 2003.
- Sanchez, J. I., & Levine, E. L. "The Analysis of Work in the 20th and 21st Centuries". *Handbook of Industrial, Work & Organizational Psychology*, 1 (2001): 71-89.
- Saaty, T.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Planning, Priority Setting, Resource Allocation*. McGraw-Hill, 1980.
- SBS Biz. 「예보, 부실저축은행 보유 미술품 시민에 공개...경매도 진행」. 『SBS Biz』 2023년 12월 12일.
- Spencer, L. M., & Spencer, S. M.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Wiley, 1993.
- USPAP.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The Appraisal Foundation, 2024.
- White, R. W.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5 (1959): 297-333. <https://doi.org/10.1037/h0040934>

관련 웹사이트

고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s://www.hkoms.or.kr/appraisal/step>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law.go.kr/>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s://www.ncs.go.kr>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미술관·박물관학전공 홈페이지,

<https://gspace.kookmin.ac.kr/gspace/masterscourse/major/museum.do>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pqi.or.kr/inf/qul/infQulBasDetail.do>
 문화 도시 공주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jccc2021/22340536223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교과과정 홈페이지,
<https://art.snu.ac.kr/category/art-management-program/?catemenu=Courses&type=major>
 서울옥션 홈페이지, <https://www.seoulauktion.com/>
 열매컴퍼니 홈페이지, <https://www.yeolmaecompany.com/>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s://www.nhi.go.kr/>
 케이옥션 홈페이지, <https://www.k-auction.com/>
 통일감정평가법인 미술품감정평가 홈페이지, <http://www.tongilap.com/business/business10.asp>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홈페이지, <https://www.kapanet.or.kr/>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카이인스티튜드 홈페이지, <https://kaaiedu.com/>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홈페이지, <https://artprice.kr/ABOUTUS>
 한국 미술품 감정 연구 센터 홈페이지, <http://www.appraisalkr.com/index-8-2.html>
 한국화랑협회 홈페이지, <https://koreagalleries.or.kr/>
 미국 뉴욕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nyu.edu/>
 미국 페이스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pace.edu/>
 미국감정가협회(AAA) 홈페이지, <https://www.appraisersassociation.org/>
 미국 감정사연합 홈페이지, <https://www.appraisers.org/>
 미국 국제 감정사 협회(ISA) 홈페이지, <https://www.isa-appraisers.org/>
 미국 뉴욕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nyu.edu/>
 미국 페이스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pace.edu/>
 프랑스 경매회사 협의회 홈페이지, <https://conseilmaisonsdevente.fr/>
 프랑스 예술품 · 수집품전문감정조합 홈페이지, <https://www.sfep-experts.com/>
 프랑스 예술품 · 수집품전문감정사전국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experts-cnes.fr/>
 프랑스 전국감정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cne-experts.com/>
 프랑스 전국미술품전문감정사연맹 홈페이지, <https://www.fnepsa.fr/>
 프랑스 프랑스예술품감정가연합 홈페이지, <https://ufe-experts.fr/>
 프랑스 파리2대학 파리 팡테옹-아사스 대학교 홈페이지,
<https://cfp.assas-universite.fr/fr/formations/offre-de-formation/diplome-duniversite-expertise-oeuvres-dart-formation-continue>
 프랑스 CEJOA-CAPARIS 홈페이지, <https://cejoa-caparis.org/expertdejustice/>
 프랑스 Drouot 홈페이지, <http://www.drouotformation.com/>
 프랑스 Ecole du Louvre 홈페이지,
<https://www.ecoledulouvre.fr/fr/formations-etudiantes/deuxieme-cycle-master/master-2/>
 프랑스 LAMS 홈페이지,
<http://www.umd-lams.fr/droitettechniquesdelexpertisedesoeuvresdart-2014/>
 프랑스 l'Institut Art & Droit 홈페이지, <https://artdroit.org/>
 프랑스 예술고등교육학교 홈페이지, <https://www.iesa.fr/formation/mastere-pro-marche-art>

프랑스 ISEA 홈페이지, <https://www.iesa.fr/formation/consultant-specialiste-marche-art>
프랑스 ICART 홈페이지,
<https://www.icart.fr/formation-mediation-culturelle/mba/mba-spe-marche-art/paris/programme>
프랑스 법무부 Ministere de la Justice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uv.fr/justice-france/acteurs-justice/professionnels-du-droit/lexpert-judiciaire>
프랑스 République Française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158>
일본 도미감정평가기구 홈페이지, <https://toobi-tocfa.or.jp>
일본 미연감정 홈페이지, <https://bikenkantei.co.jp>
일본 송고회 홈페이지, https://syoukokai.jp/art_appraisal/
일본 아트평가보존협회 홈페이지, <https://www.ja2pa.or.jp>
일본 일본골동학원 홈페이지, <https://www.kottou-gakuin.com/>
대만 타이페이예술경제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www.taerc.org.tw/en/appraisal-standards/>
대만 대만화랑협회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taga-artchive.org/>
영국 왕립공인감정평가사협회(RICS) 홈페이지, <https://www.rics.org>.
영국 킹스턴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ingston.ac.uk/postgraduate/courses/art-business-ma/>
영국 소더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홈페이지, <https://www.sothebysinstitute.com/>
영국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홈페이지, <https://education.christies.com.cn/>

세미나 및 컨퍼런스

2020 미술품 감정 및 유통 기반 구축 컨퍼런스 KAMA
<https://www.youtube.com/watch?v=ELmWSZMzeyl>
2020 KAMA 컨퍼런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플랫폼과 데이터- 3부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성과 지속성>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

『미술품 시가감정 전문인력 양성 교육 모델 및 종장기 발전방안 연구』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연구기관: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인쇄일: 2024년 12월

발행일: 2024년 12월